국립국어원 2009-01-46

발간 등록 번호
11-1371028-000134-14

2009년

충남 지역어 조사 보고서

▣ 연구 책임자 : **한영목**

▣ 연구 보조원 : **박숙희 · 조규찬**

▣ 조 사 지 역 : **충청남도 서산군**

국 립 국 어 원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2009년도 충남 지역어 조사 및 전사’에 관하여 귀원과 체결한 연구 용역 계약에 의하여 최종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9년 12월 14일

연구 책임자 : **한 영 목**

<국문 초록>

2009년도 충남 지역어 조사 보고서

이 보고서에는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면에 거주하는 장석민 할아버지와 박종훈 할머니 부부의 구술 발화와 어휘, 음운, 문법 등에 관한 전사 자료를 실었다.

구술 발화는 4시간 정도의 분량을 선정하여 전사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제보자는 마을 들여다보기, 출생과 성장, 생업활동으로 논농사(모내기, 모매기, 물꼬 등)와 밭농사(보리 밀, 감자, 고구마, 콩, 마늘, 채소 등), 그리고 탈곡 방법과 생활용품 만들기, 소- 종류, 고르기, 기르기, 길들이기-, 머슴살이, 소작, 품앗이 등 마을 공동체 생활을 구술하였다.

보조 제보자는 결혼, 시집살이, 환갑잔치 등과 옷 만들기로 마름질, 바느질, 빨래와 염색, 다림질 등 의생활과 반찬 만들기, 채소요리, 김치 담그기 등 식생활에 관한 것을 구술하였다.

구술 발화의 전사는 문장 단위로 분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표준어로 대역하였다. 적당한 표준어가 없거나 지역어를 살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경우는 해당 지역어를 그대로 대역하였다.

조사 항목에 대응하는 지역어 어휘는 곡용 어미나 활용 어미가 연결된 경우는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하나의 표제어에 여러 개의 방언형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모두를 전사하였다.

음운 항목은 지역어의 어간과 어미가 통합된 음성형을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어미를 선택하여 조사하도록 제시한 항목은 '-고, -아/어서' 등 발음이 쉬운 어미를 선택하고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문법 항목의 전사는 질문지에 대응하는 지역어가 포함된 부분을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전사 표기는 발음 그대로 적었고, '외'가 '에'와 '애'로 발음될 때는 그대로 적었으나, 구분이 애매한 경우 '에'로 전사하였다. 장음은 ":", 인상적 장음은 "::" 등으로 표시하였으나, 이 지역어의 어말어미에 주로 실현되는 장음은 표시하지 않았다. 비모음은 해당하는 음절 다음에 "~" 표시를 하였다. 단어에서 [ㅎ]이 나타나는 경우 띄어쓰기로 실현 환경을 밝혔다.

주요어: 충남 지역어, 표준어, 구술 발화, 어휘, 음운, 문법, 전사, 표기

2009년
충남 지역어 조사 보고서

목 차

□ 제출문

1. 조사 과정 ····· 7

2. 전사 원칙 ····· 12

3. 전사 자료

제 1 편 구술 발화 ····· 17
제 2 편 어휘 ····· 153
제 3 편 음운 ····· 207
제 4 편 문법 ····· 240

4. 제출 자료(별첨)

1) 보고서 100부
2) 보존용 48,000hz, 전사파일용 16,000hz 파일 및 전사 trs 파일
3) 조사된 질문지
4) 지역어 조사 정보 파일
5) 제보자 조사표
6) 지역어 자료 활용 동의서

1. 조사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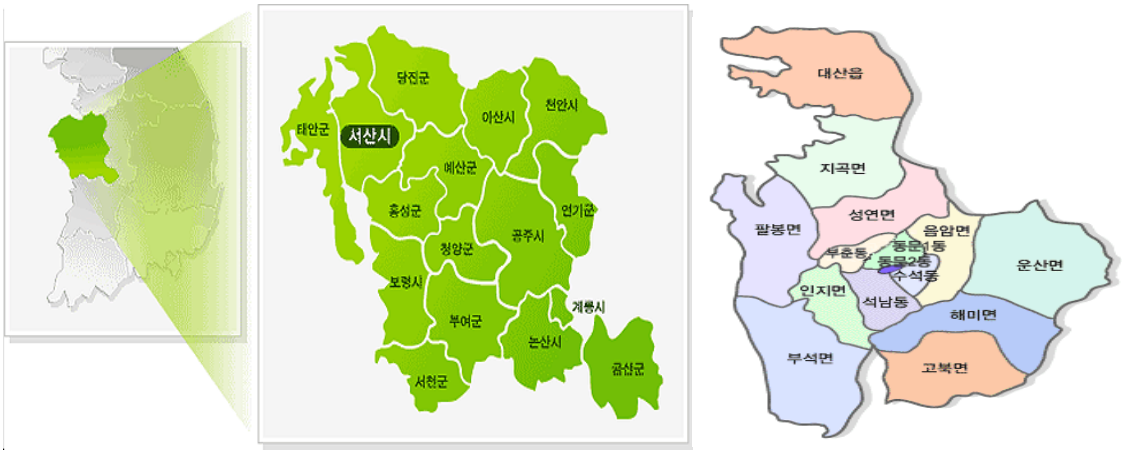
1.1 조사 지점 개관

2009년도 지역어 조사지로 선정된 충남 서산시 팔봉면은 한반도의 중앙 서부에 위치하고 있다.

충남 서산시는 태안 백화산의 마애삼존불상, 운산면 용현리의 서산마애삼존불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백제 조상미술의 선진지역으로서, 이것이 웅진 또는 사비에 전해졌고, 다시 신라에 전해졌으며, 일본에 건너가서는 아스까 시대의 조상미술에 제1차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서산시는 우리나라 서해안에 위치하므로 고려말과 조선초 시대에는 왜구의 침입을 자주 받았던 지역이며, 고려. 조선시대에는 삼남지방의 세곡을 서울로 운송하는 조운선의 중요한 위치였다. 문화적으로는 가야산 주위의 이른바 내포지방으로서, 충남에서 차령산맥 동남부의 지역과는 구별되는 하나의 문화권을 형성해 왔다. 그러나 근대교통에서 멀어서 그동안은 그다지 발전하지 못하는 지역으로 남아 있었으나 최근 대규모의 간척사업, 대산지구 임해공업지역 등 서해안 개발의 붐을 타고 급격한 발전을 경험하고 있으며, 서해안 고속도로 등이 개통되어 수도권 지역과의 연결이 매우 밀접하게 되었다.

이번 조사 지역인 충남 서산시 팔봉면 호리 2구는 주변에 가로리만이라는 갯벌이 위치하고 있으며, 산골에 위치하고 있는 산골마을이다. 이 마을은 집들이 서로 밀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마을의 이름인 호리(갈머리)는 호랑이라는 동물과 관련되어 있어 마을에서 농악 등 풍물을 잘 치지 않는 특징이 있다.



1.2 조사 기간

2009년 4월 18일 ~ 2009년 10월 11일

1.3 제보자

(1) 주제보자

이름 : 장
나이 : 1933.02.19.(76세, 실제 나이 78세)
거주지 :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면
직업 : 농업
경력 : 초등 3년 중퇴로 예전에 광산과 염전에서 일을 했고 지금은 농업을 함.
제보자 특기 사항 : 젊은 시절 충남 서산시 해미면에 있는 광산에서 5년 정도 일을 했었고, 충남 서산시 부석면에 있는 염전에서도 2년 정도 일을 하였다고 함. 군복무는 미 7사단에서 근무하다 부상으로 후송되어 대구병원에서 제대하기까지 약 11개월 정도 복무를 하였음. 현재는 농업을 하고 있음. 영리한 편이지만, 본색을 잘 드러내지 않는 성격으로 질문이나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 아님. 녹음 마이크를 옷에 부착하면, 조심성을 보여, 떼어 놓고 조사 녹음함.

(2) 보조제보자

이름 : 박
나이 : 1942.08.24.(67세, 실제 나이 73세)
거주지 :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면
직업 : 가사 및 농업.
보조제보자의 특기 사항 : 주제보자의 부인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현거주지에서 생활 함. 무학으로 주로 농업 위주의 일을 하였으며, 요즘은 갯벌에서 갯지렁이를 캐는 일을 하기도 함. 조사에서 남편의 눈치를 많이 봄.

1.4 조사자

(1) 이름 : 한영목(충남대학교 교수)/
박숙희(충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시간강사)/
조규찬(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재학)
(2) 조사 일시 : 2009.04.18 ~ 2009.10.11
(3) 조사 장소 : 제보자의 집
(4) 조사 일시 : 총 10일 조사

2009년 4월 18일 - 예비조사
2009년 5월 18일 - 구술 1~4, 어휘 1~5
2009년 5월 31일 - 구술 5~7, 어휘 6~10
2009년 6월 7일 - 구술 8, 어휘 11~13

2009년 6월 14일 - 구술 9~11, 어휘 14~18
2009년 6월 28일 - 구술 12~15, 어휘 19~22
2009년 7월 11일 - 구술 16~18, 어휘 23~25
2009년 7월 26일 - 구술 19~20, 음운 1~2, 문법 1~2
2009년 8월 2일 - 구술 21, 음운 3~4, 문법 3~4
2009년 10월 11일 - 보충조사: 구술 22, 음운 5~6, 문법 5

① 구술발화

녹음시간(전사량)	1차 전사 시간	2차 전사 시간	3차 전사 시간
구술 1 - 0:16:49(17분)	3시간	2시간	1시간
구술 2 - 1:03:05			
구술 3 - 0:29:09(29분)	5시간	4시간	3시간
구술 4 - 0:41:01			
구술 5 - 0:36:24(37분)	6시간	5시간	4시간
구술 6 - 0:42:25(43분)	7시간	6시간	5시간
구술 7 - 1:17:29			
구술 8 - 1:01:38(62분)	18시간	17시간	16시간
구술 9 - 1:07:04			
구술10 - 0:52:31(53분)	16시간	15시간	14시간
구술11 - 1:22:22			
구술12 - 1:02:09			
구술13 - 0:45:16			
구술14 - 0:31:25			
구술15 - 1:04:50			
구술16 - 1:22:27			
구술17 - 0:57:01			
구술18 - 1:05:06			
구술19 - 0:05:35			
구술20 - 1:01:52			
구술21 - 0:05:24			
구술22 - 0:14:48			

② 어휘

녹음시간	1차 전사 시간	2차 전사 시간	3차 전사 시간
어휘 1 - 0:31:39	6시간	5시간	4시간
어휘 2 - 0:21:23	5시간	4시간	3시간
어휘 3 - 0:05:29	1시간	1시간	1시간
어휘 4 - 0:35:37	6시간	5시간	4시간
어휘 5 - 0:02:14	1시간	1시간	1시간
어휘 6 - 0:33:26	6시간	5시간	4시간
어휘 7 - 0:25:01	5시간	4시간	3시간

어휘 8 - 0:27:47	5시간	4시간	3시간
어휘 9 - 1:13:42	14시간	13시간	12시간
어휘10 - 0:14:15	3시간	2시간	1시간
어휘11 - 0:55:57	12시간	11시간	10시간
어휘12 - 1:07:43	13시간	12시간	11시간
어휘13 - 0:21:16	5시간	4시간	3시간
어휘14 - 1:00:53	12시간	11시간	10시간
어휘15 - 0:21:15	5시간	4시간	3시간
어휘16 - 0:30:15	6시간	5시간	4시간
어휘17 - 1:17:32	14시간	13시간	12시간
어휘18 - 0:12:26	3시간	2시간	1시간
어휘19 - 0:15:49	3시간	2시간	1시간
어휘20 - 1:00:40	13시간	12시간	11시간
어휘21 - 0:25:38	5시간	4시간	3시간
어휘22 - 0:53:20	12시간	11시간	10시간
어휘23 - 0:01:11	1시간	1시간	1시간
어휘24 - 0:36:48	6시간	5시간	4시간
어휘25 - 0:08:23	2시간	1시간	1시간

③ 음운

녹음시간	1차 전사 시간	2차 전사 시간	3차 전사 시간
음운 1 - 0:15:23	3시간	2시간	1시간
음운 2 - 1:04:41	14시간	13시간	12시간
음운 3 - 1:08:33	14시간	13시간	12시간
음운 4 - 0:46:30	10시간	9시간	8시간
음운 5 - 0:22:22	5시간	4시간	3시간
음운 6 - 0:05:21	1시간	1시간	1시간

④ 문법

녹음시간	1차 전사 시간	2차 전사 시간	3차 전사 시간
문법 1 - 1:11:34	15시간	14시간	13시간
문법 2 - 0:12:56	3시간	2시간	1시간
문법 3 - 0:54:29	13시간	12시간	11시간
문법 4 - 0:48:42	13시간	12시간	11시간
문법 5 - 0:44:42	12시간	11시간	10시간

⑤ 총 녹음시간 : 39:02:42

1.5 전사

(1) 전사자	한영목/박숙희/조규찬
전사 일시	2009년 5월 19일～10월 14일
소요 시간	350시간
(2) 1차 점검자	한영목/박숙희/조규찬
1차 점검 일시	2009년 7월 15일～10월 17일
소요 시간	322시간
(3) 2차 점검자	한영목/박숙희/조규찬
2차 점검 일시	2009년 8월 12일～10월 19일
소요 시간	284시간
(4) 3차 점검자	한영목/박숙희/조규찬
3차 점검 일시	2009년 9월 10일～11월 30일
소요 시간	247시간

2. 전사 원칙

2.1 구술 발화 전사

구술 발화는 4시간정도의 분량을 선정하여 전사한 것이다. 구술 발화는 문장 단위로 분절(segmentation)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따라서 각 분절 단위의 끝은 반드시 문장 종결 부호(마침표, 물음표, 느낌표)로 마무리하였다. 제보자의 이야기 중에 조사자의 말이 들어가더라도 하나의 주제로 이야기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제보자와 조사자 사이에 문장부호를 찍지 않았다. 내용이 전환될 경우, 조사자의 말과 제보자의 말을 모두 전사하였다. 이야기가 중간에 끊겨 내용이 전환되면 문장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장부호를 사용하여 문장을 마무리하였다. 의미 내용상 분절이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분절 내에서 문장이 끝날 때까지 입력하고 문장부호를 넣은 다음 이어서 { } 안에 지역어 문장에 대한 표준어 대역을 넣고 문장 종결 부호를 넣었다.

표준어에 대응되는 어휘나 표현이 없거나 어감이 달라서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그 내용을 기술하였다. 분절을 하고 전사하는 경우 분절 단위로 전사 번호를 부여하였다. 전사 번호는 분절된 문장의 맨 앞에 입력하고, 발화자 표시는 전사 번호 다음에 한 칸을 띄고 “@”(조사자)나 “#”(제보자)와 같은 부호를 입력하였다. 구술 참여자가 여럿일 경우에는 각 구술자를 구별하기 위해 발화 단위 앞에 “#1, #2...” 등의 발화자 표시 부호를 입력하였다. 음성 전사의 경우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추측이 가능한 부분은 [x x] 안에 전사하고 음성 청취와 전사가 불가능하면 음절, 혹은 모라(mora) 수만큼 ***로 표시하였다. 표준어 대역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였다. 구술 발화 질문지와 무관한 내용은 항목 번호로 “=1”을 부여하고 문장 단위로 전사하였다.

2.2 어휘 항목 전사

① 조사 항목에 대응하는 지역어 어휘는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따라서 곡용 어미나 활용 어미가 연결된 경우에는 그들 어미가 포함된 부분까지 전사하였다.
② 지역어 어절이 표준어형으로는 띄어 써야 할 경우라도 하나의 발화 단위로 판단되면 지역어의 음성 전사에서는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③ 하나의 표제어에 여러 개의 방언형이 나타나는 경우 동일한 항목 번호를 부여하고 전사하였다.
④ <주의>를 통하여 조사된 지역어형은 별도의 항목으로 전사하지 않았으나,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제 항목과 관련된 지역어 정보를 (+) 안에 기록하였다.
⑤ 질문 항목과 대응되지 않는 지역어형은 항목 번호로 “=2”를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⑥ 지역어형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어 응답란에 “*” 표시, 지시 대상은 없는데 이름만 있는 경우에는 응답형 뒤에 “&” 표시를 하였다.
⑦ 지역어 응답형이 두 개 이상인 경우 신구형은 응답형 뒤에 (+신), (+구)로 표시하였다.

⑧ 사용 빈도의 차이가 있는 경우는 응답형 뒤에 (+다), (+소)로 사용 빈도 차이를 표시하였다.
⑨ 지역어형이 비칭과 존칭으로 구별될 때 비칭은 응답형 뒤에 (+비)로, 존칭은 응답형 뒤에 (+존)으로 표시하였다.
⑩ 조사 항목에 대한 지역어형이 두 개 이상이고 사용 계층이 노년층과 젊은층으로 구분되는 경우 응답형 뒤에 (+노), (+유)로 표시하였다.

2.3 음운 항목 전사

① 조사된 지역어의 어간과 어미가 통합된 음성형을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② 어미를 선택하여 조사하도록 제시한 항목에서는('-고(-더라)', '-아/어서(-아/어도)') 조사하기 쉬운 어미를 선택하고 그 결과를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③ 질문 항목과 대응되지 않는 지역어형은 항목 번호 "=3"을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④ 장음 표시는 단어의 음절을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긴 음절 뒤에 ":" 표시를 하였다.
⑤ 음절 하나하나를 정확히 발음하였기 때문에 음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예를 들면 '맺지'를 [맫찌]로 전사하였다.

2.4 문법 항목 전사

① 표제 항목에 대응하는 지역어가 포함된 부분을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② 표제 항목에 대응되지 않는 지역어형은 항목 번호로 "=4"를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2.5 표기 방법

① '위'가 단모음 [y]로 실현되거나 상향 이중모음 [wi]로 실현되더라도 모두 '위'로 전사하되 (+) 안에 그 사실을 밝혀주었다.
② '외'가 단모음 [ø]로 실현되면 '외'로, [e]와 [ɛ]로 실현되면 '에'와 '애'로 전사하였다. 이중모음 [we]로 실현되면 '웨'로, [wɛ]로 실현되면 '왜'로 전사하였다.
③ 비모음은 해당하는 음절 다음에 "~" 표시를 하였다.
④ 장음은 ":", 인상적 장음은 "::" 등으로 표시하였다.
⑤ 단어에서 음성 [ㅎ]이 나타날 때에는 앞에 띄어쓰기를 두어 실현 환경을 밝혔다.
⑥ 이중모음 [jɨ]는 '으'를 풀어 '으ㅣ'로 표기하였다.

3. 전사 자료

제1편 구술발화

1.1 조사 마을의 환경과 배경

1.1.1 마을 들여다보기

10101 @ 그러면 이 마으른 언제 어떠케 형성되쓰며 주민드른 주로 어떤 성씨로 구성되어 인는가를 여쭤볼려고 그러거든뇨? {그러면 이 마을은 언제, 어떻게 형성됐으며, 주민들은 주로 어떤 성씨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여쭈어볼려고 그러거든요?}
10101 @ 그 이 마을 이르미 어떠케 되죠? {그, 이 마을 이름이 어떻게 되죠?}
10101 # 이 마:으리 요 요 요기는 갈머리라는디요 여기가 갈머리라는디 여기가. {이 마을이 요, 요, 요기는 갈머리라는 데요.여기가 갈머리라는 데 여기가.}
10101 @ 무슨 예 서 서산시? {무슨, 예, 서, 서산시?}
10101 # 에 그러쵸 서산시 팔봉면 호::리 요기서 따지면 이:구 요 갈머리. {예, 그렇죠, 서산시 팔봉면 호리, 여기서 따지면 2구, 요 갈머리.}
10101 @ 이구.{2구}
10101 @ 갈:머리라는 뜨슨? {갈머리라는 뜻은?}
10101 # 요 산::니리미요 산::니르미 갈뚜곡싸녀 아마 그래서 그걸 저낸지 어쩐지 그건 모르거써. {요 산이름이요, 산이름이 갈두곡산이요, 아마 그래서 그걸 지어낸 건지 어쩐지 그건 모르것어.}
10101 @ 그 뜨:시 인나요 무슨? {그 뜻이 있나요, 무슨?}
10101 # 글쎄 뜨슨 몰류 이거 옌나레 이게 그러케 네러 오든 줄레니께. {글쎄 뜻은 몰라요, 이거 옛날에, 이게 그렇게 내려 오던 준례(+ 전례)니께.}
10101 @ 예 예 그러면 이 여기 마을 특찡이 부라기 한데 안 이꾸 쫌 띠엄띠엄 이떠라구요 그 옌. {예, 예,그러면 이 여기 마을 특징이 부락이 한데 안있고 좀 띄엄띄엄 있더라구요, 그 옛.}
10101 # 띠엄띠엄 이쪼 골망에 조 너머 가면 저 뭐 날근 저꾸리라는디가 이꾸 요기는 중:말 아:랜말 자:자: 저 너머 돌:꼬개 절:꼴 그러케 기냥 목빠끼 이러케 이르미 다 동네마두 다 각각 이씨오. 그래서 요기가 갈머리지 요게. {띄엄띄엄 있죠, 골망에. 조 넘어가면 저 뭐 낡은 적골이라는 데가 있고, 여기는 중말, 아랫말 저, 저, 저 넘어 돌고개 절골, 그렇게 그냥 몫 박듯이 이렇게 이름이 다 동네마다 각각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갈머리죠 여기가.}
10101 @ 그러면 어르시는 볼래 여기서 태어나셔써요? {그려면 어르신은 본래 여기서 태어나셨어요?}
10101 # 요:기 너머가서 중말써 요 너머 바로. {요기 넘어가서 중말에서 요 넘어 바로.}
10101 # 중말써 탄생애가지구서 여기 한 열 그 먼저두 얘기앧찌만 살림 파해가지구서 올 디 갈 디 읍써 여기루 너머와써쭈. {중마을에서 탄생해가지고서 여기 한 열 ,그 먼저도 얘기했지만 살림이 파해서 올 데 갈 데 없어서 여기로 넘어왔었죠.}
10101 # 너믄제 지금 한 면녀녀 육씹 에~:: 육씹 한 일년 된게만. {넘어온 게 지금 한 몇 년이요, 육십, 에 육십 한 일년 된 게구먼.}

10101 @ 그럼 어르시네 아버니미나 할아버님도 이 서산? {그럼, 어르신의 아버님이나 할아버님도 이 서산[x에서 태어나셨나요?x}
10101 # 난 그러치오 에~: 할아버지도 그러쿠 할아버지도 할아버지까장은 내가 몰르고 아버지는 요 요 너머서 돌아가시고 아 저 출생지 요너머. {난, 그렇죠, 할아버지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할아버지까지는 내가 모르고, 아버지는 요, 요 넘어서 돌아가시고, 아, 저 출생지지 요 너머.}
10101 @ 그럼 선대도 서산시에서 계셔떤가 보네요? {그럼 선대도 서산시에서 계셨던가 보네요?}
10101 # 예? {예?}
10101 @ 그 위 어르신들도 선대 저 선대뿐들도 서산에서 주로 사셔써요? {그 위 어르신들도, 선대 저, 선대분들도 서산에서 주로 사셨어요?}
10101 # 그러치오 서산이조. {그렇죠, 서산이죠 예.}
10101 @ 예 그럼 이 호리는 주민드른 어떤 성씨가 마나요? {예, 그럼 이 호리는 주민들은 어떤 성씨가 많아요?}
10101 # 요기가 츠:미 그러니께 조금 마니 지끔 머하지만 그전이 요기는 이씨 전주 이씨들 마니 살구요. {여기가 처음에, 그러니까 조금 많은 지금은 뭐하지만, 그전에 요기는 이씨, 전주 이씨들 많이 살구요.}
10101 # 어 우리 집안 인동 장씨는 인동 장가는 저 굳: 구도라고 이짜뉴. {어, 우리 집안 인동 장씨는, 인동 장가는 저 구, 구도라고 있잖아요.}
10101 # 고기 상:구 여가 일구 이구 상구로 데 이꺼드뇨 상구가 마니 이쑈. {고기 3구, 여기가 1구 2구 3구로 되어 있거든요, 3구가 많이 있어요.}
10101 @ 예 그러면 호리는 전체 부락 그 이구 여기는 갈머리는 저 며토나 데여? {예, 그러면 호리는 전체 부락, 그 2구 여기 갈머리는 저 몇 호나 돼요?}
10101 # 갈머리 요기 요기 요거 보고 갈머리라구 하는디 그 저니는 사 호 한 네 집: 대썬는디 지끄믄 월마여? 지끔도 네 집인게쎄 기냥 혜. {갈머리 요기, 요기, 여거보고 갈머리라고 하는데, 그 전에는 사 호, 한 네 집 됐었는데 지금은 얼마요? 지금도 네 집인 걸쎄, 그냥. 혜.}
10102 @ 그러면 이 마을 주위에 산: 어떤 사니 주로 이써요? 유명한 사니? {그러면 이 마을 주위의 산, 어떤 산이 주로 있어요? 유명한 산이?}
10102 # 유:명한 사니라능게 이름인는 산은 요기 갈뚜곡싼 이거 하나구요. {유명한 산이라는 게, 이름이 있는 산은 여기 갈두곡산 이거 하나고요.}
10102 # 조:기 가면은 저기 저 뭐 이씨오 도리산이라구 하나 이씨오 이르미. {조기 가면은 저기, 저, 뭐 있어요, 도리산이라고 하나 있어요, 이름이.}
10102 @ 무슨 사뇨? {무슨 산이요?}
10102 # 도:리산. {도리산.}
10102 @ 도리산. {도리산.}
10102 @ 오다 보니까 팔봉산이라고 이떤. {오다가 보니까 팔봉산이라고 있던데.}
10102 # 그건 팔:봉산은 팔봉면 저 소재 주위 고 근체가 팔봉사니요. {그건 팔봉산은 팔봉면, 저 소재지 주위 고 근처가 팔봉산이요.}
10102 @ 아 유명한 사닌가요? 유명한 사니요? {아, 유명한 산인가요? 유명한 산이에요?}

10102 # 그래서 팔:봉너머 팔:봉산 그걸루 해서 팔봉며니라구 아마 이름진 모양일러먼 유명애유 하여간 저 머 관광객또 마니 오구. {그래서 팔봉 너머, 팔봉산 그걸로 해서 팔봉면이라고 아마 이름을 지은 모양이겠더구먼 유명해요 ,아무튼 저 뭐 관광객도 많이 오고.}
10102 @ 아 어떠케 팔봉이라는 건 봉오리가 여덜개라 팔봉이란 뜯? {아, 어떻게 팔봉이라는 건 봉오리가 여덟 개라 팔봉이란 뜻?}
10102 # 그래서 그 전설로 오머는 그 전이 구봉산이어썬는디 하나가 무너져가꾸써 팔봉산으로 대:따구 그런 얘기가 이써. {그래서 그 전설로 (+내려)오면, 그 전에는 구봉산이었는데 하나가 무너져서 팔봉산으로 되었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
10102 @ 혹씨 그 무슨 사니 전서를 좀 아시는 게 이쓰세요? {혹시 그 무슨 산의 전설을 좀 아시는 것이 있으세요?}
10102 # 산 전설 몰류 어떠케 전설을 아러유. {산의 전설은 몰라요, 어떻게 전설을 알아요.}
10102 @ 그럼 저 요기는 강은 업지요 여기는? {그럼 저 요기는 강은 없지요, 여기는?}
10102 # 강이 강이 여기 강은 웁씨오 강은 웁씨오 바다 요게 가로리만이 바다만 바다물만 와따가따 하지 그런 강은 업슈. {강이, 강이, 여기에 강은 없어요, 강은 없어요, 바다 요기 갈오리만이 바다만 바다물만 왔다갔다 하지, 그런 강은 없어요.}
10102 @ 그럼 이쪽 서산쪼게 들판은 좀 널븐데가 인나요? 저기 팔봉면 쪽. {그럼 이쪽 서산 쪽에 들판은 좀 넓은 데가 있나요? 저기 팔봉면 쪽에.}
10102 # 팔:봉이요? 팔:봉 드:류? {팔봉이요? 팔봉 들이요?}
10102 # 팔봉드르면 간:척지로 마라면 어석리가 인는 그 마근지 얼마 안데고 들판 별로 업슈 간척지 제애노코 뭐 별루 여가 궁애써찌 살기가. {팔봉 들하면, 간척지로 말하면 어석리가 있는 그 막은 지 얼마 안 되고 들판은 별로 없어요, 간척지를 빼면 뭐 별로 여기가 궁했었지, 살기가.}
10102 @ 혹씨 그럼 이쪼게 무슨 사:니라든가 바위 이런 나무가 쫌 유명한게 이써요? {혹시 그럼 이쪽에 무슨 산이라든가 바위 이런 나무가 좀 유명한 게 있어요?}
10102 # 나무요? 나무 여기 유명안 이름난 나무 웁씨요 여기. {나무요? 나무는 여기 유명한 이름있는 나무는 없어요 여기.}
10102 @ 바위는? {바위는?}
10102 # 바위도 웁꾸요. {바위도 없구요.}
10102 @ 무슨 옌날 얘기도 웁겐네요 그럼. {무슨 옛날 얘기도 없겠네요 그러면.}
10102 # 예:: 이름난 것 업슈. {예, 이름있는 것은 없어요.}
3초
10103 @ 그럼 뭐 여기 그 이 마을 사람드른 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그럼 뭐, 여기 그, 이 마을 사람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10103 # 여기 주로 하는 거는 농사진는 거 이외루는 바다 가까서 바다에섣 마니 저 뭐대요. {여기에서 주로 하는 것은 농사짓는 거 이외로는 바다가 가까워서 바다에서 많이 저 뭣해요.}
10103 @ 아 농사를 마니 하구 음. {아, 농사를 많이 하고, 음.}
10103 # 에 농사하구 바다 저 뭐. {예, 농사하고 바다 저 뭐.}
10103 @ 그러면 여기 도 동네분드리 인제 무슨 일을 당:아면 서로 협력 해야 될꺼 아네요? {그러면 여기 동, 동네 분들이 어떤 일을 당하면 서로 협력해야 할 것 아니에요?}

10103 # 그러초 협력하조 협력 해서. {그렇지요, 협력하지요, 협력해서.}
10103 @ 동네에서 무슨 고사를 지내는 일도 인나요? {동네에서 무슨 고사를 지내는 일도 있나요?}
10103 # 여기 고사 지내는 거 웁쓰 여기는. {여기에서는 고사 지내는 것 없어요 여기는.}
10103 @ 그래요 혹씨 바닫까 가튼 데서. {그래요 혹시 바닷가 같은 데에서.}
10103 # 아니 그거뚜 웁꾸요 여기 워냥가 요기가 버:머리거든요 버머리여서 세소리나면 좀 탄타고 해서 이 두레가튼 거 업시유 예~ 노리가튼 거 업시유. {아니 그것도 없고요, 여기 언제부턴가 여기가 범 머리거든요, 범 머리여서 쇠소리가 나면 좋지 않다고 해서 이 두레 같은 거 없어요, 예, 놀이 같은 것 없어요.}
10103 @ 예::그럼 혹씨 이 동네 겨론시키면 혼인계라고애서 따리나 아들 예울 때 면날은 콩나물 가튼 거 해주고 그래짜나요. {에, 그럼 혹시 이 동네에 결혼시키면 혼인계라고 해서 딸이나 아들 여읠 때, 옛날은 콩나물 같은 거 해주고 그랬잖아요.}
10103 # 그러초 그저니는 저 콩나물두 여 이거 요미서 저 푸마시 하구 두부가튼 거뚜 인저 내가 한 말 주머는 또 우리 대사 저 미력 때 또 한 말 해오고 이러케 마니 푸마시루 해써쥬. {그렇지요, 그전에는 저 콩나물도 품앗이하고, 여, 이거 요기서 두부같은 것도 인제 내가 한 말 주면 또 우리 대사 저 미력 때 한 말 해오고, 이렇게 많이 품앗이로 했었지요.}
10103 @ 예, 혹씨 그인제 어르신::이나 누구 윈뿐들 도라가시면 옌날에 상여를 며짜나요 여기는 그걸 상여라고 그러나요? {예, 혹시 그럼 인제 어르신이나 누구 윗분들 돌아가시면 옛날에 상여를 메었잖아요, 여기는 그걸 상여라고 그러나요?}
10103 # 그러치오. {그렇지요.}
10103 # 그러치 상여 상여 며찌유. {그렇지 상여, 상여를 메었지요.}
10103 @ 그럼 상여 밀: 때 계가 읻찌요 동네서? {그럼 상여를 멜 때 계가 있지요, 동네에서 [x그걸 어떻게 하나요?x]}
10103 # 그게 발인게라고 해서유 그저니는 그거 저 뭔 발:인계라고 인는게 웨냐아머는 서로가 안: 멜라고 하니께 서로가 발인을 안: 멜라고 하니께 그 게를 조지개가지구서 그거뚜 따지먼 푸마시여. {그것이 발인계라고 해서요, 그전에는 발인계라고 있는 게, 왜나하면 서로가 안 멜라고 하니까, 서로가 발인을 안 멜라고 하니까 그 계를 조직해가지고서 그것도 따지고 보면 품앗이에요.}
10103 @ 그럼 뭐 넘 남 며주면 다음도 와서 해주고 그런단 마리조? {그러면 뭐 남, 남 메어주면 다음에도 와서 해주고 그렇다는 말이죠?}
10103 # 머요? {뭐요?}
10103 @ 또 내가 다른 집 가서 상여를 며:주면 그 분도. {또 내가 다른 집 가서 상여를 메어주면 그 분도.}
10103 # 그러초 그러케 그러케 하는 거여. {그렇지요, 그렇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10103 @ 혹씨 뭐 송게라고 나무 거튼 걸 갑꾸 그러는 게는 업나요? {혹시 뭐 송계라고 나무 같은 걸 갚고 그러는 계는 없나요?}
10103 # 나무유? {나무요?}
10103 @ 나무라든가 뭐 동네에 이런. {나무라든가 뭐 동네에 이런.}
10103 # 예:: 그거 웁써요 여기. {예, 그거 없어요 여기.}
10103 @ 게가 별로 움나보조 그러니까 여기에. {계가 별로 없나보죠, 그러니까 여기에.}
10103 # 에? {예?}

10103 @ 무슨 동네에 그 모여서 게아고 그러는 거 엄나 봐요? {무슨 동네에, 그 모여서 계하고 그러는 거 없나 봐요?}
10103 # 에:: 그러추 웁지오 부녀외원들 부녀회라구는 이꾸. {예, 그렇지요 없죠, 부녀회원들 부녀회라고는 있고.}
10104 @ 그럼 이 마:으리 다른 마으라고 비교알 때 좀 다른 특 특징이 인나요? 다른 마으라고 달리. {그러면 이 마을이 다른 마을하고 비교할 때 좀 다른 특, 특징이 있나요? 다른 마을하고 달리.}
10104 # 특징은 므스 어뜨 바다가 바다 하나 특징이지 딴 디는 머니께 바다래 오지 모더구. {특징은 무슨 아떤, 바다가, 바다 하나 있는 것이 특징이지, 딴 데는 머니까 바다에 오지 못하고.}
10104 @ 그럼 여기 혹씨 옌나레 민속노:리 마니 하자나요 이 동네에서 혹씨 하는 민속. {그러면 여기 혹시 옛날에 민속놀이 많이 하잖아요, 이 동네에서 혹시 하는 민속.}
10104 # 그러게 민속노:리가 웁따구유. {그러니까 민속놀이가 없다고요.}
10104 # 여기 음능게 외냐믄 버미 여기가 버미 버미면 버머리여서 버미 대가리라구 저:가이 하나 이꺼든요 일구. {여기 없는 게 왜나하면 범이 여기가 범이, 범이면 범 머리여서 범머리라고 저쪽에 이, 하나 있거든요, 일구.}
10104 # 그래서 세 쏘리가 조찬타고 해서 거이 노리 업슈 아주 통. {그래서 쇠 소리가 좋지 않다고 해서 거의 놀이가 없어요 아주 통.}
10104 @ 아니 그러면 명절 때 윤:노리 가튼 건 하나요 그럼? {아니, 그러면 명절 때 윷놀이 같은 것은 하나요, 그럼?}
10104 # 아 그렁거야 인저 더러 이따금 이따 한 번씩 허지오. {아, 그런거야, 인제 더러, 이따금, 가끔 한 번씩 하지요.}
10104 @ 그럼 이 마으레 인제 호리에서 특싼물 뭐 특벼리 나는 물건 인나요? {그럼, 이 마을에, 호리에서 특산물, 특별히 생산되는 물건이 있나요?}
10104 # 요기요? 요기서 특장물이라면 마눌 마누늘 주로 여기 마니 허구 요 근래로는 감자덤 마니 심꾸 그래 그렁거 해유. {여기요? 여기에서 특산물이라면 마늘, 마누를 주로 여기서 많이 하고, 요 근래는 감자도 많이 심고 그래, 그런 거 해요.}
10104 @ 여기도 그럼 비닐하우스 그러케 해서. {여기에서도 그럼 비닐하우스 그렇게 해서.}
10104 # 여기 전무느루 비우 꼬추두 마니어구 그려. 그런디 비닐 하우스 전무느로 하는 사람 업쓰 여기. {여기, 전문으로 비닐, 고추도 많이 하고 그래요. 그런데 비닐 하우스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
10105 @ 그러믄 그 어르시니 비교알 때 어려쓸 때아고 지금 하고 마니 달라져짜나요. {그러면 그, 어르신이 비교할 때, 어렸을 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졌잖아요.}
10105 # 마니 달라져찌요. {많이 달라졌지요.}
10105 @ 그러면 어떠케 좀 머 달라진 우선 마을 형태 옌나른 여기 마으레 어리니도 마난는데 지그믄 애드리 잘 업조. {그러면 어떻게 좀 뭐 달라진, 우선 마을 형태, 옛날에는 여기 마을에 어린이도 많았는데, 지금은 애들이 잘 없죠.}
10105 # 아이 그야 마라믄 엔나리야 그 저 흑뻑돌찝 저가꾸서는 초가지비다가 바람만 부러도 걱쩡어구 비 오는 걱쩡이지만 지금 머 초가집 이쓰? 그렁거뚜 다 달라진 거쥬. {아이고, 그거야 말하면 옛날에야 그 저 흙벽돌집 지어가지고는 초가집에다가 바람만 불어도 걱

정하고, 비오는 걱정이지만 지금 뭐 초가집 있어요? 그런 것도 다 달라진 거지요.}
10105 @ 또 그 주민 성씨들도 그러게 머 옌나른 아까 인제 전주 이씨아고 장씨분드리 만타고 그래짜나요 그 성씨분도 마니 변동이 된나요? {또 그 주민 성씨들도 그렇게 뭐 옛날에는 아까 인제 전주 이씨하고, 장씨 분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씨 분들도 많이 변동이 되었나요?}
10105 # 변:동이라는 거슨 마니 거기서 살다가 외지루 나가고 서울로 가구애서 사라미 주러든 걷 뿌니지 뭐. {변동이라는 것은 많이 거기서 살다가 외지로 나가고, 서울로 가고 해서 사람이 줄어든 것 뿐이지 뭐.}
10105 @ 아 다른 데 드러온 사라믄 업꾸요? {아, 다른 데 들어온 사람은 없고요?}
10105 # 드러온 사람들 읻 쪼금 이써두 별루요 저 너머서 드러온 사람들 한 세 가구 네 가구 와서 따지면 지비 벼쓰니께 그 빈:집 차지아구 오너서 사느라고 오너 살구 그러지. {들어온 사람들 있,조금 있어도 별로요, 저 너머에서 들어온 사람들, 한 세 가구, 네 가구, 와서 따져 보면 집이 비었으니까 그 빈집 차지하고서 와서 사느라고 와 살고 그러지요.}
10105 @ 우선 그 앧: 애기드리 웁쪼 여기도. {우선 그 애, 애기들이 없지요, 여기도.}
10105 # 그 애 웁지오 그러게 여른내 우는 소리 몯 드류 요샌 그전가짠쿠. {그 애 없지요, 그러니까 어린애 우는 소리 못 들어요, 요새는 그전같지 않고.}
10105 @ 그래 좀 쓸쓸아게써요 마으리. {그래, 좀 쓸쓸하겠어요, 마을이.}
10105 @ 그 다으메 이 마으레 혹씨 독트가게 이 호리에서 그 풍습거틍게 인나요 다른 마으라고 비교알 때 어떤 풍스비 다른? {그 다음에, 이 마을에 혹시 독특하게 이 호리에서 그 풍습같은 게 있나요, 다른 마을하고 비교할 때, 어떤 풍습이 다른?}
10105 # 풍스비요? 풍:스븐 다 가티유. {풍습이요? 풍습은 다 같아요.}
10105 @ 예 주로 어떤 특별한 풍스븐 웁꾼뇨. {주로 어떤 특별한 풍습은 없군요.}
10105 # 예 그러치유. {예, 그렇지요.}
10105 @ 그럼 이쪼근 그 팔봉 지여게 어떤 풍습 독트강게 좀 인나요? 다른 마을 다른 면하고 비교알 때. {그럼 이쪽은 그 팔봉 지역에 어떤 풍습, 독특한 게 있나요? 다른 마을, 다른 면하고 비교할 때.}
10105 # 머요? {뭐요?}
10105 @ 풍:스비 좀. {풍습이 좀.}
10105 # 에 풍:스비요 풍:습두 다 가테요. {예, 풍습이요, 풍습도 다 같아요.}

1.2 일생 의례

1.2.1 제보자의 출생과 성장

10201 @ 예 잘 아라씁니다. 그러믄요 그 어르시니 나고 자라고 그리고 인저 그 성장 한 거에 대해 여쭤볼려고 그러거드뇨.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요, 그 어른신이 나고, 자라고, 그리고 인제 그 성장한 것에 대해 여쭤보려고 그러거든요.}
10201 @ 지금 그러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좀 내여글 말쓰매 주세요 우선 어디서 태어나션는가부터. {지금 그러면, 태어나서 지금가지 살아오신 좀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우선 어디서 태어나셨는가부터.}

10201 # 태어낭게 요 저저 요너머 그리게 고양땅이 요너머요. {태어난 게 요, 저 저 요 너머 그러니까 고향땅이 여기 너머예요.}
10201 @ 그니께 어디? {그러니까 어디?}
10201 # 예 요기 가튼 이구. {예, 요기 같은 2구.}
10201 @ 이구요? 예. {2구요? 예.}
10201 @ 예 지 현재 나이는 어트게 되요? {예, 지(+금) 현재 나이는 어떻게 돼요?}
10201 # 나요? 여드리요 이른 여들. {나요? 여덟이요. 일흔 여덟.}
10201 @ 이른 여덜요 그럼 자란 고슨 나서 자란 곧 여기. {일흔 여덟요, 그럼 자란 곳은, 나서 자란 곳 여기.}
10201 # 그러치오 요 너머 자서 요 너머서 나가지구 살림 파애가지구서 여기 열: 일곱사레 넘어 와쇼. {그렇죠, 요 너머 나서, 요 너머에서 나가지고, 살림 파해가고서 여기 열일곱 살에 넘어 왔어요.}
10201 # 열: 일곱싸레 우리 어머니 홀로 데고 이래갇꼬서 열: 일곱싸레 너머와서 언태 여기 살어유 여기서. {열일곱 살에 우리 어머니 홀로 되고, 이래가지고, 열일곱살에 넘어와서 여태 여기 살아요 여기서.}
10201 @ 좀 재민는 일 이써겐네요 그라는뇨 여기서 재민는 일도 이써써요 사시면서. {좀 재밌는 일도 있었겠네요 그러면요, 여기서 재밌는 일도 있었어요, 사시면서.}
10201 # 재:미가 머유 그거뚜 어지가니 넉너개야 재미스나지 웁써 사느라고 정신 움능걸. {재미가 뭐요, 그것도 어지간히 넉넉해야 재미가 나지, 없어 사느라고 정신 없는 걸.}
10201 @ 그러면 주로 여기 객지 생:왈 거튱건 아내보셔써요? {그러면 주로 객지 생활 같은 건 안 해보셨어요?}
10201 # 객찌 생와리라믄 내가 정 살기 어려어서 개끔 저 노가다 파네 다니느라고 배우지 모더구 그 노가다라구 무슨 인젇 공사 이라는 디 여기저기 댕이구 염저미 가서두 이썯꾸 소금 빼는 염저미가. {객지 생활이라면, 내가 정 살기가 어려워서 가끔 저 막노동 판에 다니느라고, 배우지 못하고, 그 노가다라고, 무슨 인제 공사, 일하는 데 여기저기 다니고, 염전에 가서도 있었고, 소금 빼는 염전에가.}
10201 @ 주로 어 면년이나 나가 게셔써요? {주로 여, 몇년이나 나가 계셨어요?}
10201 # 그러니께 염포 염저미 가서 한 삼년 이써나아구 저:기 덕산 너머 갈려면 해미 그 저수지 망는 디서 한 이년 이써꾸 그 뿌러 먹꾸 사느라구요 그래써슈. {그러니까 염포, 염전에 가서 한 삼년 있었나 하고, 저기 덕산 넘어 가려면 해미 그 저수지 막는 데서 한 이년 있었고, 그 벌어 먹고 사느라고요, 그랬었어요.}
10201 @ 염전 어디 염저니요? {염전, 어디 염전이요?}
10201 # 여 여기 가면 양다리요. {여, 여기로 가면 양다리요.}
10201 @ 아 서산시? {아, 서산시?}
10201 # 예 서산 양다리라구 지끔 염점 페지대가구써 지금 댇쭈 거기가 이써쇼. {예, 서산 양다리라고, 지금 염전 폐지돼갖고서 지금 됐지요, 거기에 가 있었어요.}
10201 @ 그럼 어르시는 서산 지여글 벋어나지를 아낸네요 별로. {그럼, 어르신은 서산 지역을 벗어나지를 안했네요, 별로.}
10201 # 안 인자 저 워디 딴 디 가지도 아낻쓲 놀:러나 관광 놀:러나 갈라면 여기서 떠나쓰까 여기가 떠나지 아나쓲. {안, 인제 저 어디, 딴 데 가지도 않았어요, 놀러나, 관광, 놀러나 가려면 여기서 떠났을까, 여기를 떠나지 않았지요.}

10201 @ 그러믄 인제 그 죄송안데요 항:려근 어터게 데요 학교. {그러면 인제, 그 죄송한데요, 학력은 어떻게 돼요, 학교.}
10201 # 학꾜::두 외냐아믄 그 때 그 때는 국민핵교 아뇨? 왜정 때. {학교도, 왜냐하면 그 때, 그 때는 국민(+초등)학교 아니요? 왜정 때.}
10201 # 궁민해꾜 삼: 항년 때 파리로 해방이 대쓔. {국민학교 삼 학년 때 팔일오 해방이 됐어요.}
10201 # 그래서 그 애정 때는 저 뭐 일뻔글 가르처씽께 음 그걸 그거 배다가 해방데던 해 우리 아버지가 도라가셔꺼드뇨. 그래서 저 머 우리 아버지 도라가신 뒤루 살림 저 머대갇꾸 중테. {그래서 그 왜정 때는 저 뭐, 일본글 가르쳤으니까, 음, 그걸 그거 배우다가 해방되던 해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저 뭐,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뒤로 살림 저 못해갖고 중퇴.}
10201 @ 그러민제 지거븐? {그러면 인제, 직업은?}
10201 # 지거븐 농어비지오 머:. {직업은 농업이죠, 뭐.}
10201 @ 농어비요? 에. {농업이요? 예.}
10201 @ 형제부는 멷뿌니나 데세요? {그럼, 형제분은 몇분이나 되세요?}
10201 # 원 형::지브 우리 형 하나아구 형아구 나아구 두리여썬는디 나 군대가 이실 쩌기 지비서 저 병으루 도라가셔쓔 장가두 몯들구. {원래 형집의, 우리 형 하나하고, 형하고 나하고 둘이였었는데, 나 군대 가 있을 적에, 집에서 저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장가도 못 들고.}
10201 @ 구닌 군대는 어디서 구닌 생할하셔써요? {군인, 군대는 어디서 군인 생활하셨어요?}
10201 # 나요? {나요?}
10201 # 군대아 논산 훈련소 조러버구서 미 칠 사다니로 근무해쪼. {군대야, 논산 훈련소 졸업하고서 미 칠 사단에서 근무했지요.}
10201 @ 면녀니나 근무 하셔써요? {몇 년이나 근무하셨어요?}
10201 # 면녀니 아니라 그 때는 원천 아주 저 머 할저기 군대 나와서 에~:: 시빌개월 이십치릴마네 나완나. {몇 년이 아니라, 그 때는 원천 아주 저 뭐할 적에 군대 나와서, 에, 십일개월 이십칠 일만에 나왔나(+제대했나).}
10201 @ 시빌개월 빨리 나오션네 예. {십일개월, 빨리 나오셨네요.}
10201 # 빨리 나완쪼 아니 나 전 대구 군대에서 부상당해갇꾸 대구 일육군 병원이가 이번 앤는디 그 이식 치뤌 이십치릴날인가 원제 해방데지 아내쓔? 그 참 저거 휴전데지 아내씨오? 그 휴전되고서 거기서 쪼금 이따가 제대 해쓔. {빨리 나왔지요, 아니 나 저 대구 군대에서 부상당해서, 대구 일육군 병원에 가서 입원했는데, 그 이십, 칠월 이십칠일 날인가 언제 해방되지 않았어요? 그 참 저거 휴전되지 않았어요? 그 휴전되고서 거기서 조금 있다가 제대했어요.}
10201 @ 아우! 부상을 당하셔써요? 워디 부상? {아이고!부상을 당하셨어요? 어디 부상?}
10201 # 예? 아니 약간 당앤는디 여기 여 전초 나가따가 체전방 전초 나가따가 이 기루 벌레 드러가갇꾸서 주글 뻔 해쓔 아주. {예? 아니, 약간 당했는데 여기 전투 나갔다가, 최전방 전투 나갔다가, 이 귀로 벌레가 들어가갖고서, 죽을 뻔 했어요, 아주.}
10201 @ 머가 드러가요? {뭐가 들어가요?}
10201 # 버 벌러지요 요 드러가가꼬. {벌, 벌레요, 요기 들어가갖고.}
10201 # 그러구 부상두 좀 당 해써구 소소허게. {그리고, 부상도 좀 당했었고, 소소하게.}

10201 @ 그래서 이 벌레가 드러가조 아주 고생 하션네요? {그래서, 이 벌레가 들어가서 아주 고생하셨네요?}
10201 @ 그러믄 머:: 여자 형제부는 안게세요? 누니미나? {그러면 뭐 여자 형제분은 안계세요? 누님이나?}
10201 # 외? 남 여동생 두리 두리 이써쏘 두리 이썬는디 하나는 워트게 저 뭗 제명대로 모쌀구 하나는 대 대전서 크내 큰 동생. {왜? 남, 여동생, 둘이, 둘이 있었지요,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어떻게 저 뭣, 제명대로 못 살고, 하나는 대, 대전에서, 큰 애, 큰 동생.}
10201 @ 그럼 아까 어르신 부모님 고양은 어디시라고 해찌요? {그러면 아까 어르신의 부모님 고향은 어디시라고 했지요?}
10201 # 저 우리 아버지유? 아버지 고양 아버지 고양은 저 상구. {저,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고향, 아버지 고향은 저 3구.}
10201 @ 삼구 예. {3구, 예.}
10201 # 에 저 드러올라믄 구도 우리 지반 만타는디 거기 상구. {에 저, 들어올려면 구도, 우리 집안 많다는 데 거기 3구.}
10201 @ 구도요? {구도요?}
10201 @ 그럼 인제 그 어르신 아버니미 하신 이른 주로 어떤? {그럼 인제, 그 어르신 아버님이 하신 일은 주로 어떤?}
10201 # 농어비요. {농업이요.}
10201 @ 농어비요 예예. {농업이요, 예예.}
10201 # 농어비요 농업. {농업이요, 농업.}

1.2.2 결혼하기까지의 과정

10202 @ 이제 그럼 결혼한 얘기 좀 여쭤보께요 두부니 말쓰매존데요. {이제 그럼 겨혼한 이야기 좀 여쭈어볼게요, 두 분이 말씀해도 좋은데요.}
10202 @ 우선 그 배우자닝까 저 배우자는 어느 지역 출시네요? {우선 그 배우자이니까 저, 배우자는 어느 지역 출신이에요?}
10202 # 호:리 여기요 여기. {호리, 여기요, 여기.}
10202 @ 호리 멷꾸 그러먼? {호리 몇 구 그러면?}
10202 # 이 일구. {일, 일구.}
10202 @ 일구요. {일구요.}
10202 @ 그럼 주로 여기 호리에서 성장하션? {그럼, 주로 여기 호리에서 성장하셨(+겠네요)?}
10202 # 예 그러치오 예. {예, 그렇지요, 예.}
10202 @ 그럼 그럼 다른 객찌 생할도 별로 모다셔껜네요? {그럼, 그럼 다른 객지 생활도 별로 못하셨겠네요?}
10202 # 객찌 생할이 머유. {객지 생활이 뭐에요.}
10202 # 바다아구 여기 집배께 몰러. {바다하고 여기 집밖에 몰라.}
10202 # 요기서만 사란씨오. {여기에서만 살았어요.}
10203 @ 그러면 인제 그 배우자를 어트게 마는 만나서 결혼핸는가 여쩌볼려고 그라거든

요? {그러면, 이제 그 배우자를 어떻게 만나서 결혼했는가 여쭈어보려고 그러거든요?}
10202 # 예 예::.{에, 예.}
10203 @ 우선 옌나레는 여내 겨론 웁쑫꾸 중매 자나요? {우선 옛날에는 연애 결혼이 없었고, 중매 잖아요?}
10203 # 그러초. {그렇지요.}
10203 @ 그래 어트게 해앧 하셔써요? {그래, 어떻게 [x결혼을x] 했, 하셨어요?}
10203 # 나는 저 내가 그북 그 저기 해야지 얘기 할거면. {나는, 저 내가 거북, 그 저기 해야지 이야기 할거면.}
10203 #2 금전끼. {그전께.}
10203 #나는 인젇. {나는 인제.}
10203 #2 저기. {저기.}
10203 # 자네가 할라구? {자네가 하려고?}
10203 #2 야 하라버지 야: 할라버지 만날 때는. {애 할아버지, 애 할아버지 만날 때는.}
10203 @ 파짜고세요 그라믄 예. {바짝오세요, 그러면은 예.}
10203 #2 주이 친젱이 호:리 부자써슈 우리 우리 친젱이. {저희 친정이 호리 부자였어요, 우리, 우리 친정이.}
10203 @ 잠깐만요 그라믄. {잠깐만요, 그러면.}

1.2.5 시집살이에 대한 경험담

10218 @ 할머니 그러면 할머니는 친정::도 가튼 이 주변 동네셔써요? {할머니, 그러면 할머니는 친정도 같은 이 주변 동네셨어요?}
10218 # 예. {예.}
10218 @ 할머니 지금 펴나게 안즈신 거에요 펴나게 안즈세요. {할머니, 지금 편하게 앉으신 거에요? 편하게 앉으세요.}
10218 # 펴내유 친정 등너머써슈. {편해요, 친정 등 너머에 있었어요.}
10218 @ 어디여? {어디요?}
10218 # 이러게 가까께 한: 동네. {이렇게 가깝게 한동네.}
10218 @ 아 옌나레는 한동네 혼사를 잘 안 하시는 걸라고 하시던데 할머니는 어뜨게 한동네 혼사 하셔써요? {아, 옛날에는 한동네 혼사를 잘 안하시는 거라고 하시던데, 할머니는 어떻게 한동네 혼사하셨어요?}
10218 # 그러게 옌나린 그러케 모댄는디 사:주 팔자가 웁쓰니께 워트갸.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못했는데, 사주 팔자가 없으니까(+그러니까) 어떻게 해.}
10218 @ 아:: 할머니 또 사여니 이쓰시군뇨. 그러면 할머니 그면 할머니 멷 언 멷살 때 결혼 시집 오신거에요 하라버지안테? {아, 할머니 또 사연이 있으시군요. 그러면 할머니, 그러면 할머니 몇, 언, 몇살 때 결혼, 시집 오신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10218 # 열일구벼 와쓰. {열일곱 살에 왔어요.}
10218 @ 그땐 다 그맘 때 시집 가신 거여써요? {그때는 다, 그만할 때 시집 가신 거였어요?}
10218 # 안: 가찌 안 간는디 그러케 데 데서 그러케 와찌. {안갔지, 안갔는데 그렇게 돼,

돼서 그렇게 왔지.}
10218 @ 이케 이케 얘기를 해주세요 할머니 또 왜 왜 왜 근데 왜 눈무른 또 그렁거리시는 거에요 근데 왜?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할머니, 또 왜, 왜, 왜, 왜, 근데 왜 눈물은 또 그렁거리시는 거예요? 근데 왜?}
10218 # 아니여. {아니에요.}
10218 @ 압끄래 친구들보다. {앞동네 친구들보다.}
10218 # 하:두 고상애서 그런 얘기먼 하믄 눈물배끼 안 나와 하::두 고상애서. {하도 고생해서 그런 이야기만 하면 눈물 밖에 안 나와, 너무 고생해서.}
10218 @ 그런 얘기 하면서 눈물 흘리는 분드리 마는 걷 가타요 할머니도 그러코 서처네 할머니도 그러시고. 아 참 여자드리 고생을 안하고 사라써야 되는 건데 그조? {그런 얘기 하면서 눈물 흘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할머니도 그렇고, 서천 할머니도 그러시고. 아 참, 여자들이 고생을 안 하고 살았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10218 # 기유. {그래요.}
10218 @ 근데 할머니만 그런신 거 아닌 거 가타요 여기 저기 가 제가 다녀보니까 서처네 가도 서천 할머니도 말씀 하시기도 저네 막 눈물부터 막 흘리시더라구요. {그런데 할머니만 그러신 게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저기 가, 제가 다녀보니까 서천에 가도, 서천 할머니도 말씀하시기도 전에 막 눈물부터 막 흘리시더라고요.}
10218 # 아주 하::두 고상어구 어렵끼 사라서 배도 고 마니 골코. {아주, 하도 고생하고 어렵게 살아서, 배도 곯 많이 곯고.}
10218 @ 할머니 그러면 우리 일다는 그 얻 어 겨 처으메 그 어트게 결혼 하시게 된는지부터 얘기 해 주실래요? {할머니, 그러면 우리 일단은 그, 엇, 어, 겨, 처음에 그 어떻게 결혼하시게 됐는지부터 이야기해 주실래요?}
10218 # 잉 제일 처으미는유 내가 이:구서 살구 여긴 일:구유 이 동네는 일:구 저기 호리부 저 호리는 이:군디 나는 이구서 살구. {응, 제일 처음에는요 내가 2구에서 살고, 여기는 1구예요, 이 동네는 1구, 저기 호리 부, 저 호리는 2구인데, 나는 2구에서 살고.}
10218 # 근디 그저니 옌나리 우리 친정이 부:자썬씨유 부::자써서 머스믈 싣:: 둬쓰. {그런데 그전에, 옛날에 우리 친정이 부자였어요, 부자여서 머슴을 셋 두었어요.}
10218 @ 아 진짜 부자션네요 머스믈. {아, 진짜 부자셨네요, 머슴을.}
10218 # 머스믈 싯:: 두구서 핸는디 증:: 이제 머던께 이 하라배가 인제 웁씨니게 너미 저빵 사라꺼드뇨. 그런께네 우리 할 우리지붕여써 인제 하 할아버지라 인제 머스믈 둬쓰 야이 할 하래베를. {머슴을 셋 두고서 했는데, 정 이제 뭐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인제 없으니까 남의 곁방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할, 우리집에서 인제 하, 할아버지가 인제 머슴을 두었어요, 애, 이 할, 할아버지를.}
10218 # 그서 한 삼년 사라써 한 삼년 살구 어터쿠 살던 해: 군대를 나가써. {그래서 한 삼년 살았어, 한 삼년 살고, 어떻게 살던 해 군대를 나갔어.}
10218 @ 하라버지가요? {할아버지가요?}
10218 # 이 하라버지가 나구 우리집서 머슴 살다 군대를 나가가가꾸서 군대서 저 으-내지 그저니 으 으-내내편지라구 해찌. 그걸 보내떠라구 그래서 인제. {이 할아버지가 나하고 우리집에서 머슴 살다 군대를 나가가갖고서 군대에서 저, 연애편지, 그전에 연, 연애편지라고 했지. 그걸 보냈더라고, 그래서 인제.}
10218 @ 할머니 면 년생이시죠 할머니가? {할머니, 몇 년생이시죠, 할머니가?}

10218 # 근 물루건네 이 쩌 뭔지. {그건 모르겠네, 이, 저 뭔지.}
10218 @ 원래 어트게 되셔요 연세가? {원래 어떻게 되세요, 연세가?}
10218 # 칠:씹시. {칠십 셋.}
10218 @ 아:: 저이 아버지하고 동가비시네요? 그러면 삼십 팔년생이신 걷? {아, 저희 아버지하고 동갑이시네요? 그러면 삼십 팔년 생이신 것?}
10218 # 이 칠씹시시유. {응, 칠십 셋이요.}
10218 @ 아 그래서. {아, 그래서.}
10218 # 그리 그런는 그러코. {그리, 그러는 그렇고.}
10218 @ 그때 그때 여내편지를 바드셔쓰면 굉장히 신시그로 여내 하신 거네요? {그때, 그때 연애편지를 받으셨으면, 굉장히 신식으로 연애하신 거네요?}
10218 # 나는 왜 해꾜 마당 하나 앙:가구 난 노쿠 기역짜두 몰러 무식꾸니여. {나는 왜 학교 마당도 하나 안 가고, 낫 놓고 기역자도 몰라, 무식꾼이요.}
10218 @ 편지 어트게 일그셔써요? {편지 어떻게 읽으셨어요?}
10218 # 아니 저 하래배랑 이 하래배랑 구닌 가서 내게다 편지를 해떠랑께 그런디. {아니, 저 할아버지랑, 이 할아버지랑 군에 가서 나한테 편지를 했더라니까.}
10218 @ 어트게 이 편지는 어트게 일그셔써요? {어떻게, 이 편지는 어떻게 읽으셨어요?}
10218 # 재게 성이써씨유 이 하래배 성 성이 이써는디 그 그 으:르니 가꼬오면 나를 윌:거주더라구. 그래서 아이고 이거 으:른들 알믄 클란다구 그걸 숭:기라구 그러케 허다 후가 혀 갇꾸 와떠라구. {자기 형이 있었어요, 이 할아버지 형, 형이 있었는데 그, 그 어른이 가지고 오면 나를(+에게) 읽어주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이거 어른들 알면 큰일 난다고 그걸 숨기라고, 그렇게 하다가 휴가 받아서 왔더라고.}
10218 # 이 하래배가 후갈 해가꼬 오믄서 머라고 허는 건 허느냐믄 너는 나아고 안 살면 니 어매 니 아배 패:주긴다구 어더라구. 그래서 거비 나서 우리 오머 오머니 아버지 살린다구 살건느라구 하느리 무너저도 당시니어구 살건느라구 그래쓰 거비 미서서. {이 할아버지가 휴가를 받아서 오면서 뭐라고 하는 것은, 하느냐면, 너는 나하고 안 살면 네 어머니, 네 아버지 패 죽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겁이 나서 우리 어머니, 어머니, 아버지 살린다고 살겠노라고, 하늘이 무너져도 당신하고 살겠노라고 그랬어요, 겁이, 무서워서.}
10218 # 그러쿵 인제 제대 해가꾸서 도망가자구 허더라구. 그서 인저 도망을 가써 여 스산 양다리라는디를. 우리 오모니가 길쌈애써 그저니 뉘:에 처:가꾸서 이러케 이제 누에 키워가꾸 꼬추 해가꾸 인제 시:를 뽀바가꾸. {그렇고 인제, 제대 해갖고서 도망가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인제 도망을 갔어 여기 서산 양다리라는 데로. 우리 어머니가 길쌈했어, 그전에 누에 키워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누에 키워가지고 고치 해가지고, 인제 실을 뽑아가지고.}
10218 @ 예 아라요. {예, 알아요.}
10218 # 예 그걸 짜서 인제 치:마 저고리를 해놔써 나 나 이브라고 팔월명일 때 이브라구. 그느믈 입꾸 도망을 가써쓰 도망 가따가 팔월 여:리튼날 도망강겨 팔월딸. 그래 쪼끔 이따가 인자 파르스레된 이: 지비 여기루 드러와써 드렁께는. {예, 그걸 짜서 인제 치마 저고리를 해놨어, 나, 나 입으라고 팔월 명절 때 입으라고. 그놈을 입고 도망을 갔었어요, 도망 갔다가 팔월 열이튿날 도망간 거요, 팔월 달. 그래 조금 있다가 인제 파르스르레될 때 이 집에 여기로 들어왔어, 들어오니까.}
10218 @ 아 이 집 이지비. {아, 이 집, 이 집이.}
10218 # 이 지비 저기가 인는디 다 부셔갇꾸 지어씨오. 근디 지비디 가자구 해서 옴러본께

는 가마때기라구 아류? 가마때기루 무:네 달구 밀찝방석 밀찝방서그로 자리 깔구. {이 집이 저기에 있는데, 다 부셔가지고 지었어요. 그런데 집에 가자고 해서 와서보니까 가마때기라고 알아요? 가마때기는 문에 달고, 밀집방석, 밀집방석으로 자리 깔고.}
10218 # 그러커는디 세상이 우리 어믄 나 친정이서 찬밥두 안먹구 국쑤를 저 밀꾸글 안머거씨오 어머리라 꼭:: 더운 바블 해줘쓰 밀꾹 안무군께 밀꾸근 해서 으른들 잡쑤꾸 꼭 바블 새러 해주구 그러카구 살다가 그러크구서 사주 팔자가 그러케 해서서 오너봉께 그런디. {그렇게 했는데, 세상에 우리 어머니, 나 친정에서 찬밥도 안 먹고 국수를, 저 밀국을 안 먹었어요, 어머니가 꼭 더운 밥을 해줬어요, 밀국 안 먹으니까 밀국은 해서 어른들 잡수시고, 꼭 밥을 새로 해주고 그렇게 하고 살다가, 그렇게 하고서 사주 팔자가 그렇게 돼서 와서보니까 그런데.}
10218 @ 그럼 할머니 할머니믄 형제가 어트게 데세요? {그럼 할머니, 할머님은 형제가 어떻게 되세요?}
10218 # 융:남매유. {육 남매예요.}
10218 @ 아 할머니 그 중에 며째셔요? {아, 할머니 그 중에 몇 째세요?}
10218 # 제::일 마쥬. {제일 맏이.}
10218 @ 마지. {맏이.}
10218 # 이:: 첟 마:주 마:주. {이, 첫, 맏이, 맏이.}
10218 @ 아 마주 제일 첟뻔째 제일 마쥬셔써요? {아, 맏이, 제일 첫번째, 제일 맏이셨어요?}
10218 # 그러켄는디. {그렇게 했는데.}
10218 @ 그 때가 할머니 그래서 하라버님하고 가치 이쪽 동네로 오신대가 그 때가 며쌀이셔써요? {그 때가 할머니, 그래서 할아버님하고 같이 이쪽 동네로 오신 때가, 그 때가 몇 살이셨어요?}
10218 # 열:닐곱. {열일곱.}
10218 @ 열닐고베 시대근 시꾸가 어트게 되썬는데요? {열일곱에, 시댁은 식구가 어떻게 되었는데요?}
10218 # 그래갇꾸 우:리 지비서는 날:리 나찌.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서는 난리 났지.}
10218 @ 할리 우껜네여? {많이 우셨겠네요?}
10218 # 이~:: 하: 하: 우리 하라버지가 아블 몯보셔서 그린디 아무개 굴머 중는다고 막:: 우셔싸쿠. 오머니는 가지말라구 너 가믄 중는다구 굴머 중는다구 가지말라구 해싸꾸 근디. {응, 하, 하, 우리 할아버지가 앞을 못 보셔서 그런데, 아무개 굶어 죽는다고, 막 우셔쌓고. 어머니는 가지 말라고, 너 가면 죽는다고, 굶어 죽는다고 가지 말라고 해쌓고, 그런데.}
10218 # 그래두 그라꾸 우리 박서방네유 내가 박가유. 우리 박서방네 으른들 다:: 불러서 헤이를 하던거류 이러케 보내야야냐 안보내냐. 우리 하라버지가 그렁께는 제야 마를 드르야 한다구 그러구서 하라버지가 드러오라구 하더라구 방이 드러가서 이케 이케 무릅 꿀꼬 안저서 네 이비 달려씅께 하라버지가 너 말 한마디 해바라 그러더라구. {그래도, 그러고 우리가 박서방네예요, 내가 박가요. 우리 박서방네 어른들 다 불러서 회의를 하던걸요, 이렇게 보내야 하냐, 안 보내냐.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저 애 말을 들어야 한다고 그러고서, 할아버지가 들어오라고 하더라고,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서, 네 입에 달렸으니까, 할아버지가 너 말 한마디 해봐라 그러더라고.}
10218 # 하라버지 내 사주 팔짜가 잘몯 타씅깨 하느리 무너저도 소슬 구녕이 이따구 불쌍

한 인가늘 내가 한번 살려주거씨오 그래쓰 그런께 막 하라버지가 아: 방바닥뚜 쓰르먼서 막 아이구 때가먼서 핸는디 그러쿠 올마 아니따가 인제 후가이 갇꾸옴서 도망가자구 그래서 도망가써지 그래가꾸 오늘 데쓰이. {할아버지, 내 사주 팔자가 잘못 탔으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을 구멍이 있다고 불쌍한 인간을 내가 한 번 살려주겠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막 할아버지가 아 방바닥도 쓸면서 막 아이고, 때려가면서 했는데, 그렇고 얼마 안 있다가 인제 휴가를 나오면서 도망가자고, 그래서 도망갔었지, 그래가지고 오늘이 됐어.)
10218 @ 그 와 오셔쓸 때 시대근 그 시꾸가 어트게 데셔써요? {그 와, 오셨을 때 시댁은, 그 식구가 어떻게 되셨어요?}
10218 # 시:니들 두러구 혼저된 시오머니어구 그래가꾸서 아::이구! 말두 모대유. {시누이들 둘하고, 혼자된 시어머니하고, 그래가지고서 아이구! 말도 못해요.}
10218 @ 그 그러먼 할머니 그 시집 오셔가지고 시집싸리 하셔떤 얘기들 좀 해주세요. {그, 그러면 할머니 그 시집 오셔가지고, 시집살이 하셨던 이야기들 좀 해주세요.}
10218 # 아::이구! 눈물 나오유 참:: 그러케 하꾸서 인제 지비 드로노쿠 파뤌따리 인지 드로눠갇꾸서 인는디 우리 친:정 오머니가 어버지가 오라구 허더라구 그러구 가써쓰. 강께는 막:: 야다나믄서 너 이끄미라두 느찌 아내쓰니 잉 외 고 너 굴머주글라구 허느냐구 너 이끔두 느찌 아내쓰니 어서 나오라구 허더라구. {아이구! 눈물 나와요, 참 그렇게 하고서 인제 집에 들어놓고, 팔월달에 인제 들어와갖고서 있는데, 우리 친정 어머니가, 아버지가 오라고 하더라고, 그러고 갔어요. 가니까 막 야단치면서 너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응, 왜 고(+생), 너 굶어 죽으려고 하느냐고, 너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어서 나오라고 하더라고.}
10218 # 보소 오머니 아버지 오머니 아버지 명 한번 내 그이이 해서 내가 주거두 살근느라고 그래쓰. 그러쿠서 오머니 그냥 그런께 가라구 허더라구. 그래 그냥 오너 사는디 일:년 이년 디서 으- 여기가 까시 덤프이써쓰 막:: 까시 덤프린디 달바미 저 하라배구 나어구 다 일러서 받 다:: 소니로 일러가갇꾸 이게 까시덤프 솔나무 이써는디 다:: 사니 이써는디 일러가꾸 그 해 보:리가 이케 껃보리 한마리라구 그려 그래가꾸 그거 죽 써므꼬 우리 시오머니는 받빠디서 이러케 굴 가틍거 바드락 가틍게 해가꾸 가꾸와서 동냥 해오시더라구. {보세요,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명 한번 내가 거역해서 내가 죽어도 살겠노라고 그랬어요. 그러고나서 어머니가 그냥 그러니까 가라고 하더라고. 그래 그냥 와 사는데 일년, 이년 돼서 여기, 여기가 가시덤불 있었어요, 막 가시덤불인데 달밤에 저 할아버지하고 나하고 다 일궈서 밭, 다 손으로 일궈가지고 이게 가시덤불, 솔나무 있었는데 다 산이었는데 일궈가지고, 그 해 보리가 이렇게 겉보리 한 말이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거 죽 써먹고, 우리 시어머니는 갯밭에서 이렇게 굴 같은 거, 바지락 같은 거 해가지고, 가지고와서 동냥해오시더라고.}
10218 # 그러케 머꾸 인제 해서 머꾸 인는디 일:년 이년 일:년 지난께 시:니가 하나가 겡:장히 지랄 마자써쓰. {그렇게 먹고, 인제 해서 먹고 있는데 일년, 이년, 일년 지나니까 시누이 하나가 굉장히 지랄 맞았었어요.}
10218 # 막 투커믄 막 도둑년 저 저녀니 이녀니 해가믄서 후리쌔리구 친정이 한 번 가따오믄 농 쏙 다:: 디어서 방바다기다 그냥 느러노코. {막 툭하면 막 도둑년, 저, 저년이, 이년이 해가면서 후려 때리고, 친정에 한 번 갔다오면 농 속 다 뒤져서 방바닥에다 그냥 늘어놓고.}
10218 @ 시누가 소나래예요? 소뉘에요? {시누이가 손아래예요? 손위예요?}
10218 # 소나래유. {손아래요.}

10218 @ 소나래 둘 다 둘 다요? {손아래, 둘 다, 둘 다요?}
10218 # 예 그럭. {예 그러고.)
10218 # 아니 저 예 그러구 막내 시니는 차캐셔써. 그러구 이냥 이러케 시오머니라 나 불쌍어다구 이제 감자 가튱거 저렁거 쩌머꾸서 사발 미티 어따 하나 감춰노쿠서 너 머그라구 그리유. {아니, 저 예, 그러고 막내 시누이는 착해셨어. 그러고 이냥 이렇게 시어머니가 나 불쌍하다고, 이제 감자 같은 거, 저런 거 쩌 먹고서 사발 밑에, 어디다가 하나 감춰놓고서 너 먹으라고 그래요.}
10218 # 그러믄 인제 내가 안머꾸서 그냥 두믄 인제 오무니 어디 가시믄 그 소리 드쿠서 막 부어끼 나가서 딸 탁 탁 탁 디어서 지라 머꾸서 내라 머거따구 막 지라라구. {그러면 인제 내가 안 먹고서 그냥 두면, 인제 어머니 어디 가시면 그 소리 듣고서, 막 부엌에 나가서 딸, 탁, 탁, 탁 뒤져서 자기가 먹고서 내가 먹었다고 막 지랄하고.}
10218 # 온젠가는 간:태라고 감태애서 파란는디 장 게 옌나리 둔 바꾸지 아늘 때여. {언젠가는 감태라고, 감태해서 팔았는데, (+시)장, 그 옛날에 돈 바꾸지 않을 때요.}
10218 # 둔 그때 둔 십마너니 이끔 똔 처너뉴. 그러케 핸:는디 십:마너늘 핸는디 바다에 가따 오더니 나 각씨쩌기 기세기 인자 아이 안나쓸 땐디 그냥 정:신 웁씨 오더니 막 후당탕 후당탕 그러덩거류 방이서 거시기 그저니 옌나리 이기 천정알러먼 이러케 네며진 꼳 그린 방작 종이루 천장애찌 벽 이러케 발러서. {돈, 그때 돈 십만원이 지금 돈 천원이오. 그렇게 했는데 십만원을 했는데, 바다에 갔다 오더니, 나 각시 적에 그때 인제 아이 안 낳았을 때인데 그냥 정신이 없이 오더니 막 후당탕, 후당탕 그러던 걸요, 방에서, 거시기 그전에 옛날에 천장을 하려면 이렇게 네모진 꽃 그린 도배지로 천장했지, 벽 이렇게 발라서.}
10218 # 그래서 그렁게다 해찌 나는 그런 생개기나 해때유. 그 두:늘 천장이다가 그 뚤쿠서 감추구서 나더러 가저따구 나더러 가져따구 오모니 온께는 오모니 아까 둔 어째써? 그런께 오모니가 시오모니가 니라 두지 아낸니 그렁께 내라 안 둬따구 그래가꾸 이냥 시꾸가 다 둔 찬느라구 날리여 방이서. {그래서 그런 게다 했지, 나는 그런 생각이나 했대요. 그 돈을 천장에다가 그 뚫고서, 감추고서 나더러 가졌다고, 나더러 가졌다고 이냥 어머니 오니까, 어머니 아까 돈 어쨌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네가 두지 안 했니, 그러니까 내가 안 뒀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식구가 다 돈 찾느라고 난리요, 방에서.}
10218 # 그러구서 인제 나는 인제 저녁 허는디 그렁께 으-ㅇ 저기 저 하래배는 머뚜 몰르고 나 혼자 집 빠슨께 니라 둔 가저따구 작때기 두도망들랑 나를 때려. {그러고서 인제, 나는 인제 저녁하는데, 그러니까 영, 저기 저 할아버지는 뭣도 모르고, 나 혼자 집 봤으니까 네가 돈 가져갔다고, 작대기 두도막 나도록 나를 때려.}
10218 @ 할머니 게소카세요. {할머니, 계속하세요.}
10218 # 나를 막 때리더라구 그래 난 둔 안가져따 누이 집만 보아찌 나 둔 안가져따 그니께 니라 가져찌 누가 가져간느냐구 흥께 나를 그 작때기 두던 뭉더락 때리더라구 커서 저녀기서 인제 으른들 드리고서 시오머님 들 드리고서 나는 저녁 안 머꼬서 인제 그 저녁 다 머꾸난 뒤 그래찌 내가 방이 드러누서. {나를 막 때리더라고, 그래 난 돈 안 가졌다, 너희 집만 봤지, 나 돈 안가졌다, 그러니까 네가 가졌지, 누가 가져갔느냐고 하니까 나를 그 작대기 두 동강되도록 때리더라고, 그래서 저녁해서 인제 어른들 드리고서, 시어머니 드, 드리고서 나는 저녁 안 먹고서, 인제 그 저녁 다 먹고난 뒤 그랬지, 내가 방에 들어누워서.}
10218 # 나는 집쁜:: 집: 뽀고 저녀건 지이배께 웁씽께 이 방이서 마냐게 도니 나오머는 워떤니 죽떤지 워떤노미 죽떤지 주글텡께 그거 가고들 해라 내가 그래찌. {나는 집 본, 집

보고 저녁한 죄밖에 없으니까, 이 방에서 만약에 돈이 나오면, 어떤 이가 죽든지, 어떤 놈이 죽든지 죽을 테니까 그거 각오들 해라, 내가 그랬지.}
10218 # 그러쿠서 인제 방이 드러서 그거 꼬슬 요러케:: 해서:: 흥냉이 천:장을 다 헤지이 봉께는 요 구탱이가 쪼::끔 찌우러저떤거료. 그 저기 꼬:시 이러케 주머그로 콱: 찌릉께 자끼장 하나가 떠러지유. 이케 터러봉께 그서 도니 나오유 시니라 감추고. {그러고서 인제 방에 들어가서 그거 꽃을 요렇게 해서 흙 천장을 다 헤집어 보니까, 요 구석이 조금 기울어졌던 걸요. 그 저기, 꽃이 이렇게 주먹으로 콱 찌르니까, 잡기장 하나가 떨어져요. 이렇게 털어보니까 거기서 돈이 나와요, 시누이가 감추고.}
10218 @ 그 사이에서? {그 사이에서?}
10218 # 예 이케 채글 토앙끼는 채:기다 하나예다 돈 처넌씩 느 느:서 그 자끼장을 감춰떠라구. 그러구서 하라밴 저 하라배는 머뚜 모르고 나 작 작때기 나더럭 두동몽 나더락 패서 그냥 몸뚱이가 싣:퍼래지고 그래서 그거 차자노쿠서 내가 부어까서 칼 가꾸 드러왇쓰 너 주꾸 나 죽자 그래서 붇 그러커 허자 내가 지아물 해써 방이서. {예, 그렇게 책을 뒤집으니까는 책에다, 하나에다 돈 천원식 넣, 넣어서 그 잡기장을 감췄더라고. 그러고서 할아버지는, 저 할아버지는 뭣도 모르고 나 작, 작대기 나도록, 두 동강 나도록 패서 그냥 몸뚱이가 시퍼래지고, 그래서 그거 찾아놓고서 내가 부엌에 가서 칼 갖고 들어왔어요, 너 죽고 나 죽자, 그래서 붇,그렇게 하자 내가 기절을 했어, 방에서.}
10218 # 그런께 하라 말 양중이 추워서 닏 떠러본께 눈 떠본께 이냥 물 가따 노쿠 찌언저서 막 방여 물두 읻꼬 그래떠라고 나 그러케 시집살고 처대. {그러니까 하라는 말, 나중에 추워서 닏, 떨어보니까, 눈 떠보니까 그냥 물 갖다 놓고 끼얹어서, 막 방에 물도 있고 그랬더라고, 나 그렇게 시집살고, 첫 애.}
10218 @ 그러면 할머니믄 시어머님 시집사리는 안 하신 편? {그러면 할머니는 시어머님 시집살이는 안 하신 편이에요?}
10218 # 시오머니는 안 해 시키시고 시이가 그러케 시키. {시어머니는 안 시키시고, 시누이가 그렇게 시켰어요.}
10218 @ 그 시누이 시집사리를 하셔써요? 그두 두 시누이 중에 첟 씨누 처째 시누이. {그 시누이 시집살이를 하셨어요? 그 두, 두 시누이 중에 첫 시누이, 첫째 시누이.}
10218 # 큰시:니가. {큰시누이가.}
10218 @ 큰시누이한테. {큰시누이한테.}
10218 # 망내는 그러치 안쿠 그러구서낭 투커먼 망 내 머리끄댕이 끌구 대니먼서 후리 쌔리고 발질로 차고 아::이고! 말도 마러. 그리두 넘드리 도망가라구 그 머더러 그게 머글거도 웁는디 그러구 사느냐구 도망가라구 허는디 도망가믄 우리 오머니 우리 아버지 중는다고 어트케든지 우리 아버지 내 아피서 내가 성공을 허드노라고. {막내는 그렇지 않고, 그러고서 그냥 툭하면 막 내 머리끄덩이를 끌고 다니면서 후려 때리고, 발길로 차고, 아이고! 말도 말아. 그래도 남들이 도망가라고, 그 뭣하러 그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러고 사느냐고, 도망가라고 하는데 도망가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죽는다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아버지, 내 앞에서 내가 성공을 하겠노라고.}
10218 # 그러쿠서 아:가시꼬::뚜 찰: 일르자믄 한 차늘 머거쓸겨 쑤글 뜨더머거써도 한 차는 뜨더머꾸. 그러쿠서 그냥 반. {그렇게 하고서 아카시아꽃도 철 이르자면 한 참을 먹었을 거요, 쑥을 뜯어 먹었어도 한 참은 뜯어먹고. 그러고서 그냥 반.}
10218 @ 왜요? 할머니 왜? {왜요? 할머니, 왜?}

10218 # 머글꺼 웁써서 아:가씨꼬시다가 밀깔. {먹을 것 없어서, 아카시아꽃에다가 밀가루.}
10218 @ 시대게 머글거씨 전부 업써서요? {시댁에 먹을 것이 전부 없었어요?}:
10218 # 예 암꺼뚜 웁시유 너 너미 이러믄 일찌비 가서 밥 어더다 머꾸 그래씨유. 그러쿠서 그그그걸 사는디 오트하다본께 처막 처:대 딸나써 여라오비 여라오비 딸나가꾸 그게 열릴곱 덴께 죽떠믄 그류. 그래가꾸 어트게 어트게 또 머더게 살다가 도망 주글라구 해써써 자살해써 주글라고 멷뻔늘 다 에::이구! 그러케 하믄 몯쓰지 허구 해떠니. {예,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 남의 일하면 일 집에 가서 밥 얻어다 먹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서 그, 그, 그걸 사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첫, 첫 아이 딸 나았어 열아홉에, 열아홉에 딸 나가지고 그게 열일곱 되니까 죽더구먼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또 뭣하게 살다가 도망, 죽을라고 했었어, 자살했서, 죽을라고 몇 번을 다, 아이고! 그렇게 하면 못쓰지 하고 했더니.}
10218 # 네리 아들 샘형제 나쿠서 아이 둔 나쿠서는 머글거씨 웁씅께는 저::기 쌀:: 요::만큼이다가 긍께 우리 강 크나이 난는디 우리 처대 따리라가. {내리 아들 삼형제 낳고서, 아이 둘 낳고서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는, 저기 쌀 요만큼에다가, 그러니까 우리 강, 큰아이 낳는데 우리 첫 아이 딸이.}
10218 # 인지 도:랑이씽께 그거를 인제 그거 처댄제 얘다를 인냥호 바 처꾹빱 인제 두 두 둘네 둘 날쿠 난디 처꾹빱 해완는디 쌀 요:만큼 저기 무티 손 미티다가 물 분꼬 양지기다 쌀 너쿠 덜렁덜렁 빼:서 그러케서 바배완는디 요:만큼 해완는디 그처대 우리 처대대다 홀랑 글거먹덩거료. {인제 도랑 있으니까, 그거를 인제 그거 첫 애 인제 애닳은 이냥 밥, 첫국밥 인제 두, 두, 둘셋, 둘 낳고 난 뒤 첫국밥 해왔는데, 쌀 요만큼 저기, 밑에, 솥 밑에다가 물 붓고, 양재기에다 쌀 넣고 덜렁덜렁 빼서 그렇게 해서 밥 해왔는데, 요만큼 해왔는데 그 첫애, 우리 첫 애에게다 홀랑 긁어 먹이던 걸요.}
10218 # 그러쿠서 아이 미역꾹 냉겨줜는디 배는 고프지 애는 또 밥 배고프다고 우러싸찌 물:만 부::안 머거서 내가 모미 이러케 버써쓰. 그래케가꾸 이러케 부어가꾸서 부왕 나가꾸서 막 약 사다머꾸 아::이구! {그렇게 하고서 아이 미역국 남겨줬는데, 배는 고프지, 애는 또 밥, 배고프다고 울어 쌓지, 물만 많이 먹어서 내가 몸이 이렇게 부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부어갖고서, 부황나서 막 약 사다먹고 아이고!}
10218 @ 할머니 그게 너무 가슴 아픈 얘기니까 그 얘긴 이제 그만 하세요 가스미 너무 아파. 할머니 그러면 큰 시누이는 며싸레 시집 가써요 큰 시누이 시집사리는 면 년이나 하신 거에요? {할머니, 그게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니까, 그 이야기는 이제 그만 하세요, 가슴이 너무 아파. 할머니 그러면 큰 시누이는 몇 살에 시집 갔어요? 큰 시누이 시집살이는 몇 년이나 하신 거에요?}
10218 # 한 한 이년 한 삼년 시집사리 해쓰 그러구서. {한, 한 이년, 한 삼년 시집살이 했어요, 그러고서.}
10218 @ 그러케 하다가 시집 가써요? {그렇게 하다가 시집 갔어요?}
10218 # 예 시까두 시집 가찌. {예, 시집가도, 시집 갔지.}
10218 @ 큰 시누 시집 가고 난 다메는 그런 마음 고생은 덜 하셔써요? {큰 시누이 시집 가고 난 다음에는 그런 마음 고생은 덜 하셨어요?}
10218 # 들: 해쥬 그리구 막내 시니는 마흔 한사레 주거써. {덜 했죠, 그리고 막내 시누이는 마흔 한 살에 죽었어.}
10218 # 저 해미 예. {저 해미 예.}

10218 @ 시집 시집 안 가고? {시집, 시집 안 가고?}
10218 # 시집 가서 저 수원 서울 수워니루 시집 간는디 스물 한 저 마흔 한사레 주꾸 이끔 큰시니는 대전서 사류 근디 소식두 웁써. {시집 가서, 저 수원, 서울, 수원으로 시집 갔는데 스물 한, 저 마흔 한 살에 죽고, 지금 큰시누이는 대전에서 살아요, 그런데 소식도 없어.}
10219 @ 할머니 그러면 시집 오셔쓸 때 그 너무 머글 꺼 업꼬 가난하고 이런 거 이런 거 또 그러치만 또 어떤 머 다른 가튼 동네에서 시집 오셔쓰니까 머 특벼리 풍스비 다르거나 머 그러친 아느셔께네요? {할머니, 그러면 시집 오셨을 때, 그 너무 먹을 거 없고, 가난하고 이런 거, 이런 것도 그렇지만, 또 어떤 뭐 다른, 같은 동네에서 시집 오셨으니까 뭐 특별히 풍습이 다르거나 뭐 그렇지는 않으셨겠네요?}
10219 # 예:. {예.}
10219 @ 그냥 이: 친정 때처럼 몬:머꼬 몯: 지내신 거 그게 다른 저미어껜네요? {그냥 이, 친정 때처럼 못 먹고, 못 지내신 거 그게 다른 점이었겠네요?}
10219 # 그걸 보구 시니한테 거기 도둑 소리 드꾸 살구. {그걸 보고 시누이한테 거기, 도둑 소리 듣고 살고.}
10219 @ 시누 시누 옌나레 시누들께서는 다들 왜 그러셔쓸까요? {시누이, 시누이, 옛날에 시누이들께서는 다들 왜 그러셨을까요?}
10219 # 아:이구 말두 무태유. {아이고, 말도 못 해요.}
10221 @ 할머니 그러면 음 요즘 그 이 요새 그 할머니는 시어머 시어머니 시집사리 안 하셔쓰니까 잘 오히려 그런데 요즈믄 왜 시어머니 하고 며느리들 이러케 다투자나요? 시집사리도 안 하려고 하고 아까 할머니. {할머니, 그러면 음, 요즘 그, 이 요새 그 할머니는 시어머니, 시어머니 시집살이 안 하셨으니까 잘, 오히려 그런데 요즘은 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들 이렇게 다투잖아요? 시집살이도 안 하려고 하고, 아까 할머니.}
10221 # 그래서 내 그래서 나두 며느리들 으꾸서 우리 큰:며느리는 제일 큰:며느리는 일:년 데리구 이따 느덜 재미께 느덜 절머서 사르라구 집사서 이내 지끔 내주고. {그래서 내, 그래서 나도 며느리들 얻고서 우리 큰며느리는, 제일 큰며느리는 일년 데리고 있다, 너희들 재밌게, 너희들 젊어서 살라고, 집 사서 이내 세간 내주고.}
10221 # 또 두::째는 슥::딸 마니 제금 내주고 니::째는 그냥 으더서 그냥 이내 제금 내주고. {또 둘째는 석 달만에 세간 내주고, 네째는 그냥 얻어서, 그냥 이내 세간 내주고.}
10221 # 망내는 일 그거 하두 구여께 해서 내가 인지 느덜 내가 느덜 여 다 여워서 인제 느덜 이끔 내노믄 내가 서운앙께 망내야 일 년만 이짠께 망:내가 아드리 옥 저 성드른 이내 이내 제금 내주구 외 나는 고상시키느냐구 월:마나 지라라건나 그리 그럼 가라 가라구어서. {막내는 일, 그거 하도 귀엽게 해서, 내가 인제 너희들, 내가 너희들 여, 다 여의어서 인제 너희들 지금 내보내면, 내가 서운하니까, 막내야 일 년만 있자니까 막내가, 아들이 오, 저 형들은 이내이내 세간 내주고, 왜 나는 고생시키느냐고 얼마나 지랄하나, 그래 그럼 가라, 가라고 해서.}
10221 # 일년 쪼금 무때서 이내 제금 내주고 그래써. 그러구 우리 큰 나 따린는 거는 우리 큰 며느리 으드먼서 두:: 달 슥::따리나 데리고 이썬나 너 시누 노르 허지 말구 너 서울로 가 그서 우리 딸 이내 내보내써 며느리 시집싸리. {일년 조금 못 돼서 이내 세간 내주고, 그랬어. 그러고 우리 큰, 나 딸 있는 거는 우리 큰 며느리 얻으면서 두달, 석달이나 데리고 있었나, 너 시누이 노릇하지 말고, 너 서울로 가, 그래서 우리 딸 이내 내보냈어, 며느리 시집살이.}

10221 @ 그럼 할머니믄 그 할머니 하고 며느리도 며느리도 세시나 이쓰니까요 할머니. {그럼 할머니는 그 할머니하고 며느리도, 며느리도 셋이나 있으니까요, 할머니.}
10221 # 네시여 나 메누리. {넷이에요, 나 며느리.}
10221 @ 그러초 아드니미 네니까 네시나 이쓰니까 할머니하고 며느리 사이에서 머 그런 이 다툼 가튼 건 크게 업스 업쓰셔쪼? {그렇죠, 아드님이 넷이니까, 넷이나 있으니까, 할머니하고 며느리 사이에서 뭐 그런, 이 다툼 같은 건 크게 없어, 없으셨죠?}
10221 # 웁쓰 난 우리 메느리들 다:: 차캐 니::애 또::까치 머 주더서 언태씨 시베도니 올까장 주어쓰 삼마넌씩 언태씩 찌금. {없어요 난, 우리 며느리들 다 착해, 네 아이 똑같이 뭐 줘도, 여태씩 세, 세뱃돈 올해까지 줬어요 삼만원씩, 여태씩 지금.}
10219 @ 그러고 할머니 시어머니께서 시어머니미 특벼리 친정 어머니 하고 다르게 특벼리 머 머 특벼리 다르게 이런 거 저런 걸 이러케 하 하라고 하신 건 업스세요? {그리고 할머니 시어머니께서, 시어머님이 특별히 친정 어머니하고 다르게, 특별히 뭐, 뭐 특별히 다르게 이런 거, 저런 걸 이렇게 하, 하라고 하신 건 없으세요?}
10219 # 웁::쓰. {없어요.}
10219 @ 예를 들면 머 머 빨래는 할 하는 이리나 요리하는 이리나 아니면 머 지반이리 특벼리 친정 어머니 하고 다르게 하는 방법 가튼 거 다른 건 크게 다른 건 업써서요? {예를 들면 뭐, 뭐 빨래를 할, 하는 일이나, 요리하는 일이나 아니면 뭐, 집안일이 특별히 친정 어머니하고 다르게 하는 방법 같은 거, 다른 건, 크게 다른 건 없었어요?}
10219 # 웁::쓰. {없어요.}
10222 @ 지금 할머니가 며느님들 하고 볼 때는 가치 마니 안사시니까 멀 시키고 말고 할 꺼도. {지금 할머니가 며느님들하고 볼 때는 같이 많이 안 사시니까, 뭘 시키고 말고 할 것도.}
10222 # 웁::쓰. {없어요.}
10222 @ 업스쎠께네요. {없으셨겠네요.}
10222 # 오므는 내가 척척척 허지 느덜 시어메라 하던 거 누덜 누덜끼다구서 그냥 내가 헐:: 이른 해주고 이거이거 워트게 워트게 워트게 하라구 이캐 일러만 주구 허지 아주 시집 안살려. {오며는 내가 척, 척척하지, 너희들 시어머니가 하던 거, 너희들, 너희들께에다 하고서 그냥, 내가 할 일은 해주고, 이거, 이거,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알려만 주고 하지, 아주 시집살이 안 시켜.}
10222 @ 그거 머 요즘 며느리 눈치 보는 건가요? 아니, 아니며는. {그거, 뭐 요즘 며느리 눈치 보는 건가요? 아니, 아니면.}
10222 # 내가 고상하고 사라서 내새끼 구엽께 키쓰면 그눔도 구엽께 키키지 아내꺼쓰 며느리들뚜? {내가 고생하고 살아서, 내 자식 귀엽게 키웠으면, 그놈도 귀엽게 키우지 않았겠어요, 며느리들도?}
10222 # 그래서 이~ 참 내 새끼보덤 난 메누리 더 다동거류 참:마래찌 내새끼비기 읻 이씬께 넘새끼두 드러온 거 아녀? 그런께 그눔 내새끼가 구엽게 씨스믄 걔두 지 부모라 구엽게 키여쓸껴. 그래서 아주 우리 메느리더른 잘::해두 자래따 잘: 모대두 잘: 해따 그냥 그러케 허구 사류. {그래서 응, 참 내 자식보다, 난 며느리를 더 잘해줘요, 참 말했지 내 자식 복이 있, 있으니까 남의 자식도 들어온 거 아니요? 그러니까 그놈, 내 자식이 귀엽게 컸으면, 걔도 자기 부모가 귀엽게 키웠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우리 며느리들은 잘해도 잘했다,

잘못해도 잘했다 그냥 그렇게 하고 살아요.}
10222 # 근디 이끔 젤::허는 게 큰노미 나낀 나떤걸유. {그런데 지금 제일 잘 하는 게, 큰놈이 낫긴 낫던걸요.}
10222 @ 제일 큰며느리가요? {제일 큰며느리가요?}
10222 # 예 큰아들두 나꾸 큰며느리두다 스긴 쓰는 게 미티 애드른 큰누믈 미꾸 그러는지 가마니 허는 거 보믄 큰느미 나낀 나때. 그래두 어트게 큰느미 나따꾸 기서 쪼끔 다께 한대유? 또::까치 그려 또::까치 그냥 핸네. {예, 큰아들도 낫고, 큰며느리도 쓰긴 쓰는 게, 밑의 애들은 큰놈을 믿고 그러는지, 가만히 하는 거 보면 큰놈이 낫긴 낫데. 그래도 어떻게 큰놈이 낫다고, 그래서 조금 다르게 하나요? 똑같이 그래, 똑같이 그냥 했네.}
10222 @ 아무래도 동생보다 형이니까 쫌 더 나은 거 가태요. {아무래도 동생보다 형이니까 좀 더 나은 거 같아요.}
10222 # 예 신경 쓰는 거뚜 나::뜨라구 근데 나는 언태까장 해:느리기를 또::까치 헤내르오. {예, 신경 쓰는 것도 낫더라고, 그런데 나는 여태까지 해 내려오기를 똑같이 해 내려와.}
10222 @ 할머님들 며느니믄 머 친정이 다 어디어디에요? {할머니 며느리들은 뭐, 친정이 다 어디 어디예요?}
10222 # 우리 큰:메느리리는 안:산 안:사니구 우리 두째네는 부:안 그러구 또 우리 막내는 태:안. {우리 큰며느리는 안산, 안산이고, 우리 둘째네는 부안, 그리고 또 우리 막내는 태안.}
10222 # 또 한 저기 시:째는 저:: 해:뀌천. {또 한, 저기 셋째는 저 삽교천.}
10222 @ 그러면 그 명절 때는 다 모이나요 할머니? {그러면 그 명절 때는 다 모이나요? 할머니.}
10222 # 예 대 다오유. {예, 다, 다와요.}
10222 @ 그럼 다 친정이 다 조금씩 다른데 명절 지내는 풍스비 머 좀 크게 다르거나 이런 건 업나요? 명절 음시글 친정 며느리드른 명절 음식 때 특벼리 해먹는 게 친정 때하고 할머니 여기 하고 다른 거나. {그럼 다, 친정이 다 조금씩 다른데, 명절 지내는 풍습이 뭐, 좀 크게 다르거나 이런 건 없나요? 명절 음식을, 친정 며느리들은 명절 음식 때 특별히 해먹는 게, 친정 때하고 할머니 여기하고 다른 거나.}
10222 # 다른 거 웁쓰 그냥 주덜 저 머더지 안케 내가 널랑 머 해오라 널랑 머 해오라 이러케 허지 부당 그러케 헤서 또 내가 다 허믄 저 주더리 해가꼬 오는 거또 부당가구 저 머 허똔 아닌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저희들, 저 뭣하지 않게, 내가 너는 뭐 해와라, 너는 뭐 해와라 이렇게 하지, 부담, 그렇게 해서 또 내가 다 하면, 저 저희들이 해가지고 오는 것도 부담가고, 저 뭐 헛돈 아닌가?}
10222 # 그래서 올 오릴랑은 널랑 배를 사라 널랑 사과 사라 널랑은 기물 사라 나는 머 하거따 이러케 해유. 그럼 고대루 해가꾸. {그래서 올, 올해는 너는 배를 사라, 너는 사과 사라, 너는 김을 사라, 나는 뭐 하겠다 이렇게 해요. 그럼 그대로 해가지고.}
10218 @ 할머니는 시집 시어머니미 시집사리 안 하셔찌만 할머니 그 때에 할머니 또래 때 그 때 주변에선 시집사리 마니 하자나요. {할머니는 시집, 시어머님이, 시집살이 안 하셨지만, 할머니 그 때에, 할머니 또래 때, 그 때 주변에서는 시집살이 많이 하잖아요.}
10218 # 아니 아내쓰. {아니, 안 했어요.}
10218 # 그 때 마니들 해두 난 여기 이이 저기 우리 동네에서는 나 하나배끼 아내써 다::

말 드른께 시집 산 사람 웁떠라구. {그 때 많이들 해도, 난 여기 이, 이, 저기 우리 동네에서는 나 하나밖에 안 했어, 다 말 들어보니까 시집살이 한 사람 없더라고.}
10218 @ 음 그래써요 다행이네. {음 그랬어요? 다행이네.}
10218 # 내가 시지븐. {내가 시집은.}
10218 @ 할머니 시누이 시집 사시느라고요? {할머니, 시누이 시집 사시느라고요?}
10218 # 원천 시집싸라써. {워낙 시집살이 했어.}
10221 @ 요즈믄 그러면 할머니 그 요즘 사람드른 할머니처럼 다 그러게 다 친하게 잘 지내요? 주벼네 며느리 하고 시누이 사이가 다? {요즘에는, 그러면 할머니, 그 요즘 사람들은 할머니처럼 다 그렇게 다 친하게 잘 지내요? 주변에 며느리하고 시누이 사이가 다?}
10221 # 예 우리 메느리드른 그냥 도랑도랑. {예, 우리 며느리들은 그냥 도랑도랑.}
10221 @ 할머니 대기야 그런데 주벼네서는 어때요 할머니 동네 주벼네서도 다? {할머니 댁이야 그런데, 주변에서는 어때요, 할머니 동네 주변에서도 다? }
10221 # 이 둥네서 이 둥네에서두 마::니 시끄러운 사라믄 시끄럽찌. {이 동네에서, 이 동네에서도 많이 시끄러운 사람은 시끄럽지.}
10221 @ 요새는 멀로 시끄럽나요? {요새는 뭘로 시끄럽나요?}
10221 # 그 머 시::어메가 머 고연히 그냥 야다너구 뭐더구 이거 꼬집꾸 그런 사람사리 만터라구 근디 요너머 할매두 메느리 하나 내쪼차써. {그 뭐, 시어머니가 뭐 공연히 그냥 야단치고, 뭐하고, 이거 꼬집고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런데 여 너머 할머니도 며느리 하나 내쫓았어.}
10221 @ 내쪼차써요? 내쪼차따는 건 무슨 뜨시에요? {내쫓았어요? 내쫓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10221 # 예 나가 나가써 하두 시집 시어메가 시집. {예, 나가, 나갔어, 하도 시집, 시어머니가 시집(+ 살이).}
10221 @ 분가를 시켜따는 마린가요? 아니면 아. {분가를 시켰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아.}
10221 # 이::원해찌. {이혼 했지.}
10221 @ 아 이오늘 시켜따구요 아예? {아, 이혼을 시켰다고요, 아예?}
10221 # 그러쿠서 이끔 애기 몬 나는 사람 데리꾸 살다 할매 이끔 주근지 한 삼년 데느믄 그러컹거 봔는디 난 그거 잘몯 생각 허유. {그렇게 하고서 지금 아기 못 낳는 사람 데리고 살다, 할머니 지금 죽은 지 한 삼년 되었는데, 그렇게 한 거 봤는데, 난 그거 잘못 생각해요.}
10221 @ 머 머가 그러케 마으미 안 마떤가요? {뭐, 뭐가 그렇게 마음이 안 맞던가요?}
10221 # 몰르지 너미 속 아나? {모르지, 남의 속을 아나?}
10221 @ 아니 그건 머 대충 요새는 멀로 그러케 마으믈 안 마자 하나요? {아니, 그건 뭐, 대충 요새는 뭘로, 그렇게 마음을 안 맞아 하나요?}
10221 # 그런께 재개 인저 이르자믄 인지 지비서 가장 살리미든지 인제 드:리 나가서 이:리든지 허머는 이제 한 가지 숭 잡떠먼 게으른다든지 추저바다든지 그런 거 가꾸 이게 머대가꾸 며느리 내쪼츤 할매두 이써. {그러니까 그게 인제 이르자면, 인제 집에서 가장 살림이든지, 인제 들에 나가서 일이든지 하면은, 이제 한 가지 흉 잡더구먼 게으르다든지, 추접하다든지 그런 거 가지고, 이게 뭣해가지고 며느리 내쫓은 할머니도 있어.}
10221 @ 그니까 들릴 하거나 지반닐 하는데 이게 안마저 마으미 안마저서 마으미 안드러서. {그러니까 들일 하거나, 집안일 하는데 이게 안 맞아, 마음이 안 맞아서, 마음에 안 들어서.}

10221 # 예 그런 사라미 이낀 이쓰. {예, 그런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10221 @ 근데 아드른 머아고 어트게? {그런데 아들은 뭐하고, 어떻게?}
10221 # 아드른 농사꾼. {아들은 농사꾼.}
10221 @ 그런데 그러케 어트게 이호늘 하게 데나요?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이혼을 하게 되나요?}
10221 # 그렁께 증:: 머::던께는 여자가 모싼다 항께는 처대 아 아이난 거뚜 주꾸서 그렁께는 서로 이온 하더 그냥 몰::래 나가가꾸서 나가가꾸 멘 멘 한 메딸 이따가서 연락 아낭께 이온 하더라. {그러니까 정 뭐하니까는, 여자가 못 산다고 하니까는 첫 애, 아, 아이 낳은 것도 죽고서, 그러니까는 서로 이혼 하데, 그냥 몰래 나가서, 나가갖고 몇, 몇, 한 몇 달 있다가 연락 안하니까 이혼하더라.}

1.2.6 환갑잔치

10223 @ 하도 몯견뎌서 나간 걸 거에요 할머니도 황갑 아까 황갑잔치 하셔따고 그러셔쪼? {하도 못 견뎌서 나간 걸 거예요, 할머니도 환갑, 아까 환갑잔치 하셨다고 그러셨죠?}
10223 # 환갑잔치야 머 나가서 저. {환갑잔치야 뭐 나가서, 저.}
10223 @ 어디서 하셔써요? {어디에서 하셨어요?}
10223 # 서산 식땅에서 어서 그냥 밥 머꾸 마라쓰. {서산 식당에서, 어디에서 그냥 밥 먹고 말았어요.}
10223 @ 그러면 옌날처럼 머 지베서 궤 장 상 궤고 이러니른 안 하셔껜네요. {그러면 옛날처럼 뭐, 집에서 괴, 상, 상 괴고 이런 일은 안 하셨겠네요?}
10223 # 아내 아낻쓰 우리 하라배만 내라 해줘찌. {안해, 안했어요, 우리 할아버지만 내가 해줬지.}
10223 @ 에? 하라버지는 하셔써요? {예? 할아버지는 하셨어요?}
10223 # 그건 접때 예. {그건 저번에, 예.}
10223 @ 할아버지 때는 지베서 할머니가? 어트게 준비하셔써요? {할아버지 때는 집에서 할머니가?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10223 # 지비서 돈 쪼끔 해가꾸 애들떠라 아버지 독신 하난 걸 느덜 자시기 뭐냐? 내가 무언 무언 할텡께 느더리 머머 돈 쪼끔 내사 아버지 이러케 이러케 해라 해서 내라구 오데 주구. {집에서 돈 조금 해가지고, 애들한테 아버지 독신 하나인 걸, 너희들 자식이 뭐냐? 내가 무엇, 무엇 할테니까 너희들이 뭐,뭐 돈 조금 내서 아버지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해서, 내가 그 옷 해주고.}
10223 @ 자식드리 도늘 이제 쪼금씩 모아가지고. {자식들이 돈을 이제 조금씩 모아가지고.}
10223 # 아뉴 자식뜨리라 인제 메가꾸서 인제 저렁거 인제 뭐여? 항갑 산 상: 짜는 게 십만 저 삼심마넌이유. 그렁거 해주구 허구 인제 술 가틍거 저러게 음식 가틍거 차리구 내라 하라배는 나는 하라배 바지저고리 두루매기 해주구. {아니요, 자식들이 인제 모아가지고서, 인제 저런 거, 인제 뭐요? 환갑 상, 상 짜는(+괴다) 게 십만, 저 삼십만 원이요. 그런 거 해주고, 하고 인제 술 같은 거, 저렇게 음식 같은 거 차리고, 나는 할아버지, 나는 할아버지

바지저고리, 두루마기 해주고.}
10224 @ 그며는 상을 차리며는 어트게 지베서 상을 차리셔써요 할머니? {그러면은 상을 차리면, 어떻게 집에서 상을 차리셨어요, 할머니?}
10224 # 그게 그게 그게 상 저 항:갑사니 상이라구 상 이러케 짜:는 거 이쓰 짜:서 해줘찌. {그게, 그게, 그게 상, 저 환갑상이 상이라고, 상 이렇게 짜는 거 있어요, 짜서 해줬지.}
10223 @ 근께 마춰서 이러케 해주는 거네요. 그럼 항갑 항가비 되면 주로 뭘 머머 해주는 건데요 할머니? 상을 하나 하나 마추고 또요? {그러니까 맞춰서 이렇게 해주는 거네요. 그럼 환갑, 환갑이 되면 주로 뭘, 뭐, 뭐 해주는 건데요 할머니? 상을 하나, 하나 맞추고 또요?}
10223 # 그러커구 오::대 주구. {그렇게 하고 옷 해주고.}
10223 @ 오슬 머 새로? {옷을 뭐 새로?}
10223 # 예 새로 오대주구. {예, 새로 옷 해주고.}
10223 @ 두루마기까지 한 벌 이르케 하고. {두루마기까지 한 벌 이렇게 하고.}
10223 # 에 그러쿠 저: 사진 찌거주구. {예, 그리고 저, 사진 찍어주고.}
10223 @ 아 환갑사진 상:하고 아페서 찍나요? {아, 환갑사진, 상하고 앞에서 찍나요?}
10223 # 그러커구 애덜리라 저러구 가족사진 찍구 그래찌 머. {그리고 애들이 절하고, 가족사진 찍고 그랬지, 뭐.}
10223 @ 그니까 할머니 때 할머니 하고 연배가 비슷 해따 하더라도 상을 궤는 사람들도 이써꼬 할머니처럼. {그러니까 할머니 때, 할머니하고 연배가 비슷했다 하더라도 상을 괴는 사람들도 있었고, 할머니처럼.}
10223 # 궤:는 사래미 사:다가 해찌. {괴는 사람이 사다가 했지.}
10223 @ 그니까 할머니 상 궤:고 하는 거는 몯 보셔써요? 친정에 게시거나 하시면서도? {그러니까 할머니, 상 괴고 하는 거는 못 보셨어요? 친정에 계시거나 하시면서도?}
10223 # 우리 하래배? {우리 할아버지?}
10223 @ 할머니 친정에 게실 때. {할머니 친정에 계실 때.}
10223 # 응:: 묻::빠지. {응, 못 봤지.}
10223 @ 아 그 때 어리 어리셔가지고. {어땠어요? 아, 그 때 어리, 어리셔가지고.}
10223 # 예 무뽀구서 예기. {예, 못 보고서 얘기.}
10223 # 예 어려서가꾸 그러구 또 우리 오머니 아버지는 안:: 해써 그저니 친정 오무니 아버지는. {예, 어려서, 그러고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안 했어 그전에, 친정 어머니, 아버지는.}
10223 @ 왜요? 형편도 갠차느션는데. {왜요? 형편도 괜찮으셨는데.}
10223 # 형편도 갠차는디 그저니 옌날 으른드른 그 돈 따지느라구 그렁거 안트라구. {형편도 괜찮았는데, 그전에 옛날 어른들은 그 돈 따지느라고 그런 거 안하더라고.}
10223 @ 허튼 돈 쓴다고요? {허튼 돈 쓴다고요?}
10223 # 예 그래가꾸 우리 하라버지두 항갑잔치 아나시구 우리 할머니두 안쿠 우리 오머니 아버지두 안쿠 그리구서 그렁거 그러쿠 째끄만 째끄마서두 그러커 안꺼 아내써 우리 친정은. {예, 그래가지고 우리 할아버지도 환갑잔치 안 하시고, 우리 할머니도 않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않고, 그리고서 그런 거 그렇고, 쪼그만, 쪼그만해서도 그런 거 안 해, 안 했어, 우리 친정은.}
10224 @ 그거 환 환갑상을 이러케 궤는 거 이짜나요 음시글 그걸 특벼리 잘 궤는 기술짜

드리 이뜨라구요. {그거 환, 환갑상을 이렇게 괴는 거 있잖아요, 음식을, 그걸 특별히 잘 괴는 기술자들이 있더라고요.}
10224 # 예 기술자드리 데려다 우리 장::씨네 조카라고 그 사래미 잘 싸셔. 그래서 음식 다 해서 짜서 해찌. {예, 기술자들을 데려다, 우리 장씨네 조카라고 그 사람이 잘 싸셔. 그래서 음식 다 해서, 짜서 했지.}
10224 @ 그부니 인제 궹 짠 거에요 상을 하나? {그분이 인제 괸, 짠 거예요, 상을 하나?}
10224 # 예. {예.}
10224 @ 그런 분드른 어디서 배우는 거에요 할머니? {그런 분들은 어디에서 배우는 거예요, 할머니?}
10224 # 그저니 저:기 머 배워떤 그렁거류. {그전에 저기 뭐, 배웠던 그런 걸요.}
10224 @ 그냥 눈찜짜그로 배우나요? 여기 저기. {그냥 눈짐작으로 배우나요? 여기 저기.}
10224 # 그러치 그러치 그렁걸뇨. 그러니까 배워떠라구 그래서 저 하라배 ****** 해구.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걸요. 그러니까 배웠더라고, 그래서 저 할아버지 ****** 하고.}
10225 @ 할머니 항갑잔치에 초대 바드며는 인제 머 주벼네서 항갑이다 초청 하자나요? 놀러오라구 밤먹으라구 하구. {할머니, 환갑잔치에 초대 받으면 인제 뭐, 환갑이다 초청 하잖아요? 놀러 오라고 밥 먹으라고 하고.}
10225 # 예 그저니 예 그저니는 핸는디 그저닌 인제 놀러오라구 항갑잔치 가튼 거 허믄 놀러오라구 함디 저:기 천첩장 가따 돌려찌 근디 글래로는 안터믄. {예, 그전에 예, 그전에는 했는데, 그전에는 인제 놀러오라고, 환갑잔치 같은 거 하면, 놀러오라고 하는데 저기 청첩장 갔다 돌렸지, 그런데 근래에는 않더구먼.}
10225 @ 옌날 가트며는 그러면 뭘: 인제 초 초청 바드며는 뭘: 머 특벼리 가꼬가는 머 머가 인나요? 물거니나 음식 가튼 게. {옛날 같으면, 그러면 뭘, 인제 초, 초청 받으면 뭘, 뭐 특별히 갖고 가는 뭐, 뭐가 있나요? 물건이나 음식 같은 게.}
10225 # 그저니는 이 도:니루 우리 하라배짜근 도:니루 마니 드러와떼. {그전에는 이 돈으로, 우리 할아버지 적은 돈으로 많이 들어왔데.}
10225 @ 요새두 요새는 거이 돈봉투를 하는데 옌나레도 그랜나요? {요새도, 요새는 거의 돈봉투를 하는데, 옛날에도 그랬나요?}
10225 # 예 옌날두 그래쓰 근데 이끄믄 안 해여 항갑잔치 때 돈봉투 아내여. {예, 옛날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해요, 환갑잔치 때 돈봉투 안 해요.}
10225 @ 사람 그 황갑보다 보통 환가븐 다 사시니까 칠순 잔치를 하시나요 요새는? 환가블 그냥 지나가시나요? {사람, 그 환갑보다 보통 환갑은 다 사시니까, 칠순 잔치를 하시나요, 요새는? 환갑을 그냥 지나가시나요?}
10225 # 그건 몰르건네 너미니께 우린 다 해씨 해바쓴께 몰르는디 대개 보머는 항갑잔::치 그저니는 놀러 오라구 허구 허더니 글래루는 안터라구 그냥 놀러오라믄 가서 막걸리 한잔 머꾸 오는디두 이꾸. {그건 모르겠네 남이니까, 우리는 다 했어, 해봤으니까 모르는데, 대개 보면 환갑잔치, 그전에는 놀러 오라고 하고 하더니 근래에는 않더라고, 그냥 놀러오라면 가서 막걸리 한잔 먹고 오는 데도 있고.}
10225 @ 하라버지 황갑잔치 하셔쓰며는 그 때. {할아버지 환갑잔치 하셨으면 그 때.}
10225 # 그 때만 해두 이제 옌나리라 다 저 청첩장 보내찌. {그 때만 해도 이제 옛날이라 다, 저 청첩장 보냈지.}
10225 @ 그러면 황갑잔치를 하면 제일 먼저 이제 청첩짱을 다 보내나요? {그러면 환갑잔

치를 하면 제일 먼저, 이제 청첩장을 다 보내나요?}
10225 # 예:. {예.}
10225 @ 어터게 보내나요 옌나레는? {어떻게 보내나요, 옛날에는?}
10225 # 놀:러오라구 그냥 써서. {놀러오라고 그냥 써서.}
10225 @ 편지처럼 써가지고요? 우 우체구게 가서요? {편지처럼 써 가지고요? 우, 우체국에 가서요?}
10225 # 아니 그러치 우체구기다 가따 느면 우추근 인저 가꾸 대니머 돌려주더먼. {아니, 그렇지, 우체국에다 갔다 넣으면, 우체부는 인제 가지고 다니면서 돌려주더구먼.}
10225 @ 편지 보내요? {편지 보내요?}
10225 @ 아 우체구게 가서 우펴느로 머 이러케 한 거 아니고? {아, 우체국에 가서 우편으로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10225 # 예::. {예.}
10225 @ 그러면 초대 바다서 오시는 분드른 그냥 요즘처럼 그냥 다 돈봉투를 가꼬 오셔썬나요? {그러면 초대 받아서 오시는 분들은 그냥 요즘처럼 그냥 다 돈봉투를 가지고 오셨었나요?}
10225 # 그러치 예 그래쓰. {그렇지, 예, 그랬어요.}
10225 @ 하라버지 때도. {할아버지 때도.}
10225 @ 할머님 요기까지 할께요 우리.{할머니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1.3 생업 활동

1.3.1 논농사

10301 @ 우리에 농사는 논:농사 반농사가 이쓸 거 아녀요? {우리의 농사는 논농사, 밭농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10301 # 그러초 에. {그렇지요, 예.}
10301 @ 우선 그럼 논:농사에 대해서 여쭤보께요. {우선 그럼 논농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10301 @ 그 벼:가 잉는 그 시기에 따라서 벼 품종이 이쓸 거 아니에요? 에를 들면 조생종이라든가 중생종 머 만생종 이런 게 이쓸 거 아니에요? {그 벼가 익는 그 시기에 따라서 벼 품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조생종이라든가, 중생종, 뭐 만생종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10301 @ 우선 그 조생종 벼 이름 아시는 거 이쓰세요 우선? {우선 그 조생종, 벼 이름 아시는 거 있으세요, 우선?}
10301 # 조생종 벼 이름 아는 거 나 업쓰 나 몰류유 나 그건. {조생종, 벼 이름 아는 거 나 없어요, 나는 몰라요, 나 그건.}
10301 @ 머 농사는 멀루 지어써요 그람? {뭐, 농사는 뭐로 지었어요, 그러면?}
10301 # 아니 그 저니는 그저 머 은방조라고 허꾸 다마그미라구 저기 해서 엔나레 농사지어찌. {아니, 그 전에는 그저 뭐, 은방조라고 하고, 다마금이라고 저기해서, 옛날에 농사지었지.}

10301 # 지끄미 무슨 볃쫑자 하나면 하나::지 볃쫑자 그 때 그때 농사 질쩌게는 볃쫑자 이름도 몰르고서 그냥 뿌린 거요. {지금은 무슨 볍씨 하나면 하나지, 볍씨 그때, 그때 농사 지을 적에는 볍씨 이름도 모르고서 그냥 뿌린 거예요.}
10301 @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0301 # 이 무슨 조근 무슨 베다 무슨 베다는 은 은방조라고 그거는 지끔 나오는 거 그무다마그미라고 하는 거는 이 벼 꼬리가 저 머 꼬리가 인는 거여 그게. {이 무슨 종은, 무슨 벼다, 무슨 벼다라는 것은 은, 은방조라고, 그것은 지금 나오는 그 무[x슨x], 다마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벼, 꼬리가 저 뭐, 꼬리가 있는 거예요.}
10301 @ 터리 털? {털이, 털?}
10301 # 예예 터리 이러케 지다라케 시험난 거여 그거 그거 본 드대여 내가 다마금. {예, 예, 털이 이렇게 기다랗게, 수염 난 거요, 그거, 그거 본 듯해요 내가, 다마금.}
10301 @ 그럼 박정이 대통령 이후에 나옹거 이짜나요 그 그걸 머라고 하죠? 그 수왁 마니 나오는 건데 싸리 안 조타고 하는 거 이쬬? {그럼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나온 거 있잖아요, 그, 그걸 뭐라고 하죠? 그 수확 많이 나오는 건데, 쌀이 안 좋다고 하는 거 있죠?}
10301 # 어~:: 그게 저 미국서 건너와따는 알래미 아녀 그 머라고 하더라? 글래에 나오는 볃쫑자가 어떠케 하:두타니께 지끔 몰모류. {어, 그게 저, 미국에서 건너왔다는 알래미, 아니야, 그 뭐라고 하더라? 근래에 나오는 벼 종자가 어떻게 하도 비슷하니까 지금 몰라요.}
10301 @ 통일벼라고 하는 거. {통일벼라고 하는 거.}
10301 # 통:일벼 그 통일벼라는 건 그 나온 지 얼마 데두 아나찌 그건? {통일벼, 그 통일벼라는 것은 그것은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 그건?}
10301 @ 그건 져보셔써요? {그건 지어보셨어요?}
10301 # 고걷 까짱은 끄트머리 내가 져본 거 가태요 예. {고것까지는 끝머리에 내가 지어본 것 같아요, 예.}
10301 @ 요즈믄 마니 지는 게 머 머라고 하죠? 그 {요즘 많이 지은 게 뭐, 뭐라고 하죠? 그.}
10301 # 지그믄 몰르능걸요. {지금은 모르는 걸요.}
10301 @ 아끼바리라고 하는 거. {추청벼라고 하는 거.}
10301 # 아끼바리도 이꾸. {아끼바리도 있고.}
10301 @ 추 추 추청벼라고 그러조. {추, 추, 추청벼라고 그러지요.}
10301 @ 아끼바리는 농사 저보셔써요? {추청벼는 농사 지어보셨어요?}
10301 # 아끼바리 저봐쑤. {아끼바리 지어봤어요.}
10301 @ 그게 싸리 좀 조은 거요. {그게 쌀이 좀 좋은 거요.}
10301 # 싸리 좀 조타고 해서 그걸 지어받찌 예. {쌀이 좀 좋다고 해서 그걸 지어봤지 , 예.}
10301 @ 수악도 마나요? {수확도 많아요?}
10301 # 수악도 그게 만쿠 예. {수확도 그게 많고, 예.}
10301 @ 그 주로 여기는? {그 주로 여기는?}
10301 # 아끼바리라는 게 일번서 건너온 게일러구려. {아끼바리라는 것이 일본에서 건너온 게겠더그려.}
10301 @ 그걸 우리말로는 추청벼라고 하는. {그걸 우리말로는 추청벼라고 하는.}
10301 # 에 추천비여 그게. {예, 추천벼여 그게.}

10301 @ 그 하여간 벼 품종은 마니 이떠라구요. {그, 하여간 벼 품종은 많이 있더라고요.}
10301 # 아::이구! 근데 지끄믄 머 수:십 까지요. {아이구! 그런데 지금은 뭐 수십 가지요.}
10301 @ 짐 저본 중에 쌀:: 중에 어떤 싸리 좀 머끼가 조아써요 미질이? {지금 지어본 중에, 쌀 중에 어떤 쌀이 좀 먹기가 좋았어요 미질이? }
10301 # 그 어떤 싸리 어떤 싸리 조안는지 워쩐지 그건 몰르고 그저니 이저 머터구. {그, 어떤 쌀이, 어떤 쌀이 좋았는지 어쩐지 그건 모르고, 그전에 이, 저 뭣하고.}
10301 # 그 아끼바리가 가장 우리 그 때 해서 먹응게 아끼바리가 더 젤 조타고 보야지 그거. {그 아끼바리가 가장 우리 그 때 해서 먹으니까, 아끼바리가 더 제일 좋다고 봐야지 그게.}
10302 @ 그럼 변:농사 지는 과정에 대해 한번 여쭤볼께요. {그럼 벼농사 짓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10302 @ 우선 벼를 질라면 그 볃씨를 골러야 될 꺼 아니에요? {우선 벼를 지으려면 그 볍씨를 골라야 될 것 아니에요?}
10302 # 그러치 그저니는 그냥 옌나레는 지끄미 소독 허지 그저니는 소독 할 중 아라떼요? 몰러찌. {그렇지, 그전에는 그냥 옛날에는, 지금은 소독하지 그전에는 소독할 줄 알았나요? 몰랐지.}
10302 @ 그래서 벼를 씨를 내년알꺼 벼 수악하고서 그 내년 시믈라면 벼를. {그래서 벼를, 씨를 내년할 것, 벼 수확하고서 그 내년에 심으려면 벼를.}
10302 # 종자를 응 종자 두야지. {종자를, 응, 종자를 두어야지.}
10302 @ 그걸 어떠케 골라써요? 벼씨를 그냥 아무디서 파는 건 아니자나요? {그걸 어떻게 골랐어요? 볍씨를, 그냥 아무 데에서 파는 건 아니잖아요?}
10302 # 그냥 디려서 그냥 나둬따가 말리기 잘 말려서 놔따가. {그냥 들여서 나뒀다가, 말리기를 잘 말려서 놨다가.}
10302 @ 아 씨 별 별도루 골르지 아나써요? {아, 씨, 별, 별도로 고르지 않았어요?}
10302 # 안 골러쓰 아 그니께 저 머 아끼바리면 아끼바리. {안 골랐어요. 아, 그러니까 저 뭐 추청벼면 추청벼.}
10302 # 그저 이거 영근디로 영근디로 해놔따가 두구서 그저니는 모짜리도 농사 진는 거머 더러쿠먼 모짜리도 이러케 판 처서 무루이다가 이러케 뼈서 물쏘기서 큰 늠 나중에 쩌다가 지게로 저다가 소니로 시믄 노믄 거 머. {그저 이건 영근 데로, 영근 데로 해놨다가 두고서 그전에는 못자리도 농사짓는 거 뭐하더구먼, 못자리도 이렇게 판 쳐서 물 위에다가 이렇게 뿌려서 물 속에서 큰 놈 나중에 쪄다가 지게로 져다가 손으로 심은 놈의 거 뭐.}
10302 @ 그런데 그 전 보면 이게 볍씨 가튼 거 머 씨모쟁이라든가 이런 데다 저 벼씨를 다마둬짜나요 따로 별도로 그건 그래서. {그런데, 그 전에 보면 이게 볍씨 같은 거 뭐 씨오쟁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볍씨를 담아뒀잖아요, 따로 별도로 그건, 그래서.}
10302 # 그러추 고기 다마논능게 그 따루. {그렇죠, 고기 담아놓는 게, 그 따로.}
10302 @ 절대로 그건 멍는거 아니라고. {절대로 그건 먹는 것이 아니라고.}
10302 # 아이 그거 머그면 멀루 농사 떠 저 굴머도 그걸 안 머거딴 긴디. {아이고, 그걸 먹으면 뭐로 농사를 또 지어, 굶어도 그걸 안 먹었다는 건데.}
10302 @ 그래서 고거 보면 벼 중에서 가장 그 영그른 벼로 가려서 가려서. {그래서 그걸 보면, 벼 중에서 가장 그 영글은 벼로 가려서, 가려서.}
10302 # 아 굴머도 그거 안 머긍게 그거 머그면 농사 몯: 진는 걸. {아, 굶어도 그걸 안 먹

으니까, 그거 먹으면 농사 못 짓는 걸.}
10302 @ 그럼 인제 농사질 때는 그 벼:씨를 무레다 다마노야 될 꺼 아니에요? {그럼 인제 농사 지을 때는, 그 볍씨를 물에다가 담아 놓아야 될 것 아니에요?}
10302 # 그게 인저 무리다 당:기야지 부러서 불려. {그게 인제 물에다가 담궈야지, 불어서, 불려.}
10302 @ 메치리나 담거써요 대충? {며칠이나 담궜어요, 대충?}
10302 # 그러니께 고거는 농사 마니 지면 한 그게 그팔 쩌기는 한 오일 담끼도 하구. {그러니까 고거는 농사 많이 지으면, 한 그게 급할 적에는 한 오일 담그기도 하고.}
10302 @ 지베서 한 거에요? {집에서 한 거예요?}
10302 # 에 일주일 담가도 상간업고 인제 고게 물:를 가라 담구면 오래 나더도 갠차나요 물만 가라주면. {예, 일주일 담궈도 상관없고, 인제 그게 물을, 갈아 담그면 오래 놔둬도 괜찮아요, 물만 갈아주면.}
10302 # 그런디 고기서 물 쏘기서도 오래 담구머는 벼가 볼록볼록볼록 이러케 아기 티:지 건저서 물 쪽 빠진 디 가따 이러케 언저서. {그런데 고기서 물 속에서도 오래 담그면은 벼가 볼록 볼록 볼록 이렇게 아기 틔지, 건져서 물 쪽 빠진 데 가져다가 이렇게 얹어서.}
10302 @ 고걸 벼씨를 씬나라기라는 말 쓰나요? {그걸 볍씨를 씬나락이라는 말 쓰나요?}
10302 # 신:나락이라고 그러치 나라근 진나락이라고 하는길래 그런디 우리는. {씬나락(+볍씨)이라고, 그렇지, 나락은 씬나락이라고 하는 거데, 그런데 우리는.}
10302 @ 그건 머라고 그래요? {그건 뭐라고 그래요?}
10302 # 벱:씨라고 그냥 그래찌. {볍씨라고 그냥 그랬지.}
10302 @ 벱씨라고 그래요? {볍씨라고 그래요?}
10302 @ 고걸 볍씨를 소독또 핸나요? {고걸, 볍씨를 소독도 했나요?}
10302 # 그저니는 소독 머가 소독냐기 이썬나? 그냥 해찌유. {그전에는 소독, 뭐가 소독약이 있었나? 그냥 했지요.}
10302 @ 그래도 어르신 요글래 농사 질 때는 어떠케 해요? 볍씨에다가. {그래도 어르신 요 근래 농사지을 때는 어떻게 해요? 볍씨에다가.}
10302 # 요글래는 머 벧쫑자 내가 헝게 소독 해따가 소독몰로 그게 이십사신가요 얼마 당거따가 또 건저너 거 점 그 물 빼내버리고서 딴 느므로 당거서 딴 물로 담거서 이러케 해찌. {요 근래는 뭐 벼 종자, 내가 한 게 소독했다가 소독물로 24시간인가 얼마 담갔다가 또 건져 너어 그거 좀 그 물 빼내 버리고서 딴 놈으로 담궈서 딴 물로 담궈서 이렇게 했지.}
10302 @ 그럼 고기 인제 싸기 나오나요? 거기서요? {그럼 고기에서 인제 싹이 나오나요? 거기에서요?}
10302 # 그냥 오래 당구머는 좀 지다라케 나오는 게 아니라 벼가 볼록볼록 테:지. {그냥 오래 담그면은 좀 기다랗게 나오는 게 아니라, 벼가 볼록볼록 틔지.}
10302 # 고론 노믄 낙종해야 더 조아유. {고런 놈은 낙종해야 더 좋아요.}
10302 @ 고걸 가따 뿌리는군요. {그걸 가져다가 뿌리는군요.}
10302 @ 그러믄 이제 농사질 때 그 쟁:기라는 게 이죠? {그러면 이제 농사 질 때 그 쟁기라는 것이 있죠?}
10302 # 그러치 소로 끄는 쟁기 쟁기. {그렇지, 소로 끄는 쟁기, 쟁기.}
10302 @ 또 또 장기 말고 극젱이라고 하는 예. {또, 또 쟁기 말고 극젱이라고 하는, 예.}
10302 # 쓰레 쓰레 여기선 쓰레라구여 그 논 가른 걸 꾸미는 거 소로 끄리는 게. {써레,

써레, 여기에서는 써레라고 해, 그 논 갈은 걸 꾸미는 거, 소로 끄는 거.}
10302 # 그 때만 해도 소라 큰 여콰래쭈 소 아니면 농사 몯 저씨유. {그 때만 해도 소가 큰 역할을 했죠, 소 아니면 농사 못 지었어요.}
10302 @ 그럼 노늘 갈 때 한번 고 가는 방법 쫌 식 어떤 때 갈고 어떠케 가는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럼 논을 갈 때, 한번 고 가는 방법 좀 식, 어떤 때 갈고, 어떻게 가는가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10302 # 그러니께 저 처으미 갈 쩌기는 아시 가는 거. {그러니까 저, 처음에 갈 적에는 애벌 가는 거.}
10302 # 아시 가는 거는 인자 외냐하면 때가 인는 게 아니라 물: 보미면 에~:: 아시 가라 따가 시:믈 쩌기 인제 물 마니 느쿠서 시:믈 쩌기 한 시빌이나 얼마 압뚜고서 두벌 가러 두벌 두벌. {애벌 가는 것은 인제 왜냐하면, 때가 있는 게 아니라 물, 봄이면 에, 애벌 갈았다가 심을 적에 인제 물 많이 넣고서 심을 적에 한 십일이나 얼마 앞두고서 두벌 갈아, 두벌, 두벌.}
10302 # 아시는 요러케 어퍼놔따가 두벌 가르야 이 생땅 업써지거든. {애벌은 이렇게 엎어 놨다가 두벌 갈아야 이 생땅이 없어지거든.}
10302 # 그렁게 그 두벌 가라따가 야중이 모심는 나리머는 내일 내일 시믈라믄 모리 내일 모리 시믈라믄 소루 쓰:럭질하지 쓰레라구 그늠 투드려 대여 그래가지고서 그러고서 심:능게요. 따지면 판파나게 골라갇꾸 고무래로 밀고 해가꾸서. {그러나까 그 두벌 갈았다가 나중에 모심는 날이면은 내일, 내일 심으려면, 모레, 내일, 모레 심으려면 소로 써레질하지, 써레라고, 그 놈 뚜드려 대요, 그래가지고서, 그러고서 심는 거요. 따지면 판판하게 골라가지고, 고무래로 밀고 해가지고서.}
10302 @ 그러믄제 모 아까 잉 씬나 저 볍씨를 해노면 그 모파늘 만드려야 데조? {그러면 인제 모 아까 잉 씬나락, 저 볍씨를 해놓으면 그 모판을 만들어야 되죠?}
10302 # 그저니는 모파늘 요러케 데가고 요게 모판일레라믄 이짜기서 저짜기서 사먼 손 요러케 다을 마나케 요러케 해가꾸서 요기가 모짜리파니 가서 푸:리 나거든 피: 그거 전부 매주야요. {그전에는 모판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모판이겠더라면 이쪽에서 저쪽에서 서면 손 요렇게 닿을 만하게, 요렇게 해가지고서 요기가 못자리판에 가서 풀이 나거든 피, 그거 전부 매줘야 해요.}
10302 @ 모짜리 파네? {못자리 판에?}
10302 # 모짜리 파니서 그 느미 널피 펴지면 매기가 더 어려우니께 모짜리 파네서 그걸 다 매여. {못자리 판에서, 그 놈이 넓게 펴지면 매기가 더 어려우니까 못자리 판에서 그걸 다 매요.}
10302 # 그런디 그 때는 피:두 여간 마니 안 나와꺼든 이트리 하루 이씨면 또 나오고 하루 이씨면 또 나오고 그 피: 씨:가 쏘다저가꾸. {그런데 그 때는 피도 여간 많이 안 나왔거든, 이틀, 하루 있으면 또 나오고, 하루 있으면 또 나오고, 그 피 씨가 쏟아져가지고.}
10302 # 그래가꾸 고 놈 그러케 매따가 거기다 저 머애서 고로케 맬 만큼 모파늘 맹기러서 무를 이러케 한 삼센치 정도 이러케 올르게 무를 해가지고 그 우이다가 벧쫑자를 물 우이서 그냥 치요. [그래가지고 고 놈, 그렇게 매었다가 거기에다가 저 뭐해서 그렇게 맬 만큼 모판을 만들어서 물을 이렇게 한 3센치 정도 이렇게 올라오게 물을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벼 종자를 물 위에서 그냥 쳐요.}
10302 # 지그믄 머 하 저 고무 좀 머 비니루 무에다 더퍼서 상자 머 해찌만 그냥 거기다

친다구요. {지금은 뭐 하, 저 고무 좀, 뭐 비닐 뭐에다 덮어서 상자 뭐 했지만, 그냥 거기다가 친다고요.}
10302 # 치며는 거기서 는모 때는 이만큼 큰 늠 쪄다가 해 머글 때도 이꾸. {치면은 거기서 늦모 때는 이만큼 큰 놈 쪄다가 해 먹을 때도 있고.}
10302 @ 그래요? 어:: 지그믄 그걸 베니루로 씨운다고. {그래요? 어, 지금은 그걸 비닐로 씌운다고요.}
10302 # 아: 지끄믄 머 비니루 씨우다 하자나요. {아, 지금은 뭐 비닐로 씌우고 다 하잖아요.}
10302 @ 그람 인제 그 아까 볃씨는 모파네다 어떠케 어떠케? {아, 그럼 이제는 그 볍씨는 모판에다가 어떻게, 어떻게?}
10302 @ 뿌려 손 소니루. {뿌려, 손, 손으로.}
10302 # 글쎄 물 우이다 그냥 삐에면 그느미 인저. {글쎄 물 위에다가 그냥 뿌리면, 그 놈이 인데제.}
10302 @ 아니 어떠케 소니로 뿌려써요? {아니, 어떻게 손으로 뿌렸어요?}
10302 # 그러치오 그냥 소니로 대니며 뿌려 뿌리머는 야중이 크머는 이러케 책책 이러케 두두거게 상자 모차람 나오지. 그러므는 고 때 물 쏘기서 쩌:다가 쩌다가 소니로 쩌서. {그렇죠, 그냥 손으로 다니며 뿌려, 뿌리면은 나중에 크면 이렇게, 차례차례 이렇게 두둑하게 상자 모처럼 나오지. 그러면은 고 때 물 속에서 쪄다가, 쪄다가 손으로 쪄서.}
10302 @ 고게 궁금한 게요. 그러믄 그 볍씨 하나에서 한 총:만 올라오나요? {그게 궁금한 게요. 그러면 그 볍씨 하나에서 한 촉만 올라오나요?}
10302 # 그러치 하나만 올러요. 그렁께 는:모 때는 한 는모 때 는모 때는 가지 처서 한 둬 개 나올 거뚜 이꾸 느즈면 그러치만 하나 나오요, 하나. {그렇지, 하나만 올라와요. 그러니까 늦모 때는 한 늦모 때, 늦모 때는 가지 쳐서 한 두어개 나오는 것도 있고 늦으면, 그렇지만 하나 나와요, 하나.}
10302 # 그러니께 벧쫑자를 뵈게 치야지 이러케. {그러니까 볍씨를 뵈게 쳐야지, 이렇게.}
10302 @ 그럼 고려해서 모를 더 길르야 델 거 아니에요? {그럼 고려해서 모를 더 길러야 될 거 아니에요?}
10302 # 그렇초. {그렇지요.}
10302 @ 어트게 길러써요 그래? {어떻게 길렀어요, 그래?}
10302 # 그런 길르는 건 지라 크니께 야중에 머더면 모가 들 크며는 비료 비료 물 좀좀 빼구서 물 갈라나 노쿠서 비료 언쿠서 언저노코 허믄 그리 잘 크지유 그러케. {그런 기르는 건 제가 크니까, 나중에 뭣하면 모가 덜 크면은 비료, 비료 물 좀, 좀 빼고서 물 갈라 놓고서, 비료 얹어놓고 하면 그렇게 잘 크지요, 그렇게.}
10302 @ 그럼 모파넨 항:상 무를 대줜나요 물두? {그럼 모판에는 항상 물을 대줬나요, 물도?}
10302 # 무른 비료나 줄 저기 빼지 비료나. {물을, 비료나 줄 적에 빼지, 비료나.}
10302 @ 그러치 무를 게속? {그렇지, 물을 계속?}
10302 # 에 그냥 게속 다마노코. {예, 그냥 계속 담아놓고.}
10302 # 너머 다므머는 또 무를 머녀 다므먼 베:가 모가 키:가 홀쭈기 크는 때미 시:머노면 이 고꾸러지는 이::써서 너무 물 마니 다마나도 안 데고. {너무 담으면 또, 물을 먼저 담으면 벼가, 모가 키가 홀쩍 크기 때문에, 심어놓으면 거꾸러지는 것이 있어서 너무 물 많이

담아놔도 안 되고.}
10302 @ 무를 잘 조저래야 데는군뇨. {물을 잘 조절해야 되는군요.}
10302 @ 그럼 인제 고얼 모 몯짜리에다 물 대는 거뚜 그 무를 어떠케 대써요? 볼래 물른 인나요? 그래 좀 무른? {그러면 인제 고걸 모, 못자리에다가 물 대는 것도 그 물을 어떻게 대었어요? 본래 물은 있나요? 그래 좀 물은?}
10302 # 그러니께 몯짜리는 따지면 큰 노네서 쬐끔 아녀? 요러케? {그러니까 못자리는, 따지면 큰 논에서 조금 아니요? 이렇게?}
10302 # 쪼끄미니께 큰 논빼미머는 거기다는 갈개 트러서 물 즈장애 노초 접때에다 즈장애노쿠 이게 논 몯짜리 요만크미라면 고기 타: 노쿠서 물 느따 빼구 느따 빼구. {조금이니까 큰 논배미면은 거기에다가는 갈개 틀어서 물 저장해 놓죠, 옆댕이에다가 저장해 놓고, 이게 논 못자리 요만큼이라면 고기 타 놓고서 물 넣다 빼고, 넣다 빼고.}
10302 @ 아 그러케 핸구머뇨 에. {아, 그렇게 했구먼요, 예.}
10302 @ 그럼지 애까 써:레지를 하신다고 그래짜나요? {그러면 인제 아까 써레질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10302 # 예. {예.}
10302 @ 그건 어떠케 하는 거에요? 저 써? {그건 어떻게 하는 거에요? 저 써.}
10302 # 소루. {소로.}
10302 @ 소로. {소로.}
10302 # 소루 이 쓰레라는 게 이러케 데가꾸 나무로 지비서 짜 맹기러씨오. {소로, 이 쓰레라는 게 이렇게 되어가지고, 나무로 집에서 짜서 만들었어요.}
10302 @ 그러초 예. {그렇죠, 예.}
10302 # 이러케 이러케 구녕 얼멍하게 구녕 뚜러서 한 바리 아홉깨나 여들깨 이러케 껴가지고서 그 노므로 그냥 소 끌고 대녀. {이렇게 이렇게 구멍, 얼멍하게 구멍 뚫어서 한 발이 아홉 개나 여덟 개 이렇게 끼어가지고서 그 놈으로 그냥 소 끌고 다녀.}
10302 @ 그러고 인제 그걸 그라모라 널판때기 이쪼? {그러고 인제, 그걸 그래 뭐라 널빤지 있죠?}
10302 # 널판때기는 끄트머리. {널빤지는 끝머리.}
10302 @ 그건 그걸 머라고 그래? {그건 그걸 뭐라고 그래?}
10302 # 그 늠믈 쓰러노쿠서 판때기라구 해유 그냥 판때기. {그 놈을 쓸어놓고서, 판때기(+널빤지) 라고 해요, 그냥 판때기.}
10302 @ 아 번지라는 말 안 쓰고 판때기라고 하는구먼뇨? {아, 번지라는 말 안 쓰고 판때기라고 하는구먼요?}
10302 # 그러구서 그 늠 판때기 대야 굴:고기 읍찌 인제 판파내야질꺼 아뉴? {그러고서 그 놈 널빤지 대어야 굴곡이 없지, 인제 판판해질 것 아니에요?}
10302 @ 고거또 소가 끄러써요? 그걸 판때기 에. {그것도 소가 끌었어요? 그걸 널빤지, 예.}
10302 @ 그걸 해노쿠서 모를 인제 소느로 모를 찐다고 그러나요? {그걸 해놓고서 모를 인제, 손으로 모를 찐다고 그러나요?}
10302 # 그러치 모 쩌서. {그렇지, 모 쪄서.}
10302 @ 워뜨케 쩌써요? 모를 찔 때는? {어떻게 쪘어요? 모를 찔 때는?}
10302 # 모 찌면 사람 여러시 한 파니 사람 하나씩 열 파니면 여리 한 판씩 이러케 요러

케 요러케 쩌서 지브로 그냥 무꺼서. {모 찌면 사람 여럿이, 한 판에 사람 하나씩, 열 판이면 열이, 한 판씩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쪄서 짚으로 그냥 묶어서.}
10302 @ 어떠케 한 한 주먹? {어떻게, 한 한 주먹?}
10302 # 야 그러케 요게 둬 주먹씩도 상간웁꾸 한 주먹도 상간웁꾸 쩌서 무꺼가꾸. {예, 그러니까 요게 두 주먹씩도 상관없고, 한 주먹도 상관없고, 쪄서 묶어가지고.}
10302 # 인제 그 지게로 저다가 베 모:심는 논 빼미다가 던저 이러케. {인제 그 지게로 지어다가, 벼, 모심는 논 배미에다가 던져 이렇게.}
10302 @ 아 지금 그렇게 하구 이써요. {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10302 # 예 던저서 이러케 뿌려노면 심:는 사라미나 줄 대고 시므 그저니는 주리 워디서? 나 그냥 갈량애서나 꼬자찌. {예, 던져서 이렇게 뿌려놓으면, 심는 사람이나 줄 대고 심어, 그전에는 줄이 어딨어? 나 그냥 짐작해서 꽂았지.}
10302 # 줄 나온 제 왜정 때부터 나완나 나와서 줄: 대고서 시므면 그러믄 저 시므면 디서는 머 저 베 가따 저다 대는 사람 읻꾸 심는 사람 또 따로 이꾸 이러케. {줄 나온 지가 왜정 때부터 나왔나, 나와서 줄 대고서 심으면, 그러면 저 심으면, 뒤에서는 뭐 저, 벼 가져다, 져다가 대는 사람 있고, 심는 사람 또 따로 있고, 이렇게.}
10302 @ 아 저네도 그 모:찌능거 심들죠? {아, 전에도 그 모찌는 거 힘들죠?}
10302 # 심들 그게 올:모 먼저 이내 심는 건디 근디 야중에 는모 데머는 참:: 질껴 저게 그 는모는 뿌리 마니 뻐더서 는모 때. {힘들, 그게 올모 먼저 이내 심는 건데, 근데 나중에 늦모 되면은 참 질겨, 저게 그 늦모는 뿌리가 많이 뻗어서, 늦모 때.}
10302 @ 지그믄 모짜리를 어떠케 그 기게로 기게. {지금은 못자리를 어떻게, 그 기계로, 기계.}
10302 # 지끄믄 상자가 나와요 상자 나와서 상자에다 뭐 저 푸서 이러케 무리다 비니루 더퍼노터믄그려. {지금은 상자가 나와요, 상자 나와서, 상자에다가 뭐 저 덮어서, 물에다 비닐로 덮어놓더먼그려.}
10302 # 그러머는 야중이 시믈쩌기 기게로 시므니께 그 상자 그냥 떼 드러다가 차루 시러다가. {그러면 나중에 심을 적에 기계로 심으니까, 그 상자 그냥 떼어 들어다가 차로 실어다가.}
10302 @ 이라기 조은데요. {일하기 좋은데요.}
10302 # 지끄믄 머::. {지금은 뭐.}
10302 @ 그럼 이제 그 모를 심꼬 기:믈 맬 거 아녀요? 지심 맨다고 그러나요? {그럼 이제 모를 심고, 김을 맬 거 아니에요? 지심 맨다고 그러나요?}
10302 # 김 김 매능게 처으미 시머노코는 그 때가 풀야기 업꺼든요. {김, 김 매는 게, 처음에 심어놓고는, 그 때는 풀약이 없거든요.}
10302 # 그러니께 도:사리라고 도:사리라고 댕기면서 잔풀 나오능거 웁쌔느라고 이러케 다 글거줘 싹 다. {그러니까 도사리(+피사리)라고, 피사리라고 다니면서 잔풀 나오는 거 없애느라고 이렇게 다 긁어줘, 싹 다.}
10302 # 그래두 인제 이 느미 사라가꾸서 크머는 인저 크머는 아:시뎅이라고. {그래도 인제 이 놈이 살아갖고서 크면은, 인제 크면은 애벌매기라고.}
10302 @ 아시뎅이? {애벌?}
10302 # 아시거슨 도:사리어구서 아시뎅이라구 모가 이러케 컨넌디 그 아시댕이 팔 쩌기 막 이런 디가 베:에 슬려서 피가 죽죽 나고 해써찌 아주 그 슬려가꾸 호미로 파서 업꺼든

요게 호미로. {애벌 것은, 피사리하고서 애벌매기라고, 모가 이렇게 컸는데, 그 애벌매기 팔적에 막 이런 데가 벼에 쓸려서 피가 죽죽 나고 했었지, 아주 그 쓸려가지고, 호미로 파서 엎거든 요게, 호미로.}
10302 @ 호미로 아시. {호미로 애벌을.}
10302 # 그 새새. {그 사이 사이.}
10302 # 베 그 시믄 새새를 호미루 다 파서 어퍼. {벼, 그 심은 사이 사이를 호미로 다 파서 엎어.}
10302 # 어퍼놔서 한 일쭈이리고 한 시보일쯤 이따가 또 두벌이라고 혀 두벌 두벌 그 덩어리가 이쓩께 두벌 눌러야알 꺼거 아녀? 요기 눌러. {엎어놔서, 한 일주일이고, 한 십오일쯤 있다가 또 두벌이라고 해, 두벌, 두벌 그 덩어리가 있으니까 두벌을 눌러야 할 거 아니에요? 여기 눌러.}
10302 # 그러구서 허구서 야중이 두벌 저 댕기 눌르고서 두벌 매고서 야중이 만:물이라고 만:물이라고 끋:트머리야주 마지막이라고애서 만물 그 판파나게 인저 허지. {그러고서, 하고서 나중에 두벌, 저 다니며 누르고서, 두벌 매고서 나중에 만물이라고, 만물이라고 끝머리아주, 마지막이라고 해서 만물, 그 판판하게 인제 하지.}
10302 # 그래도 푸리 그 나오 나오는디 그러믄 야중이 그러니께 노네서 사리야여 피사리 피사리라고 잡풀 피가 난 거 그거 또 저 댕기머서 뽀바주야 하고. {그래도 풀이 그 나오, 나오는데, 그러면 나중에, 그러니까 논에서 살아야 해, 피사리, 피사리라고 잡풀, 피가 난 거, 그거 또 저 다니면서 뽑아줘야 하고.}
10302 @ 그러믄요 그 두벌 맬 때까지는 호미로 매나요? {그러면요, 그 두벌 맬 때까지는 호미로 매나요?}
10302 # 그 두버리 매는 게 아니 두버른 호미로 아녀. 호미로 아시 매:따가 덩어리가 울퉁불퉁아니께 두벌로 눌러주는 게 두버려. {그 두벌 매는 게, 아니 두벌은 호미로 안 해. 호미로 애벌 맸다가, 덩어리가 울퉁불퉁하니까 두벌로 눌러주는 게 두벌이에요.}
10302 @ 만 만물? {만, 만물은?}
10302 # 만:무른 고거 인저 끄트머리 가서 끄트머리 이러케 맥찔 허는 거시 만물. {만물은 그게 이제 끝머리 가서, 끝머리 이렇게 맥질하는 것이 만물.}
10302 @ 소니로 해요? 그거뚜? {손으로 해요? 그것도?}
10302 # 에 소니로 맥찌. {예, 손으로 맸지.}
10302 @ 힘드셔껜네여. {힘드셨겠네요.}
10302 @ 그럼 그걸 이제 나중에 벼를 베야델 꺼 아녀요? {그럼 그걸 이제 나중에 벼를 베야될 것 아니에요?}
10302 # 그러치유. {그렇지요.}
10302 @ 베는 어떠케 베써요? {벼는 어떻게 베었어요?}
10302 # 다: 나스루. {다 낫으로.}
10302 @ 나스로요? 벼서 어트게? {낫으로요? 베서 어떻게?}
10302 # 벼서 인저 그 뚜:기다가 뚜기다가 가리쳐나요 벼서 이러케 무꺼서 놔따가 인제 전:부 뚜그루 드러내놔따가 내노쿠선 가리치거든 이러케 이러케 다 쪽 뚜기다 해놔. {베서 인제, 그 뚝에다가, 뚝에다가 가리쳐놔요, 베서, 이렇게 묶어서 놨다가 이제 전부 뚝으로 들어 내놨다가 내놓고서는 가리치거든, 이렇게, 이렇게 다 쭉 뚝에다가 해놔.}
10302 # 해나따가 말근디 그러니께 소기는 안 마를 거 아뉴? 소기는 들 말르먼 그 느미

바람 부는 날 데가릴 쳐. {해놨다가, 맑은 데, 그러니까 속에는 안 마를 거 아니에요? 속에는 덜 마르면 그 놈이 바람 부는 날, 도로 가리를 쳐.}
10302 # 가리를 잉 이러케 세나따가 따지믄 이짜그로 세:나쓰먼 그 이느믈 베따늘 이짜그로 욍겨서 다시 친다 그러믄 가운데 바람 드러가서 소기도 말를 꺼 아녀? 그러케 해요. {가리를, 응, 이렇게 세워놨다가, 따지면 이쪽으로 세워놨으면 그 이놈을, 볏단을 이쪽으로 옴겨서 다시 친다, 그러면 가운데 바람 들어가서 속에도 마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요.}
10302 @ 그 물:로는 그러치만 마른 논 이짜나요 거기는 어떠케 벼를? {그, 물로는 그렇지만, 마른 논 있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벼를?}
10302 # 그게 마른 노는 그저니 마른 가리라고 마른 노는 매는 업써찌 풀 때미도 그러쿠 굴러서 비고 별짇 다 해쓰 마른 논. {그게 마른 논은, 그전에 마른 갈이라고, 마른 논은 매는 없었지, 풀 때문에도 그렇고, 굴러서 베고, 별짓 다 했어요, 마른 논.}
10302 @ 그래서 마른 노는 비며는 그냥 노네다 직접 그냥 까:는 거? {그래서 마른 논은 베며는 그냥 논에다 직접 그냥 까는 거?}
10302 # 아니 깔기도 더러 저 뭔 글래로는 까라나따가 묵는 사람도 이써지. 그런디 그거뚜 야중여 츠미는 그 까러놀 중도 몰르고 무꺼서. {아니, 깔기도 더러, 저 뭣, 근래로는 깔아놨다가 묶는 사람도 있었지. 그런데 그것도 나중이여, 처음에는 그것을 깔아놀 줄도 모르고, 묶어서.}
10302 @ 다늘 무꺼써요? {단을 묶었어요?}
10302 # 네 그 다느로 무꺼서 뚜기다가 세놔써지. {네, 그 단으로 묶어서 뚝에다가 세워놨었지.}
10302 @ 가리 쳐꾸만뇨. {갈이 쳤구먼요.}
10302 @ 그럼요 고걸 그:: 벼를 베며는 그거또 푸마시를 하나요? {그럼요 고걸, 그 벼를 베면은 그것도 품앗이를 하나요?}
10302 # 그러니께 고게 바싹 말르먼 뚜기서 바싹 말르면 그 겨울처링게 그까짇께 가을이니께 추울 거 아뇨? 바싹 말를 꺼 아뇨? {그러니까, 고게 바싹 마르면, 뚝에서 바싹 마르면, 그 겨울철이니까 그까짓게, 가을이니까 추울 거 아니에요? 바싹 마를 것 아니에요?}
10302 # 그러믄 그 가깐 디는 순:저니 지게로 저다가 그 지게로 저다가 마당이다 부어서 절:구 절:구통 절:구통에서 이러케 그 자리개질이여 자리개질 자리개질 태질해가꾸서 머댄는디 기게 발루 발른 기게 나온 지도 얼마 안 대쇼. {그러면 그 가까운 데는 순전히 지게로 져다가, 그 지게로 져다가 마당에다가 부어서 절구, 절구통, 절구통에서 이렇게 그 자리개질이에요, 자리개질, 자리개질, 태질해가지고서 뭣 했는데, 기계, 발로 밟는 기계 나온 지도 얼마 안 되었어요.}
10302 @ 고건 쫌 이따 여쩌복께요. {그건 조금 이따가 여쭤볼게요.}
10302 @ 그러믄 인제 그 짐 이제 그 벼를 베고 인제 지게로 저 날라따구요? 소는 어떠케 하나요 소는?{그러면 이제 그, 지금 이제 그 벼를 베고 이제 지게로 져 날랐다고요? 소는 어떻게 하나요, 소는?}
10302 # 그러니께 지게로 저 나르는 디 이꾸요 소 인는 사라믄 소:루 구루마 구루마루 해서 그걸로 꿰는디 구루마가 저 머 여꺼니 안 그 때는 농지 증리가 안 되고 산꼬리라 구루마루 날를 수가 업씨유. 그려서 순:저니 지게로 마니 해써 지게로. {그러니까 지게로 져 나르는 데 있고요, 소 있는 사람은 소로, 구루마, 구루마로 해서 그걸로 끄는데 구루마가 저 뭐 여건이 안, 그 때는 농지 정리가 안 되고, 산골이라서 구루마로 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전히 지게로 많이 했어, 지게로.}
10302 @ 지그믄 전부 다 노네서 다 기게가 비면서. {지금은 전부 다 논에서 다 기계가 비면서.}
10302 # 아:: 그거 마라먼 모대 지끄미야 그거 멀. {아, 그거 말하면 뭣해, 지금이야 그거 뭘.}
10302 @ 그러믄 인제 고건 지브로 저 나를면제 타작하는 거 아까 좀 말씀하션는데 아까 자리개질 하신다고? {그러면 인제 고건 집으로 져 나르면 인제 타작하는 거, 아까 좀 말씀하셨는데, 아까 자리개질하신다고?}
10302 # 그러추 자리개질. {그렇죠, 자리개질.}
10302 @ 자리개지리라고 하는 게 어트게 하는? {자리개질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하는?}
10302 # 자리개지리라는 게 그 베:다니짜뉴. 그러믄 절구통 요기다 투 투구통을 요러케 노코 도라무통처럼 이러케 제쳐노쿠서 산내끼로 올거가꾸 이러케 때려. {자리개질이라는 게, 그 볏단이 있잖아요. 그러면 절구통 여기에다가 투, 투구통(절구통)을 이렇게 놓고, 드럼통처럼 이렇게 제쳐놓고서 새끼로 올가가지고 이렇게 때려.}
10302 @ 그게 자리개질? {그게 자리개질?}
10302 # 잉 이게 자리개질 그러믄 보:통 바싹 마른 늠도 장정 센 사라미래두 한 다서여서 번 때리야 다 쏘저. {응, 이게 자리개질, 그러면 보통 바싹 마른 놈도, 장정 센 사람이 와도 한 다섯 여섯 번 때려야 다 쏟아져.}
10302 @ 그게 그러케 어려워 그거 얼마 모다겐네요 그 타작. {그게 그렇게 어려워, 그거 얼마 못 하겠네요, 그 타작.}
10302 # 그러니께 그 때는 기냥 술 꿀려그로 하고 절믄 사람드리나 머 하지 지끔 가트먼 그거 모대요 지금. {그러니까 그 때는 그냥 술 기운으로 하고, 젊은 사람들이나 뭐 하지, 지금 같으면 그거 못해요, 지금.}
10302 @ 그런 걸 머 한다고 그래요 그걸? 자리개질 하는 거 전부 다. 저 자리개질이라든가 하는 걸. {그런 걸 뭐 한다고 그래요 그걸? 자리개질 하는 거, 전부 다. 저 자리개질이라든가 하는 걸.}
10302 # 그러니께 고 자리개질 다 하는 거뚜. {그러니까 그 자리개질, 에다가 하는 것도.}
10302 @ 에 타작한다.{예, 타작한다고.}
10302 # 자리개질 자리개질 헌: 느믈 가따가 그 발른 다 대야지 그냥 날 벼 가따 호롱이다 대면 이사기 다 짤라저 이사기 짤라지기 때무네 아주 안 대요. {자리개질, 자리개질 한 놈을 갖다가 그 밟는 에다가 대어야지, 그냥 날 벼 갔다 에다가 대면, 이삭이 다 잘라져, 이삭이 잘라지기 때문에 아주 안 돼요.}
10302 @ 그러믄 그거 고 탈고근뇨 인제 마라자면 그 타작 하는 타자기라고 그러나요? 바심한다고 그러나요 여기는요? {그러면 그거 고 탈곡은요, 인제 말하자면 타작하는, 타작이라고 그러나요? 바심한다고 그러나요, 여기는요?}
10302 # 바심 헌다고 여기선 불러찌 타자기라는 거슨 타자기라는 거슨 그저니 이떤 사람 드리라 움는 사람 논 줘 가지고서 논 :줘가지고 베 노너가는 거시 타자기잉길래믄그려. {바심한다고 여기서는 불렀지, 타작이라는 것은, 타작이라는 것은 그전에 있던 사람들이 없는 사람 논 줘가지고서, 논 줘가지고 벼 나누어 갖는 것이 타작이더구먼그려.}
10302 @ 바시미라고 그래요 여기는? {바심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10302 # 에 바시미라고 여기선 허지. {예, 바심이라고 여기서는 하지.}

10302 @ 바시매는 게 자리개질하고. {바시매는 게 자리개질하고.}
10302 # 자리개질. {자리개질.}
10302 @ 그 다으메 이걸 훌:릉거 이써찌요? {그 다음에 이걸 홅는 게 있었지요?}
10302 # 그걸 그게 천치라고 천치 그거 나온 지도 얼마 안 덴는디. {그거, 그게 천치(+벼훑이)라고, 천치, 그거 나온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10302 @ 천치는 어떠케 에트 그 그 쇠. {천치는 어떻게, 어떠 그 쇠.}
10302 # 바리 바리 이러케 생겨써 그게 요러케 생겨씨면 그 베 나락 베 토매를 쪼금씩 좀 노너다가 세월읍씨 여기다 느쿠서 글거 그러믄 쏘다지지 이러케. {발이, 발이 이렇게 생겼어 그게, 이렇게 생겼으면 그 벼 나락, 볏단을 조금씩 나눠다가 세월없이 여기다 넣고서 긁어, 그러면 쏟아지지 이렇게.}
10302 @ 고게 쇠로 만드릉거죠? {그게 쇠로 만들은 거죠?}
10302 # 에 쇠로 맹기러쓰. {예, 쇠로 만들었어요.}
10302 @ 그걸 천치라고 그래요? {그걸 천치라고 그래요?}
10302 # 천치::라고 해찌. {벼훑이라고 했지.}
10302 @ 아 홀태란 말 혹시 안 쓰? {아, 홀태(벼훑이)라는 말 혹시 안 쓰나요?}
10302 # 몰류 그 홀태는 여기선 천치라고 혀 이르미. {몰라요, 그 홀태는 여기에서는 천치라고 해요, 이름이.}
10302 @ 그러구요 또. {그러구요, 또.}
10302 # 천치 가트니께. {벼훑이 같으니까.}
10302 @ 나무를 요러케 두 가지로 해가지고 훌렁거 이쪼? 벼울치. {나무를 이렇게 두 가지로 해가지고 훑는 거 있죠? 벼훑이.}
10302 # 그거는 저 머 소니로는 기내때라고. {그거는 저 뭐, 손으로는 기냇대라고.}
10302 @ 기낻? {기냇?}
10302 # 기내때. {기냇대.}
10302 @ 기내때 아. {기냇대, 아.}
10302 # 여기서는 기내때라고 불러 베 하니삭씩 하니삭씩 이러케 훌터논는 거 이거. {여기서는 기냇대라고 불러, 벼 한 이삭씩, 한 이삭씩 홅어놓는 거, 이거.}
10302 @ 그거 너가지고요? {그거 넣어가지고요?}
10302 # 기내때라고 해써 그저니. {기냇대라고 했어, 그전에.}
10302 @ 그 다으메 인제 그걸 나중에는 기게 호롱기라고 그러나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나중에는 기계, 호롱기(+탈곡기)라고 그러나요?}
10302 # 에 그게 아녀 그 라고 그래찌 호롱호롱 하니께 호롱기라고 그랜는디 아마 이르미 이씰겨 왜정 때 나와쭈 그게. {예, 그게, 아니야, 그 호롱기라고 그랬지, 호롱호롱하니까 호롱기기라고 그랬는데, 아마 이름이 있을 거야, 왜정 때 나왔죠, 그게.}
10302 @ 왜정 때요 그걸 어디 가니까 머 도롱태라고 하고 호롱기라고 하고 다 다르더라구요. 고건 이게 그 발바서 발브면서 그걸. {왜정 때요, 그걸 어디 가니까 뭐 도롱태(+탈곡기)라고 하고, 호롱기라고 하고 다 다르더라고요. 고건 이게 그, 밟아서, 밟으면서 그걸.}
10302 # 그러치우 발브며는 그게 돌거든. {그렇죠, 밟으면 그게 돌거든.}
10302 @ 그게 빨르조? {그게 빠르죠?}
10302 # 이러케 이러케.{이렇게, 이렇게.}
10302 @ 저도 어려쓸 때 보니까 발브면 한 사라미. {저도 어렸을 때 보니까 밟으면, 한 사람이.}

10302 # 그거 아마 골동푸므로 박물관 가면 워디 가 이거 이씰껴 그게. {그거 아마, 골동품으로 박물관 가면 어디 가 이거 있을 거예요, 그게.}
10302 @ 발 한 사라미 인제 그때 주먼. {발, 한 사람이 인제 그때 주면.}
10302 # 한 사라믄 노나주구 두리 발:버 혼저 그래 일해용이 이꾸 이인용이 이써 그게 그 훌릉게. {한 사람은 나눠주고, 둘이 밟어, 혼자 그래 일인용이 있고, 이인용이 있어 그게, 그 훑는 게.}
10302 @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한 번 훌터서 주면 마지막 사라미 마무리아고.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한 번 훑어서 주면 마지막 사람이 마무리하고.}
10302 # 그러케. {그렇게.}
10302 @ 집 빼:구. {짚 빼고.}
10302 # 그래 묵는 사라미꾸. {그래 묶는 사람 있고.}
10303 @ 그럼 인제 고 아까 모내기 방버베 한번 여쩌볼께요. {그럼 인제, 그 아까 모내기 방법에 [X대해서X] 한번 여쭤볼게요.}
10303 @ 그 보스비라고 하는 게 인나 바요 그 그 땅을 갈 때 쓰는데 삽 모양처럼 생겨따는데 쇠 쪼가글 하나 가지고 그 쟁기나 극쩡이 그 술바다게 마처서 끼워서 그게 아마 여프로 돌리는 걸 보스비라고 하는 거 가태요. {그 보습이라고 하는 게 있나 봐요, 그 땅을 갈 때 쓰는데 삽 모양처럼 생겼는데 쇠 조각을 하나 가지고, 그 쟁기나 극젱이, 술바닥에 맞춰서, 끼워서 그게 아마 옆으로 돌리는 걸 보습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10303 # 보십? 어~:: 보시븐 보시븐 쟁기 아피 뻬쪽한 게 다 파고 드러강거 보시비라고 하고. {보습? 어, 보습은, 보습은 쟁기 앞에 뾰쪽한 게 다 파고 들어간 것을 보습이라고 하고.}
10303 @ 고걸요? {고걸요?}
10303 # 예:: 위 이러케 너머가는 거 이쪼? 너머가는 거 그건 볃. {예, 위 이렇게 넘어가는 거 있죠? 넘어가는 거 그건 볏.}
10303 @ 벼시라고? {볏이라고?}
10303 # 그건 벼시라고 하고 또 쟁기 미꾸녕이다 댄 거 이꺼든? {그건 볏이라고 하고, 또 쟁기 밑구멍에다 댄 거 있거든?}
10303 @ 저 나무 미티 또 대써요? {저 나무 밑에 또 댔어요?}
10303 # 아니 나무 쟁기 미테다 세로 댄 거 이쓰 고건 판장세. {아니, 나무 쟁기 밑에다 쇠로 댄 거 있어요, 그건 판장쇠.}
10303 @ 판장세? {판장쇠?}
10303 # 에 판장세라고 해요 여기선 여기선 그러케 불러. {예, 판장쇠라고 해요, 여기에서는, 여기에서는 그렇게 불러.}
10303 @ 그럼 써:레는 아까 그 멀로 만드러요? {그럼 써레는 아까 그 뭘로 만들어요?}
10303 # 그 쓰레는 지금 야중이는 세로 용저배서 나와썬는디 츠:미는 그 나모 나무 요거 통텅어리 요거마난 걸루 이러케 요게 한 요러케 대가꾸서 끌루 끌루 구녕 뚜러가꾸서 따지면 단다난 나무 그 잘모더면 머 부러지니께 그 나무로 발 맹기러서 맹근거요. {써레는, 지금 나중에는 쇠로 용접해서 나왔었는데, 처음에는 그 나무, 나무 이거 통나무 요거만한 걸로 이렇게, 요게 한 요렇게 대가지고서, 끌로, 끌로 구멍 뚫어가지고서 따지면, 단단한 나무, 그 잘못하면 부러지니까, 그 나무로 발 만들어서 만든 거예요.}

10303 @ 그럼 인제 번지는 그냥 아까 저 판때기라고 그랜나요? {그럼 인제, 번지는 그냥 아까 저 판때기라고 그랬나요?}
10303 # 예 판때기루 야중이 한번 댕이구서 판파나게 하자믄 판때기 쓰레에다가 대:구서. {예, 판때기로, 나중에 한번 다니고서, 판판하게 하자면 판때기를 쓰레에다가 대고서.}
10303 @ 아:: 쓰래에다 대고서. {아, 쓰레에다가 대고서.}
10303 # 쓰래에다 대고서 항거유 그게. {쓰레에다가 대고서 한 거예요, 그게.}
10303 @ 고무래라고 하는 게 이써요? {고무래라고 하는 게 있어요?}
10303 # 고무래란 고무래는 고무래는 개이니 가꾸 댕이면서 자꾸 저저 쪼끔 너픈디 무루루 텨나딘 디 인는 거 고무래로. {고무래란, 고무래는, 고무래는 개인이 가지고 다니면서 자꾸 저, 저 조금 높은 데 뭍 위로 튀어나온 데 있는 거 고무래로.}
10303 @ 힘드시죠? 예 그러믄제 모시믈 때 줄모 이꼬. {힘드시죠? 예, 그러면 인제, 모심을 때 줄모 있고.}
10303 # 그 산:식모라고. {그게 산식모라고.}
10303 @ 에 그럼 잔깐만요 예 줄모는. {예, 그럼 잠깐만요, 예, 줄모는.}
10303 # 그 줄모 아니고서 산식이라고 그냥 갈량 해서 꼬 끈따가 야중이 줄 나오믄서 줄루 줄루 시머찌. {그 줄모 아니고 산식이라고, 그냥 짐작해서 꼿, 꼿다가, 나중에 줄 나오면서 줄로, 줄로 심었지.}
10303 @ 산:시글 혹시 허튼모라고 하나요? 벌모라고도 하나요? {산식을 혹시 허튼모라고 하나요? 벌모라고도 하나요?}
10303 # 몰류 그 우리께선 산식이라고 그래찌. {몰라요, 그 우리께서는 산식이라고 그랬지.}
10303 @ 그냥 막 손. {그냥 막 손.}
10303 # 그냥 댕이면 갈량애서 꼰는 거. {그냥 다니면서 짐작해서 꽂는 거.}
10303 @ 아:: 옌나레 그러케 시머따가. {아, 옛날에 그렇게 심었다가.}
10303 # 주리 야중에 나와찌. {줄이 나중에 나왔지.}
10303 @ 주른 어떠케 주를? {줄은, 어떻게 줄을?}
10303 # 에 주를 야중에 끼고서 시머찌. {예, 줄을 나중에 끼고서 심었지.}
10303 @ 고게 줌모라고 그래요? {그게 줄모라고 그래요?}
10303 @ 그 다으메 요즘 와서는 이제 모 심는 기게를 이앙기라고 그러조? {그 다음에, 요즘 와서는 이제 모 심는 기계를 이앙기라고 그러죠?}
10303 # 이앙기라고 그류. {이앙기라고 그래요.}
10303 @ 그걸 이앙기로 심찌? {그걸 이양기로 심지?}
10303 # 이잉기루 지금 이게 이앙기유 그게. {이앙기로, 지금 이게 이앙기요 그게.}
10303 @ 이앙기는 자동으로 탁탁 시머? {이앙기는 자동으로 탁탁 심어?}
10303 # 그러츄 그저니는 밀구 대니는 거 나오더니 지그믄 이제 타구서 대니는 거 나와떠믄그려 타구 댕겨. {그렇지요, 그전에는 밀고 다니는 거 나오더니, 지금은 타고서 다니는 거 나왔더구먼그려, 타고서 다니녀.}
10303 @ 옌나레 모 시믈 때요 일 자라는 장정은 하루에 얼마 정도 시머써요? {옛날에 모 심을 때요, 일 잘하는 장정은 하루에 얼마 정도 심었어요?}
10303 # 그게 그맥은 모르거쓔 나 정신 읍써서. {그게 금액은 모르겠어요, 나 정신 없어서.}

10303 @ 아니 얼마나? {아니 얼마나?}
10303 # 아 면저기 면저기 월마나 시머느냐? {아, 면적이, 면적이 얼마나 심었느냐?}
10303 # 면저기 이백평 에~ 그러니께 한 마지기 이백평이 한 두 마지기 심는 디 싯 싯 드러가쓰면 그거 다 에~ 백오십평 한 사라미 한 백오십평 시머슬뀨. {면적이 이백 평, 에 그러니까, 한 마지기 이백 평이, 한 두 마지기 심는 데 셋, 셋 들어갔으면 그거 다 에, 백오십 평 한 사람이 한 백오십 평 심었을 거예요.}
10303 @ 하루에요? {하루예요?}
10303 # 하루에. {하루에.}
10303 @ 모시 얼마 몯 씨먼네요? {못 심, 얼마 못 심었네요?}
10303 # 몯씸찌 그 저 모 쪄다가 소니로 쩌다가 그 저 쓰레지라는 디 시머써도 저 한 고것바께 모대요. {못 심지, 그 저 모 쪄다가, 손으로 쩌:다가 그 저, 쓰레질하는 데 심었어도, 저 한 그것밖에 못 해요.}
10303 @ 그러믄 모 찌는 날 모두 쩌: 쩌서 가따 주나요? {그러면 모 찌는 날 모두 쪄서 갔다 주나요?}
10303 # 그러초 아치미 쩌:따가 그거 누기면 조차나닝께 아침미 쩌따가 그날루 그 모를 소비시켜야 혀. {그렇죠, 아침에 쪘다가 그거 눅으면 좋잖으니까, 아침에 쪘다가 그날로 그 모를 소비시켜야 해.}
10303 @ 그럼 마닐 모만 심는다고 하며는 아침에 심는다면. {그럼 만일 모만 심는다고 하면은, 아침에 심는다면.}
10303 # 모만 심는다 아침버터 모만 심는다고 하먼 한 이백평 시머쓸테쥬 찌잔쿠 한 마지기 그게 그저니 고지라고 고지라고 한 마지기 우께 준 데가 이쓰 우께를 주어써. 따지먼 한 마지기 은는다 한 마지기 시므라고 아주. {모만 심는다, 아침부터 모만 심는다고 하면 한 이백평 심었을테죠 찌지 않고, 한 마지기, 그게 그전에 고지라고, 고지라고 한 마지기 도급 준 데가 있어요, 도급를 줬어. 따지면 한 마기기 얻는다, 한 마지기 심으라고 아주.}
10303 @ 우께 준다는 게? {우께(도급)준다는 게?}
10303 # 우께라는 게 일번말인디 한 마지기 아주 도급 주는 겨. {우깨라는 게 일본말인데, 한 마지기 아주 도급 주는 거야.}
10303 @ 도급 준다. {도급준다.}
10303 # 요거 요거 시므라 다. {요거, 요거 심어라 다.}
10304 @ 그러믄뇨 그 농사 지을 때 쓰는 농기구드리 이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 농사 지을 때 쓰는 농기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304 # 그러초. {그렇지요.}
10304 @ 그게 우선 제:일 난 게 삽. {그게 우선 제일 난 게 삽.}
10304 # 그러치 그 때도 고무래 삽 소시랑 머 그거 가지야지. {그렇지, 그 때도 고무래, 삽, 소시랑 뭐 그런 거 가져야지.}
10304 @ 여기 또 쪼마난 거 아까 묻 할때 저 저. {여기 또 쪼그만한 거, 아까 뭐 할 때 저, 저.}
10304 # 지랭이 캘 쩌기 아까 쓰는 거? {지렁이 캘 적에 아까 쓰는 거?}
10304 @ 아니 그런거 말구요 저 논 저 김 맬 때 하는 거 머라고 그래요? 김 맬 때 몰루매요? 김 지심 맬 때? {아니, 그런 거 말고요, 저 논, 저 김 맬 때 하는 거 뭐라고 그래요? 김 맬 때 뭐로 매요? 김, 지심(김) 맬 때?}

10304 # 지블 낼: 쩌기? {짚을 낼 적에?}
10304 @ 아니 아까 그:: 김 맨다고 그러자나요 논. {아니, 아까 그 김 맨다고 그러잖아요? 논.}
10304 # 기:믈 맨다 논 매는 거. {김을 맨다, 논 매는 거.}
10304 @ 에 그건 멀로 매써요? {예, 그건 뭘로 매었어요?}
10304 # 아 그러니께 아시는 호미로 맨다니께 호미. {아, 그러니까 아시는 호미로 맨다니까, 호미.}
10304 @ 그 다메. {그 다음에.}
10304 # 그 다메는 소니로 다 매고. [그 다음에는 손으로 다 매고.}
10304 @ 여기 또 괭이라고 하는 거 이쪼? {여기 또 괭이라고 하는 거 있죠?}
10304 # 괭이. {괭이.}
10304 @ 그걸 머라? {그걸 뭐라[x고 하나요x]?}
10304 # 괭이는 괭이 쓸 띠가 쓰지 거기 노니는 머 저 거기 상관 읍써요. {괭이는, 괭이 쓸 데다 쓰지, 거기 논에는 뭐 저, 거기 상관없어요.}
10304 @ 노네는 안 쓰나요? {논에는 안 쓰나요?}
10304 # 모 심는 디는 쾡이 피료업써. {모 심는 데는 괭이 필요없어.}
10304 @ 아 노니는 뭘. {아, 논에는 뭘.}
10304 # 예:: 아니 머 뚝 무너진 디 가튼 디야. {예, 아니 뭐, 뚝 무너진 데 같은 데야.}
10304 @ 아니 농사질 때 괭이도 피료앙가요? 괭이는 어떤 때 주로 써써요? {아니, 농사질 때 괭이도 필요한가요? 괭이는 어떤 때 주로 썼어요?}
10304 # 그러니께 따지먼 농사질라먼 이런 디서 머 파낼라믄 괭이로 써야지 머 워트겨. 그렁깨 괭이 쓸 디 이꾸 소시랑 쓸 디 이꾸. {그러니까 따지면, 농사지으면 이런 데서 뭐 파내려면 괭이로 써야지, 뭐 어떻게 해.그러니까 괭이 쓸 데 있고, 소시랑 쓸 데 있고.}
10304 @ 그럼 괭이 중에 빼쪽한 걸 꼬깽이라고 그러나요? {그럼 괭이 중에 뾰족한 걸 곡괭이라고 그러나요?}
10304 # 꼬쾡이 그건 그거는 돌 가틍거 인는디 돌 파내는 게 꼬꽹이지. {곡괭이 그건, 그거는 돌 같은 거 있는 데, 돌 파내는 게 곡괭이지.}
10304 @ 곧 꼬꽹이는 머 한 종류가 한 가진가요? 다른 종류는? {곡, 곡괭이는 뭐, 한, 종류가 한 가지인가요? 다른 종류는?}
10304 # 그러츄 곧꽹이 곧꽹이는 그게 돌 가튼 거 파내는디. {그렇죠, 곡괭이, 곡괭이는 돌 같은 거 파내는데.}
10304 @ 혹씨 화갱이라는 마:를 쓰는? {혹시 화갱이라는 말을 쓰는가요?}
10304 # 무어? {뭐?}
10304 @ 화갱이라고. {화갱이라고.}
10304 # 옌나리 화갱이라고 허는 게 옌나레 나 그건 쓰던 안:내찌만 누느로 보긴 해쓔. 나:무로 옌:날 옌나리 나무로 이러케 맹기러서 그 저 요러케 가래처럼 해서 세루 쒼 거 이쓔 그게 아마 화갱인게요 아마. {옛날에 화갱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 내가 그건 쓰지는 안 했지만, 눈으로 보기는 했어요. 나무로, 옛날 옛날에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저, 이렇게 가래처럼 해서 쇠로 씌운 거 있어요, 그게 아마 화갱인가 봐요 아마.}
10304 @ 그 다으메 그 아까 지렁이 파는 거드를 그 소시랑이라고 하나요? {그 다음에, 그 아까 지렁이 파는 것들을, 그 소시랑이라고 하나요?}

10304 # 그게 소시랑이지. {그게 소시랑이지.}
10304 @ 그건 주로? {그건 주로?}
10304 # 소시랑이 지끔 옌:나레는 세 발바께 읍떠니 지금 네: 발 소시랑도 이꼬 그거 바리 세시라고 해서 쇠시랑인 모양이여. {소시랑이 지금, 옛날에는 세 발밖에 없더니, 지금 네 발 소시랑도 있고, 그거 발이 셋이라고 해서 소시랑인 모양이야.}
10304 @ 그 그 소시랑은 주로 얻 어떤 이를 마니 해써요? {그, 그 소시랑은 주로 어, 어떤 일을 많이 했어요?}
10304 # 아:: 소시랑이야 그저니 그저 논 개자리라고 이쓰. 개자리라고 무슨 그게 무슨 소리냐믄 개자리가 소로 갈다보믄 갈다 나오먼 구텡이는 안 가라진 데가 이짜뉴. {아, 소시랑이야 그전에는, 그 저 논 개자리라고 있어요. 개자리라고 무슨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면 개자리가, 소로 갈다보면, 갈다 나오면 구석은 안 갈아진 데가 있잖아요.}
10304 @ 그러초 예. {그렇죠, 예.}
10304 # 구텡이 이러케 네모 빤뜨어면 요러케 쪼금쪼그만 디 소가 구텡이는 안 가르진다구 그거 보구서 개자리. {구석, 이렇게 네모 반듯하면 이렇게 조그조그만 데 소가 구석은 안 갈아진다고, 그거보고서 개자리.}
10304 @ 개자리라고 그래요 그걸료? {개자리라고 그래요, 그걸요?}
10304 @ 그럼 고 소시랑을 또 옌날엔 머조? 두엄 거튼 거 파 언질 때도 그거 소시랑? {그럼 그거, 소시랑을 또 옛날에는 뭐죠? 두엄 같은 거 퍼 얹질 때도 그거 소시랑?}
10304 # 그거 조치유 그런 그런 거 하구. {예, 그거 좋지요, 그런 그런 거 하고.}
10304 @ 소시랑 에. {소시랑, 예.}
10304 # 딱따간 디 파는 게유 그게. {딱딱한 데 파는 거예요 그게.}
10305 @ 그럼 인제 노네 물 대::는 건데요. {그럼 이제, 논에 물 대는 건데요.}
10305 @ 그 여기 옌나레도 천수다비라고 그라조 그걸? {그, 여기 옛날에도 천수답이라고 그러죠 그걸?}
10305 # 그러추 천수답 하느레서 물 떠러지는 디 딴 데서 물 안 몯 대는 게 천수답 아녀? {그렇죠 천수답, 하늘에서 물 떨어지는 데, 딴 데서 물 안, 못 대는 게 천수답 아니에요?}
10305 @ 에 그러면 그걸 무를 댈려면 어떤 데는 보를 마가서 대는 디도 이떠라구요. {예, 그러면 물을 대려면 어떤 데는 보을 막아서 대는 데도 있더라고요.}
10305 # 그러초 그게 그저니는 노:니 지끄믄 수리 시설 다애서 지하수 맹기러노코 담수지 맹기러노코 다 해찌만 그저니는 그게 웁써서. {그렇죠, 그게 그전에는 논에, 지금은 수리 시설 다 해서 지하수 만들어놓고, 담수지 만들어놓고 다 했지만, 그전에는 그게 없어서.}
10305 # 외냐하머는 노늘 베: 벼내면 물, 물꼬를 다 마가서 저장해놔쓰 무를. 그 지그믄 다 말려놔따가 물 조니께 저 머아지만 마가놔따가 그 물로 좀 사용 하고. {왜냐하면은 논을, 벼 베어내면 물꼬를 다 막아서 저장해놨어요, 물을. 그 지금은 다 말려놨다가 물 좋으니까 저 뭐하지만, 막아놨다가 그 물로 좀 사용하고.}
10305 @ 여기 이 동네에는 보 가튼 거는 웁 웁써껜네요. {여기, 이 동네는 보 같은 것은 없, 없었겠네요.}
10305 # 여기 지하수가 이쓰 지하수가 마네요 여기. {여기 지하수가 있어요, 지하수가 많아요 여기.}
10305 @ 그럼 그걸 관정 판다고? {그럼 그걸 관정 판다고?}
10305 # 에 관정 그게 지하수 관정 자:기 요기 이 간척 이거또 간척진디 간:척지 미티 보

머는 참 물 검나게 나난슈. 이러케 통이 이건마난디 지하수 뽀븐는 게 아니라 지라 막 그냥 올러유 이러케 땅 쏘기서. {예, 그게 지하수 관정, 저기 여기 이 간척, 이것도 간척지인데, 간척지 밑에 보면 참 물 겁나게 나왓어요. 이렇게 통이 이것만한데 지하수 뽑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막 그냥 올라와요, 이렇게 땅 속에서.}
10305 @ 그 예 그러믄제 그 물 댈 때 퍼는 게 이쪼? 그걸 용두레라고 하는 걷? {그 예, 그러면 인제 그 물 댈 때 프푸는 게 있죠? 그걸 용두레라고 하는 것?}
10305 # 그런디 그게 용구레라고 그저니는 용구레로 용구래라고 이러케 이러케 파는 거 나도 봗 여기는 사용 아나는디 두레바기라고 이꺼든 두레박. {그런데 그게 용구레라고, 그전에는 용구레로, 용구레라고 이렇게, 이렇게 파는 거 나도, 봤, 여기는 사용 안 하는데 두레박이라고 있거든, 두레박.}
10305 @ 두레박. {두레박.}
10305 # 두레바기라고 두:리 두:리 끈 매가꾸서 이러케 푸는 거. {두레박이라고, 둘이, 둘이 끈 매어가지고 이렇게 푸는 거.}
10305 @ 고건 이제 두레바기라고 하고 용두레는. {그건 이제 두레박이라고 하고, 용두레는.}
10305 # 용두레는 그 저 지:다라케 이러케 파가꾸서 이러케 이러케 넹기는 거 아마 그거 보고 그러는게구먼. {용두레는, 그 저 기다랗게, 이렇게 이렇게 넘기는 거 아마 그것 보고 그러는 거구먼.}
10305 @ 그저네 그때 시골 봉께 박: 박: 이쪼? 바기다 그래 나무 다라서 그래 이러케 물 푸는 거? {그전에, 그 때 시골에서 보니까 박, 박 있죠? 박에다 그래, 나무 달아서 그래 이렇게 물 푸는 거?}
10305 # 예 그러치유 그 바가지다 바가지로 우데른 그거 찌금 여기서 샘 쪼그마난 거 이쓰면 고거 말려서 다아믄 여나믄 포기라도 시머볼라구 순저니 고걸로 퍼서. {예 그렇죠, 그 바가지에다, 바가로 우리들은 그거 지금 여기서 샘 조그만한 거 있으면, 고거 말려서 다만 여남은 포기라도 심어보려고, 순전히 그걸로 퍼서.}
10305 @ 그 다메 저수지. {그 다음에 저수지.}
10305 # 저:수지는 저수지 말 그대로 여기는 저수지 저기 저 호덕공사라고 저 워디 올라먼 거기 저수지 그거 호리는 그거 하나여. {저수지는 저수지, 말 그대로 여기는 저수지, 저기 저 호덕공사라고 저 어디, 올라가면 거기 저수지 그거, 호리는 그거 하나예요.}
10305 @ 저수지에서 물 대서. {저수지에서 물 대서.}
10305 # 에 거기는 물 조치. {예, 거기는 물 좋지.}
10305 @ 그 다메 인제 아까 관정은 땅 파는 거구요 옌나른 땅을 파나요 그럼요? 지하수를? {그 다음에, 인제 아까 관정은 땅 파는 것이고요, 옛날에도 땅을 파나요 그럼요? 지하수를?}
10305 # 옌나렌 지하수 웁써찌 지하주가 머여? 옌나린. {옛날에는 지하수 없었지, 지하수가 뭐야? 옛날에는.}
10305 @ 요즈미 이게 관정하는 거? {요즘 이게 관정하는 거?}
10305 # 요새 관장이지 지하수가 지하수 팔 중 알아씨면 머. {요새 관정이지, 지하수가, 지하수 팔 줄 알았으면 뭐.}
10305 @ 그 다음 인제 물:꼬. {그 다음 인제 물꼬.}
10305 # 물꼬라는 건 물 네려가는 디를 보고 물꼬지 마가따 여러따 하는 게 물꼬. {물꼬라

는 건 물 내려가는 데를 보고 물꼬라고 하지, 막았다 열었다 하는 게 물꼬.}
10305 @ 근데 물 물꼬 때메 쌈도 마니 나따고. {그런데 물, 물꼬 때문에 싸움도 많이 났다고.}
10305 # 아::이 그러머뇨 물 물 한:방우리 새로우니께 따지믄 넘: 논 여기 무리 장뜩 인는디 넘의 노니다가 물 이씨면 자기네 논 말러씨면 바미 몰:래 그 놈 따네려서 주이 노느로 따내리고 아 그 그튼날 오로 보면 주이 논 물 말라싱께 안 싸우거쑤? 그게. {아이, 그러먼요, 물, 물 한방울이 새로우니까, 따지면 남의 논, 여기 물이 잔뜩 있는데, 남의 논에다가 물 있으면 자기네 논 말랐으면 밤에 몰래 그 놈 따내려서 저희 논으로 따내리고, 아, 그 그 이튿날로 보면 저희 논 물 말랐으니까 안 싸우겠어요? 그게.}
10305 # 그래서 쌈::아고 머 물꼬 싸마구 살린까지 나따고 핸는디 멀. {그래서 싸움하고 뭐, 물꼬 싸움하다 살인까지 났다고 했는데 뭘.}
10305 @ 그래요 그럼 해튼 윈무레서 따네려주야 데니까 그게 골치요. {그래요, 하여튼 윗물에서 따내려줘야 하니까.}
10305 # 그러츄 그게 생존 경쟁이라고 그게. {그렇죠, 그게 생존 경쟁이라고 그게.}
10305 @ 근디 그 물꼬를 비울 때는 가서 물꼬를 터줘야 대자나요 앙 그라먼. {그런데 그 물꼬를 비울 때는 가서 물꼬를 터줘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10305 # 그러츄. {그렇죠.}
10305 @ 논뚜기 무너징게. {논뚝이 무너지니까.}
10305 # 그러니께 또 인저 거기서 서로 감정 붇는게 외 너 물 안 줄 쩌기는 물 안 주구서 비 오니께 우리 노느로 물 따라논느냐고 또 싸우고. {그러니까, 또 인제 거기서 서로 감정 붙는 게, 왜 너 물 안 줄 적에는 물 안 주고서, 비 오니까 우리 논으로 물 따라놓느냐고 또 싸우고.}
10305 @ 그래요? 에. {그래요? 예.}
10305 @ 그 다으메 인제 보면 옌나레 삽 거튼 걸 좀 길::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인제 보면 옛날에 삽 같은 걸 좀 길게 해가지고.}
10305 # 가래 가래 가래. {가래, 가래, 가래.}
10305 @ 가래 말고 어떤 어른들 보면 삽 거치 쪼그만 삽 거치 생겨가지고 길: 그케 해가지고. {가래 말고, 어떤 어른들 보면 삽 같이, 쪼그만 삽 같이 생겨가지고, 길 그렇게 해가지고.}
10305 # 응:: 그게. {응, 그게.}
10305 @ 그걸 머라고? {그걸 뭐라고?}
10305 @ 살포라고 그라는데. {살포라고 그러는데.}
10305 # 살포면 살포가 만는 겨 아마 살포. {살포면, 살포가 맞는 거예요 아마, 살포.}
10305 @ 여기서 에. {여기서 예.}
10305 # 그게 저 노인들 논 넘주고서 저 물꼬 보러 대닐라믄 그 자다란 늠. {그게, 저 노인들 논 남 주고서 저 물꼬 보러 다니려면 그 기다란 놈.}
10305 @ 글쎄 에. {글쎄, 예.}
10305 # 해서 그 저 모 뜬 거 이씨면 요러케 그걸로 콕 찌거서 눌루고 한 모양이여. 아마 그게 인는 모양이여. {해서 그 저 못 뜬 거 있으면 요렇게 그걸로 콕 찍어서 누르고 한 모양이여. 아마 그게 있는 모양이여.}
10305 @ 아 고거 잘 이름 기억 안 나세요? 예에. {아, 고거 잘 이름 기억 안 나세요? 예, 예.}

10305 # 그게 살포여 그게 다. {그게 살포여, 그게 다.}
10305 @ 예. {예.}
10305 @ 그 다으메 물 대는 데두 여러가지가 인나 바요 묻 우에서 차래대로 대는 물도 이꾸 내려대는 물도 이꾸. 그런 게 인나요? {그 다음에, 물 대는 데도 여러 가지가 있나 봐요? 무슨 위에서 차례대로 대는 물도 있고, 내려대는 물도 있고, 그런 게 있나요?}
10305 # 아~이 그러니께 무른 우이서 내려오는 게 물 아뇨? {아니, 그러니까 물은, 위에서 내려오는 게 물 아니에요?}
10305 @ 에. {예.}
10305 # 올리르믄 기게로나 올릴까 소용업시깨 그 물 물 대는 거요 그게. {올리는 건 기계로 올릴까, 소용 없으니까 그 물, 물 대는 거예요 그게.}
10305 @ 그러믄제 예 들면 저수지를 트르 저 무를 네려보낼 때 그 물 대는 게 이쓸 거에요 순서가. {그러면 인제, 예를 들면 저수지를 틀, 물을 내려보낼 때, 그 물 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순서가?}
10305 # 그러치오 그런디 거 가서 지끄믄 지끄믄 그러치만 그저니는 저 즈수지도 그저니 옌나리 엳:글래 생긴 거유 저게 그저니가 그 이짜녀 노니여써쓰 거기가. 그런디 저 머 해찌.{그렇죠, 그런데 거기 가서 지금은, 지금은 그렇지만, 그전에는 저 저수지도 그전에 옛날에, 요근래 생긴 거예요 저게, 그전에 그 있잖아요, 논이었어요 거기가. 그런데 저 뭐 했지.}
10305 @ 글 네려 물를 위에서 차레차레 댄나요? {그걸 내려, 물을 위에서 차례차례 대었나요?}
10305 # 그러초. {그렇지요.}
10305 @ 그 무조건 차면 내려보내고 차면 내려보내고. {그 무조건 차면 내려보내고 차면 내려보내고.}
10305 # 에 그러쵸. {예, 그렇죠.}
10305 # 그러닝께 물 대재비를 잘 해써찌 이러케. {그러니까 물대기를 잘 했었지 이렇게.}
10306 @ 아까 모내기는 인제 그:: 아시 맨다고 한 거 아시매기 저네는 머라고 그래쪼? {아까 모내기는, 인제 그 애벌 맨다고 하고, 초벌 매기 전에는 뭐라고 그랬죠?}
10306 # 안 도사리. {안, 도사리.}
10306 @ 도사리 도사리아고 아시매구. {도사리, 도사리하고 애벌 매고.}
10306 # 매구 두벌매구 만:무러고. {매고 두벌 매고, 만물하고.}
10306 @ 그럼 고렁 걸 머 한다고 그래요? 고렁 걸 여기서? {그럼 고런 걸 뭐 한다고 그래요? 고런 걸 여기서.}
10306 # 그러믄 피사리라고 인제 야중이 베 이삭 나오머는 잡 저 머 피 가튱게 나와씽께 또 그거 매야어구 노네서 사르야여. {그러면 피살이라고, 인제 나중에 벼이삭 나오면은 잡 저 뭐, 피 같은 게 나왔으니까 또 그거 매야하고, 논에서 살아야 해.}
10306 @ 피:는 어때요? 다 뽀바줘요? {피는 어때요? 다 뽑아줘요?}
10306 # 뿌리 뽀바야야지. {뿌리 뽑아야 하지.}
10306 @ 피는? {피는?}
10306 # 예 우이 뽀브머는 젇 젇 젇쑨 이러케 또 피가 나오느가꾸 또 쏘더지구 또 쏘더지구 에이거드뇨. {예, 위 뽑으면 곁, 곁, 곁순 이렇게 또 피가 나와가지고, 또 쏟아지고, 또 쏟아지고 그하거든요.}

10306 @ 그러초 제가 바서는 이거 피: 하구 벼아구 잘 구벼리 안 가더라구요. {그렇죠, 제가 봐서는 이거 피하고, 벼하고 잘 구별이 안 가더라고요.}
10306 # 아::니 머 달버 그런디. {아니, 뭐 다르지, 그런데.}
10306 @ 달 달버요? {다, 달라요?}
10306 # 그러구 그거 쏘다지먼 피; 머 씨가 종자가 겁나니께 그거 잡지 안으면 클라요. {그리고 그거 쏟아지면 피 뭐, 씨가, 종자가 겁나니까 그거 잡지 않으면 큰일나요.}
10306 @ 그거 클: 때 보니까 꼭 벼 거치 생겨써요. {그거 클 때 보니까 꼭 벼 같이 생겼어요.}
10306 # 똑가튜 클 쩨는. {똑같아요, 클 때는.}
10306 @ 그래도 그걸 구별 해써요? {그래도 그걸 구별했어요?}
10306 # 그래요 이삭 나오야 알지 이사기 나오머는 삐죽삐죽 나오먼 화나니 화니 알지. {그래요, 이삭 나와야 알지, 이삭이 나오면 삐죽삐죽 나오면 환하게 환히 알지.}
10306 @ 그저니 잘 몰르구요? {그전에는 잘 모르고요?}
10306 # 그저니는 잘 몰류요 그거. {그전에는 잘 몰라요 그거.}
10306 @ 그럼 김: 매면서 좀 애로 사앙 좀 이쓰세요? 김 맬 때. {그럼 김 매면서 좀 애로 사항 좀 있으세요? 김 맬 때.}
10306 # 애로 사항이 어려워 어려워서 애로 사앙이지 머. {애로 사항이 어려워, 어려워서 애로 사항이지 뭐.}
10306 @ 그 막 땀 흘리고 막. {그, 막 땀 흘리고 막.}
10306 # 하::이고 믿 두벌 맬라먼 따미 머여 이러케 올비지 여기 이런 디가 막 베에 슬려가꾸서 피가 쭉쭉 나고. {아이고, 밑 두벌 매려면 땀이 뭐여, 이렇게 올라오지, 여기 이런 데가 막 벼에 쓸려가지고 피가 쭉쭉 나고.}
10306 @ 그러믄뇨 모를 심꼬 도사리는 어느 정도 며칠 지난 뒤에. {그러면요, 모를 심고 도사리는 어느 정도, 며칠 지난 뒤에.}
10306 # 뿌리 자버서요 뿌리 자버서 이게 모가 거 씨커머케 데거든요 그러믄 고 고 때 씨커머케 대서 요만큼 쪼끔 크며는 완저니 뿌리 자브면 도사리 해줘야요 그게 그러믄. {뿌리 잡아서요, 뿌리 잡아서 이게, 모가 거 시꺼멓게 되거든요, 그러면 고, 고 때 시꺼멓게 돼서 요만큼, 조금 크면은 완전히 뿌리 잡으면 도사리 해줘야 해요, 그게 그러면.}
10306 @ 도 도사리아고 인제. {도, 도사리하고, 인제.}
10306 # 그 두버른 저 외냐하먼. {두벌은 저 왜냐하면.}
10306 @ 아시 매는 건. {애벌 매는 건.}
10306 # 그참 아시 아시뎅이 그 호미로 매는 거는 그저니 가야 이찌 머 지끄믄 그거 웁꾸 아주 안꺼뚜 논 매는 건 웁찌만 그저니는 베 인제 어지가니 커서 포기 한 마니 안 저쓸쩌기고 때 인저 글쓸며 호미로 맨지지. {그것참 애벌, 애벌 매기, 그 호미로 매는 것은 그전에 가야 있지, 뭐 지금은 그거 없고, 아주 아무것도, 논 매는 건 없지만, 그전에는 벼, 인제 어지간히 커서 포기 한 많이 안 벌었을 적에 그 때 인제 긁어쓸며, 호미로 만지지.}
10306 @ 그럼 벼에 소:도글 좀 해야 데자나요? {그럼 벼에 소독을 좀 해야 되잖아요?}
10306 # 소도교? 그건 저 그 때는 소독냑또 웁써찌 옌나레는 저 머 머 살충제니 살균제니 그 옌나레는 웁써쑈 그냥 비료도 별루 업씬게 저 머 병충애도 웁써꼬. 그런디 글래루 병충애 생깅께 살 저 살충제 머 다 주지. {소독이요? 그건 저 그 때는 소독약도 없었지 옛날에는, 저 뭐, 뭐 살충제니, 살균제니 그 옛날에는 없었죠, 그냥 비료도 별로 없으니까, 저 뭐

병충해도 없었고. 그런데 근래에 병충해 생기니까 살 저, 살충제 뭐 다 주지.}
10306 @ 그 옌나레 긍까. {그 옛날에, 그러니까.}
10306 # 웁써쓰. {없었어요.}
10306 @ 소니로 맬 때 소니 여기 아플 거 아니에요? {손으로 맬 때, 손이 여기 아플 거 아니에요?}
10306 # 아프조. {아프죠.}
10306 @ 그 멀 끼고 하는 거. {그 뭘 끼고 하는 거.}
10306 # 아 끼는 거 업씨오 끼먼 맬 수 이까뇨? 알소니로 그냥. {아, 끼는 거 없어요, 끼면 맬 수 있나요? 알손으로 그냥.}
10306 @ 알소니로. {알 손으로.}
10306 # 알소니로 그냥 매찌. 그러구서 여기가 증 슬리며는 토시 토시 여기 토시라고 저 머 칙넝쿨로 맹기러서 하던지 슬리지 안케 여기다 토시 치고 이러케. {알손으로 그냥 맸지. 그러고서 여기가 정 쓸리면은 토시, 토시, 여기 토시라고 저 뭐 칡넝쿨로 만들어서 하던지, 쓸리지 않게 여기에다가 토시 끼고 이렇게.}
10306 @ 그래써요 아유 고생하션네요. {그랬어요? 아유, 고생하셨네요.}
10306 # 고생이야 옌날 고생이야 머 마를 모뎌. {고생이야, 옛날 고생이야 뭐 말을 못해.}
10306 @ 그러구 이거 그 벼 벼가 크면 겡쟁이 좀 얼굴 막 찔리고. {그러고, 이거 그 벼가 크면 굉장히 좀 얼굴 막 찔리고.}
10306 # 꺼끌. {꺼끌.}
10306 # 그러초 눈 워떤 사라믄 이게 눈 눈 한 짝 찔려가꾸서 한 짝 베 입쌔로 그 실명된 사람도 이써쓰 그저니. {그렇죠, 눈, 어떤 사람은 이게 눈, 눈 한 쪽 찔려서, 한 쪽 벼 잎새로, 그 실명된 사람도 있었어요, 그전에.}
10306 @ 노네 또 이라먼 거 머 사람 사람 막 붇는 거 이쪼? {논에 또 일하면 거, 뭐 사람, 사람 막 붙는 거 있죠?}
10306 # 그거뚜 그머리라고 아:이고 그머리 야중이는 떼다가 안 떼내버류. 그런디 지그믄 약 써서 그게 웁써져쓰 인저. 그저니는 여가 쌔커머케 댐벼쓰 그게 그거 막 떼내느라고 그 사람 피 빠라 먹느라고. {그것도 거머리라고, 아이고, 거머리 나중에는 떼다가 안 떼어내버려요. 그런데 지금은 약 써서 그게 없어졌어요 인제. 그전에는 여기가 새카맣게 덤볐어요, 그게 그거 막 떼어내느라고, 그 사람 피 빨아 먹느라고.}
10306 @ 그럼 고 그걸 못 따라들게 머 옫 가튼 거 안 이버써요 그 때느뇨? {그럼 고, 그걸 못 달라붙게 뭐, 옷 같은 거 안 입었어요, 그 때는요?}
10306 # 읻 그게 인나? 지끄믄 그거 그머리 암만 이써도 그거 뭗 물장와 가튼 거 이씽께 아무 상관업는디 그 때야 인나요? 그냥 걷꾸서 해찌. {있, 그게 있나? 지금은 그거 거머리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거 뭣, 물장화 같은 거 있으니까 아무 상관 없는데, 그 때야 있나요? 그냥 걷고서 했지.}
10306 @ 그럼 피가 인제 거머리가 피를 먹고서 지가 저절로 떠러저요? {그럼 피가, 인제 거머리가 피를 먹고서, 제가 저절로 떨어져요?}
10306 # 큰:: 누믄 증: 머그먼 떠러저 이 쩨 요거만 한 게 피 빠라 머그먼 이거 마애 깽깽여. {큰 놈은 정 먹으면 떨어져, 이 쬐, 요것만한 게 피 빨아 먹으면 이거 만 해, 땡땡해.}
10306 @ 그리게 커.
10306 # 참: 피 말려 아이고. {참, 피말려, 아이고!}

10306 @ 그 거머리 물리면 데개 간지럽더라구요 예 고생아셔씀니다. {그 거머리 물리면 되게 간지럽더라고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1.3.2 밭농사

10307 @ 그럼 아까 인저 논농사에 대해서 좀 말쓰믈 여쩌꺼드뇨 인제 반:농사 진는 그 말씀 여쭈께요. {그럼 아까 인제 논농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여쭸거든요, 인제 밭농사 짓는 그 말씀 여쭐게요.}
10307 @ 주로 반:농사를 진는 곡씨게는 어떵 거뜨리 이써요? {주로 밭농사를 짓는 곡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10307 # 예 옌나리 마리쥬 보리 밀리주 잉 보리 밀 콩. {예, 옛날에 말이죠, 잉, 보리, 밀이죠, 보리, 밀, 콩.}
10307 @ 되게 쪼만한 노란. {되게 조그마한 노란 [x것x].}
10307 # 스스기라고 하지 스슥::두 갈구 메밀두 시머써구 그저니 머 그래서 주로 우리는 따지먼 저 머 보리 밀. {조라고 하지, 조도 갈고, 메밀도 심었었고, 그전에 뭐, 그래서 주로 우리는 따지면 저 뭐, 보리, 밀.}
10307 @ 그게 주고요? {그게 주고요?}
10307 # 주로 그걸 가러 먹꾸 사르야 할테니께. {주로 그걸 갈어, 먹고 살아야 테니까.}
10307 @ 그 아까 그 조보다 야깐 그 노란. {그, 아까 그 조보다 약간 그 노란.}
10307 # 기장 기장 기장은 여기 드러온 지 얼마 데두 아내유. {기장, 기장, 기장은 여기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요.}
10307 @ 아 그래요 그라고 인제 그.{아, 그래요, 그러고 인제 그.)
쑤수 쑤수. {수수, 수수.}
@ 음 쑤수. {음, 수수.}
10307 # 그건 콩바티다가 는는 쑤수. {그건 콩밭에다가 넣는 수수.}
10307 @ 그다으메 인제 그 감:자. {그다음에, 인제 그 감자.}
10307 # 그러추 감::자. {그렇죠, 감자.}
10307 @ 또 가으레 캐능 거 이쪼? {또 가을에 캐는 거 있죠?}
10307 # 고구마 고구마가 일본마린지 원 고구마. {고구마, 고구마가 일본말인지 원, 고구마.}
10307 @ 그다으메 인제 아까 여기 오다보니까 서사네 유명항 거. {그 다음에 인제, 아까 오다보니까 서산에 유명한 거.}
10307 # 저 워디? {저, 어디?}
10307 @ 서산서 마니 나능 거 이쪼? 그 고추. {서산에서 많이 나는 거 있죠? 그 고추.}
10307 # 응 꼬추 고추. {응, 고추, 고추.}
10307 @ 또? {또?}
10307 # 그저니는 그저니두 그저니는 꼬추도 마니 아내서 그저니 모카가라써지 모카 응 일본놈드리라 모카 갈라고 해서 모카 갈고 반농사서 그거지 머. {그전에는, 그전에도, 그전에는 고추도 많이 안했어, 그전에 목화 갈았었지 목화, 응, 일본놈들이 목화 갈라고 해서 목화 갈고, 밭농사가 그거지 뭐.}

10307 @ 목화 옌나렌 자꾸 머 공출해따고 그래요. {목화 옛날에는 자꾸 뭐 공출했다고 그래요.}
10307 # 아 일본순 곡주를 시 가라따가 그 순저니 공출하느라고 일본 사람드리 그게 여기서 콩 가저 간거뚜 그 머 보는 보든 모댇찌만 그 콩 가따가 지름 짜가꾸서 기름 쓰느라고 그러케 마니 하고. {아, 일본 순 공출을 시, 갈았다가 그 순전히 공출하느라고, 일본 사람들이, 그게 여기서 콩 가져 간 것도, 그 뭐 보는, 보지는 못했지만 그 콩 가져다가 기름 짜가지고서, 기름 쓰느라고 그렇게 많이 하고.}
10307 @ 서사네 유명한 그 마늘. {서산에 유명한 그 마늘.}
10307 # 그러치 그 육쫑 마눌 그 언태 그 옌날 심떵거 멍능거 그거 시머유 지금 나두 인지가 그게 육쫑 마눌 마니 심찌요. {그렇지, 그 육쪽 마늘, 그 여태 그 옛날 심던 거, 먹는 거 그거 심어요 지금 나도, 인지가 그게 육쪽 마늘 많이 심지요.}
10307 @ 인지 예 아까 또 스페인 스페인 마늘. {인지? 예, 아까 또 스페인, 스페인 마늘.}
10307 # 응 그 스페인 마눌. {응, 그 스페인 마늘.}
10307 @ 그 육쫑 마느리 스페인 마늘? {그 육쪽 마늘이 스페인 마늘?}
10307 # 아녀: 육쫑 마 스페이니란 마누른요 드러온지 여기 얼마 안대슈 스페이니란 나라가 이떠믄 인제 보니께 그래서 거기서 드러온 마누리요 그게. {아니요, 육쪽 마늘, 스페인이라는 마늘은요, 들어온 지 여기 얼마 안되었어요,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있더라고요 인제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들어온 마늘이에요 그게.}
10307 @ 아 여기 육쫑 마늘하고 다르구먼요. {아, 여기 육쪽 마늘하고 다르구만요.}
10307 # 그런데 지금 스패인 거처서 중구그로 중구싸니라고 그러두만 중국써 만드는. {그런데 지금 스페인 거쳐서 중국으로, 중국산이라고 그러더만, 중국에서 만드는.}
10308 @ 그러면 고렁 게 이꼬 그걸 이제 그 시:저레 마추어서 반농사를 지야 델 꺼 아니요? {그러면 그런 게 있고, 그걸 이제 그 시절에 맞춰서 밭농사를 지어야 될 것 아니에요?}
10308 # 그러치오. {그렇지요.}
10308 @ 그러믄 고 함번 우선. {그러면 그거 한 번 우선.}
10308 # 그게 왜냐아머는 시저리 마추머는 보리는 가으레 갈자나유? 가으레 가라서 월동해따가 보미 보리 빕 볍 타작하구 보리 비구서는 거기다 머냐믄 콩을 시뮤 거기다 이모자그로 인제 따지믄 보리끌답 콩 비꾸서 이러케 소로 가라 어퍼가꾸 콩을 심지 인저. {그게 왜냐 하면, 시절에 맞추면은 보리는 가을에 갈자나요? 가을에 갈아서 월동했다가 봄에 보리빕, 볍(+베) 타작하고, 보리 베고서는 거기다 뭐냐면 콩을 심어요, 거기다 이모작으로, 인제 따지면 보리끌답 콩 베고서, 이렇게 소로 갈아 엎어가지고 콩을 심지 인제.}
10308 @ 그럼 보리를 심:꼬 그 가으레 심은 겨우레 보리를 겨울 지나믄 머를 해주더라구요 보리 봄 데니까. {그럼 보리를 심고, 그 가을에 심은, 겨울에 보리를, 겨울 지나면 뭐를 해주더라고요, 보리, 봄 되니까.}
10308 # 그러니께 인저 그 저 도보기라고 해서 보리가 겨우리 어러주글까바 지끔도 그러케 하더믄 발:버주구 노라가튼 거 둥굴려서 단단하게 해야 보리가 들 어러주꾸 저 데니께 그러케. {그러니까 인제, 그 저 도복이라고 해서 보리가 겨울에 얼어죽을까봐, 지금도 그렇게 하던데, 밟아주고 롤러 같은 거 둥굴려서 단단하게 해야 보리가 덜 얼어죽고 저 하니까 그렇게.}
10308 @ 그래서 발바줘. {그래서 밟아줘요?}
10308 # 에 발바주구 그래요. {예, 밟아주고 그래요.}

10308 @ 그다메 그 미른 언제 파종? {그다음에, 밀은 언제 파종해요?}
10308 # 미리 그 저 소 벼 보리하고 가태요 가티 소 저 가티 종자 뿌리는디 미리 좀 느께 수와글 허지요 보리가 먼저 영그러 에 그래서. {밀이, 그 저 소, 벼, 보리하고 같아요, 같이 소, 저 같이 종자 뿌리는데, 밀이 좀 늦게 수확을 하지요, 보리가 먼저 영글어, 에, 그래서.}
10308 @ 그 밀두 인제 참미리꼬 큰 호미리짜나요? {그 밀도 인제 참밀 있고, 큰 호밀 있잖아요?}
10308 # 그러치오 그 밀두 여러가지요 아주 그건 그저니 토종 미리꼬 그 저 키다리 미리라고 그 저 머 키 커다란 거는 지금 먹두 안쿠 소 사료루 드러 심는 사람 사료로 쓰는 게일료. {그렇죠, 그 밀도 여러 가지요, 아주 그건 그전에, 토종 밀 있고, 그 저 키다리밀이라고, 그 저 뭐, 키 커다란 것은 지금 먹지도 않고, 소 사료로 더러 심는 사람, 사료로 쓰는 것이데요.}
10308 @ 밀른 저 밥끼가 업쪼 미른 보메? {밀은, 저 밟기가 없죠, 밀은 봄에?}
10308 # 그러초 에 에 보리처럼 그러케 움지기던 안코. {그렇죠, 예, 예, 보리처럼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고.}
@ 보리 보리밥끼가. {보리, 보리밟기가.}
10308 @ 그러믄 콩은 언제 파종애요? {그러면 콩은 언제 파종해요?}
10308 # 파종에 그게 유 음려그루 유월 한 초수니 오월 한 말경이 곧 시므야야 인저. {파종이, 그게 유, 음력으로 유월 한 초순에, 오월 한 말경에 곧 심어야 해, 인제.}
10308 @ 그 콩은 어떠케 심 저 파종애요? {그 콩은 어떻게 심, 저 파종해요?}
10308 # 그러니께 그저니는 호미 이러케 파서 심끼두 허구 그니께 노동려기 좀 부족 허니께 보리를 비자뉴? 그러믄 보리 그 빈 두두기다가 콩종자를 뼈. {그러니까, 그전에는 호미 이렇게 파서 심기도 하고, 그러니까 노동력이 좀 부족하니까 보리를 베잖아요? 그러면 보리 그 벤 두둑에다가 콩 종자를 뿌려.}
10308 # 삐쿠서 소루 그 두두글 골망 그 저 보리 가라떤 골망은 아니고서 두두글 쟁기루 이러케 갈머는 흐기 이러케 너믈 거 아녀유? 그 소시랑으로 꾸며버리지 그러믄 그냥 거기서 커서. {뿌리고서 소로 그 두둑을 골망, 그 저 보리 갈았던 골망은 아니고, 두둑을 쟁기로 이렇게 갈면 흙이 이렇게 넘을 거 아니에요? 그 쇠스랑으로 꾸며버리지, 그러면 그냥 거기서 커서.}
10308 @ 그러믄 아까 그 모콰는 언제? {그러면 아까 그 목화는 언제?}
10308 # 모카두 그게 모카 시믈쩌기는 보;리받 새에다가 이거 차민제 보리바슬 요케 요러케 하지 아내슈? 보리 시머쓰먼 보리 벼내고는 느즈니께 보리받 새에다 골 요로케 속 쾡이로 골 이러케 치구서 모카씨를 삐구서 거기다 덥꾸서 나머는 인저 보리 그러니께 콩은 안 몯씸지. {목화도 그게, 목화 심을 적에는 보리밭 사이에다가, 이거 참 인제, 보리밭을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보리 심었으면 보리 베어내고는 늦으니까, 보리밭 사이에다가 골 이렇게, 속 괭이로 골 이렇게 치고서 목화씨를 뿌리고서 거기다 덮고 나면 인제 보리, 그러니까 콩은 안, 못심지.}
10308 # 그러차너유? 그래서 보리 비고서는 보리끄:를 파가꾸 모카바슬 부슬줘써 이러케 에 부슬줘서 모카 키고 그래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보리 베고서는 보리 골을 파갖고, 목화밭을 북을 줬어 이렇게, 에, 북을 줘서 목화 키우고 그랬죠.}
10308 @ 그러믄 그 여기서는 그 그 제초를 해야델 꺼 아뇨? 저 풀뽀끼요 바뚜. {그러면 그, 여기서는 그, 그 제초를 해야될 것 아니에요? 저, 풀뽑기요, 밭도.}

10308 # 그러초 노상 거 매야지 매야여 푸리 나믄. {그렇죠, 노상 그거 매야지, 매야 해, 풀이 나면.}
10308 @ 바슨 주로 여자분드리 매나요 여기는? {밭은 주로 여자분들이 매나요, 여기는?}
10308 # 그러초 여자 남자 머 허지먼 주로 여자드리 마니 해찌 그걸 그때가. {그렇죠, 여자, 남자 뭐 하지만, 주로 여자들이 많이 했지, 그걸 그때가.}
10308 @ 반:매기 참 힘들 거 가태요 땐:양지에서. {밭 매기 참 힘들 것 같아요, 땡볕에서.}
10308 @ 그럼 인제 노무 마니 나며는 그걸 소까줘야 델 꺼 아니에요? {그럼 인제, 너무 많이 나면 그걸 솎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10308 # 저: 모카요? {저 목화요?}
10308 @ 아니 저 이런 콩이라덩가 아까 말한 보리가튱 건. {아니, 저 이런 콩이라던가, 아까 말한 보리같은 건.}
10308 # 에 그러니께 그게 소꺼도 더러 주기긴 하지먼뉴 그냥 나둬두요 그러니께 삔능 걸 잘 삐야유 그냥 나둬두 콩이 저 마니 이쓸저기는 드려러서 거기 드려러서 그러치 상과넙씨유 에 그러케 소까두 주지. {에, 그러니까 그게 솎아도 더러 죽이기는 하지만요, 그냥 나둬도요, 그러니까 뿌리는 걸 잘 뿌려야죠, 그냥 나둬도 콩이 저, 많이 있을 적에는 덜 열어서 그렇지 상관없어요, 에, 그렇게 솎아도 주지.}
10308 @ 깨: 이쪼? 깨. {깨 있죠? 깨.}
10308 # 창:깨. {참깨.}
10308 @ 에 그거뚜. {예, 그것도.}
10308 # 창꽤는 그게 허기가 아주 어려워 풀라나사사유. {참깨는 그게 하기가 아주 어려워, 풀이 나쌓아서요.}
10308 @ 그거뚜 씨를 뿌려요? {그것도 씨를 뿌려요?}
10308 # 그러추 씨루 뿌리지 그 때는 인제 씨루 뿌리구서 곱게 허구서 씨루 뿌리구서 먼 하는디 풀 매기가 어려어요 그게. {그렇죠, 씨를 뿌리지, 그 때는 인제 씨를 뿌리고서, 곱게 하고서 씨를 뿌리고서 뭐하는데, 풀 매기가 어려워요 그게.}
10308 @ 들깨도 가튼 때. {들깨도 같은 때.}
10308 # 들꽤는 저 모를 부어따 모를 부어따가 그 들꽤가 그게 비오는디 우여너먼 다 살거든 잘사류 그게 그래서 모를 부어따가 이러케 쩌:서 가시글 하지 거기다 그느미 열기도 더 열구. {들깨는 저 모를 부었다, 모를 부었다가, 그 들깨가 그게 비오는데 묶어 웬만하면 다 살거든, 잘살아요 그게. 그래서 모를 부었다가 이렇게 쪄서 가식을 하지 거기다, 그 놈이 열기도 더 열고.}
10308 @ 그 고구마 이쪼? {그 고구마 있죠?}
10308 # 고구마. {고구마.}
10308 @ 고구마는 씨 심능 게 아니조? {고구마는 씨 심는 게 아니죠?}
10308 # 그러추 고구마는 인저 그 저 지금 저기두 우리 아도 저거 해꾸먼 두여따 싸기 지다라케 나자뉴? 나머는 고거슬 짤러서 요 세마디진 요러케 짤러가지고서 거다 심능거지 딴 데가 이시개서. {그렇죠, 고구마는 언제 그 저, 지금 저기도 우리 애도 저거 했구먼, 뒤에다가. 싹이 기다랗게 나잖아요? 나면 그것을 잘라서, 요 세마디씩 이렇게 잘라가지고서 거기에다가 심는거지, 딴 데다가 이식해서.}
10308 @ 이시글 하. {이식을 하[x고x].}
10308 # 고구마는 그러케 시머유 지끔도 그러케 심꾸 줄거리. {고구마는 그렇게 심어요,

지금도 그렇게 심고, 줄거리.}
5초
10308 @ 그럼 감 고구마는 줄기로 심능 거구머뇨. {그럼 감, 고구마는 줄기로 심는 거구먼요.}
10308 # 예 줄기루 심찌. {예, 줄기로 심지.}
10308 @ 감자는 어터케 심어요? {감자는 어떻게 심어요?}
10308 # 감자는 감자 감자루 그냥 심꾸 감자 큰 느믄 킁 거는 이러게 쩌개서 눈만 이찌믄 나오거드뇨 이게 그러니께 그 쩌개서 그 반 쩌개는 눔 큰 누믄 이러케 사절찌두 내구 이러케 짤 쩌개서 느미 시머유 그게. {감자는 감자, 감자로 그냥 심고, 감자 큰 놈은, 큰 거는 이렇게 쪼개서 눈만 있으면 나오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 쪼개서, 그 반 쪼갠 놈, 큰 놈은 이렇게 사등분을 내고, 이렇게 짤, 쪼개서 넣으며 심어요 그게.}
10308 @ 고건 언제 감자나 고구마는 언제 파종을 해요? {그건 언제, 감자나 고구마는 언제 파종을 해요?}
10308 # 감자는 파종이 그게 보미 에 이월딸 이월 초수니 요러키 할끼요. {감자는 파종이, 그게 봄에 에, 이월달, 이월 초순에 이렇게 할거요.}
10308 @ 예고구마는 쫌. {예, 고구마는 쫌.}
10308 # 고구마는 지금 아직 시믈라믄 머러씨오 지금 동자 나와씅께 저 고거는 보그로 마라먼 고구마는 한 중보끼 말 저 말 저 초보끼 시믄 유월. {고구마는 지금, 아직 심을려면 멀었어요, 지금 종자 나왔으니까 저, 고거는 복으로 말하면, 고구마는 한 중복에, 말, 저 말, 저 초복에 심어, 유월.}
10308 @ 그 북: 북: 도둔다고 그라나요? 그걸. {그 북, 북 돋운다고 그러나요? 그걸.}
10308 # 부쭈능거 부쭈능거. {북 주는 거, 북 주는 거.}
10308 @ 부 쭈능거요 그럼 어터게 어터하능 걸 부 쭈능거에요 그게?{북 주는거요? 그럼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걸 북 주는 거에요, 그게?}
10308 # 그러니께 흐글 그 나무가 좀 요러케 좀 머더머는 바람 불먼 쓰러지지 안케 쓰러질까바 이 흐그루 파서 이러케 수부하게 미씰 부슬 저주능게지. {그러니까 흙을, 그 나무가 좀 이렇게 좀 뭐하면, 바람 불면 쓰러지지 않게, 쓰러질까봐 이 흙으로 파서 이렇게 수북하게 밑을 북을 지어 주는 게지.}
10308 @ 고랑 그걸 파서 언저? {고랑 그걸 파서 얹어?}
10308 # 예 그러추 요러케 메:서. {예, 그렇죠, 요렇게 메어서.}
10308 @ 고을 때 머 호미로 파여 그렁걸. {고럴 때 뭐, 호미로 파요? 그런 걸.}
10308 # 호미지오 호미. {호미죠, 호미.}
10308 @ 호미로 아. {호미로, 아.}
10308 # 그러구서 인저 괭이 가쟁이 쾡이로 하는 사람도 이꾸. {그러고서 인제 괭이, 가지 괭이로 하는 사람도 있고.}
10308 @ 그다으메 아까 사이지키라고 그래짜나요 아까 머 머 사이에다가 머 심는다고 그래짜나요 무슨 머 보리 꼬추받 쏘기다도 멀 심는다든가 보리받 싸이에다가 머 콩을 심는다등가. {그 다음에 아까 사이짓기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뭐, 뭐 사이에다가 뭐 심는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뭐, 보리, 고추밭 속에다도 뭘 심는다든가, 보리밭 사이에다가 뭐 콩을 심는다든가.}
10308 # 에: 그거는 새에다 심능 게 저 뭗 콩 바티다가 쑤수 쑤수나 느믄 느까 땅 거 늘

꺼 업쓰. {에, 그거는 사이에다가 심는 게 저 뭣, 콩 밭에다가 수수, 수수나 넣으면 넣을까, 딴 거 넣을 거 없어요.}
10308 @ 그래요? 그 무슨 차뫼가튱 건 혹씨 그러케 아나나요? 사이지끼. {그래요? 그 무슨 참외같은 건 혹시 그렇게 안하나요? 사이짓기.}
10308 # 차뫼가튱 건 전무느로 더러 하는 사람 이써는디 난 차뫼는 여태 아내바쓰. 예.{참외같은 건 전문으로 더러 하는 사람 있었는데, 난 참외는 여태 안해봤어요. 예.}
10308 @ 아니 그게 그 어려쓸 때 보며는 오이 가튱 거 고추 가튱 거 이러케 해서 하믄. {아니, 그게 그 어렸을 때 보면 오이 같은 거, 고추 같은 거 이렇게 해서 하면}
10308 # 그러추 오이 가튱 거 머그꺼 머글꺼 심구. {그렇죠, 오이 같은 거, 먹을 거, 먹을 거 심고.}
10308 @ 그라구 저 논두렁 가튱다가. {그러고 저, 논두렁 같은 데다가.}
10308 # 으 쩌 두렁콩. {으, 저, 두렁콩.}
10308 @ 콩. {콩.}
10308 # 두렁콩이라고. {두렁콩이라고.}
10308 @ 그러믄 인제 인제. {그러면 인제, 인제.}
10308 # 지끄믄 논뚝 무너진다고 논뚝 저 시미 업써서 무너진다고 그거 안시머 옌나레가 시머찌. {지금은 논둑 무너진다고, 논둑 저, 힘이 없어 무너진다고 그거 안 심어, 옛날에나 심었지.}
10308 @ 예 고거 그럼 콩이라등가 미리라등가 보리가튱 거 수악하능 게 이짜나요? 그걸 한 번 좀 여쩌보께요. {예, 그거 그럼, 콩이라든가, 밀이라든가, 보리같은 거 수확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한 번 좀 여쭤볼게요.}
10308 @ 그 보리는 어터게 수와글 해요? {그 보리는 어떻게 수확을 해요?}
10308 # 보:리두유 그저니 소유할 저낀 아까 그 베차람 두구통이다가 때려가지구서 도루깨 나머지 이러케 보믄 그 너러 마당이다가 너러 말려따가 저 머 도루깨 도루깨루 뚜드려서 보리찌블 글거내고 그러케 그러케 바심 해써쓰. {보리도요, 그전에 수확할 적엔, 아까 그 벼처럼 절구통에다가 때려가지고서 도리깨, 나머지 이렇게 보면, 그 널어, 마당에다가 널어 말렸다가 저 뭐 도리깨, 도리깨로 두드려서 보리짚을 긁어내고 그렇게, 그렇게 바심을 했어요.}
10308 @ 콩두 그러케 하나요? {콩도 그렇게 하나요?}
10308 # 콩두 도루깨루 해써주 옌나리는 그건 이건 안쿠 콩은 이 저 머 자리개질 웁꾸 그냥 순저니 도리깨루만. {콩도 도리깨로 했었죠 옛날에는, 그건, 이건 안하고, 콩은 이, 저, 뭐 자리개질 없고, 그냥 순전히 도리깨로만.}
10308 @ 콩 말고 저 빨:강 거 이쪼? {콩 말고, 저 빨간 것 있죠?}
10308 # 팓. {팥.}
10308 @ 파뚜. {팥도.}
10308 # 팓 파슨 그 대대저그로 마니 아너니께 일리리 소니로 따가지구서 벼테다 말려따가 그냥 뚜드려서 그거뚜. {팥, 팥은 그 대대적으로 많이 안하니까, 일일이 손으로 따가지고서 볕에다 말렸다가 그냥 두드려서 그것도.}
10308 @ 그 이제 묵뚜 보통 저 메물무글 하는데 메물묵 말고 또 다릉 걸로 하능 거 이쪼? {그 이제, 묵도 보통 저 메밀묵을 하는데, 메밀묵 말고 또 다른 걸로 하는 거 있죠?}
10308 # 녹:뚜. {녹두.}
10308 @ 녹. {녹(+두).}

10308 # 에 녹뚜무기라고 녹뚜루 묵 쑤는디도 해쪼. {예, 녹두묵이라고, 녹두로 묵 쑤는데도 했죠.}
10308 @ 그 녹뚜무기라고 그래요 그걸? {그 녹두묵이라고 그래요 그걸?}
10308 # 에 녹뚜무기요 예. {예, 녹두묵이오, 예.}
10308 @ 녹뚜도 마니 농사 난나요? 사람드리. {녹두도 많이 농사 짓나요? 사람들이.}
10308 # 지끔 그저니는 녹뚜 좀 그냥 시머찌오 시머서 밥뚜 해머꾸 묵뚜 써머꾸 또 녹뚜 나물두 질머먹 질러먹구. {지금 그전에는, 녹두 좀 그냥 심었죠, 심어서 밥도 해먹고, 묵도 쒀먹고, 또 녹두 나물도 길러 먹, 길러 먹고.}
10308 # 녹뚜 나무리믄 그 그게 숙채나무리라고 하나 지금? 그 녹뚜 나물 조아요 에. {녹두 나물이면, 그, 그게 숙주나물이라고 하나 지금? 그 녹두 나물 좋아요, 예.}
10308 @ 수와근 인제 콩 팓 녹뚜 중 어떵게 제일 수와기 마나써요? {수확은 인제, 콩, 팥, 녹두 중에 어떤 게 제일 수확이 많았어요?}
10308 # 수와근 헝게 콩이지 주로 콩. {수확은 한 게 콩이지, 주로 콩.}
10308 @ 그럼 콩을 마니 하셔껀네요? {그럼 콩을 많이 하셨겠네요?}
10308 # 예 여러가지로 드러가니께 두부 두부 공장 어디고. {예, 여러가지로 들어가니까, 두부, 두부 공장 어디고.}
10308 @ 그 아까 미른 그 어터케 소니로 비나요? {그 아까 밀은 그 어떻게, 손으로 베나요?}
10308 # 그러치오 밀두 보리허구 또가튜 비능 게 벼서 투드려가지고 알갱이 나오먼 그거 전부 저 전부 손 여러번 걸처가꾸 그냥 그 매또리다 매또리다 가라가지구서 체:루 처서 가루 멍느라. {그렇죠, 밀도 보리하고 똑같아요 베는 게, 베서 두드려가지고 알갱이 나오면, 그거 전부 저, 전부 손 여러 번 걸쳐가지고, 그냥 그 맷돌에다, 맷돌에다 갈아가지고서 체로 쳐서 가루 먹느라.}
10308 @ 그 꽤: 가틍 건 어터케 그게. {그 깨 같은 건 어떻게 그게.}
10308 # 꽤 가틍 건 여기 여 무꺼서 세놔따가 요러케 무꺼서 세놔따가 바싹 말르머는 이러케 막대기로 터러서 이러케 허지. {깨 같은 건 여기, 여기 묶어서 세워 놨다가, 요렇게 묶어서 세워 놨다가 바싹 마르면, 이렇게 막대기로 털어서 이렇게 하지.}
10308 @ 음 참꽤 그러초. {음, 참깨 그렇죠.}
10308 # 예, 참꽤. {예, 참깨.}
10308 @ 들꾀는? {들깨는?}
10308 # 들꽤는 그냥 그 가방이나 머 지금 피구서 도루깨루 뚜드려서 뚜드리면 그건 데구요 그건 별루 심 안드리고 그건 허니께. {들깨는 그냥 그 가방이나 뭐 지금 펴구서, 도리깨로 두드려서, 두드리면 그건 되구요, 그건 별로 힘 안들고 그건 하니까.}
10308 @ 고구마 가틍 건 어트게? {고구마 같은 건 어떻게 [x수확을 해요x]?}
10308 # 고구마는 소니로 일리리 소니로 캐요. {고구마는 손으로, 일일이 손으로 캐요.}
10308 @ 캐서. {캐서.}
10308 # 에 캐서 따지믄 겨우레 얼믄 되지거든 얼먼 써거서 내버리니께 얼지 안케 굴 아니머는 온돌방 이런데다 즈장. {예, 캐서, 따지면 겨울에 얼면 죽거든, 얼면 썩어서 내버리니까, 얼지 않게 굴 아니면 온돌방 이런 데다 저장.}
10308 @ 어터게 온돌빵에 싸놔요 그냥? {어떻게 온돌방에 쌓아놔요 그냥?}
10308 # 싸 그러추 그저니는 그 저 머 해일저넨 저 쑤수땡이 여꺼가지고서 이러케 반침

여꺼가지고 그눔 여끈데다 온돌빵이다가 막 그냥 그냥 쟁여찌. {싸, 그렇죠, 그전에는 그저, 뭐 해일 전엔 저 수수댕이 엮어가지고 이렇게 받치듯 엮어가지고, 그놈 엮은 데다가, 온돌방에다가 막 그냥, 그냥 쟁여놨지.}
10308 @ 그 옫 쌍연걸 통가리라고 그러능경가요 그게? {그 옷, 쌓은 걸 통가리라고 그러는 건가요, 그게?}
10308 # 머유? {뭐요?}
10308 @ 통가리. {통가리.}
10308 # 에 그러치 통가리이라구 그러케 혀찌 통가리라구 허지. {에, 그렇지, 통가리라고 그렇게 했지, 통가리라고 하지.}
10308 @ 감자는 좀 수화글 일찍 하겓? {감자는 좀 수확을 일찍 하겠[x네요x]?}
10308 # 감자는 그거뚜 종자는 온돌빵이나 워따 얼지안는 데 가따 즈장해야데요 얼믄 써 그니께 뭐더니 다. {감자는, 그것도 종자는 온돌방이나 다른 데다가, 얼지않는 데 가져다가 저장해야 되요, 얼면 썩으니까 뭣이더니 다.}
10308 @ 그럼 감자는 써거도 먹떠라구요. {그럼 감자는 썩어도 먹더라고요.}
10308 # 감자? {감자?}
10308 @ 예 감자는. {예, 감자는.}
10308 # 감자 써긍거는 어떠케 먹능고 하니 감자 써긍거를 무리다 당거서 아주 쎄겨 아주 내 우리 오머니들 하능 거 보믄 옌나리 아주 쎄켜가지구 거기다 물 또 부꾸 또 가라안지믄 이러케 쪽 따라내버리구 따라버리구 수십번 해요 그게. {감자 썩은 것은 어떻게 먹는가 하면, 감자 썩은 것을 물에다 담궈서 아주 썩혀 아주, 우리 어머니들 하는 거 보면, 옛날에 아주 썩혀가지고, 거기다 물 또 붓고, 또 가라앉으면 이렇게 쪽 따라내버리고, 따라버리고 수십번 해요 그게.}
10308 # 그러므는 미티가서 써근 앙그미 가라안저꺼든유 그러믄 앙금 가라안증거를 위 쪽 물 따라 내버리구서 또 물 새로 부꾸서 소니루 저서 깨끄더게 저서서 또 그눔 가라안지머는 또 물 따라내버리구 그 써긍 거 냄새나서 먹거쓔? 그거? {그러면 밑에 가서 썩은 앙금이 가라앉았거든요, 그러면 앙금 가라앉은 거를 위 쪽 물 따라 내버리고, 또 물 새로 붓고서 손으로 젓어, 깨끗하게 젓어서, 또 그놈 가라앉으면은 또 물 따라내버리고, 그 썩은 거 냄새나서 먹겠어요? 그거?}
10308 @ 글쎄 에. {글쎄, 예.}
10308 # 그러니께 고러케 수::시뻔 해가지고서 냄새 안날 저 안날 쩡도로 해가지구서 그 가라안증거를 나두 저 머거보니께 그 마시써 쬘 쫄긷쫄긷 해가꾸. {그러니까 고렇게 수십번 해가지고서, 냄새 안날 저, 안 날 정도로 해가지고서 그 가라앉은 것을, 나도 저 먹어보니까 그 맛있어, 쬘, 쫄깃쫄깃 해가지고서.}
10308 @ 그 감자. {그 감자.}
10308 # 에 감자 써긍 건 그러케 머그유. {예, 감자 썩은 건 그렇게 먹어요.}
10308 @ 전부늘 만드러가지고 그러능거 가태요. {전분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는 거 같아요.}
10309 @ 그러믄 그 우선제 보리 이가 이짜나요? 보리 종류는 혹시 무슨 종뉴가 인나요? {그러면, 그 우선 인제 보리가 있잖아요? 보리 종류는 혹시 무슨 종류가 있나요?}
10309 # 난 보리 쫑뉴 난 그거 아주 몰류 난 그거. {난 보리 종류, 난 그거 아주 몰라요, 난 그거.}

10309 @ 무슨 멍게 보니까 쌀보리하고. {무슨 뭐, 이게 보니까 쌀보리하고.}
10309 # 응 그건 쌀보리어구 늘보리가 이써지 그 쌀보리는 쌀처럼 이러케 까징 거 가타서 쌀보리구 늘보리 그거 두 가지 배께 난 몰류. {응, 그건 쌀보리하고 늘보리가 있었지, 그 쌀보리는 쌀처럼 이렇게 까진 거 같아서 쌀보리고, 늘보리 그거 두 가지밖에 난 몰라요.}
10309 @ 껃:뽀리라르능 건 머여? {겉보리라는 건 뭐에요?}
10309 # 껃:뽀리는 그러니께 찌차능 거 보고 얘기 하는 거지. {겉보리는, 그러니까 찧어놓지 않은 거 보고 이야기하는 거지.}
10309 @ 어터게요? 찐. {어떡해요? 찌(+지).}
10309 # 그러케 방 지그믄 방아까니서 찌치먼 찌찬쿠서 그냥 탈곡 헌대루 그냥 나둥 거 보구서 껃뽀리. {그러니까 방, 지금은 방앗간에서 찧지만, 찧지 않고서 그냥 탈곡한대로 그냥 놔둔 것 보고서 겉보리.}
10309 @ 봄:뽀리도 이꼬 가을보리도 인나요? 보리 중에는 보메 심는. {봄보리도 있고, 가을보리도 있나요? 보리 중에는, 봄에 심는 것 중에.}
10309 # 글쎄 보미 심능 건 난 시머보지 안해씅 게 몰르거씨오 그게. {글쎄 봄에 심는 건, 난 심어보지 안 했으니까 모르겠어요, 그게.}
10309 @ 예 가을만 시므셔꾼요. {예, 가을만 심으셨군요.} # 예. {예.}
10309 @ 그럼 미른 아까 큰:, 참 밀. {그럼 밀은 아까 큰 참 밀.}
10309 # 예 그러추 키다리 밀 그거 그 머지? 이르미 머라고? {예, 그렇죠, 키다리 밀 그거, 그 뭐지? 이름이 뭐라고?}
10309 @ 호미리라고 하능건가요? {호밀이라고 하는 건가요?}
10309 # 그게 호미리라고 하능 겨 자브낭 게. {그게 호밀이라고 하는 거요, 조그만 것.}
10309 @ 참미라고 부르능 거. {참밀이라고 부르는 거.}
10310 @ 그럼 인제 보리농사와 밀농사 진는 방법 절차에 대해서 좀 좀 말쓰매주세요 보리농사하고 밀농사 어떠케 진는가를. {그럼 인제 보리농사와 밀농사 짓는 방법, 절차에 대해서 좀, 좀 말씀해주세요, 보리농사하고 밀농사 어떻게 짓는가를.}
10310 # 그저니 밀농사나 보리농사나 비료가 인나? 그냥 저 보리바티다가 쟁기루 소 쟁기루 가라가지구서 골망 처서 볼종자 비쿠서는 이러케 그걸 덥자나유 소시랑으로. {그전에 밀농사나 보리농사나 비료가 있나? 그냥 저 보리밭에다가 쟁기로, 소 쟁기로 갈아가지고서, 골망 쳐서 보리종자 뿌리고서는 이렇게 그걸 덮잖아요, 쇠스랑으로.}
10310 # 그걸 더퍼노믄 가으리 그게 더퍼노므는 거름 웁써가꾸서 거름 어 테비 그거 머 쪼끔씩 나오능 거 그거 느쿠 그러구서는 인분 인부늘 무러구 쎄켜가지구서 그늠 저다가 다 언꾸 별짇 다해쓰 비료 웁쓸저긴 그러케 해씨유 그러케. {그걸 덮어놓으면 가을에, 그게 덮어놓으면 거름 없어가지고서 거름, 어, 퇴비 그거 뭐 조금씩 나오는 거 그거 넣고, 그러고서는 인분, 인분을 물하고 썩혀가지고서 그놈 져다가 다 얹고, 별짓 다했어요, 비료 없을 적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10310 @ 가으레요? {가을에요?}
10310 # 예. {예.}
10310 @ 거르믈 그 때 인부늘. {거름을, 그 때 인분을.}
10310 # 그러치 인분 가따. {그렇지, 인분 가져다가.}
10310 @ 가으레 주능거? {가을에 주는 거?}
10310 # 쎄겨가 쎄겨가지구서 보리 가으리믄 좀 나자뉴? 그란디 그거시 머 보미 언저도

상관웁꾸 가으리 언저도 싸코 인분 쎄겨서 막 내구 그래찌. {썩혀, 썩혀가지고서, 보리 가을이면 좀 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뭐 봄에 얹어도 상관없고, 가을에 얹기도 하고, 인분 썩혀서 막 내놓고 그랬지.}
10310 @ 그러고 인제 그 보메 그 보리밥끼 하고 그럼 보리가 올라올 꺼 아니에요? {그러고 인제, 그 봄에 그 보리밟기 하고, 그럼 보리가 올라올 거 아니에요?}
10310 # 그러추. {그렇죠.}
10310 @ 그런 때는 머 다릉건 아내요? 거다. {그런 때에는 뭐 다른 건 안 해요? 거기다.}
10310 # 다릉거 뭐 워터게 헐 수가 인나? {다른 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나?}
10310 @ 거름 모다겐네 크면뇨. {거름 못하겠네요, 크면요?}
10310 # 거름뚜 웁꾸 허니께 그냥 놔두능게지. {거름도 없고 하니까 그냥 놔두는 게지.}
10310 @ 비료는? {비료는?}
10310 # 비료가 이썬나? 그때야 그런디 야중이서 비료 나와써지. {비료가 있었나? 그때야, 그런데 나중에 비료 나왔었지.}
10310 @ 그래서 그냥 에. {그래서 그냥, 예.}
10310 # 언지먼 데요 그거뚜 너무 마니 언즈면 업치구 그거뚜. {얹으면 되요 그것도, 너무 많이 얹으면 엎치고 그것도.}
10310 @ 그래서 고 보리는 그 이그면 보리때가 누러케 데자나요? {그래서 그 보리는, 그 익으면 보릿대가 누렇게 되잖아요?}
10310 # 그러치 노:라케 데지유. {그렇지, 노랗게 되죠.}
10310 @ 에 그럼 곧 벼서 말리나요? {예, 그럼 곧 베서 말리나요?}
10310 #그러게 보리 아까 얘기 허니께 그러네 그 그 베차람 보리두 거더다가 허머는 이제 가리처따가 그거뚜. {그러니까 보리, 아까 얘기하니까 그러네, 그, 그 벼처럼 보리도 거둬다가 하면은 이제 가리쳤다가 그것도.}
10310 # 말르머는 저다가 껄꺼러긴 밴 그눔 저 머 자리개루 두구통이다 뚜드려서 뚜드려가지구서 인저 그 뚜드리머는 끈만 떠러지지 소기는 보리가 안떠러질꺼 아녀. {마르면은 져다가 꺼럭이 밴, 그놈 저, 뭐 자리개로 절구통에다 두드려서, 두드려가지고서, 인제 그 두드리면은 끝에만 떨어지지, 속에는 보리가 안 떨어질 것 아니요.}
10310 # 그러믄 보리 그 안떠러진 보리찝 여다 너러노코서 도루깨루 도루깨루 뚜드려서 그 추어낸다니께요 도루깨루. {그러면 보리, 그 안 떨어진 보리짚 여기다 널어놓고서 도리깨로, 도리개로 두드려서 그 추려낸다니까요, 도리깨로.}
10310 @ 보리 꺼끄레기 이쪼? {보리 꺼끄러기 있죠?}
10310 # 껄끄레기 그게 보통 껄끄런주라유? {꺼끄러기 그게 보통 꺼끄러운 줄 알아요?}
10310 @ 그거 탑쎄기라고 그라나요? 여기. {그걸 답세기라고 그러나요? 여기.}
10310 # 아 꺼끌래기유 보리꺼럭 이런디가 마즈면 아주 떠러두 안지구 껄꺼러구 주거나요. {아, 꺼끄러기요, 보리꺼럭 이런 데가 맞으면 아주 떨어지지도 않고 꺼끄럽고 죽어나요.}
10310 @ 여기는 저 탑쎄기라는 마른 안 쓰나요? {여기는 저 답세기라는 말은 안 쓰나요?}
10310 # 왜 탑쎄기를 안 쓰요? {왜? 답세기를 안 써요?}
10310 @ 탑쎄기는 어떤 때 쓰는 말? {답세기는 어떤 때 쓰는 말[x이에요x]?}
10310 # 탑쎄기 이런 데 안는능 게 탑쎄기지. {답세기, 이런 데 앉는 게 답세기지.}
10310 @ 엗? {예?}
10310 # 이 먼지 보구서 탑쎄기라구 혀 먼지 보구서. {이 먼지 보고 답세기라고 해, 먼지 보고.}

10310 @ 어디 가니까 그 꺼러걸 탑쎄기라고 하던데 틀리네요 예. {어디 가니까 그 꺼럭을 답세기라고 하던데 다르네요, 예.}
10310 @ 그 보리 인제 그 타작하며는 옌나른 그 꺼끄러걸 버릴러 꺼러글 버릴러 어떠케 해써요? {그 보리, 인제 그 타작하면은 옛날에는 그 꺼끄러기를 버리러면, 꺼럭을 버리려면 어떻게 했어요?}
10310 # 꺼러글 그 꺼럭 헐라르믄 마당이다가 피노쿠서요 도루깨루 도루깨 숟: 바삭바삭 할저게 축추가면 안데여 도루깨루 오래더락 뚜드려 디지버가며 그 도루깨루 뚜러가꾸서 바라미 듣 디리야지 인저 도루깨루 뚜드려. {꺼럭을, 그 꺼럭 하려면 마당에다가 펴놓고서요, 도리깨로, 도리깨 순전히 바삭바삭 할 적에, 축축하면 안되요, 도리깨로 오래도록 두드려 뒤집어가면서, 바람을 맞혀야지, 인제 도리깨로 두드려.}
10310 @ 바라메다 그 어떠케 뿌려요? {바람에다 그냥 어떻게 뿌려요?}
10310 # 그러치 주까래라구 이써 지레이. {그렇지, 죽가래라고 있어, ***.}
10310 @ 주까래? {죽가래?}
10310 # 주까래 주까래루 이냥 대땍 그 지버던지거든 한주까래씩 그러믄 바라미 인넌 나른 보리는 떠러지구 인저 꾸이쩌어구 탑쎄기는 널러가는 널러가니께 그러케 해. {죽가래, 죽가래로 이냥 냅다 그 집어던지거든 한 죽가래씩, 그러면 바람이 있는 날은, 보리는 떨어지고 인제, 쭈그렁이하고 답세기는 날라가는, 날라가니까, 그렇게 해.}
10310 @ 그거 머조? 이게 그 자리 저 도짜리 이짜나요? 그걸 가지고 사라미 에엔써 이러케 막 부치구 하드라구요 풍석. {그게 뭐죠? 이게 그 자리, 저 돗자리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막 부치고 하더라고요, 풍석.}
10310 # 그게 그저니 풍선기 웁쓸저기는 더러 바람 웁쓸저기 바람 웁쓸저기 이러케 해가두 허구 치루두 부치구. {그게 그전에 풍구 없을 적에는 더러, 바람 없을 적에, 바람 없을 적에 이렇게 하기도 하고, 키로도 부치고.}
10310 @ 치루루. {키로.}
10310 # 치루두 부치구 별짇 다해씨오. {키로도 부치고, 별짓 다했어요.}
10310 @ 그 그러다가 나중에 머죠? 그 벼 가튱건 돌리능거 이쪼? {그, 그러다가 나중에 뭐죠? 그 벼 같은 건 돌리는 거 있죠?}
10310 # 화랑개비 그거 나와찌 야중이 파랑개비라구 해찌 이러케. {팔랑개비(+손으로 돌려 바람을 일으키는 바람개비) 그거 나왔지, 나중에 팔랑개비라고 했지, 이렇게.}
10310 @ 화랑개비라고 혹씨 그걸 풍구라는 마른 여긴 안쓰나요? {바람개개비라고, 혹시 그걸 풍구라는 말은 여기는 안써요?}
10310 # 돌리는, 풍구라구 안쿠 파랑개비라구. {돌리는, 풍구라고 않고, 바람개비라고.}
10310 @ 파랑개비. {바람개비.}
10310 # 여기선. {여기에서는.}
10310 @ 그걸루 인제 돌려서 하고 예. {그걸로 인제 돌려서 하고, 예.}
10310 @ 콩거튱 거뚜 그런 시그로 그냥 바라메 날려서. {콩 같은 것도 그런 식으로 그냥 바람에 날려서.}
10310 # 콩 가튱 거뚜 그렁 걸루 헐구 지끄믄 선 선풍기 나와씽께 그늠 너서 전기다 꼬자서 그누므로 디리기두 하구. {콩 같은 것도 그런 걸로 하고, 지금은 선, 선풍기 나왔으니까, 그놈 넣어서 전기에다 꽂아서, 그놈으로 디리기도 하고.}

10310 @ 선풍기로요? 예. {선풍기로요? 예.}
10310 @ 우선 게 그 아까 두기라능 게 이짜녀 받뚝? {우선 그게 그, 아까 둑이라는 게 있잖아요, 밭둑?}
10310 # 에? {예?}
10310 @ 받:둑. {밭둑.}
10310 # 에 바뚝. {예, 밭둑.}
10310 @ 그걸 바뚜근 어디를 바뚜기라고 그래요? {그걸 밭둑은, 어디를 밭둑이라고 그래요?}
10310 # 그러게 바시 이씨머는 바시 이씨머는 그 논차럼 뚜기 이씨야 할 거 아니여? 그거 업씨믄 비오믄 막 깨껴 내려가고 허니께 그 그대루여 뚝 그대루여 저 머 논뚝차럼 바뚜기여. {그러니까 밭이 있으면, 밭이 있으면 그 논처럼 둑이 있어야 할 거 아니요? 그거 없으면, 비오면 막 깎여 내려가고 하니까, 그, 그대로요, 저, 뭐 논둑처럼 밭둑이요.}
10310 @ 그걸 받두럭 두두기라고 그래요? 혹씨 바뚜렁 논? {그걸 밭두럭, 두둑이라고 그래요? 혹시 밭두렁, 논[x두렁x]?}
10310 # 아녀 받 받:두기라구 혀. {아뇨, 밭, 밭둑이라고 해.}
10310 @ 바뚜기라고 그래요? {밭둑이라고 그래요?}
10310 # 노는 논두러기라구 허구. {논은 논두렁이라고 하고.}
10310 @ 아 노는 논두렁이라고 곧 구별하네요? {아, 논은 논두렁이라고 하고, 곧 구별하네요?}
10310 # 에 그런디 두근 뚜긴디 노는 두렁이라고 허는 거슨 따지머는 노는 이러케 무를 그러올려서 물 안 시게 두렁을 해야 하거든 그래서 논뚜렁이라고 그래요 그게. {에, 그런데 둑은 둑인데, 논은 두렁이라고 하는 것은, 따지면은 논은 이렇게 물을 끌어올려서 물이 안 새게 두렁을 해야 하거든, 그래서 논두렁이라고 그래요, 그게.}
10310 @ 바슨 바뚜기구요? {밭은 밭둑이고요?}
10310 # 바뚜기구. {밭둑이고.}
10310 @ 그러믄 그 이:랑이라능거 이쪼? 반니랑. {그러면 그 이랑이라는 거 있죠? 밭이랑.}
10310 # 반:이랑. {밭 이랑.}
10310 @ 예 이랑. {예, 이랑.}
10310 # 이랑이라능 거슨 따지믄 이러케 저 머 소로 가라가꾸 요로케 뚝 처농게 이랑이지 이랑 이랑. {이랑이라는 것은, 따지면 이렇게 저, 뭐 소로 갈아가지고, 요렇게 둑 쳐논 것이 이랑이지, 이랑, 이랑.}
10310 @ 그러믄 그럼 쫌 노픈 쪼글 이랑. {그러면, 그럼 좀 높은 쪽을 이랑.}
10310 # 예예. {예, 예.}
10310 # 고러케서 골망 칭거 보고서 이랑. {고렇게 해서 골망 친 거 보고서 이랑.}
10310 @ 그럼 고 패인디는 골 그걸. {그럼 고 패인 데는 골, 그걸.}
10310 # 골 골 골 골탕거여 그게. {골, 골, 골, 골탄 거요 그게.}
10310 @ 골망. {골망.}
10310 # 에 골망. {에, 골망.}
10310 @ 그럼 고랑이라능 건 골망 뜨신가요? {그럼 고랑이라는 건 골망 뜻인가요?}
10310 # 그러지 골망이라는 뜨신 모양이여 고지랑이라능 게. {그렇지, 골망이라는 뜻인 모

양이요, 고지랑이라는 게.}
10310 @ 아 그렇게 여기서 말하자며뇨 땅을 파서 언진 쪼기 이랑이라믄 파진 쪼기. {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자면요, 땅을 파서 얹은 쪽이 이랑이라면, 파진 쪽이.}
10310 # 이 이라 이. {이, 이랑, 이랑.}
10310 @ 저 고랑이 그게요? {저, 고랑이 그게요?}
10310 # 고랑 이랑 저 뚝: 보구서 이랑이라구 하는 모양이여 고 고랑은 가운디 쏙 드러간 디가 고랑이고. {고랑, 이랑, 저 둑보고서 이랑이라고 하는 모양이여, 고, 고랑은 가운데 쏙 들어간 데가 고랑이고.}
10310 @ 예 이랑은 언진디가 이랑이요 예 고걸 논 바세는 인제 고랑이 이꼬 인제 에. {예, 이랑은 얹은 데가 이랑이요, 예, 고걸 논, 밭에는 인제 고랑이 있고, 인제, 예.}
10310 # 논:뚜렁인디 논뚜기여 그거뚜 논뚜긴디 두렁을 허기 때무니 논:뚜렁이라고 허지 물 안 시게 두렁을 해야 허거든. {논두렁인데, 논둑이여, 그것도 논둑인데, 두렁을 하기 때문에 논두렁이라고 하지, 물 안 새게 두렁을 해야 하거든.}
10310 @ 그럼 밀 농사도 가으레 이제 뿌린나[x요x]? {그럼 밀농사도 가을에, 이제 뿌리나[x요x]?}
10310 # 보리허구 가치 해유 그건 가치 하능 겨. {보리하고 같이 해요 그건, 같이 하는 거요.}
10310 @ 고거또 머 별로 소독가튱거 안 하죠? 밀. {그것도 뭐, 별로 소독같은 건 안하죠? 밀.}
10310 # 밀두 보리허구 가태유 그건 거이. {밀도 보리하고 같아요 그건, 거의.}
10310 @ 보리는 보며는 봄 되면 그 그 새카마케 이능거 이쪼? {보리는 보면 봄이 되면, 그, 그 새카맣게 이는 거 있죠?}
10310 # 까막뽀리라구 옌나리는 지크믄 그게 웁능 게 그 때는 그 소독 안 해서 그려. {까막보리(+깜부기 보리)라고, 옛날에는, 지금은 그게 없는 게, 그 때는 그 소독 안 해서 그래요.}
10310 @ 까막보리요? {까막보리요?}
10310 # 까막보리라구 허지 그건 먹찌두 모더구 쌔카마치. {까막보리라고 하지, 그건 먹지도 못하고, 새카맣지.}
10310 @ 밀두 그럼 옌날레. {밀도 그럼 옛날에.}
10310 # 밀두 이쓔 그게. {밀도 있어요, 그게.}
10310 @ 밀른 머라구 그래요? {밀은 뭐라고 그래요?}
10310 # 아마 그 소독 그거또 깜망미리라고 허지. {아마 그 소독, 그것도 까막밀이라고 하지.}
10310 @ 까막미리라구요? 여기는 그러믄 깜뵈기라는 마른 좀 안써요? 깜보기 깸배기. {까막밀이라고요? 여기는 그러면 깜부기라는 말은 좀 안써요? 깜부기, 깸부기.}
10310 # 깜보기라고도 해요 이제 그. {깜보기라고도 해요, 이제 그.}
10310 @ 아 인제 까막보리 주로 까막보리를 마니 쓰죠? {아, 인제 까막보리, 주로 까막보리를 많이 쓰죠?}
10310 # 까막보리라구 여기 사용 마니 허구. {까막보리라고, 여기 사용 많이 하고.}
10311 @ 그러믄 인제 보리밥끼는 그 왜하능거요? {그러면, 인제 보리밟기는 그 ,왜 하는 거예요?}

10311 # 보리발:끼. {보리밟기.}
10311 @ 예 보리발끼는. {예, 보리밟기는.}
10311 # 보리발끼는 겨우리 어러죽찌 말라구 땅이 이러케 부숙허게 올라오거든 올르면 그 미티 뿌리가 들떠쓸꺼 아녀? {보리밟기는 겨울에 얼어죽지 말라고, 땅이 이렇게 부숙하게 올라오거든, 올라오면 그 밑에 뿌리가 들떴을 거 아니요?}
10311 @ 에 그러초. {예, 그렇죠.}
10311 # 그러니께 뿌리가 접근뚜 제대루 모더구 허니께 그걸 접끈해서 딱딱 하라구 발바 주능겨 딱딱혀. {그러니까 뿌리가 접근도 제대로 못하고 하니까, 그걸 접근해서 딱딱하라고 밟아주는 거요, 딱딱해.}
10311 @ 그러믄 그 보리밥끼를 할 때 무슨 동네에서 머 푸마시를 한다등가 그런 건 움나? {그러면 그 보리밟기를 할 때 무슨 동네에서 뭐, 품앗이를 한다든가 그런 없나[x요x]?}
10311 # 에 그건 웁쓰. {예, 그건 없어요.}
10311 @ 그냥 가 가조끼리 하능거구먼. {그냥 가, 가족끼리 하는 거구먼요.}
10311 # 자기 자기꺼 자기가 그거는 머 별루 해두 고만 아내도 고마니니께 별로. {자기, 자기 것은 자기가, 그거는 뭐 별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니까 별로.}
10311 @ 그럼 혹시 보리밥끼 가틍 거 하면서 노래가틍 거 부르고 그러나요? {그럼 혹시 보리밟기 같은 거 하면서 노래같은 거 부르고 그러나요?}
10311 # 아이구 노래는 그 워디 노래를 보리발끼. {아이구, 노래는, 그 어디 노래를, 보리밟기.}
10312 @ 그럼 인제 반농사 경우두 논처럼 기믈 매줘야 댈 거 아니에요? {그럼 인제, 밭농사 경우도 논처럼 김을 매줘야 될 거 아니에요?}
10312 # 그러초 호미로 그거는 안저서 물 안게 씨게 다 매야지. {그렇죠, 호미로 그거는 앉아서, 물 않게 세게 다 매야지.}
10312 @ 에 일리리 그걸 호미로. {예, 일일이 그걸 호미로.}
10312 # 일리리 다 매야야 그건. {일일이 다 매야 해요, 그건.}
10312 @ 푸를 뽀바요? {풀을 뽑아요?}
10312 # 콩: 시머두 콩받 그게 그 푸를 나니께 다 호미루 글거서 매야 하구 다 매야여. {콩 심어도, 콩밭 그게 그 풀이 나니까, 다 호미로 긁어서 매야 하고, 다 매야 해.}
10312 @ 하 심드네요 농사이리나는 게. {하, 힘드네요, 농사 일이라는 게.}
10312 @ 고건 주로 반농사는 그 메뻐니나 매요? {그건 주로 밭농사는, 그 몇 번이나 매요?}
10312 # 반농사 대중웁씨오 한 서너더 서너번 매야알께 이 잡푸리 또 그러구 이 반 받 바티서 풀 그 매능건유. {밭농사 대중없어요, 한 서너 더, 서너 번 매야 하니까, 이 잡풀이 또 그리고, 이 밭, 밭, 밭에서 풀 그 매는 거는요.}
10312 # 일기 관계루 지:러두 소용웁꾸 응 비가 마니 와서 지:러두 모매여 끄덕거리면 안데고 또 너머 말라두 호미 안 드러가니께 몬매구 그래두 가:미 이써서 가미 조으야 매거든요 에. {일기 관계로, 질어도 소용없고, 응, 비가 많이 와서 질어도 못매요. 끈적거리면 안되고, 또 너무 말라도 호미 안 들어가니까 못 매고, 그래도 감이 있어서, 감이 좋아야 매거든요, 예.}
10312 @ 그 매먼 푸를 어따 그냥 버려요? {그 매면 풀을 어디다 그냥 버려요?}
10312 # 그라니께 그건 머 내버릴 쑤두 웁꾸 그냥 그 자리다 노으먼 뻐버쓰니께 되지지

죽찌 그자리다 이러케 노믄. {그러니까 그건 뭐 내버릴 수도 없고, 그냥 그 자리에다 놓으면 뽑았으니까 죽지, 죽어, 그 자리에다 이렇게 놓으면.}
10313 @ 혹시 그저니 보면 머 서리한다고 그라지요? {혹시 그전에 보면, 뭐 서리한다고 그러지요?}
10313 # 머요? {뭐요?}
10313 @ 서리한다 빌 머 밀서리 보리서리. {서리한다고, 빌, 뭐 밀서리, 보리서리.}
10313 # 에~::. {예.}
10313 @ 닥써리 가튱 거. {닭 서리 같은 거.}
10313 # 그렁게 그렁건 누가 누가 저 밀: 밀서리라구 인저 하능거는 그 애드리 쬐끄만 애들 장난하느라구 그 푸러기 망 영그러쓸쩌기 영그러쓸쩌기 이사글 그 훔처다가 이 모다뿔 이러케 노코선 궈서 그 멍능거 보구섬 밀서리. {그러니까 그건 누가, 누가 저 밀, 밀서리라고 인제 하는 것은 그 아이들이, 조그만 아이들이 장난하느라고, 그 파랗게 막 영글었을 적에, 영글었을 적에 이삭을 그 훔쳐다가, 이 모닥불 이렇게 놓고서 구워서 그 먹는 거 보고서 밀서리.}
10313 @ 그럼 어트 그걸 쏘 어터게 머거요 그냥? {그럼 어떻게, 그걸 또 어떻게 먹어요, 그냥?}
10313 # 어: 구우머는 어지가니 영근 느믈 가따 모닥뿌리다 구우머는 뜨:거머는 그 탁 탁 탁 탁 텨가지구서 하야케 이느미 텨 나는길래믄 그려 그거 주서 머거. {어, 구우면 어지간히 영근 놈을 가져다가 모닥불에다 구우면, 뜨거우면은 그 탁, 탁, 탁, 탁 튀어가지고 하얗게 이놈이 튀어나오는거러면 그려, 그거 주워서 먹어.}
10313 @ 콩::서리도 하나요? {콩서리도 하나요?}
10313 # 콩은 콩천대라구 그저니 콩천대 콩 그 풑콩 풑콩을 이제 콩 콩서리 하능게 그 콩이 다 영그러서 그 저 가을 가을찜 풑콩이 영그러쎠도 이러케 까 까머글만하머는 그느믈 몰래 애드리 꺼거다가. {콩은 콩천대라고, 그전에 콩천대, 콩, 그 풋콩, 풋콩을 이제 콩, 콩서리 하는 게, 그 콩이 다 영글어서 그, 저 가을, 가을쯤 풋콩이 영글어서 이렇게 까, 까먹을 만하면 그놈을 몰래 아이들이 꺾어다가.}
10313 # 그거뚜 모다뿔 이러케 노쿠서 거기다 올려놔 그러믄 그느미 구우머는 구워지머는 콩이 궈지머는 여 그게 콩천대라고 허지 그 콩천대. {그것도 모닥불 이렇게 놓고서 거기에다가 올려놔, 그러면 그놈이 구워지면, 구워지며는, 콩이 구워지며는 여, 그게 콩천대라고 하지, 그 콩천대.}
10313 @ 콩천대라고 그래요? {콩천대라고 그래요?}
10313 # 콩천대 그늠 까서 이러케 머그먼 고쏩꼬 조아 그 먹끼. {콩천대, 그놈 까서 이렇게 먹으면 고소하고 좋아, 그거 먹기가.}
10313 @ 혹씨 그 닥써리 거튼 거뚜 하나요? {혹시 그, 닭서리 같은 것도 하나요?}
10313 # 닥써리? 그저니 닥써리들 해찌 더러 닥써리. {닭서리? 그전에 닭서리들 했지 더러, 닭서리.}
10313 @ 거 어터게 하는 거에요? 닥써리라능게? {그거 어떻게 하는 거에요? 닭서리 라는 게?}
10313 # 닥써리라능게 그게 이름 그대루 몰래 너미 닥짱이 가서 훔처다가 먹능게 닥써리유. {닭서리라는 게, 그게, 이름 그대로, 몰래 남의 닭장에 가서 훔쳐다가 먹는 게 닭서리요.}

10313 @ 그럼 옌나레 그러다가 걸리구 그라면 어터개요? {그럼 옛날에 그러다가 걸리고 그러면 어떡해요?}
10313 # 아니여 그저니는 그건 아지 이치 그거 저 공통저그루 해서 그 일르구 어쩌구 고발하구 어쩌구는 그건 웁써꾸 원쳰가는 내 우순 얘기 좀 해야건네 구도 우리 삼종 형니미 하나 아까 저 점심 먹떤디 고 위서 사는디. {아니요, 그전에는 그건 아주 이치, 그거 저, 공통적으로 해서 그 이르고 어쩌고, 고발하고 어쩌고는 그건 없었고, 언젠가는 내가 웃기는 이야기 좀 해야겠네, 구도 우리 삼종 형님이 하나, 아까 저 점심 먹던 데 그 위에서 사는데.}
10313 # 한 대시가 안저서 야 오늘랑은 술랑 내가 사께 그러케 저 우리 삼종 형니미여 술이랑 내가 사께 니덜 어디가 다 간마리만 가저오너라 이래꺼든? {한 댓 명이 앉아서 야, 오늘은 술은 내가 살게, 그러니까 저 우리 삼종 형님이요, 술은 내가 살게, 너희들은 어디 가서 닭 한 마리만 가져오너라, 이랬거든?}
10313 # 아 그러구서는 가저오라구 핸는디 아 그저니 토종딱 커쓰 지금 지끄믄 한 이마눤 주야 먹능길래 그걸 하나 부짜바와써 그 술찌비서 그늠 쌀머서 이이라 술 시컫 사서 먹구 보니께 그집 따글 가저 가꾸와떠랴. {아, 그리고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 그전에 토종닭 컸어요, 지금, 지금은 한 이 만원 줘야 먹는가보데, 그걸 하나 붙잡아왔어 그 술집에서, 그놈 삶아서 이이가 술 실컷 사서 먹고 보니까, 그집 닭을 가져, 가져왔데래.}
10313 # 그러니께 이 양바니 닥 내노쿠 술 사구 다애찌 아 딴 지비가서 서리 해가꾸 오라니께 하피리믄 그 찝 따글 가꾸와쓰니 그래 그런 얘기가 이써찌. {그러니까 이 양반이 닭 내놓고, 술 사고 다했지, 아, 다른 집에 가서 서리 해가지고 오라니까, 하필이면 그 집 닭을 가지고 왔으니, 그래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
10313 @ 지그믄 그런 서리하면 날리나조? {지금 그런 서리하면 난리나죠?}
10313 # 아:주 지끄믄 차뮈서리 머 저 수박서리 가튱거 갱쟁이 그저니는 이썬는디 지끄믄 그거허먼 절또루 예버네 걸리지 데거쓰? {아주 지금은 참외 서리, 뭐, 저 수박 서리 같은 거 굉장히, 그전에는 있었는데, 지금 그거하면 절도로 단번에 걸리지, 하면 되겠어요?}
10313 @ 그 혹씨 머 차메서리 가튱 거 한번 해본신 적 이쓰세요? {그 혹시 뭐, 참외 서리 같은 거 한 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10313 # 난 아:주 그렁건 아주 웁써슈. {난, 아주 그런 건, 아주 없었어요.}
10313 @ 그 차메서리 또 복숭아 바테 복숭아 서리하다가 인제 오시서 너가지구 막 꺼끄럽꾸. {그 참외 서리, 또 복숭아 밭에 복숭아 서리하다가, 인제 옷에다 넣어가지고 막 꺼끄럽고.}
10313 # 그래기 요기 워떤 사람 하나는 차미를 바티다 놘는디 그 저 조용수니라구 그 냥반 고인된는디 그이가 아 저냥만두 차미가 업써저 그러니께 차미 서리하는 사람드리 그 종자 한다구 그 차미를 저녀기 졸린디 안구자땨 여르미 더우니께 점 머 아무대서 자두 상간업찌. {그래서, 요기 어떤 사람 하나는 참외를 밭에다 놨는데, 그, 저 조용순이라고 그 양반 고인이 됐는데, 그이가 아, 저녁마다 참외가 없어져, 그러니까 참외 서리하는 사람들이, 그 종자한다고 그 참외를 저녁에 졸린데 안고 잤대. 여름에 더우니까 좀, 뭐 아무데서나 자도 상관없지.}
10313 # 근디 고걸러 다 따가따. {그런데 고걸로 다 따갔대.}
10313 @ 그래요? {그래요?}
10313 # 그러니께 그게 아::이구 그렁걸 뭐 그저니야 그렁거 자 보통으로 생각해찌. {그러

니까 그게, 아이구, 그런 걸 뭐, 그전에는 그런 거 보통으로 생각했지.}
10313 @ 그래요 옌날. {그래요, 옛날.}
10313 # 다간마리 가튱 거 웁써지먼 웁써징게다 해찌 머 지끄믄 예번에 그. {닭 한마리 같은 거 없어지면 없어졌나보다 했지 뭐, 지금은 대번에 그.}
10313 @ 크닐날 뼈지그럼요. {큰일날 꺼지 그럼요.}
10314 @ 그 우리가 보면 보리찝 밀:찝이찌요 그걸 가지고 뭘 만들더라구요 시골써 어 어 때보면. {그 우리가 보면 보리짚, 밀짚있지요, 그걸 가지고 뭘 만들더라고요 시골에서, 어, 어떤 곳 보면.}
10314 # 아이 그걷 그거 보리찌브루 밀찌브루 그거 저 머 맹그는디 뭐 그저니 그런께 밀찝모자라구 여보 건 밀찝모자 아녀유? {아이, 그것, 그거 보리짚으로, 밀짚으로 그거 저, 뭐 만드는데, 뭐 그전에 그러니까, 밀짚모자라고, 여보 그건 밀짚모자 아니에요?}
10314 @ 글쎄. {글쎄.}
10314 # 그런디 그거뚜 공장에서 맹그러찌 개이니 몬맹길구 머 접꾸 어쩌구 해싸뜨만 난 그건 몰러유 어터허니 맹그런는지. {그런데 그것도 공장에서 만들었지, 개인이 못 만들고, 뭐 접고, 어쩌고 해대더먼 난 그건 몰라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10314 @ 인제 보면 곤충 무슨 그 곤충 집뚜 만들고 주로. {인제 보면 곤충 무슨, 그 곤충 집도 만들고, 주로.}
10314 # 그런 거뚜 더러 맹길구. {그런 것도 더러 만들고.}
10314 @ 그 여치 연친 여치라고 그래요? {그 여치, 여치, 여치라고 그래요?}
10314 # 에 여치 집뚜 맨들고 더러 헌길래믄 그런디유 마저. {예, 여치 집도 만들고 더러 한 거더먼 그런데, 맞아.}
10314 @ 그러고 인제 그 밀:대찝 거튱거 그걸로 방석뚜. {그리고 인제, 그 밀대 짚 같은 거, 그걸로 방석도.}
10314 # 그게 밀:찝방서기라구 그저니 깔게 이써슈 어디? 밀찝방석이라니께 저 새끼 샌내끼를 가노소롬하게 꽈 꽈서 그눔 추려서 그누므로 여꺼서 이런 자리 맹그러가꾸서 여르미머는 마당이구 워따가 패구서 안저서 동네사람 안저서 놀구 그게 그 그 밀때방석. {그게 밀짚방석이라고, 그전에 깔 게 있었어요 어디? 밀짚 방석이라고, 저 새끼, 새끼를 가늘게 꽈, 꽈서 그놈 추려서, 그놈으로 엮어서 이런 자리 만들어가지고, 여름이면 마당이고 어디다가 펴 놓고 앉아서, 동네사람 앉아서 놀고, 그게 그, 그 밀대방석.}
10314 @ 고 그런 건 안만드러 보셔써요? {고, 그런 것은 안 만들어 보셨어요?}
10314 # 왜요? 그거는 마니 맹기러찌. {왜요? 그거는 많이 만들었지?}
10314 @ 어트게 만드러요 그라면?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면?}
10314 # 그 그냥 이러케 저 양짜게다 고두래 샌내끼 따지믄 닫 다빠리구 다섣빠리구 월마나라가쿠서 엽땡이다 그 고두래 돌 쏘다가 기다란 돌 쏘다가 가머서 그늠 대구서 여꺼 이러케. {그, 그냥 이렇게 저 양쪽에다 고두래, 새끼, 따지면 닷, 댓 발이고, 다섯 발이고 얼마 날아가지고 옆에 그 고두래, 돌 속에다가, 긴 돌 속에다가 감아서, 그놈 대고서 엮어, 이렇게.}
10314 @ 여꺼여? {엮어요?}
10314 # 여꺼 여끄머는 밀때방석 데지. {엮어, 엮으면 밀대 방석 되지.}
10314 @ 밀 밀때방석 할라면 양쪼기서 대야겐네요 하나 길지 안으니까. {밀, 밀대 방석 하려면 양쪽에서 대야겠네요, 하나 길지 않으니까.}

10314 # 아녀 그러니께 요러케 와따 혼저 시커치요 요러케 발틀 맹그러노쿠서 줄 거러노쿠 그러니께 고 그 서서 치야지 지게 가따 요러게 올려노쿠서 그 밀대 밀찝 올려노쿠 요만큼씩 지버서 가따 너쿠 여끄여꾸. {아니요, 그러니까 요렇게 와서 혼자 실컷 쳐요, 요렇게 발틀 만들어 놓고서 줄 걸어놓고, 그러니까 고, 그 서서 쳐야지, 지게 갖다가 요렇게 올려놓고서, 그 밀대, 밀짚 올려놓고 요만큼씩 집어서 가져다 넣고 엮고 엮어.}
10314 @ 고 밀찌븐 머 호밀 아까 말한 머. {그 밀짚은 뭐, 호밀, 아까 말한 뭐.}
10314 # 호밀찌븐 더 조치요 그건 더 조쿠 지다라니께 더 조쿠. {호밀 짚은 더 좋지요, 그건 더 좋고, 기니까 더 좋고.}
10314 @ 보리빵 보리찝 보리찌븐 머 방석 안 만드러? {보리방[x석x], 보리 짚, 보리 짚은 뭐 방석 안 만들어[x요x]?}
10314 # 보리지븐 아무거뚜 무더구 그 머 저 때 불 그저니 나무 구여끌디 불 때구 그저 아궁이다. {보리 짚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 뭐, 저 때, 불, 그전에 나무 귀했을 때 불 때고 그저, 아궁이에다.}
10315 @ 우선 그라믄뇨 이제 고추 옥수수 담배 마늘 이렁거에 대해서 한번 여쩌볼게요 우선 고추 농사 진는 방버베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좀 자세히 좀 말쓰매 주세요. {우선 그러면요, 이제 고추, 옥수수, 담배, 마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선 고추 농사짓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좀 자세히 좀 말씀해주세요.}
10315 # 지큼 꼬추 농사 진능 거는 뭗 비니루 씨구 하는디 옌나리는 그냥 꼬추 머글꺼만 시므니께 머더는디 지끄믄 저기 지끄믄 저 비니루 씨구 고게 약 지끔 느니께. {지금 고추 농사 짓는 것은 뭣, 비닐 씌우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냥 고추 먹을 것만 심으니까 뭐하는데, 지금은 저기, 지금은 저 비닐 씌우고, 고게 약 지금 주니까.}
10315 # 저 꼬추 뜨물찌머는 내버류 머 약 줘두 되지두 안쿠 그래서 뜨물 안찌라구 뜨물 안찐다구 그 저 무슨 약 이떠믄 빨강 거 그거 약 느쿠 이러케 주구 대대저그루 건조기 인는 사람들 그 사람드리나 할까 건조기 움는 사라믄 몯해유. {저 고추 뜨물찌면 내버려요, 뭐 약 줘도 되지도 않고, 그래서 뜨물 안찌라고, 뜨물 안찐다고 그, 저 무슨 약 있더구먼, 빨간 거 그거 약 넣고 이렇게 주고, 대대적으로 건조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나 할까, 건조기 없는 사람은 못해요.}
10315 @ 옌나레는 꼬추를 어트게 씨를 뿌련나요? 아니믄 모종에다 시먼나요? 옌나른. {옛날에는 고추를 어떻게 씨를 뿌렸나요? 아니면 모종에다가 심었나요, 옛날에는?}
10315 # 옌나리요? 씨루 뿌려쓰 요게 씨루 이러케 피쿠서 나믄 머글꺼 쪼금 시므니께 요러케 씨루 뿌리 나므는 베머는 속꾸 또:: 꼬추가 그게 모줌해두 잘 살유 그게 그게 곧 너무 벤디서 속꺼다가 그 벤디서 속꺼다가 또 딴디루 이 이시개서 허구 이러케 해찌. {옛날에요? 씨로 뿌렸죠 요게, 씨로 이렇게 뿌리고 나면 먹을 것 조금 심으니까, 씨로 뿌리고 나면은 베면 솎고, 또 고추가 그게 모종해도 잘 살아요, 그게, 그게 곧 너무 벤 데서 솎아서, 그 벤 데서 솎아서 또 딴 데 이, 이식해서 하고 이렇게 했지.}
10315 @ 그저네 꼬추가 그 보믄 인제 그 푿꼬추도 따다가 된장에다 막 찌거먹꼬 그래쪼? 반차느로. {그전에 고추가, 그 보면 인제, 그 풋고추도 따다가 된장에다 막 찍어먹고 그랬죠? 반찬으로.}
10315 # 그러치 꼬추장이다 찌거머꼬. {그렇지, 고추장에다 찍어먹고.}
10315 @ 그러믕겨 인제 그러믄 이 이그면 빨가케 이그믄 고걸 어트게 해요? {그러면 거 인제, 그러면 이, 익으면, 빨갛게 익으면 그걸 어떻게 해요?}

10315 # 옌나리는 해비투루 그냥 말련는디요 지끔 재래지 꼬치 꼬 그때 꼬추 허구 지끔 꼬추 허구 달비유 종자가. {옛날에는 햇빛으로 그냥 말렸는데요, 지금 재래종 고추, 고, 그때 고추하고 지금 고추하고 달라요, 종자가.}
10315 # 그 때는 이 가주기 얄븐 꼬추라 그냥 따서 빨거케 이근디여 저 해벼티디가 태양이다 말리므는 잘 말란는디. {그 때는 이 가죽이 얇은 고추라, 그냥 따서 빨갛게 익은 것을, 저 햇볕에다가, 태양에다가 말리면은 잘 말랐는데.}
10315 # 지:끔 나오는 건 재래종이라 가주기 두꺼가지구서 건조기다 말링 저네는 해피타몬말류 안말라서 써거 아니먼. {지금 나오는 건 재래종이라 가죽이 두꺼워가지고, 건조기에다 말리기 전에는 햇빛에다가 못 말려요, 안말라서 썩어, 아니면.}
10315 @ 그 그걸 태양이다 말러 태양초라고 고라는거조? {그, 그걸 태양에다가 말려서 태양초라고 그러는 거죠?}
10315 # 그러초 태양촌디 태양초가 업쓰 지금. {그렇죠, 태양초인데, 태양초가 없어요, 지금.}
10315 @ 그 옌나렌 워따 말려써요? 그럼 고거 말릴 때는. {그 옛날에는 어디에다가 말렸어요? 그럼 고거 말릴 때는.}
10315 # 옌:나리는 저기 저 지봉이다두 말리구 저 밀때방석 아까 밀때방석 얘기 해꾸 밀때방석 요거 깔구서 그 위다 너러서 말리구 그래찌유 그런디 그땐 가죽 얄븐 꼬추라 말르긴 잘 말라찌. {옛날에는 저기, 저 지붕에다가도 말리고, 저 밀대방석, 밀대방석, 아까 밀대방석 얘기 했고, 밀대방석 이거 깔고서 그 위에다가 널어서 말리고 그랬지요. 그런데 그 때는 가죽 얇은 고추라 마르기는 잘 말랐지.}
10315 @ 아니 지붕위다 어트게 말려? {아니, 지붕 위에다 어떻게 말려[x려요x]?}
10315 # 지봉위다양 비 오거나 말거나냥 그냥 그냥 너러놔떠믄 그류 그 초가집 지봉이다. {지붕 위에다 그냥 비 오고나 말거나 그냥, 그냥 널어놨더구먼그려, 그 초가집 지붕에다가.}
10315 @ 아 얻 사라미 그걸. {아, 어, 사람이 그걸.}
10315 # 올러가서. {올라가서.}
10315 @ 어디로 올라가? {어디로 올라가?}
10315 # 올라가서 새딱따리 노쿠 올라가서 새다리 노쿠서. {올라가서, 사닥다리 놓고 올라가서, 사다리 놓고서.}
10315 @ 에 새닥따리요? {예, 사닥다리요?}
10315 # 올려 노쿠서 그냥 어다 장 나둬 지끄믄 비 마질깨미 머더는디 그저니는 비 맏거나 말거나 그냥 나두먼 거기서 빨거먼 글거내리유. {올려 놓고서 그냥 어디다 늘 놔둬, 지금은 비 맞을까봐 뭐하는데, 그전에는 비 맞거나 말거나 그냥 놔두면, 거기서 빨갛게 되면 긁어내려요.}
10315 @ 어트게 뭘루 글거내려요 그때는? {어떻게 뭘로 긁어내려요, 그 때는?}
10315 # 아 소니로 그 그 그 준는기야. {아, 손으로 그, 그, 그걸 줍는 거야.}
10315 @ 주서요? 에 그럼 옥쑤수 이쪼? 여긴 머라고 그래요? 옥쑤수를 강냉이라 그래유. {주워요? 예, 그럼 옥수수 있죠?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옥수수를 강냉이라 그래요.}
10315 # 옥 여기두 옥쑤수라구 해유. {옥, 여기도 옥수수라고 해요.}
10315 @ 예 고건 어트게 심꾸 수와글 해써요? {예, 그건 어떻게 심고 수확을 했어요?}
10315 # 옥::쑤수 수와근 그 옌나리는 그러케 저 옥쑤수 쩌서 먹능건만 해찌 그 따서 저먼 그렁거 아내씽께 머글꺼 쪼금 시머찌. {옥수수 수확은, 그 옛날에는 그렇게 저, 옥수수

쪄서 먹는 것만 했지, 그 따서 저, 뭔 그런 거 안 했으니까, 먹을 거 조금 심었지.}
10315 @ 튀바블 튀어 머거찌 아나요? {튀밥을 튀겨 먹었지 않아요?}
10315 # 머요? {뭐요?}
10315 @ 튀밥. {튀밥.}
10315 # 술. {술.}
10315 @ 튀밥 틴다고 그러조? 거 머지? {튀밥 튄다고 그러죠? 거 뭐지?}
10315 # 어 술빱. {어, 술밥.}
10315 @ 술빠비라고 그래요? {술밥이라고 그래요?}
10315 # 에 그 강냉이 술두 더러 이썬덩갤래 그런디 우린 아내 바써 아내 머거 바써. {예, 그 강냉이 술도 더러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안해 봤어, 안해 먹어 봤어.}
10315 @ 그럼 옥쑤수는 주로 이냥 멍 쩌서 머꾸요? {그럼 옥수수는 주로 이냥 먹, 쪄서 먹고요?}
10315 # 예 그거유 그러치. {예, 그거요, 그렇지.}
10315 @ 그거뚜 옥쑤수 씨를 시머요? {그것도 옥수수 씨를 심어요?}
10315 # 그러치 씨루 심찌유. {그렇지, 씨로 심지요.}
10315 @ 고건 언젠쯤 시머요 보통? {그건 언제쯤 심어요, 보통?}
10315 # 그거뚜 인저 그 그러니께 보미 심는 종자가 이꾸 또 인저 그 한 유월다리 이러게 가으리 딸라구 심는 종자가 이꾸 종자가 그 두가지 이떠라구데게요. {그것도 인제 그, 그러니까 봄에 심는 종자가 있고, 또 인제 그, 한 유월달에 이렇게 가을에 따려고 심는 종자가 있고, 종자가 그 두 가지 있다고 그러데요.}
10315 # 그러구 지끔 옥쑤수가 종자두 지 개량대가꾸 나와서 지그믄 마니 달버져슈 저먼 거뚜 강원도서 워서 오구. {그리고 지금 옥수수가 종자도 지금 개량 되어갖고 나와서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저런 것도, 강원도에서, 어디서 오고.}
10315 @ 그저니 옥쑤수 보면 그걸 옥쑤수 꺼꺼서 까서 머거떵거 거테요 그 옥쑤수 대를. {그전에 옥수수 보면 그걸, 옥수수 꺾어서 까서 먹었던 것 같아요, 그 옥수수 대를.}
10315 # 그러치 옥쑤수때 그거 저 옥쑤수때 옥쑤수두 따머는 그 옥쑤수때 껍대기 요러케 요러케 베껴서 여거 사탕수수라구 그 대가 다르유. {그렇지, 옥수수 대, 그거 저 옥수수 대, 옥수수도 따면은 그 옥수수 대 껍데기 요렇게 요렇게 베껴서, 이거 사탕수수라고, 그 대가 달아요.}
10315 @ 그러쪼 에엥~. {그렇죠 응.}
10315 # 머거보믄. {먹어보면.}
10315 @ 달추끼운하조. {달짝지근하죠.}
10315 # 그러니께 애드리라 다 짤라다 먹꾸.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잘라다 먹고.}
10315 @ 옌나레 참 그 지금 애드른 옌나레 당:게 머글께 업쓰니까. {옛날에 참 그, 지금 애들은 옛날에 단 게, 먹을 게 없으니까.}
10315 # 아이 머글꺼 업꾸 그러니께 배고프니께 그게 다 머꾸 그저니는 여 감: 옌나리는 참 옌날 어른들 불쌍앙게 감 머그먼 파럴 한 초수니머는 그 가미 마니 여러따는 그 떠러지자뉴 인저? {아이, 먹을 것 없고, 그러니까 배 고프니까 그게 다 먹고, 그전에는 여기 감, 옛날에는 참, 옛날 어른들이 불쌍한 게, 감 먹으면, 팔월 한 초순이면 그 감이 많이 열었으면 그 떨어지잖아요, 인제?}
10315 # 그 떠러 떠러지야 또 데고 너무 마니 부터씽게 그거 서로가 싸워가믄서 쏘아씨유.

{그 떨어, 떨어져야 또 되고, 너무 많이 붙었으니까, 그거 서로가 싸워가면서 살았어요.}
10315 @ 떠러징가믈. {떨어진 감을.}
10315 # 그럼 떠러징거 그냥 수와가느라구 가따 머글라구 그렁걸 머 아 그저니 배고파떤 시저리야. {그럼 떨어진 거 그냥 수확하느라고, 가져다가 먹으려고, 그런 걸 뭘, 아 그전에 배고팠던 시절에이야.}
10316 @ 혹씨 여기 그 사과 농사도 좀 지나요? {혹시 여기 그, 사과 농사도 좀 짓나요?}
10316 # 여기 사과 농사 진 사람 웁써슈. {여기 사과 농사 지은 사람 없었어요.}
10316 @ 여기는뇨? 에. {여기는요? 예.}
10316 # 저 진장리 가 쪼금 저따는 사람. {저기 진장리 가야 조금 니었는 사람.}
10316 @ 복:쑹아는? {복숭아는?}
10316 # 복:쑹아두 웁써구 여기 한 나무 하나둘 그저 따먹느라구 저 시머쓸까. {복숭아도 없었고 여기, 한 나무, 하나 둘 그저 따 먹느라고 심었을까.}
10316 @ 에 아까 그 감나무는 좀 이썬나요 이게? {예, 아까 그 감나무는 좀 있었나요, 이게?}
10316 # 그러추 감나무는 집찝마다 하나씨근 그저니 그전부텀 이써찌. {그렇죠, 감나무는 집집마다 하나씩은 그전에, 그전부터 있었지.}
10316 @ 또 그럼 그 혹씨 지베 대추. {또 그럼, 그 혹시 집에 대추.}
10316 # 대추 옌나리 대추 나무두 이써꾸 그런디 대추 나무 집찝마다 다 인는거므거 머. {대추, 옛날에 대추나무도 있었고, 그런데 대추나무 집집마다 다 있는 거 놈의 거 뭐.}
10316 @ 그래요? 옌나레 대추를 고거뚜 보니까 팍: 터러가지고 말릴 말릴 마시짜나요? {그래요? 옛날에 대추를, 그것도 보니까 팍 털어가지고 말릴, 말리면 맛있잖아요?}
10316 # 말려서 그 제사상에 올려농게 대추 아녀? {말려서 그 제사상에 올려놓는 게 대추 아니에요?}
10316 @ 그러면 혹씨 그런 인제 여기도 그 수박 거튱거 농사 지시 지언나요? 수박. {그러면 혹시, 그런 이제 여기도 그 수박 같은 거 농사 지시, 지었나요? 수박.}
10316 # 수박 농사 진는 거 웁쓰. {수박 농사 짓는 거 없어요.}
10316 @ 여기는요? {여기는요?}
10316 # 그저 저 모 스산 가머는 그 모 하나씩 둘씩 사다가 저이 머글라고 시머보능거 이렁 거 뿌니지 여기 웁씨유 여기. {그저 저 모, 서산 가면 그 모 하나씩, 둘씩 사다가 저희 먹으려고 심어보는 거, 이런 것 뿐이지, 여기 없어요, 여기.}
10316 @ 그러구 그럼 고런 과일 종뉴 그렁건? {그리고 그럼 그런 과일 종류, 그런 건?}
10316 # 과:일 종뉴두 여기 여기는 그게 여기는 주로 허능게 마눌 마눌 고추 요거지 머. {과일 종류도, 여기, 여기는 그게, 여기는 주로 하는 게, 마늘, 마늘, 고추 요거지 뭐.}
10316 @ 집찝마다 자기들. {집집마다 자기들.}
10316 # 콩. {콩.}
10316 @ 머글껀만 해꾸만요. {먹을 것만 했구먼요.}
5초
10317 @ 그런디 그 그럼 아까 바테 거튼데 바뚝 거튼데 푸리 마니 날 거 아니에요? 또 산들 거튼데 푸리 마니 나는데요 혹씨 그 그 바테 나:는 푸레 이르믈 좀 알고 계시능게 이써요? {그런데 그 그럼, 아까 밭에 같은 데, 밭둑 같은 데 풀이 많이 날 거 아니에요? 또 산, 들 같은 데 풀이 많이 나는데요, 혹시 그, 그 밭에 나는 풀의 이름을 좀 알고 계시는 게 있어요?}

10317 # 아::이구 더러 아능거뚜 머 조뱅이라구두 이꾸 머 그 까시 도칭거 그 푸른 거 이게 조뱅이구 나 이름 몰류 그거. {아이구, 더러 아는 것도 뭐, 조뱅이라고도 있고, 뭐 그 까시 돋힌 거, 그 푸른 거 이게 조뱅이고, 나 이름 몰라요, 그거.}
10317 @ 그럼 마니 나능거 소 매기능 거 이쪼? 받 바라구라나 바랭이라구 그러나요? {그럼 많이 나는 거, 소 먹이는 거 있죠? 밭, 바라구라나, 바랭이라고 그러나요?}
10317 # 바:랭이? {바라구?}
10317 @ 예. {예.}
10317 # 바랭이 바랭이가 그 뿌리처럼 이러케. {바랭이, 바랭이가 그 뿌리처럼 이렇게.}
10317 @ 쭉쭉 뻐더 나가지요. {쭉쭉 뻗어 나가지요.}
10317 # 뻐뻐 쭉쭉 뻐더 나가능 거 그걸 얘기하는 모양인디 그거 그거뚜 더러 읻낀 이찌 이맨앙거. {뻗, 뻗, 쭉쭉 뻗어 나가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그거, 그것도 더러 있긴 있지, 이만한 거.}
10317 @ 그다메 또 머조? 그 비르미라고. {그 다음에 또 뭐죠? 그 비름이라고.}
10317 # 비름. {비름.}
10317 @ 에. {예.}
10317 # 에 비름 비름두 나구. {예, 비름, 비름도 나고.}
10317 @ 그 비르믄 먹짜나요? {그 비름은 먹잖아요?}
10317 # 그 멍는 비르미 이꾸 몽: 멍는 비르미 이땨 게 난 확시리 알지 모더는디. {그 먹는 비름이 있고, 못 먹는 비름이 있대 그거, 난 확실히 알지 못하는데.}
10317 @ 그래꾸나 그 그럼 드레는 좀 푸리 이쓸 거 아뇨? 드레도. {그랬구나, 그, 그럼 들에는 좀 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들에도.}
10317 # 드:료? {들요?}
10317 @ 예 들파네. {예, 들판에.}
10317 # 들파네 푸리 이찌 그럼 풀 머. {들판에 풀이 있지 그럼, 풀 뭐.}
10317 @ 혹씨 머 아시는 풀 이써요? {혹시 뭐, 아시는 풀 있어요?}
10317 # 아 요 우리집 아피 인는 거는 그 소루쟁이라구. {아, 여기 우리집 앞에 있는 것은 그 소루쟁이라고.}
10317 @ 머요? {뭐요?}
10317 # 소:루쟁이. {소루쟁이.}
10317 @ 솔갱이. {솔쟁이.}
10317 # 그 머꺼 거또 머거 데 데 덴장 찌개로 해서 덴장 쩌머꼬 그렁거 이꾸 거기 머 머인나 난 생각아따 풀 여기 이르미 머. {그 먹어 그것도 먹어, 되, 되, 된장 찌개로 해서 된장 쪄먹고, 그런 거 있고, 거기 뭐 뭐 있나? 난 생각안나, 풀 여기 이름이 뭐.}
10317 @ 민들레니. {민들레니.}
10317 # 민들레 가튱건 먿 받 민들레두 이꾸 씀바귀두 이꾸. {민들레 같은 건 뭣, 밭 민들레도 있고, 씀바귀도 있고.}
10317 @ 에 씀바귀. {예, 씀바귀.}
10317 # 거다 사람 먹능 거구만 그게 다. {그거 다 사람 먹는 거구먼, 그게 다.}
10317 @ 그 노:네 그 모시키 조:므먼 이케 머가 올라오는 게 이떠라구요 그거 그 머라고 그래? 독 독새푸리라고 허나? 여기는 머라고 그래요? {그 논에, 그 모 심기 전이면 이렇게

뭐가 올라오는 게 있더라구요, 그거 그 뭐라고 그래? 둑, 둑새풀이라고 하나?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10317 # 가:으레 노니는 가:레두 이꾸 피:두 이꾸 머 복때 그게 무슨? {가을에 논에는 가레도 있고, 피도 있고, 뭐 복때? 그게 무슨?}
10317 @ 독스 독새푸리라고 하나요? 그러먼 고거 고거 보머는 어떤 사라믄 그걸 막 또 고걸 그 털더라구요 털 터러서 멍는다구 하고 그. {둑, 둑새풀이라고 하나요? 그러면 고거, 고거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걸 막, 또 그걸 그 털더라고요, 털, 털어서 먹는다고 하고, 그.}
10317 @ 사네는 주로 그 나는 풀 이르미 난 머가 이써요 사네? {산에는 주로 그 나는 풀 이름이, 난[x풀x], 뭐가 있어요, 산에?}
10317 # 사:니요? {산에요?}
10317 @ 사네 사네 풀. {산에, 산에 풀.}
10317 # 사네 풀:: 사네 푸른 그 왁:쌔 가튱 거 이렁 거 나고 왁:쌔라고 허지 이거 보고 그렁 거 나구 머 음. {산에 풀, 산에 풀은 그 억새 같은 거, 이런 거 나고, 억새라고 하지 이거 보고, 그런 거 나고 뭐, 음.}
10317 @ 주로 옌나레 농사 질라면 퇴비를 해야 델꺼 아녀요? {주로 옛날에 농사 지으려면 퇴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0317 # 퇴비. {퇴비.}
10317 @ 퇴비 할라먼 사네 가서 그런 푸를 벼와쓸 거 아녀요? {퇴비 하려면, 산에 가서 그런 풀을 베어 왔을 것 아니에요?}
10317 # 그러치 띠 띠 가튱 거 그저 띠 사니가 그렁 거 마니 왁새 띠 종조가노쿠 그러치 그저 머. {그렇지, 띠, 띠 같은 거, 그저 띠, 산에가 그런 거 많이, 억새, 띠 종류가 놓고 그렇지, 그저 뭐.}
10317 @ 그럼뇨 꼬 탄 번뇨 받 바테 이런 꼬시 이쓸 거 아녀요? 바테 피는 꼳. {그럼 꽃 한번요, 밭, 밭에 이런 꽃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밭에 피는 꽃.}
10317 # 꼬시유? {꽃이요?}
10317 @ 예. {예.}
10317 # 응:: 바티서 나는 꼳 난 난 그렁건. {응, 밭에서 나는 꽃, 난, 난 그런 건.}
10317 @ 그럼 들파네는 꼳. {그럼 들판에는 꽃.}
10317 # 들파네 꼳 나 그 이름 이름 몰러서 원. {들판에 꽃, 나 그 이름, 이름 몰라서 원.}
10317 @ 머 자우녕이라고 노네서 나는 꼳 피는능거 이쪼? {뭐 자운영이라고, 논에서 나는, 꽃 피는 거 있죠?}
10317 # 자우녕이 먼지? {자운영이 뭔지?}
10317 @ 아 잘 모르세요? 에 사네는 꼬치 이쓸거 아네요 사네는? {아, 잘 모르세요? 예, 산에는 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산에는?}
10317 # 사니 워 아가지 나무 꼬뚜 잔뜩 이꾸. {산에 뭐 아카시아 나무 꽃도 잔뜩 있고.}
10317 # 꼬시야 머. {꽃이야 뭐.}
10317 @ 무슨 무슨 무슨 꼬시요? {무슨, 무슨, 무슨 꽃이요?}
10317 # 아가지 나무 꼳 그저니 머거쓔 그거. {아카시아 나무 꽃, 그전에 먹었어요 그거.}
10317 @ 아가지 김 아. {아카시, 그럼, 아.}
10317 # 아가지 꼳 아가시 나무 이자뇨 꼳 저 머 저 머 까시 나오건나. {아카시아 꽃, 아카시아 나무 있잖아요, 꽃 저 뭐, 저 뭐, 까시 나오고 한 나(+무).}

10317 @ 명 명과 나무를 말하나 이러케 빨가케 익능걸 말하는? {아, 명, 명과나무(+청미래덩굴)를 말하나, 이렇게 빨갛게 익는 걸 말하는?}
10317 # 아녀 그건 명가락 나무구 아가지 나무라구 일본서 거따가 사태 나는디다 시뭉거 겡장이 크능 게 지금 그 꼬시 이러게 무지하게 피유 에 꼳 그저니 따다가 저 머 보리 가루 발러서 쩌 머끼두 허구. {아니요, 그건 명과(+청미래덩굴) 나무고, 아가지 나무라고 일본에서 가져다가 사태 나는 데다 심은 거, 굉장히 크는 게, 지금 그 꽃이 이렇게 무지하게 피어요, 꽃, 그전에 따다가 저 뭐, 보리 가루 발라서 쪄 먹기도 하고.}
10317 @ 그 명 에. (그 명, 예.}
10317 @ 사네 또 원추리 거튱거. {산에 또, 원추리 같은 거.}
10317 # 그러치 원추리 이이꾸. {그렇지, 원추리 있고.}
10317 @ 에 또. {예, 또.}
10317 # 또 원추리꺼더구. {또 원추리꽃하고.}
10317 @ 도라지. {도라지.}
10317 # 또 인저 방맹이 꼳. {또 인제, 방망이꽃.}
10317 @ 방맹이 꼬슨 어트게. {방망이꽃은 어떻게.}
10317 # 방맹이 꼬시라는 그게 저 머 그러니께 적뚜리 꼬시라구두 허구. {방망이꽃이라는 그게 저 뭐, 그러니까 족두리 꽃이라고도 하고.}
10317 @ 아 그게 어트게 생겨써요? 생긴게. {아, 그게 어떻게 생겼어요? 생긴 게.}
10317 # 그게 꼬시 조아유 요로케 방맹이 가태가꾸 요러케 데는디 그거 외지 사람드리나 여기 수타게 나더니 전부 파가서 하나 업써 지금. {그게 꽃이 좋아요, 요렇게 방망이 같아 갖고 요렇게 되는데, 그거 외지 사람들이 여기 숱하게 나다더니, 전부 파가서 하나 없어, 지금.}
10317 @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0317 # 구경알래야 그 저 너물꾼드리라 동으에서 다 캐가구 해서 꼬시 원체 조커든 그건. {구경할래야(+없어), 그 저, 나물꾼들이 동원해서 다 캐가고 해서, 꽃이 워낙 좋거든 그건.}
10317 @ 그 머죠? 사네 보믄 그 배캅 가치 생겨 빨 약깐 빨가케 생겨. {그게 뭐죠? 산에 보면, 그 백합 같이 생겨, 빨, 약간 빨갛게 생겨.}
10317 # 에 그거뚜 이찌유 그거뚜 인는디 그 이르미 그거뚜 야:생 배카빈 모양여 그게. {예, 그것도 있죠, 그것도 있는데 그 이름이, 그것도 야생 백합인 모양이요, 그게.}
10317 @ 머라고 하던데 에 도라지. {뭐라고 하던데요, 예. 도라지.}
10317 # 도라지두 꼬뚜 그거 조치유 근디 그 싱물학짜 아닌데미는 그거 어트게. {도라지도 꽃도 그거 좋지요, 그런데 그 식물학자 아닌 다음에는(+이상에는) 그걸 어떻게.}
10317 @ 또 인제 사네 마니 나:능거 이쪼? 이거 막 캐먹능거 이쪼? 우리가 쪼금 옌나레 어려쓸 때. {또 인제 산에 많이 나는 거 있죠? 이거 막 캐먹는 거 있죠? 우리가 조금 옛날에 어렸을 때.}
10317 # 둥글레? {둥글레?}
10317 @ 아니 사네서 캐서 그거 저 뿌리 씨버먹꼬 그래짜나요? {아니, 산에서 캐서 그거, 저 뿌리 씹어먹고 그랬잖아요?}
10317 # 어 칙뿌리? {어, 칡뿌리?}
10317 @ 칙뚜 꼳 피조? {칡도 꽃 피죠?}
10317 # 그러치 칙뚜 오래데믄 꼳 피유 그거뚜. {그렇지, 칡도 오래되면 꽃 펴요, 그것도.}

1.3.4 마을 공동체 생활을 위한 일손

10327 @ 예저네는요 소:를 이제 어트게 길런는가에 대해서 좀 여쩌볼라고 하거든요. {예전에는요, 소를 이제 어떻게 길렀는가에 대해서 좀 여쭤볼라고 하거든요.}
10327 # 소요? {소요?}
10327 @ 예 그게 요 요즘과 비교애서 옌날 소는 어트게 길런는가 좀 말쓰매 주세요. {예, 그게 요, 요즘과 비교해서 옛날 소는 어떻게 길렀는가 좀 말씀해 주세요.}
10327 # 옌:나리는 소:를 메기는디 사료 가튼 거 업써죠 사룐 웁꾸 지:버고 인제 집 쓰:러서 따지머는 큰:: 가마소티다가 부:자드른 콩 머 쫌 느서 쌀머다 줜는디 그저 가나난 사람드른 소 메기는디 곡식 까튼 건 웁꾸 지:버구 저 쪼끔 이시면 저 느쿠서 쌀:머서 쌀머서 이러케 주어쓔. {옛날에는 소를 먹이는데 사료 같은 거 없었죠, 사료는 없고 짚하고, 인제 짚 쓸어서, 따지면 큰 가마솥에다가 부자들은 콩, 뭐 조금 넣어서, 삶아서 줬는데, 그저 가난한 사람들은 소 먹이는데 곡식 같은 건 없고, 짚하고 겨 조금 있으면 겨 넣고서 삶아서 이렇게 줬어요.}
10327 @ 잘 드러가요? {잘 들어가요?}
10327 # 쌀:머서. {삶아서.}
10327 @ 그러면요 고 금 그 요즈믄 소를 어트게 길러요? 그러믄 요즈믄. {그러면요, 고, 그럼, 그 요즘은 소를 어떻게 길러요? 그러면 요즘은.}
10327 # 요즈미야 소 메기기 쉬웁쭈 지금 사료 사료 주구 집쭈믄 그걸로 끈나니께 물 주구. {요즘에는 소 먹이기 쉽죠, 지금 사료, 사료 주고 짚 주면 그걸로 끝나니까, 물 주고.}
10327 @ 그럼 옌나레는 인제 소를요 기를 때 그 바께로 가서 사니나 드레다가 좀 매놔쓸꺼 아녀요? {그럼 옛날에는 인제 소를 기를 때, 그 밖으로 가서 산이나, 들에다가 좀 매어놨을 것 아니에요?}
10327 # 그러니께 들:파니다요 드:리다가 이런디 머더보믄 이제 사람 멍는 곡식 움는디다가 풀 나시믄 거기다 내:매구 디어매구 해써쥬. {그러니까 들판에다가요, 들에다가 이런데 뭐해보면, 이제 사람 먹는 곡식 없는 데다가, 풀 났으면 거기다 내매고, 들여매고 했었죠.}
10327 @ 뭘루 그 때는 그럼 소는 받, 그걸 맬 때는 멀루 주를 핸나요 그럼? {뭘로, 그 때는 그럼 소는 밧, 그걸 맬 때는 뭘로, 줄을 했나요, 그럼?}
10327 # 주를 새끼줄루 꽈:서 그 소이바라구. {줄을 새끼줄로 꼬아서, 그 소 바라고.}
10327 @ 소이바. {소 바.}
10327 # 소이바라구 그눔 지:다라케 해서 매놔찌 그러믄 그 엉절 다 뜨더머거. {소 바라고, 그 놈 기다랗게 해서 매어놨지, 그러면 그걸 다 뜯어먹어.}
10327 @ 그걸 오뜨 어따 매쓰요? {그걸 어디, 어디다가 맸어요?}
10327 # 그 따지믄 들:판 나무 가튼 거 움는디 이런디 가따 드러 맨는디. {그 따지면, 들판, 나무 같은 거 없는데, 이런 데에다 갖다 들어 맸는데.}
10327 @ 아니 그럼 저 소이 소바를 그냥 어디 거기는 나무다 부뜨러 매여 아니믄 말뚜글바가 써써요? {아니, 그럼 저 소이, 소이바를 그냥 어디, 거기에 있는 나무에다 붙들어 매요, 아니면 말뚝을 박아 썼어요?}
10327 # 에 말:뚝 소이 말:뚜기라구 이쓰요 그게 소이말뚜기다 바거노믄 나무 가튼 거 이씨믄 드가요 사람 움는디 댕기믄 안대거든유. 그러니께 이냥 내매구 드려매구 이러케 해서.

{예, 말뚝, 소 말뚝이라고 있어요, 그게 소말뚝에다 박아 놓으면, 나무 같은 거 있으면 들어가요, 사람 없는데 다니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냥 내매고, 들여매고 이렇게 해서.}
10327 @ 그럼 소러무를 여름 으 저 여름되면 여물 대시네 뭘로 소. {그럼 소여물을 여름, 으, 저 여름되면 여물 대신에 뭘로 소.}
10327 # 여르미요?{여름에요?}
10307 @ 예{예.}
10307 # 여르미는 까:를 벼저쥬 깔 풀: 보구서 그 때 까:리라고 해써. {여름에는 꼴을 베주었죠, 꼴, 풀보고 그 때 깔이라고 했어.}
10327 @ 깔 베는 얘기 좀 잠깐 좀 해주세요. {꼴 베는 이야기 좀, 잠깐 좀 해주세요.}
10327 # 그러니께 난 가라가꾸서 까를 비는디 까:를 인제 외벤냐 허머는 나슬 싹 까르야하거든요 잘 가러서 비야 난 안들머는 뿌리가 뾔피니께 뾔펴서 드러가머는 그게 소가 잘 안 먹짜뉴. {그러니까 낫 갈아가지고 꼴을 베는데, 꼴을 인제 왜 베냐 하면 낫을 싹 갈아야 하거든요, 잘 갈아서 베야, 낫 안들면 뿌리가 뽑히니까, 뽑혀서 드러가면 그게 소가 잘 안 먹잖아요.}
10327 @ 좀: 크게 저 잡 잡쏘리 안나게. {좀 크게, 저 잡, 잡소리 안나게.}
10327 @ 그럼요 고 까를요 그 주로 어떤 까를 주로 벼써요? {그럼 그 꼴을요, 그 주로 어떤 꼴을 주로 베었어요?}
10327 # 그러니께 고거는 인저 소가 메겨보머는 워:떤 푸를 잘 먹뜨라 하는 걸 아류. 그래서 그저 왁::새 가튼 거 이 띠: 가튼 거 요런 거 잘 멍는 푸를 데니머 굴러서 벼서 이거리 주어찌요. {그러니까 고거는 인제 소를 먹여보면 어떤 풀을 잘 먹더라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저 억새 같은 거, 이 띠 같은 거, 요런 거 잘 먹는 풀을 다니면서, 골라서 베서 이걸 주었죠.}
10327 @ 그럼 까른 벼서 오트게 가꾸와요 그건? {그럼 꼴은 베어서 어떻게 가져와요, 그건?}
10327 # 바:지개 그전 지끄믄 바:지개 가튼 거 웁써전는디 바:지개루 그 눔 벼서 바쳐노쿠서 요게 한주먹씩 지버서 그냥 머 쓸:꺼뚜 업씨 그냥 한주먹씩 지버줘쓔. {바지게, 그전, 지금은 바지게 같은 거 없어졌는데, 바지게로 그 놈 베어서, 받쳐놓고서 요렇게 한 주먹씩 집어서, 그냥 뭐 썰 것도 없이 그냥 한 주먹씩 집어줬어요.}
10327 @ 아:: 그 그 푸른 까른 기냥 줘 줘꾸만요. {아, 그, 그 풀은, 꼴은 그냥 줘, 줬구먼요.}
10327 # 예 기냥 지버 던저주믄 이 저 멍는 늠 골러서 머꾸 이러케 마니. {예, 그냥 집어서 던져주면, 이, 저 먹는 놈 골라서 먹고, 이렇게 많이.}
10327 @ 여르메는 주로 여무른 끄리지 안켄네요? {여름에는 주로 여물은 끓이지 않겠네요?}
10327 # 그러치 여 여르미는 여무를 안써찌요. 그러구서는 농사 지믄 집 싸놔따가 겨우리는 집 그 쓰:러서 소티다가 불 때서 쌀:머서 이러케 퍼줘찌유. {그렇지, 여, 여름에는 여물을 안썼지요.그러고서는 농사 지으면 짚 쌓아 놨다가, 겨울에는 짚, 그거 썰어서, 솥에다가 불 때서, 삶아서 이렇게 퍼줬지요.}
10327 @ 그럼 소죽 끄리믄 그 무리 생기자나요? {그럼 소죽 끓이면 그 물이 생기잖아요?}
10327 # 그러추. {그렇죠.}
10327 @ 그 소 여 머라고 그래요 그 무를? {그 소, 여, 뭐라고 그래요, 그 물을?}

10327 # 그게 소이무리라고 그 늠 퍼주야 그 물두 쭈룩쭈룩 머거가머 머기유. {그게 쇠죽물이라고, 그 놈 퍼줘야 그 물도 주룩주룩 먹어가면서 먹여요.}
10327 @ 이케보믄 그저니 보믄 애드리 옌날 발 안씩짜나요 때가 마느믄 거기가서 그양 그 가마소티 안자믄 배가 바리 부러짜나요 그에꺼 때싱는 그런 기억 나는데 여기도 그래써요? {이렇게 보면, 그전에 보면 아이들이 옛날에 발 안 씻잖아요, 때가 많으면 거기가서 그냥 가마솥에 앉으면 배가, 발이 불었잖아요, 거기다가 때 씻는 그런 기억이 나는데, 여기도 그랬어요?}
10327 # 그렁건 그렁건 난 츰: 츰: 드꾸 츰: 보는 소리유. {그런 건, 그런 건 난 처음, 처음 듣고 처음 보는 소리요.}
10327 @ 아니 옌나레는 애드리 바를 잘 안씨꺼써요. {아니, 옛날에는 아이들이 발을 잘 안 씻었어요.}
10327 # 옌:나리 때가 이러게 때가 여기에 쌔::카마케 이러케. {옛날에 때가, 이렇게 때가 여기에 새카맣게 이렇게.}
10327 @ 예 바레. {예, 발에.}
10327 # 우리가 써썬는디 멀. {우리가 꼈썼는데, 뭘.}
10327 @ 그걸 어트게. {그걸 어떻게.}
10327 # 아지처럼. {아지처럼.}
10327 @ 그러게 어트게 씩꺼요 그람요 그 때 씨슬라믄. {그러니까 어떻게 씻어요, 그럼 그 때 씻으려면.}
10327 # 아 어드게 지셔질테지 요게. {이, 어떻게 씻어질 테지, 요게.}
10327 @ 그렁게 보니까 그 솓 그 소죽 쓴디다 바를 담구며는 불자나요 그래서 그 때를 씨서 내더라고 나중에 그런 건 여기 아내써요? {그런 거 보니까 그 솥, 그 소죽 쑨 데다 발을 담그면 불잖아요, 그래서 그 때를 씻어 내더라고 나중에, 그런 건 여기는 안했어요?}
10327 # 난 보 츰봐쓰 츰: 드러쓰. {난 보, 처음 봤어요, 처음 들었어요.}
10328 @ 그럼요 소를 길르 기르기 위하면 시설과 도구가 이써야 델 거 아니에요 우선 소 기르는 어떤? {그러면 소를 기르, 기르려면 시설과 도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선 소 기르는 어떤?}
10328 # 소: 도구는 저 소: 구수. {소 도구는 저, 소 구유.}
10328 @ 구수. {구유.}
10328 # 응 소: 박끄를 뽀구서 구수라구 해쓰 구수. {응, 소 밥그릇보고 구유라고 했어요, 구유.}
10328 @ 구수는. {구유는.}
10328 # 구수두 소나무 소나무 여람드리루 파서 파서 구수를 맹그러쓰. 그런디 그 야중이는 그 쇠며니루 빼서두 맹그런는디 쇠며니루 허머는 겨우리 그 소 주머는 그 소이물 끄려서 주먼 쐬며는 이내 싱는때미 나무 구수가 제일 조타는겨 나무 구수. {구유도 소나무, 소나무 아름드리로 파서, 파서 구유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나중에는 그 시먼트로 빼서 만들었는데, 시멘트로 만들면, 겨울에 그 소를 주면 그 쇠죽물 끓여서 주면, 시멘트는 이내 식기 때문에 나무 구수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나무 구수.}
10328 @ 그러믄제 소가 기냥 한디다는 몯 키울꺼 아네요? {그러면 인제 소가 그냥 한데다가는 못 키울 것 아니에요?}
10328 # 그게 오양:까니라구 이찌 오양:깐 소: 방이 방이 지비 이써슈 방이. {그게 외양간

이라고 있지, 외양간, 소 방이, 방이, 집이 있었어요, 방이.}
10328 @ 어트게 만드러써요 오양까는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외양간은요?}
10328 # 그러니께 한:디다가 저 머 짜구 이러케 무나나에다가 이러케 해노쿠 그냥 거기다 디려매구 내매구 그래쥬. {그러니까 * 데다가 저, 뭐 짜고 이렇게, 문 하나에다가 이렇게 해 놓고, 그냥 거기에다 들여매고, 내매고 그랬죠.}
10328 @ 그럼 다 사방을 마가 줘껀네요. {그럼 다 사방을 막아 줬겠네요.}
10328 # 그러치 네모 빠드터게 마꾸서 인저 소 오줌 나오는디 호줌 누머는 이러게 오줌 나오는디 이러케 맹기러 노쿠서 오줌 거기루 가믄 오줌 퍼내구. {그렇지, 네모 반듯하게 막고서, 인제 소 오줌 나오는데, 오줌 누면, 이렇게 오줌 나오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오줌 거기로 가면 오줌 퍼내고.}
10328 @ 오줌 퍼내고 그러믄 거기 즈믄 소 자레다 멀 까라 줘쓸꺼 아녀, 소막 소마게다? {오줌 퍼내고, 그러면 거기 그럼 소 자리에다 뭘 깔아 줬을 것 아니에요, 소막, 소막에다?}
10328 # 그러추 그게 집:쌔라구 집:쌔 까라주믄 그거 저 안까러주믄 똥 머 몸떼기가 무꾸매로넙씽께 그 집쌔 까라주믄 그게 거르미여 퇴비. {그렇죠, 그게 짚새라고, 짚새 깔아주면 그거 저 안 깔아주면 똥, 뭐 몸뚱이에 가서 묻고 대책없으니까, 그 짚새 깔아주면 그게 거름이야, 퇴비.}
10328 @ 아 그거뚜. {아, 그것도.}
10328 # 예 그래서 야중이 차머는 소시랑으로 다 글거내:서 엽땡이 어따가 싸놔따가 그 늠바티다 내:구 그래쭈. {예, 그래서 나중에 차면은 소시랑으로 다 긁어내서 옆에, 어디에다가 쌓아 놨다가 그 놈 밭에다 내고 그랬죠.}
10328 @ 그럼 그 이제 여물 죽 끄릴 때요 주로 아까 멀루 끄리신다고 그래쪼 여물주근요? {그럼 그 이제 여물 죽 끓일 때요, 주로 아까 뭘로 끓이신다고 그랬죠, 여물죽은요?}
10328 # 여물주근 나무루 불 때서 끄리는디.{여물죽은 나무로 불 때서 끓이는데.}
10328 @ 그 여무레 드러가는 중마리에요. {그 여물에 들어가는 죽말이에요.}
10328 # 예 드러가능게 드러가능거 마내유 콩깍찌 드러가는 사람 콩깍찌 콩 뚜드리구서 거 깍지 나믄거더구 집 쓰러서 지버구 쌀마지는 사람두 이꾸. {예, 들어가는 게, 들어가는 거 많아요, 콩깍지 들어가는 사람, 콩깍지, 콩 두드리고서 그 깍지 남은 거하고, 짚 썰어서 짚하고 삶는 사람도 있고.}
10328 # 부:자찝뜨른 콩 가튼거 담거떠덛 거기다 느서 가치 쌀머서 쪼끔씩 요만:큼씩 느서 쌀머지기두어구 지금 고온 저 등저 이짜뉴?{부자집들은 콩 같은 거 담갔더던, 거기에다 넣어서, 같이 삶아서 조금씩, 요만큼씩 넣어서 삶기도 하고, 지금 고은 겨, 등겨 있잖아요?}
10328 # 등저 그늠 너따 한주먹씩 느서 서꺼서 이러케 메기구.{등겨 그놈 넣어서, 한주먹씩 넣어서, 섞어서 이렇게 먹기고.}
10328 @ 고 지븐 쓸라믄 무어스로 쓰러써요? {그 짚은 썰려면 무엇으로 썰었어요?}
10328 # 작:뚜. {작두.}
10328 @ 작두요? {작두요?}
10328 # 작:뚜 이거 우린 저 언태 이찌먼 그저니는 발루 발른 작뚜여써. {작두 이거, 우리는 저 아직까지 있지만, 그전에는 발로 밟는 작두였어.}
10328 @ 그 어트게 혼자. {그 어떻게, 혼자.}
10328 # 한사라믄 발:꾸 끈 다라서 발:꾸 한사라믄 메기구 이러케 대주구 쓰러서. {한 사람은 밟고, 끈 달아서 밟고, 한 사람은 메기고, 이렇게 대주고, 쓸어서.}

10328 @ 아:: 아 작뚜. {아, 아, 작두.}
10328 @ 어케 그럼 어트게 드러올릴 때는 멀로 드러오려써요? {어떻게, 그럼 어떻게 들어올릴 때는 뭘로 들어올렸어요?}
10328 # 예 그렁께 주리 이쓰 줄. {그러니까 줄이 있어요, 줄.}
10328 @ 아 그게 주를 너서. {아, 그게 줄을 넣어서.}
10328 # 주리 이써서 그느므로 들구서 발:찌. {줄이 있어서, 그놈으로 들고서 밟지.}
10328 @ 아 그럼 한사라믄. {아, 그럼 한 사람은.}
10328 # 예: 하나는 메기구.{예, 하나는 먹이고.}
10328 # 지끔 소 메기고 그땐 소 메기기도 어려워써. {지금 소 먹이고, 그 때는 소 먹이기도 어려웠어.}
10328 @ 옌나른 스 어트게 어려워써요 소? {옛날에는 소, 어떻게 어려웠어요, 소?}
10328 # 아 어려워쓰 그게 소 메기기두 보통 어려운게라 또 소 하나믄 재사니기때미 소를 그러게 끔찌기게 생가가구서 메겨쓰. {아, 어려웠어요, 그게 소 먹이기도 보통 어려운지라, 또 소 하나면 재산이기 때문에, 소를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하고서 먹였어요.}
10328 @ 아 옌나레. {아, 옛날에는.}
10328 # 에 그저니는 에:: 소 한마리 농어소 사자먼 쌀 스무짝. {예, 그전에는 에, 소 한 마리, 농우(+농사짓는 소)소 사려면 쌀 스무 짝.}
10328 @ 잉:: 그러케 비싸. {응, 그렇게 비싸.}
10328 # 쌀 스무짝 가지야 농어소 사쓰. {쌀 스무 짝 있어야 농우 소 샀어요.}
10328 @ 그래서 그런가 소에다가 겨우리면 등어리다 머 싸. {그래서 그런지 소에다가 겨울이면 등허리에다가 뭐 싸.}
10328 # 아::이구 덕썩 덕써기라구 겨우리 춥따구 추워 헌다구 그냅따 그늠 여 싸매줘찌. {아이구, 덕석, 덕석이라고, 겨울에 춥다고, 추워한다고 그 냅다 그놈 여기 싸매줬지.}
10329 @ 그럼 여기 인제 나오네요 나므집 소를 머기는 저 방시기 인나바요. 옌날레는 주로 아까 소가 비싸니까 그럼 남 나므소를 머기는 방시게는 어떵 게 인나요? {그럼 여기 인제 나오네요, 남의 집 소를 먹이는, 저 방식이 있나 봐요. 옛날에는 주로, 아까 소가 비싸니까, 그럼 남, 남의 소를 먹이는 방식에는 어떤 게 있나요?}
10329 # 나미소? {남의 소?}
10329 @ 예. {예.}
10329 # 아: 나미 소라구 그게 도주라구 인저 나미소 메기는디 움는 사라미 나미소 메기지 안커슈? {아, 남의 소라고, 그게 도조라고, 인제 남의 소 먹이는데 없는 사람이 남의 소 먹이지 않겠어요?}
10329 # 그게 소 장 이 여러마리 나서 난 사라미 인저 움는 사라미 그거 하나 수:내라구 수::내 수내쏘라구 가따 메기믄 수:내쏘라구 가따 메기머는 고게 인저 그 소 임:자아구 조야글 다래며.{그게 소, 장, 이 여러 마리 낳아서, 낳은 사람이 인제 없는 사람이 그거 하나 수내라고, 수내, 수냇소라고 가져다가 먹이면, 수냇소라고 가져다가 먹이면, 그게 인제 소 임자하고 조약을 맺어요.}
10329 # 이 새끼 송아치 사닥끈 주문 그느믈 한 이: 년 이: 년꺼전 데야지 한 심뉴깨월 십칠개월이야 새끼 들거든유. {이 새끼 송아지 사다주면, 그놈을 한 이 년, 이 년정도 되면 한 십육 개월, 십칠 개월이면 새끼 들거든요.}
10329 # 그러믄 그거뚜 심뉴깨월 드르머는 십깨월마니 새끼가 나니께 이심유깨월이라 새

끼 하나 빼잔남? {그러면 그것도 십육 개월 들면 십 개월만에 새끼를 낳으니까, 이십육 개월이면 새끼 하나 빼잖아요?}
10329 # 새끼 하나 바꾸서 큰 소 내:주는 사람두 이꾸 그러케 메기기두 허구 또 인저 소를 가져오믄 그 때 따지믄 송아치 소가 한마리 에:: 따지믄 지그믄 아마 뱅마너니다. {새끼 하나 받고서 큰 소 내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먹이기도 하고, 또 인제 소를 가져오면, 그 때 따지면 송아지, 소가 한 마리 에, 따지면 지금은 아마 백만 원이다.}
10329 # 백뱅넌 처:서 인저 가따 메기머는 에 처서 메겨가지구서 이 소를 가따가 이제 내가 너미소 수내 어더다 파라따.{백만 원 쳐서, 인제 가져다가 먹이면은 에, 쳐서 먹여 가지고서 이 소를 가져다가 이제 내가 남의 소 수내 얻어다 팔았다.}
10329 # 그러믄 이뱅마넌 바다따 할 꺼 가트머는 본전 뱅마너니 가져온 본저늘 소 임자 주구서 뱅마넌 가지구 두리 또까치 논는 그게 반:적소라구 그게 이써슈.{그러면 이백만 원 받았다 할 것 같으면, 본전 백만 원에 가지고 온 본전을 소 임자 주고서, 백만원 가지고 둘이 똑같이 나누는 그게 반작소라고, 그게 있었어요.}
10329 @ 아: 고건 그게 반적쏘라고 그래요, 에 반적쏘. {아, 그건 그게 반작소라고 그래요, 예, 반작소.}
10329 # 그게 수내라구 수내는 인저 외냐믄 소 가따가 메겨서 새끼 빼서 내 각꾸 소 임자 소 임자 에미는 내주는 거. {이게 수내(+수냇소)라고, 수냇소는 인제 왜냐하면 소 가져다가 먹여서 새끼 빼서 내가 갖고, 소 임자, 소임자 어미는 내주는 거.}
10329 @ 아: 새깨만 간는다. {아, 새끼만 갖는다.}
10329 # 그게 이써꾸 그래찌요. {그게 있었고, 그랬지요.}
10330 @ 그러면요 그 배내쏘라는 거뚜 이써요, 배내쏘? {그러면요, 그 배냇소라는 것도 있어요? 배냇소.}
10330 # 배내쏘? {배냇소?}
10330 @ 예 어우리쏘 이런 말. {예, 어우리소, 이런 말.}
10330 # 그건 난 츰 든는 소린디 어우리쏘 배내쏘? 배내쏘라는 건 난 이름두 몰류. {그건 난 처음 듣는 소리인데, 어우릿소, 배냇소? 배냇소라는 건 난 이름도 몰라요.}
10330 @ 이런 거 아까 수내쓰 저 머지? 수내 예{이런 거, 아까 저 수냇소, 저 뭐지? 수내, 예}
10330 # 수:내 보구서 배내라구 하는구나. {수내 보고서 배내라고 하는구나.}
10330 @ 어우리 어우리쏘란 게? {어우리, 어우릿소라는 게?}
10330 # 어우리쏘라는 거슨. {어우릿소라는 것은.}
10330 @ 반쩍쏘를 말하는. {반작소를 말하는.}
10330 # 에: 어우리쏘라는 거슨 반적소 얘기허느먼 어지가니 큰눔 가따가 따지머는 그 본:가블 저처노쿠서 나머지 남는 그맥 가꾸 노너넝 거 그게 어우리쏜게구먼 그려 그게 반적쏘라구 여기선. {에, 어우릿소라는 것은 반작소, 얘기하늠구먼, 어지간이 큰 놈 갖다가, 따지면 그 본값을 제처놓고서, 나머지 남는 금액 가지고 나누는 거 그게 어우리소인게구먼, 그게 반작 소라고 여기에서는.}
10330 @ 예 도주 아까 도주란 마른. {예, 도조, 아까 도조라는 말은.}
10330 # 에 도줃쏘나 그거나 가트요 그게. {예, 도줏소(+수냇소)나 그거나 같아요, 그게.}
10330 @ 아: 가튼 마리에요? 예에 그럼 이게 마닐 그러다가요 키우는 중에 소가 주꺼나 그럼 어트게 되요? {아, 같은 말이에요,예에, 그럼 이게, 만일 그러다가 키우는 중에 소가

죽거나, 그럼 어떻게 돼요?}
10330 # 나 고거 괄량은 건 언태 그거 아내바씽께 몰르거쓰 마냐게 그게 실패 하머는 다 서로 실패안 게지 머 상관웁씨 저 머덜테지 아 암꺼뚜 웁써서 가따 소 메기는 사라미 소 메기다 주거씨머는 그거 머 두니씨야 가저가지 난 그런 저근 웁쓰니께 몰류요 그건. {나 그거 관련해서는, 그건 아직까지 그거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게 실패하면 다 서로 실패한 거지, 뭐 상관없이 저 못 할테지, 아, 아무것도 없어서 가져다가 소 먹이는 사람이 소 먹이다 죽었으면, 그거 뭐 돈이 있어야 가져가지, 난 그런 적은 없으니까 몰라요 그건.}
10330 @ 지그믄 소 주그멍 그냥 다 무찌만 옌나레 그냥 소 주거도 동네서 기냥 좀 자바머꼬 그래짜나요 주근 소? {지금은 소 죽으면 그냥 다 묻지만, 옛날에는 그냥 소 죽어도 동네에서 그냥 좀 잡아먹고 그랬잖아요, 죽은 소?}
10330 # 그러추 그 그저니두 외놈 쩌기만 해두 소 주그먼유 먹찌 모더게 하느라고 가따 무더씨요. {그렇죠, 그, 그전에도 왜놈 적에만 해도 소 죽으면 먹지 못하게 하느라고 갖다 묻었어요.}
10330 @ 아 그때도? {아, 그때도?}
10330 # 무던는디 주근 소 가따 무던는디 바:미 몰:래 머다 파다 머거찌 다 파서 막 노 노너 머거찌 지끄믄 머그라구두 안머교. 파다 머거따니께 그래서 그저니는 그 배 갈라서 거기다 똥 인:분 가따 퍼서 거기다 부어서 가따 무더무더무더 무더뻐려 파다 몬머께 할라구. {묻었는데, 죽은 소 가져다가 묻었는데, 밤에 몰래 몯아, 파다가 먹었지, 다 파서 막 나, 나눠 먹었지, 지금은 먹으라고 해도 안 먹어요. 파다가 먹었다니까, 그래서 그전에는 그 배 갈라서 거기에다가 똥, 인분 가져다가 퍼서 거기에다가 부어서 가져다가 묻어, 묻어, 묻어, 묻어버려, 파서 못 먹게 하려고.}
10331 @ 그럼 이제 소를 길드릴 때 어떠케 하는지에 대해서 좀 기드릴 아까 머 소를. {그럼 이제 소를 길들일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길들일, 아까 뭐 소를.}
10331 # 에 갈치는 거 얘기하죠? {에, 가르치는 거 이야기 하는 거죠?}
10331 @ 갈치는 거 쫌 에. {가르치는 것 좀, 예.}
10331 # 소 갈치는 거 한:: 식깨월 그 송아지 떼:서 한 식깨월 정도먼 새끼 들정도 거저 데자나요 인저? {소 가르치는 거 한 십개월, 그 송아지 떼서 한 십개월 정도면, 새끼 들어설 정도 되잖아요, 인제?}
10331 # 그때버터 갈치기 시자개유 저 갈치기 어려유. {그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해요, 저 가르치기 어려워요.}
10331 @ 그럼 송아 처음 나서부터 한 십개월 데믄 가르치나요? {그럼 송아지 처음 나서부터 한 십개월 되면 가르치나요?}
10331 # 예: 그때부텀 식깨월 무:때서부텀 갈치야 데요 갈치는디 저게 무슨 짐승이고 광:구지 아느믄 몯 갈치유 강:구야지. {예, 그때부터 십개월 못 돼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는데 저게 무슨 짐승이고, 광구지 않으면 못 가르쳐요, 광구야지.}
10331 @ 강:궈요? {광궈요?}
10331 # 그런께 강:군다구 요러케 사랑스러께 강:군다구. {그러니까 광군다고 요렇게, 사랑스럽게 강군다고.}
10331 @ 그러면요 그 기냥 소는 우선 그 코를 뚭짜나요? {그러면,그, 그냥 소는 우선 그 코를 뚫잖아요?}
10331 # 예 뚜러쥬. {예, 뚫었죠.}

10331 @ 그걸 그걸 머라고 그래요? {그걸, 그걸 뭐라고 그래요?}
10331 # 그걸 무서 뚜러찌 그닝까. {그걸 우선 뚫었지, 그러니까.}
10331 # 코 뚜러쓰 코뚜레기. {코 뚫었어요, 코뚜레.}
10331 @ 그럼 코뚜레::를. {그럼 코뚜레를.}
10331 # 그러구 부리는 소는 소를 코를 안뚜르머는 사라미라 후이질 모뎌 예: 그렁게 코뚜레를 꼭 뚜러서 해야 꼼짝 모더게 해야 갈치지 코: 뚤치 안쿠는 꼼짝 무대유. {그러고 부리는 소는, 소를 코를 안 뚫으면은 사람이 다루질 못해, 예, 그러니까 코뚜레를 꼭 뚫어서 해야 꼼짝 못하게 해야 가르치지, 코 뚫지 않으면 꼼짝 못해요.}
10331 @ 어르시니 한번 코 뚜러 보셔써요? {어르신이 한번 코 뚫어 보셨어요?}
10331 # 아 저 지크 지큼 저 뚜른거요. {아, 저 지금, 지금 저게 뚫은 거에요.}
10331 @ 한번 그 코 뚬는 과정 좀 한번 얘기해 봐요. {한번, 그 코 뚫는 과정 좀 한번 이야기 해주세요.}
10331 # 그러니께 요게 요러케 사람도 요러케 지우믄 요 얄따란디 이짜뇨? {그러니까 요게, 요렇게 사람도 집으면 요기 얇은 데 있잖아요?}
10331 @ 예 코아네 예. {예, 코 안에, 예.}
10331 # 고게 얄따란디를 소를 이러게 한참 요러케 주무르다가 인저 그 그 세는 그저니께 지끄믄 머 세 세루 뚜러두 상관 옴는디 그 때는 야기 인나 머핸나 그 도끼 올르깨미 나무 단다난 나무 빼쪼기 까꾸 그 뚜려. {거기 얇다란 데를, 소를 이렇게, 한참 요렇게 주무르다가 인제 그, 그 쇠는 그전에, 지금은 뭐 쇠, 쇠로 뚫어도 상관 업는데, 그 때는 약이 있나, 뭐가 있나, 그 독이 오를까봐 나무, 단단한 나무를 뾰쪽하게 깎고 그 뚫어.}
10331 # 뚜러서 코뚜레 그저니 나무 코뚜레 저 상나무나 머 후여가지구 놔따가 그늠 저 오주미나 사람 저노주미나 담가놔 그게 따지믄 소도기여 그게. {뚫어서 코뚜레, 그전에 나무 코뚜레, 저 향나무나 뭐 휘여어가지고 놨다가, 그놈 저 오줌이나, 사람 전오줌에다 담가놔, 그렇게 따지면 소독이야, 그게.}
10331 @ 예:. {예.}
10331 # 저 머 저 여기 던나지 말라구 그러구서 그느므로 꿰서 뚜러서 이러케 군조기 채지. {저 뭐, 저 여기 덧나지 말라고, 그러고서 그놈으로 꿰서, 뚫어서 이렇게 군더더기 채우지.}
10331 @ 그러면 인제 그게 그 저 저 어떤 샹나무나 노광지나, 노와 노가지. {그러면 인제 그게 그, 저, 저 어떤 향나무나 노간주나, 노가, 노간주.}
10331 # 에 노가지나무. {예, 노간주나무.}
10331 @ 노가지나문데 그 코를 인제까 그 오드믈 잠거따가 또 야깐 부를 쬐나요 따뜨다게? {노간주나무인데, 그 코를 인제 그 오줌에 담궜다가, 또 약간 불을 쬐나요, 따뜻하게?}
10331 # 그러츄 따뜨더게 쬐는 게 인저 그 그 또 소도건다구 인제 부리다 쫜:는디 그게 휠:쩌기 그러구 그 휠:쩌기. {그렇죠, 따뜻하게 쬐는 게, 인제 그, 그 또 소독한다고 인제 불에다 쬈는데, 그게 휠 적에, 그러고 그 휠 적에.}
10331 @ 예. {예.}
10331 # 휠::쩌기 부리다가 구야 그 나무가 이러케 요케 훼져. {휠 적에 불에다가 구워야 그 나무가 이렇게 이렇게 휘어져.}
10331 @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0331 # 꼬투리를 휘여 놔따가 여다 채야지:. {끝을 휘여 놨다가, 여기에다가 채워야지.}

10331 @ 그럼 코를 뚤먼 그냥 생코를 뚬는 거 소가 가마니 이써요 막? {그러면 코를 뚫으면 그냥 생코를 뚫는 건데 소가 가만히 있어요, 막?}
10331 # 아: 지라를 꽁 무꺼 매야여 저 워디 큰 나무나 어따 쓰러지지 안는 나무다가 요기 꼼짝 무더게 무꺼 매야지 그게 그거 막 아프니께 지라러는 걸 사라미라 당하거쑤 그거? {아, 지랄을, 꼭 묶어야 해, 저 어디 큰 나무나 어디에다가, 쓰러지지 않는 나무에다가 요기 꼼짝 못하게 묶어야지, 그게, 그거 막 아프니까 지랄하는 것을 사람이 당하겠어요, 그거?}
10331 @ 그래서 고걸 그 뚬는구먼요. {그래서 고걸 그, 뚫는구만요.}
10331 # 예. {예.}
10331 @ 그럼 뚭꼬나면 저 민간요뻐브로 소 코 아네다 멀 발라줘야 되자나요? {그럼 뚫고 나면, 저 민간요법으로 소 코 안에다 뭘 발라줘야 되잖아요?}
10331 # 그러츄 지끄믄. {그렇죠, 지금은.}
10331 @ 약 바르면. {약 바르면.}
10331 # 저 아까징끼 그 소독약 쫌 해유. {저 옥도정기, 그 소독약 좀 해줘요.}
10331 @ 옌나레는 머앧찌요? {옛날에는 뭐 했지요?}
10331 # 옌:나리는 오줌 거기다가 저노줌 저노줌 발르구 사라미라 거기다 대고 오주믈 눠써. {옛날에는 오줌, 거기다가 전오줌, 전오줌 바르고, 사람이 거기다 대고 오줌을 눴어.}
10331 @ 저노지미믄 오래댄 오줌? {전오줌이면 오래된 오줌?}
10331 # 아니 저노주미 사라미라 임신 오줌 매려우먼 거기다 대고 누워따니께 코에다 대고. {아니, 전오줌이, 사람이 임시, 오줌 마려우면 거기다 대고 눴다니까, 코에다 대고.}
10331 @ 코에다 대구요? {코에다 대고요?}
10331 # 예 던 던나지 말라구. {예, 덧, 덧나지 말라고.}
10331 @ 그러믄 코 뚤브믄 대개 메치리믄 아므러요, 그럼? {그러면 꼬 뚫으면 대개 며칠이면 아물어요, 그럼?}
10331 # 고거 메칠 안가서 아무류 그게 잘만 뚤머는 피두 안나유 고기가. {그거 며칠 안 가서 아물어요, 그게 잘 뚫으면 피도 안 나요, 거기가.}
10331 @ 그럼 인제 코뚜레를 뚤꼬 머 멀. {그럼 인제 코뚜레를 뚫고, 뭐, 뭘.}
10331 # 이 군:졸기 채야지 이러케. {이, 굴레 채워야지, 이렇게.}
10331 @ 군졸기. {굴레.}
10331 # 군:졸기라구 끄냉이 이러케 해서 이러케 내믄서 요기서 게삐 그 줄 자바대리믄 쌩겨서 꼼짝 모더게 그거 매노치 아느믄 꼼짝 모뎌 참 저 사라미라 모땅애요. {굴레라고 끈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면서, 요기서 고삐 그 줄 잡아 당기면 껴서 꼼짝 못하게, 그거 매어 놓지 않으면 꼼짝 못해, 참 저 사람이라 못 당해요.}
10331 @ 고 괴:삐는 멀루 만드러요, 그럼? {고 고삐는 무엇으로 만들어요, 그럼?}
10331 # 그저니는 집쭐루 샌내끼 지브루 이러케 이 저 여러번 해서 지브루 핸는디 지끄믄 끈 월마나 조아요 나이롱끈. 지끔 나이롱 끄느로 허지. {그 전에는 짚줄로, 새끼, 짚으로 이렇게 이, 저 여러 번 해서 짚으로 했는데, 지금은 끈 얼마나 좋아요, 나일롱 끈. 지금은 나일롱 끈으로 하지.}
10331 @ 요기 요기 띠루 띠루. {요기, 요기, 띠로, 띠로.}
10331 # 고러케 해가지꾸서 에 갈칠라머는 끌꾸 대니먼서 인제 갈치는디 월마 안갈처두 저게 되여. {그렇게 해가지고서 에, 가르치려면 끌고 다니면서 인제 가르치는데 얼마 안 가르쳐도 저게 돼요.}

10331 @ 그러믄 기냥 어트게 쫌. {그러면 그냥 어떻게 좀.}
10331 # 끄:새. {끌개.}
10331 @ 끄새? {끄새?}
10331 # 끄:새 맹기러서 이 멍에루 해서 모가지다 채 가지구 인저 이 밀구 점 대니먼서 이러케 끌쿠 대니먼서 띠:서 좀 무거야 하니께. {끌개 만들어서 이 멍에로 해서 모가지에다 채워 가지고, 인제 이 밀고 좀 다니면서,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뒤에서 좀 묶어야 하니까.}
10331 # 쟁기대먼 월마나 무겁꺼쓰? {쟁기를 대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10331 @ 그르초. {그렇죠.}
10331 # 그렁께 쟁기 댄 정도 처으미는 개볍께 쪼금 끌쿠 대니다 차차 차차 무겁께 끌케혀. 혀서 야중이는 인저 구루마에 인는 사람드른 구루마에다 채가지구서 끌쿠 대니구 이제 저저 소리만 알먼 데니께. {그러니까 쟁기 댄 정도, 처음에는 가볍게 조금 끌고 다니다가, 차차, 차차 무겁게 끌게 해. 해서 나중에는 인제 구루마에 있는 사람들은 구루마에다 채워 가지고 끌고 다니고, 이제 저저 소리만 알면 되니까.}
10331 @ 음 그럼 끄새라고 하능게 머 사라미 올라타는. {음, 그럼 끌개라고 하는 게, 뭐 사람이 올라타는?}
10331 # 그러치 올러타 도는 게 그게 그 솔까지 머 널븐늠: 끄너서 거기다 판파나게 방석 깔구 애덜두 실:쿠 대니구. {그렇지, 올라타 도는 게, 그게 그 솔가지 뭐 넓은 놈 끊어서 거기다 판판하게 방석 깔고, 아이들도 싣고 다니고.}
10331 @ 아: 고러케애서 한참 그:. {아, 고렇게 해서 한참 그.}
10331 # 한:차미 아니라 메:치릴 메:칠 끌쿠 대녀요. {한참이 아니라 며칠, 며칠 끌고 다녀요.}
10331 @ 그래야지 아라 드러요? {그래야지 알아 들어요?}
10331 # 에 그래서 이저 해야 이 아라드꾸 저거 아라든는 소는 사람보다 나스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야 알아듣고, 저거 알아듣는 소는 사람보다 나아요.}
10331 @ 그래요? {그래요?}
10331 # 에: 자::라지 스라고 그러먼 워: 허먼 스구 이러: 허먼 가구 저저: 허먼 저짜그로 가구. {예, 잘하지, 서라고 그러면 워하면 서고, 이러하면 가고, 저저하면 저쪽으로 가고.}
10331 @ 그러믄 인제 고 인제 고러케 인제 갈친 소는 그 첨부터 쟁기루 가나요 쟁기? {그러면 인제, 그 인제 그렇게 가르친 소는 그 처음부터 쟁기로 갈아요, 쟁기?}
10331 # 그러니께 고러케 해서 저 그 끄:새질 허다가 이제 말뀌 좀 어러가니 드꾸 저저: 쏘리두 알구 워: 쏘리 알구 이러 쏘리 알머는. {그러니까 고렇게 해서 저, 그 끄새질 하다가 이제 말귀 좀 어지간히 듣고, 저저 소리도 알고, 워 소리 알고, 이러 소리 알면은.}
10331 # 그때서 쟁기를 가따 대구 해보능거여. 에 그런디 그게 쟁기 대보머는 소가 고러케 갈처노먼 이제 한 번 가믄 골:망 이실꺼 아뉴? {그 때야 쟁기를 갖다 대고 해보 는거야. 에, 그런데 그게 쟁기 대보면은, 소가 그렇게 가르쳐 놓으면 이제 한 번 갈면 고랑 있을 거 아니에요?}
10331 @ 예. {예.}
10331 # 이 골:망을 조아여 꼭 골:망으로 가지 이거 아주 판파나게 그러니께 찰 그 허는 느믄 말 잘 든는 느믄 쪽쪽 고케 가 갈 수 이찌. {이 고랑을 좋아해, 꼭 고랑으로 가지, 이거 아주 판판하게, 그러니까 잘 그, 하는 놈은, 말 잘 듣는 놈은 쪽쪽 그렇게 갈, 갈 수 있지.}

10331 @ 아 빤드타게 고 사라미. {아, 반듯하게, 그 사람이.}
10331 # 자:래요 아 농사 그저니 소라 다 저찌 머 논받 싹 다 소라 갈구 논 쓰:리는 거뚜 소라아구 다 해찌. {잘해요, 아, 농사 그 전에 소가 다 지었지 뭐, 논밭 싹 다 소가 갈고, 논 써리는 것도 소가 하고 다 했지.}
10332 @ 그럼 인제 그 소를 부릴 때 그 아까 쫌 말씀 해주션는데요 그 소 모;는 소리를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어트게 소를. {그럼 인제 그 소를 부릴 때, 그 아까 좀 말씀해주셨는데요, 그 소 모는 소리를 한 번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소를.}
10332 # 그러니께 이러: 허구. {그러니까 이러하고.}
10332 @ 어뜬디? {어떤 때?}
10332 # 저짜그로 가믄 그러니께 인저. {저쪽으로 가면, 그러니까 인제.}
10332 @ 아프로 쪼금. {앞으로 조금.}
10332 # 아프로 가는 건 이러 이 저저저저 허믄 저짜그로 가고. {앞으로 가는 건 이러, 이 저저저저하면 저쪽으로 가고.}
10332 @ 오 오른쪽 에. {오, 오른쪽, 예.}
10332 # 그언저 옌쪼그로 이러케 가구 저저허먼 오른쪼그로 올라먼 개삐 자버 다니먼서 저 부처 부처 허먼 드꾸 사라보다 나따니께 아주. {그건 저 왼쪽으로 이렇게 가고 저저 하면, 오른쪽으로 오려면 고삐 잡아 당기면서 저 부처부처하면 듣고, 사람보다 낫다니까 아주.}
10332 @ 또 인제 뒤루. {또 인제 뒤로.}
10332 # 뒤로먼 무:러 인제 쟁기가 허다가 쟁기가 잘모뙤서 원 돌파기다 걸려따든지 나무 뿌리가 걸려따든지 허머는 소가 무거우니께 서실 꺼 아녀? {뒤로 면 무러, 인제 쟁기 하다가, 쟁기가 잘못돼서 원 돌뿌리에 걸렸다든지, 나무 뿌리가 걸렸다든지 하면 소가 무거우니까 서 있을 거 아냐?}
10332 # 그러먼 무:러 무:러 해야혀 그 사라미 시므루 무:빼니께: 에 그래서 무:러 무:러허구 자버대리먼 뒤루 이러케 후테 혀 소가. {그러면 무러무러 해야 해, 그 사람이 힘으로 못 빼니까, 에, 그래서 무러무러 하고 잡아당기면, 뒤로 이렇게 후퇴해.}
10332 @ 아니 소 외 질 잘 드른 손 지 가다가 돌 거튼데 걸리먼 딱. {아니 소, 왜 길 잘 들은 소는 길 가다가 돌 같은데 걸리면 딱.}
10332 # 아 지:라 스요 그건. {아, 자기가 서요, 그건.}
10332 @ 사라미 안스는디. {사람이 안 서는데.}
10332 # 스는디 나무 뿌리 가튼 거는 이 쟁기 이러케 이씨먼 가운데가 냅따 이따고리 나무 뿌리가 걸려따 그러먼 그거 워트게 머 서써두 빼는 재주 웁찌. 그러게 무:러 무:러 허먼 뒤루 뭉친다니께. {서는 데 나무 뿌리 같은 거는, 이 쟁기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에 냅다 이만한 나무 뿌리가 걸렸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뭐 섰어도 빼는 재주 없지. 그러니까 무러무러하면 뒤로 빠진다니까.}
10332 @ 그러먼 인제 그: 소 일 자라는 소는 바슬 하루에 마:니 가나요? {그러면 인제, 그 소, 일 잘하는 소는 밭을 하루에 많이 가나요?}
10332 # 그러치요 그때는 여 삭:까는 게 이꾸 인저 그 아시가는 게라구 논: 가를 쩌게는 생가리 웁쉬 그냥 가는 게 삭:까리 삭:까는 거구. {그렇지요, 그때는 삭가는 게 있고, 인제 그 초벌 가는 거라고, 논 갈 적에는 생갈이 없이 그냥 가는 게 삭갈이, 삭가는 거고.}
10332 # 논: 갈 쩌게는 이게 마더퍼써 이러케 이게 두벌 갈 쩌기는 그 눔 째:가꾸 이제 이

러케 이러케 바는 냉겨찌. {논 갈 적에는 이게 맞 덮었어 이렇게, 이게 두벌 갈 적에는 그 놈 잘라 갖고 인제 이렇게, 이렇게 반은 남겼지.}
10332 # 그러먼 그게 두벌 간다구 허는겐디 이 두벌 가능거는 논: 한 열:마지기 찰 을 저: 농어쏘 조:은 느믄 열:마지기 간다고 하니껴 자:라는 소는 일 자::래요. {그러면 그게 두벌 간다고 하는 건데, 이 두벌 가는 거는 논 한 열 마지기, 잘, 을, 저 농우(+농삿소) 소 좋은 놈은 열 마지기 간다고 하니까, 잘하는 소는 일: 잘해요.}
10332 @ 어 그래요? {어, 그래요?}
10332 # 사람보다 나서. {사람보다 나아.}
10332 @ 그 그니까 소와 막 뜨더 머글까바 이랄 때 머 씨우더라구요? {그, 그러니까 소가 막 뜯어 먹을까 봐 일할 때 뭘 씌우더라고요?}
10332 # 소 소망 소망 망 씨워가꾸 풀 뜨더 머거싸먼 배 고프먼 풀 뜨더 머거싸먼 워트게 헐 수가 업꺼든. {소, 소 부리망, 소 부리망, 망 씌워 갖고, 풀 뜯어 먹으면, 배 고프면, 풀 뜯어 먹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
10332 @ 그러믄 그 소 인제 암소 이짜나 새끼 인는 암소는 그 받 꺼튼 거 갈 때 새끼두 따라다녀요? {그러면 그, 소 인제 암소 있잖아, 새끼 있는 암소는 그 밭 같은 거 갈 때 새끼도 따라다녀요?}
10332 # 그러지 새끼두 따라대뉴 에: 따라 대니그먼서 꼭 디:지게 째:끄만 거기 그런디 수주라니루 막 드러가기두 허구 별짇 따애서 아주 구차녀. 그래서 엽땡이 소 에미 뵈:는 데다가 모가지 해서 엽땡이다 말뚝 빠꾸 매노야여. {그렇지, 새끼도 따라 다녀요, 에, 따라 다니면서 꼭 아주 쪼그만 거기, 그런 데 소 줄 안으로 막 들어가기도 하고, 별짓 다해서 아주 귀찮아요. 그래서 옆에 소 어미 보이는 데다가 모가지 해서 옆에다 말뚝 박고 매 놔야 해.}
10332 @ 아: 모가지 이걸?. {아, 모가지 이걸?} # 예. {예.}
10332 # 매노먼 큰 소가 거기 새끼 이씨머는 아무 소리 아녀. {매 놓으면, 큰 소가 거기 새끼 있으면 아무 소리 안해.}
10332 @ 아 안보이면? {아, 안 보이면?}
10332 # 뵈:지 아느먼 먼 이루 뛰구 저루 뛰구애가꾸서 저 머 소 모뿌리유. {보이지 않으면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 갖고서 저, 뭐 소 못 부려요.}
10332 @ 이 소가 그 새끼 대안. {이 소가 그 새끼 대한.}
10332 # 에 새끼 뵈:는 데다 매노야지 그 논 갈믄 요 논 갈믄 요기 노늘 갈믄 엽땡이다가 매:노야여. {예, 새끼 보이는 데다 매 놔야지, 그 논 갈면, 여기 논 갈면, 여기 논을 갈면 옆에다가 매 놔야 해.}
10332 @ 그럼 갠차나요 또? {그럼 괜찮아요, 또?}
10332 # 그러케 해노쿠 가래. {그렇게 해놓고 갈아.}
10332 @ 소 일 그 일 시키는 방법도 여러가지네요. {소 일, 그 일 시키는 방법도 여러가지네요.}
10333 @ 그럼 인제 소: 인제 색까레 거 모양에 따라 그 부르는 이르미 따로 인나요? 소 색까레 따라서 부르는 이르미? 예를 들먼. {그럼 인제, 소 인제 색깔에, 거 모양에 따라 그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나요? 소 색깔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예를 들면.}
10333 # 그러치오 그런디 새까리 웁꾸 여기는 그 하:누 그 저 저 머 황 점 저 누런 소 배끼 웁썬는디 그저니는 거 얼룩쏘두 점 생기구 야중이. {그렇죠, 그런데 색깔이 없고, 여기는 그 한우, 그, 저, 저, 뭐, 황, 좀, 저 누런 소밖에 없었는데, 그 전에는 거 얼룩소도 좀 생기

고, 나중에.}
10333 @ 얼룩쏘는 어트게 뎅걸 얼룩쏘? {얼룩소는 어떻게 된 걸 얼룩소?}
10333 # 그냥 얼루걸룩 헝게 얼룩쏘지 이 이러케 저 꺼먹쩌미 배겨써. {그냥 얼룩얼룩하니까 얼룩소지, 그러니까 저 껌은 점이 박혔어.}
10333 @ 아 이런 손데요? {아, 이런 소인데요?}
10333 # 에 꺼먹쩜 배긴 소가 나와써서 그게. {예, 껌은 점 박힌 소가 나왔었어, 그게.}
10333 @ 에:: 그런 소는 흐나지는 아나껜네요? {예, 그런 소는 흔하지는 않았겠네요?}
10333 # 그러츄 그러니께 그거뚜 금:두 약커구 그게 또 점배기 가튼 건.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금도 약하고, 그게 또, 점박이 같은 건.}
10333 @ 아 점배기. {아, 점박이.}
10333 # 에 점배기 원 거. {예, 점박이 원 그거.}
10333 @ 또 검정소나 껌정소라는 게 이써요? {또 검정소나 껌정소라는 것도 있어요?}
10333 # 그래 이 껌정소도 이써슈 그래 껌정소 아주 다 꺼믄 게 아이라 이 얼굴 원만 껌꾸 또 몸땡이는 누:러쿠 헌 거뚜 이꾸. {그래, 이 껌정소도 있었어요, 그래 껌정소, 아주 다 껌은 게 아니라 이 얼굴 원만 껌고, 또 몸뚱이는 누렇고 한 것도 있고.}
10333 @ 칙:쏘라고 하는 거 이써요? 칙:꺼치 생견나요? 칙쏘라고 하는 소 칙쏘. {칡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칡 같이 생겼나요? 칡소라는 하는 소, 칡소.}
10333 # 칙:쏘? {칡소?}
10333 @ 에 칙;쏘라고 그러나요? {예, 칡소라고 그러나요?}
10333 # 난 그 츰: 드러유. {나는 그거 처음 들어요.}
10333 @ 얼룩쏘 검정소 칙:쏘. {얼룩소, 검정소, 칡소.}
10333 # 아이 그거는 츰 드러유. {아이, 그거는 처음 들어요.}
10333 # 검정소는 내가 보안는디. {껌정소는 내가 봤는데.}
10333 @ 보통 게 이런 우리냥 누렁소아구 얼룩소아구 검정소 이정도. {보통 이게 이런 우리 누런 소하고, 얼룩소하고, 껌정소, 이 정도.}
10333 # 칙:쏘는 난 몰류. {칡소는 나는 몰라요.}
10334 @ 그담 인제 소::에 뿔 모양이 다를 거 아녀요? {그 다음 인제 소의 뿔 모양이 다를 거 아니에요?}
10334 # 그러초 그게 우이루 그 천지가기라구 이찌 친지가기라구. {그렇죠, 그게 위로 그 천지각이라고 있지, 천지각이라고.}
10334 # 그러니께 게삐 올라진 소는 이러게 우이루 뻐치구 하나는 이게 내려온 소두 이꾸 이러케 곧꼬더게 나옹거는 화때뿌리라구 허지 이걸 보구. {그러니까 고삐 올라간 소는 이렇게 위로 뻗치고, 하나는 이게 내려온 소도 있고, 이렇게 꼿꼿하게 나온 것은 횃대뿔이라고 하지, 이것을 보고.}
10334 @ 화때뿔요? 아~: 그럼 천지가기라는 건? {횃대뿔이요? 아, 그럼 천지각이라는 건?}
10334 # 천지가기라는 건 하나는 올러가구 하나는 미 미티루 수그러진 거. {천지각이라는 건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밑, 밑으로 수그러진 거.}
10334 @ 하나는 미티. {하나는 밑에.}
10334 @ 아 그 다메 여피로 빤드단 거뚜 이써요? {아, 그 다음에 옆으로 반듯한 것도 있어요?}

10334 # 에 그거 빤뜨더게 난 느미 이찌 우리 소가 지금 빤뜨더게 난는디 그건 화때뿌리라구 허지 화때뿌리라구. {예, 그거 반듯하게 난 놈이 있지, 우리 소가 지금 반듯하게 났는데, 그건 횃대뿔이라고 하지, 횃대뿔이라고.}
10334 @ 아:: 그러믄 혹씨 저 비녀뿔 소라구 그러나요? 비녀뿔 비녀처럼 생겨따고? {아, 그러면 혹시 저 비녀뿔 소라고 그러나요? 비녀뿔, 비녀처럼 생겼다고?}
10334 # 에 비녀뿌리라구 허능게 아마 여기 여기는 화때뿌리라구 그려. {예, 비녀뿔이라고도 하는 게 여기, 여기는 횃대뿔이라고 그래.}
10334 @ 또 다른 뿔 모양 머 용수뿌리라는 거 이따고 하는 거 가태요 쭉 그러 그러 아피로 이러게 쪽 고든 거 황소 거튱 거 보믄 요러케 두개 오로케 쫌 꼳 허게 나옹게. {또 다른 뿔 모양 뭐, 용수뿔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쭉 그게, 그게 앞으로 이렇게 쪽 곧은 거, 황소 같은 거 보면 요렇게, 두 개 이렇게 좀 곧게 나온 거.}
10334 # 그거 몰르거쓰 그거 어트게 용수뿔? {그거 모르겠어요, 그거 어디에 용수뿔?}
10334 @ 요러케 인제 뿌리 아까는 인제 요러케 구븐 게 이꾸 요 빤드라꾸 또 요러케 아피로 빼쪽 요러케. {요렇게 인제, 뿔이 아까는 인제 요렇게 굽은 게 있고, 요렇게 반듯하고, 또 요렇게 앞으로 뾰족하게, 요렇게.}
10334 # 에 이러케 이러케 티어나온 거 그거 용수뿌리유? 난 그거 몰류 그건. {예, 이렇게, 이렇게 튀어나온 거 그게 용수뿔이에요? 난 그거 몰라요, 그건.}
10334 @ 여기서는 잘 그런 명칭 에. {여기서는 잘 그런 명칭을, 예.}
10334 # 그거빼끼 몰라. {그것밖에 몰라.}
10334 @ 그런데 그 뿌레 종류에 따라 소가 머 쫌 차등 인나요? {그런데 그 뿔의 종류에 따라 소가 뭐 좀 차등 있나요?}
10334 # 그런디 수:소가요 뿌:리 뿔:루 이내서 승:겨근 좀 이쓰요. 외냐믄 이러케 이러케 데서 우이루 뻐친 소 두 개 다 이러케 이러케. {그런데 수소가요, 뿔이, 뿔로 인해서 성격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렇게 돼서 위로 뻗친 소, 두 개 다 이렇게, 이렇게.}
10334 @ 외로 간거요? {위로 간 거요?}
10334 # 위루 또까칭거 그게 점 쾌 화러지.{위로 똑 뻗친 거 그게 좀 쾌활하지.}
10334 @ 아::.{아.}
10344 # 그게 점 승:질두 이꾸.{그게 좀 성질도 있고.}
10344 @ 예.{예.}
10344 # 쟁기 대믄 펄펄 막 뗘 띠다시피 혀.{쟁기 대면 펄펄 막 뛰어, 뛰다시피 해.}
10344 # 그러니께 사라미 어렵찌 그게.{그러니까 사람이 어렵지, 그게.}
10344 # 그러구 눈똥자 봐두 사라미나 짐승이나 눈똥 사람도 눈똥자가 점 흐리멍덩한 사람 이꾸 땡굴땡구란 사람 이짜뉴?{그러고 눈동자 봐도 사람이나 짐승이나 눈동, 사람도 눈동자가 좀 흐리멍텅한 사람 있고 땡글땡글한 사람 있잖아요?}
10344 # 소두 그류 소두.{소도 그래요, 소도.}
10334 # 흐리멍덩한 건 승:질까지두 흐리멍덩여.{흐리멍텅한 건 성질까지도 흐리멍텅해.}
10334 # 눈까리 땡기란 거는 번적번쩌간 노믄 승:질두 이써가꾸 부릴쩌기 내따 호드독 호드독 자버대려. {눈알이 땡그란 것은, 번쩍번쩍한 놈은 성질도 있어갖고, 부릴 적에 냅다 호드독, 호드독 잡아 당겨.}
10334 @ 저히드른 인제 어려쓸 때 드른 얘긴데 그 머 인제 반닐 거튼 거 허면 늑께 오자나요? 그런데 산찜승 거튼 킁 걸 만나면 그 주이니 소아고 가치 이쓰믄 막 소가 열씨미 잘

싸운다고 그러더라구요. {저희들은 인제 어렸을 때 들은 얘긴데, 그 뭐 밭일 같은 거 하면 늦게 오잖아요? 그런데 산짐승 같은 큰 걸 만나면, 그 주인이 소하고 같이 있으면 막 소가 열심히 잘 싸운다고 그러더라고요.}
10334 # 아:이구 그러므뇨 땅거 지 이 저 소 저 새끼 나찬쓰? 그러믄 밥쭌 사라미래야지 저 아니서 누구 밥 안 준 사라믄 가믄 거기 얼찐 모대유 새끼난 디를 막 그냥 떠더눌려 받바더 뚜려대여 막 바더 꿈쩍 모더게 해여 밥쭌 사람 이외에는 소용업쓰. {아이고, 그럼요, 다른 거, 지, 이, 저 소, 저 새끼 낳지 않아요? 그러면 밥 준 사람이여야지, 저 안에서 누구 밥 안 준 사람은 가면 거기 얼씬도 못해요 새끼난 데를, 막 그냥 떠 눌러, 받, 받아 뚫어대, 막 받아 꿈쩍 못하게 해요, 밥 준 사람 이외에는 소용없어요.}
10334 @ 그래요? 아: 가튼 저 가튼 시꾸래두요? {그래요? 아, 같은 저, 같은 식구라도요?}
10334 # 그러지 가튼 시꾸라두 그러구 그 개가튼 거 가치 새끼 이 겨 머 가자뉴? 그러먼 코루 부러두 안마거 널러나게 막 댐비유. {그렇지, 같은 식구라도, 그리고 그 개 같은 거 같이 새끼, 이, 저, 뭐 가잖아요? 그러면 코로 불어도 안 막아 날아가게 막 덤벼요.}
10334 @ 쌔끼나면. {새끼나면.}
10334 @ 아 개 가틍건. {아, 개 같은 건.}
10334 # 이게 개교. {이게 개요.}
10334 @ 평소에는 앙그라지요? {평소에는 안 그러지요?}
10334 # 평소야 갠찬치 그러니께 그 그 새끼 사랑이라는 거슨 짐:송이나 사라미나 다 가트요 에: 겁나지. {평소에는 괜찮지, 그러니까 그 새끼 사랑이라는 것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같아요, 에, 겁나지.}
10335 @ 그러믄제 그 소:도 나이에 따라서 부르는 이르미 좀 이써요? {그러면 인제 그 소도 나이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좀 있어요?}
10335 # 그러초 한 살 두 살 허지요. {그렇죠, 한 살, 두 살 하지요.}
10335 @ 한 살 두 살 두 살 쓰고 그래요? {한 살, 두 살, 두 살 쓰고 그래요?}
10335 # 에 그러케 허는디 건 한 살 두 살 머긍건 이 이:빨루. {예, 그렇게 하는데 그건, 한 살, 두 살 먹은 건 이, 이빨로.}
10335 @ 아 어트게? {아, 어떻게?}
10335 # 이:빨루 따지거든뇨? {이빨로 따지거든요?}
10335 @ 어트게 그걸? {어떻게 그걸?}
10335 # 이빨루 따지는 난 건 자사히 그 수이 장사드리나 알까 잘 모르는디 그게 여들살 소 여들살 데믄 이 어금니가 여 이 송군니 엽땡인 모양이여 그게 하나 빠진다느믄. {이빨로 따지는, 난 그건 자세히, 그 소 장사들이나 알까, 잘 모르는데, 그게 여덟 살, 소 여덟 살 되면 이 어금니가 여기, 이 송곳니 옆인 모양이요, 그게 하나 빠진다던데.}
10335 @ 아:: 오래 되믄요. {아, 오래 되면요.}
10335 # 그래서 이 이러케 소 사러 대니는 사라미 파러머글라구 절 늘근 소 보구서 절머 따구 산처씨믄 허는디 그 사람들 이빨 이러케 떠드러 보믄 화니 다 아류. {그래서 이, 이렇게 소 사러 다니는 사람이 팔아 먹을라고 젊, 늙은 소 보고서 젊었다고 설치고 하는데, 그 사람들 이빨 이렇게 떠들어 보면 훤히 다 알아요.}
10335 @ 아: 메쌀인가. {아, 몇 살인가.}
10335 # 소 저 장사하는 늠들. {소, 저 장사하는 놈들.}
10335 @ 그믄 그 소두 인제 이빠리 바루 새끼 때부터 나나요? 송아지 때부터요? {그러면

그 소도 인제 이빨이 바로 새끼 때부터 나요? 송아지 때부터요?}
10335 # 소:는 송아치버텀 나:머 일번 이빨 나쓰. {소는 송아지부터 낳으면서 일방 이빨이 났어요.}
10335 @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0335 # 그런디 그게 저 아랜니만 이찌 우이는 커두 윈니빠른 업쓰. {그런데 그게 저 아랫니만 있지, 위에는 커도, 윗이빨은 없어요.}
10335 @ 아 소가 그래요? {아, 소가 그래요?}
10335 # 예 구니발. {예, 굳은 이빨.}
10335 @ 오머 그 트기하네. {어머, 그 특이하네.}
10335 # 아랜니만 이찌 위니빠른 소가 웁꺼든. {아랫니만 있지, 윗 이빨은 소가 없거든.}
10335 @ 사라믄 애기 때 나서 한 일고여덜쌀부터 이가 다 빠지자나요? {사람은 아기 때 나서 한 일곱, 여덟 살부터 이가 다 빠지잖아요?}
10335 # 그러치요 그런디 소는 아랜니빼께 안나. {그렇치요, 그런데 소는 아랫니밖에 안 나.}
10335 @ 그건 안 빠져요? {그건 안 빠져요?}
10335 # 우이는 웁쓰. {위에는 없어요.}
10335 @ 빠지 빠저따가 다시 나구 그런 건 업써요? {빠지, 빠졌다가 다시 나고 그런 건 없어요?}
10335 # 아:이 그거까장은 몰르조. 그건 그저 뭐안디 빠져따 다시 증 오래 메기믄 날라난지 몰르는디 이빨 빠지며는 한 여들쌀 이상데믄 소는 소용 업씽께. {아이, 그거까지는 모르죠. 그건 그 저 뭐한 데 빠졌다 다시, 정 오래 먹이면 나려는지 모르는데, 이빨 빠지면 한 여덟 살 이상 되면 소는 소용 없으니까.}
10335 @ 메싸리나 어느 소가 어느 정도 메싸리나 사라요? 오래 사는 소는요? {몇 살이나, 어느, 소가 어느 정도, 몇 살이나 살아요? 오래 사는 소는?}
10335 # 몰르요 난 그 수명은 얼마나 사는지. {몰라요, 나는, 그 수명은, 얼마나 사는지.}
10336 @ 그럼 인제 소두 아까 말쓰만대로 일 자라는 조은 소가 이쓸꺼 아녀요? 한번 그 조은 소 고르는 방버베 대애서 좀 자세아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럼 인제 소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 잘하는 좋은 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번 그 좋은 소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10336 # 그러니께 조은 소 골르는 건 그리기 그게 어렵쭈 보만 그레기 그 눈똥자두 보고 그 부련는지 안부련는지 여기 보머는 여가 여기가 몯뻬겨서 모가지 그 멍에 걸린댜. {그러니까 좋은 소 고르는 건, 그러게 그게 어렵죠, 보면, 그러게 눈동자도 보고, 그 부렸는지, 안 부렸는지 여기 보면 여기가, 여기가 못 박여서 모가지 그 멍에 걸린대.}
10336 # 이러케 두투매저쓰 아주.{이렇게 두툼해졌어요, 아주.}
10336 # 일: 증:애서 여기가 막 이러케 그냥 저 머지. {일 많이 해서 여기가 막 이렇게 그냥 저, 뭐지.}
10336 @ 아니 그러먼 우리가 인제 그건 큰 소고 그 새끼런 저 엄마 어 어미소가 새끼 띤다고 그러자나요? 여기도 새끼 띤다고 그라조? 때 새끼 띠는 걸 내 송아치라고요 고걸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인제 그건 큰 소고, 그 새끼를 저 엄마, 어, 어미소가 새끼 띤다고 그러잖아요? 여기도 새끼 띤다고 그러죠? 때, 새끼 떼는 것을 송아치라고요, 고걸요.}
10336 # 에 송아치. {예, 송아치.}

10336 @ 고거 살 때도 멀 보고 사나요? {고거 살 때도 뭘 보고 사나요?}
10336 # 그런디 고거는 몰:르요. {그런데 고거는 몰라요.}
10336 @ 안 사보셔써요? 소 가서요 시장에 가서. {안 사보셨어요? 소. 시장에 가서.}
10336 # 아니 사보기는 더러 사반는디 여르미 커서 일 자럴찌 모덜찌 그거는 잘 몰르조. {아니, 사보기는 더러 사봤는데, 여름에 커서 일 잘할지, 못할지 그거는 잘 모르죠.}
10336 # 자기 주이니라 갈칠 나라민디 고거는 그게 참 눈똥자 보믄 아러 눈똥자나 목 보믄 모으까. {자기 주인이 가르치기 나름인데, 고거는 그게 참 눈동자 보면 알아, 눈동자나 못 보면 모를까.}
10336 @ 어떤 분드른 소 뒤 방뎅이 이를 보고 그럼 넙쭈간 소 드 등어리가 이러케 꼬꼬단 소 이런 걸 보고 고른다고 그러데요. {어떤 분들은 소 뒤 엉덩이를 보고, 그럼 넓적한 소, 등, 등어리가 이렇게 꼿꼿한 소, 이런 걸 보고 고른다고 그러데요.}
10336 # 그거는 부리지 아내두요 부리지 안쿠서 그냥 메기드래두 그건 보야지. {그거는 부리지 않아도, 부리지 않고서 그냥 먹이더라도 그건 봐야지.}
10336 # 허리가 이러케 주거따든지 이 저기 저 머 방뎅이가 디 암소가 방뎅이가 쫍 쪼브:: 더다든지 허믄 그 별거 아니지. {허리가 이렇게 죽었다든지, 이, 저기, 저 뭐 엉덩이가 뒤, 암소가 엉덩이가 좁, 좁다든지 하면 그 별거 아니지.}
10336 # 그러니께 각썽미가 각썽미가 나올라믄 등어리두 쪽 고디아구 방뎅이두 여 너부주: 해야아구 그래야 부리지 아내두 머거 저 메겨두 야:중이 파르를 머거두 그느미래야 조치 빼쭈간 건 별거 아뇨. {그러니까 각선미가, 각선미가 나올라면 등도 꼿꼿해야 하고, 엉덩이도 여기가 넓적해야 하고, 그래야 부리지 않아도 먹어, 먹여도 나중에 팔아 먹어도 그놈이라야 좋지, 뾰쪽한 건 별거 아니에요.}
10336 @ 그민제 고래서 고 소가 인제 그 사리 찌는 소가 이꼬 말른 소가 이쓸꺼 이녀요? {그럼 인제 그래서 고 소가 인제, 그 살이 찌는 소가 있고, 마른 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10336 # 그러초 그러니께 사라미나 짐성이나 살찌비 점 인는 소가 이써 메겨두 암만 메겨두 살찌붑써서 말르는 소가 이꾸 사람두 그러차나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살집이 좀 있는 소가 있어, 먹여도, 아무리 먹여도 살집 없어서 마르는 소가 있고, 사람도 그러잖아요?}
10336 @ 그러치. {그렇지.}
10336 # 에 또가튜. {예, 똑같아요.}
10336 @ 그럼 농사 진는데는 고 좀 마른 소가 조아요? 살찌빈는 소가 조아요? {그럼 농사 지을 때는, 그 좀 마른 소가 좋아요? 살집 있는 소가 좋아요?}
10336 # 그러초 이 저 머 농사 진는디두 점 살 좀 찐 느미랴 글력뚜 쓰지 말른 소는 글력 웁써서 끌칠 모뎌::. 그러니께 점 살찐 느미랴 되구 살찌비 인는 소래야 조치요. {그렇죠, 이, 저, 뭐 농사 짓는데도 좀 살 좀 찐 놈이라야 근력도 쓰지, 마른 소는 근력 없어서 끌지를 못해. 그러니까 좀 살찐 놈이라야 되고, 살집이 있는 소가 좋지요.}
10336 @ 그럼 소를 고를 때 눈똥자 보고 이빨도 벌려서 보나요? {그럼 소를 고를 때 눈동자 보고, 이빨도 벌려서 보나요?}
10336 # 이는 그저 이는 따지믄 나:이 머건나 안머건나 그거 보느라구 이 보지 딴 건 읍꾸 그러구 인저 그 보믄 다: 사라미구 짐성이구 보머는 버서 갈:량아지 머 꼭 뾰:주거게 보는 건 업쓰 발. {이는 그저, 이는 따지면 나이 먹었나, 안 먹었나 그거 보느라고 이 보지, 다른 건 없고, 그리고 인제 그 보면 다 사람이고, 짐승이고 보면은 벌써 짐작하지, 뭐 꼭 뾰쪽하

게 보는 건 없어요, 발.}
10336 @ 아 보면 이 소가 조은 건 알? {아, 보면 이 소가 좋은 건지 알[x아요x]?}
10336 # 그러초 바 아무가 바도 벌써 저거 눈 드는 늠 이짜뉴? 고런 거 골르믄. {그렇죠, 봐, 아무가 봐도 벌써 저거 눈 드는 놈 있잖아요? 그런 거 고르면 [x되지x].}
10336 @ 그럼 소는 주로 새, 사 살 때 어디가 사써요? 팔고 사는 데가? {그럼 소는 주로 새, 사, 살 때 어디가서 샀어요? 팔고 사는 데가?}
10336 # 지끔두 우지지 머 우지니가 사요. {지금도 우전(+우시장)이지 뭐, 우전에 가서 사요.}
10336 @ 어디요? {어디요?}
10336 # 우즌 우전. {우전, 우전.}
10336 @ 우전 아 우전 가서 거면 거기 인제 소 파는 데 그 사람들. {우전, 아, 우전 가서, 그러면 거기 인제 소 파는 데 그 사람들.}
10336 # 거기서 그러추 거가 중:개 이꾸 중:개는 따지머는 그 완장 그 내에서 그 중:개 그 보증금 드려노코 헌다구두 헌다구 허던게요. 나 중:개 아내바씽께 몰르느르먼. {거기서, 그렇죠, 거기가 중개 있고, 중개는 따지면은 그 완장, 그 내에서 그 중개, 그 보증금 들여놓고 한다고도, 한다고 하던데요. 나는 중개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구먼.}
10336 @ 중:개가 중:개는 중:개만 해주구서 그 와리루 거기서 멍능걸 먹찌 이제 머 딴 건 업씨요. 그러구 소: 장사가 이찌. {중개가, 중개는 중개만 해주고서 그 중개료로 거기서 먹는 걸 먹지, 이제 뭐 다른 건 없어요. 그러고 소 장사가 있지.}
10336 # 소 장사요? {소 장사요?}
10336 # 중:개아고 소 장사아곤 달비유. {중개하고, 소 장사하고는 달라요.}
10336 @ 옌나레 소 장사 보니까 시골 건데 가서 미리 소를 사가꾸 와서 발마 굉:쟁이 먼:데 장까지 다니더라구요. {옛날에 소 장사 보니까, 시골 같은데 가서 미리 소를 사가지고 와서 발 많, 굉장히 먼 데 장까지 다니더라구요.}
10336 # 그러치오 사가지구서 인저 증: 머다 모팔믄 도살장으로 드러가는 유까니다 파는 사람두 이꾸 별짇 다해쓰. {그렇죠, 사가지고서 인제 정 뭐하다 못 팔면 도살장으로 들어가는, 푸줏간에다 파는 사람도 있고 별짓 다했어요.}
10336 @ 이쪼게는 그 우저니 어디쯤 이써요? {이쪽에는 그 우전이 어디쯤 있어요?}
10336 # 요기 이 스산 에: 요기 저 버번 이짜뉴? 버번 아실뀨 버번 엽때기 워디 디동애찌 그저니는 그게 시:번 이동애가꾸 여기루 나온게요. 스산 이러케 커져써 여기 여 워디 저 부석까는데 이짜뉴. {요기 이 서산, 에, 요기 저 법원 있잖아요? 법원 아실 거예요, 옆에 어디로 이동했지, 그전에는 그게 세 번 이동해갖고 여기로 나온 거예요. 서산 이렇게 커졌어, 여기, 여기 어디, 저 부석 가는데 있잖아요.}
10336 @ 예 부석까는데. {예, 부석 가는데.}
10336 # 부석 갈 꺼 고 엽땡이 거 저 사 사거리 사거리지. 요긴 버번 가구 요건 부석 까구 저 스산서 오구 여기 우리쪼구 사거리 고 엽땡이 고기 공림 뜽생이라구 거기가 이슈 지금. {부석 갈 거 그 옆에, 거기, 저 사, 사거리, 사거리지. 요기는 법원 가고, 요건 부석 가고, 저 서산에서 오고, 여기 우리 쪽의 사거리, 고 옆에 거기 공림 등성이이라고 거기에 있어요, 지금.}
10336 @ 그 보믄 옌나레 인제 돼지 거튱거뚜 팔 때쯤 데먼 마니 머겨서. {그 보면 옛날에, 인제 돼지 같은 것도 팔 때쯤 되면 많이 먹여서.}

10336 # 지끄믄 지끄믄 되야지저니 웁쓰. {지금은, 지금은 돼지 전(+시장)이 없어요.}
10336 @ 음 돼지저넙써요? {음, 돼지전 없어요?}
10336 # 나 나들 안는 게 양:도너벌 허는 사람드리 그 저 양:도너버느 사라미 새끼 내머는 그 차:루 한 띠 한 차씩 시러가구 허는때미 그에 옌날차로 한마리 두마리 사들 무듀. {나, 낳지를 않는 게, 양돈업을하는 사람들이 그, 저 양돈업 하는 사람이 새끼 나면은, 그 차로 한 떼, 한 차씩 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게 옛날처럼 한 마리, 두 마리 사지를 못해요.}
10336 @ 아 그래요 지금? {아, 그래요, 지금?}
10336 # 거기가서 사믄 사까. {거기 가서 사면 살까.}
10336 @ 송아진 한마리만 이써도. {송아지는 한 마리만 있어도.}
10336 # 송아지는 한마리 두마리 살쑤 이꾸 지금. {송아지는 한 마리, 두 마리 살 수 있고, 지금.}
10336 @ 지그믄 어트게 송아지끄비 갠차네요 요즈믄? {지금은 어떻게 송아지 가격이 괜찮아요, 요즘은?}
10336 # 지금 마니 저그버네는 그 마안 삼처넌 참 백쌈심마넌 백이심마넌 하덩게 지금 한 니뱅마넌 한당규 이제 올러서. {지금 많이, 저번에는 그 만 삼천 원, 참 백삼십만 원, 백이십만 원 하던 것이 지금 한 이백만 원 한다고 그래요, 올라서.}
10336 @ 소끄미 비쌀 땐 항 참 조아써요. {소 값이 비쌀 때는 하, 참 좋았어요.}
10336 # 삼백오심마넌 삼백유심마넌까지 해쓰 지금 이거 암소 메겨서 새끼 날쩌기 그 땐 낼마내찌. {삼백오십만 원, 삼백육십만 원까지 했어요, 지금 이거 암소 먹여서 새끼 날 적에, 그 때는 낼만 했지.}
10336 @ 근데 지금 어디에 머 수입 소고기 때매 내련나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 뭐, 수입 소고기 때문에 내렸나요?}
10336 # 아이 이버네 네린 게 저 이명바기라 저 미구거구 소 게야건디로 그냥 에버니 털써게가꾸서 사료 한 한 푸대에 그때는 송아지끄믄 삼백 한 오유 오류씸마너닌디 사료끄믄 저 머 사마넌 오마넌 해꺼든. {아니, 이번에 내린 게 저 이명박이가 저 미국하고 소 계약한 뒤로 단번에 털썩 해가지고서, 사료 한, 한 푸대에 그때는 송아지 금은 한 삼백오육, 오육십만 원인데, 사료 가격은 저 뭐, 사만 원, 오만 원했거든.}
10336 @ 예:: 그래써요. {예, 그랬어요.}
10336 # 해튼 저 사처넌 오처넌 그런디 이금 소끄믄 내리구 저 저 사료끄믄 점 소끄믄 내리구 사료끄믄 올러쓰 지금 만천 메빼건이여 지그믄. {하여튼 저 사천 원, 오천 원, 그런데 지금 소 가격은 내리고 저, 저 사료 가격은 좀, 소 가격은 내리고, 사료 가격은 올랐어요, 지금 만천 몇 백 원이야, 지금은.}
10336 @ 잉 힘드시게네요. {응, 힘드시겠어요.}
10336 # 예: 그래서 지금 송아치 이뱅마넌만 하머는 만 미처넌씩 메겨두 미치들 안츄 미찔 아너유 그게 고 송아치 하나 내대믄 백뿌대는 안메겨두 낼테니께. {예, 그래서 지금 송아치 이백만 원만 하면은 만 몇 천 원씩 먹여도 밑지지를 않죠, 밑지지를 않아요, 그게 그 송아치 하나 내려면 백 푸대는 안 먹여도 낼 테니까.}
10337 @ 음:: 그래꾸나! 그러믄요 인제 소 머기는 건 인제 고러나고 옌나레 그 여기 보믄 인제 옌나레는 겜 그 머슴사리 종뉴가 이써다고 그래요 그 또. {음, 그랬구나! 그러면요 인제 소 먹이는 건 인제 그만하고, 옛날에 그, 여기 보면 인제 옛날에는 그 머슴살이 종류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또.}

10337 # 그러치요 상:머슴 이꾸 언:머슴 이써슈. {그렇치요, 상머슴 있고, 어린 머슴 있었어요.}
10337 @ 언머슴? {언머슴?}
10337 # 언:머슴. {어린 머슴.}
10337 @ 그건? {그건?}
10337 # 상:머스믄 부자찌비 드러가서 거기 전부 아주 총 채김저가지구서 내따 농사진는 사래미 상:머슴. {상머슴은 부자집에 들어가서 거기 전부 아주 총 책임져가지고서 냅다 농사짓는 사람이 상머슴.}
10337 # 언:머스미라는 건 그 상:머스미나 데리구 이러능게 언:머슴일겔르먼. {언머슴이라는 건 그 상머슴이 데리고 일하는 게 언머슴일 게더구만.}
10337 @ 그럼 언:머스미 여러시 이써써요, 어떤? {그럼 어린 머슴이 여럿이 있었어요, 어떤?}
10337 # 그러니께 마:는 사람드른 둘:뚜 두구 하나 또 하나 하나 두구 이러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둘도 두고, 하나 또, 하나, 하나 두고 이렇게.}
10337 @ 그럼 중:머슴 하머스미라는 마리 그건 언머슴 이르는 거 가타요. {그럼 중머슴, 하:머슴이라는 말이 그건 언머슴 이르는 거 같아요?}
10337 # 그러치요 중:머슴 하:머스미라능게 그 저 거기서 나옹게이구먼 그게. {그렇지요, 중머슴, 하머슴이라는 게 그, 저 거기서 나온 것이구먼, 그게.}
10337 @ 예:: 그러믄요 그 상:머스:믄 일녀네 새경이라고 그러나요, 반능 걸? {예, 그러면 그 상머슴은 일년에 새경이라고 그러나요, 받는 걸?}
10337 # 그러츄 일련 새경이쥬 새경. {그렇죠, 일년 새경이죠, 새경.}
10337 @ 새경 어느 정도 바다써요, 옌나렌요? {새경 어느 정도 받았어요, 옛날에는?}
10337 # 그레기 옌:날 새경이 새경이 상:머스미랴 베 두석 베 두석 서므루. {그러니까 옛날 새경이, 새경이 상머슴이어야 벼 두 섬, 벼 두 섬, 섬으로.}
10337 @ 예. {예.}
10337 # 그러믄 베 두서기먼 싸란 그 저 쌀 한서미니께 쌀 따지먼 두가마. {그러면 벼 두 석이면 쌀 한, 그, 저 살 한 섬이니까 쌀, 따지면 두 가마.}
10337 @ 고정도빼끼 모빠다써요? {고 정도밖에 못 받았어요?}
10337 # 그거빠다 그드 그거 바등겨 그거뚜 그거뚜 모빠다서 그거뚜 상:머스미랴 그거 바다써.{그거 받아, 그래도 그거 받은 거야, 그것도, 그것도 못 받아서, 그것도 상머슴이라야 그거 받았어.}
10337 # 그게 여긔 보믄 베 두섬짜리라고 그랜나 상머슴 베 두섬짜리.{그게 여기 보면 벼 두 섬짜리라고 그랬나, 상머슴, 벼 두 섬짜리.}
10338 @ 그러믄 좀 이:라는 건 어트게 머 아까 인제 상머스믄 총괄 채김지고 언:머스믄, 그? {그러면 좀 일이라는 건 어떻게, 뭐 아까 인제 상머슴은 총괄 책임지고, 언머슴은, 그?}
10338 # 언머슴 이러구 인제 푸마시 댕이먼서 일 아서가꾸서 데려다가 또 이럴쩌기 이러구 이러라믄 그 총 지우이는 상머스미 지휘허길러믄 그려. 이걸 오느른 오트게 머 허구 오느른 머 어트게 한다. {언머슴 일하고, 인제 품앗이 다니면서 일 얻어가지고 데려다가, 또 일할 적에 일하고, 일 하려면 그 총 지휘는 상머슴이 지휘하더구먼 그려. 이걸 오늘은 어떻게 뭐하고, 오늘은 뭐 어떻게 한다.}
10338 @ 그러믄 그 뒤에 예르 들면 한제 무슨 박정이 대통령 초기라덩가 이제 해방되 이

승만 대통녕 때 이런 때요 그런 때는 좀 품싸기 올라쓸 거 아네요, 이거뚜? {그러면 그 뒤에, 예를 들면 인제 무슨 박정희 대통령 초기라든가, 이제 해방되고 이승만 대통령 때, 이런 때요, 그런 때는 좀 품삯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10338 # 그때:두 아니 이승만 대통녕 때에는 아놀르구. {그때도, 아니 이승만 대통령 때에는 안 오르고.}
10338 @ 박 대통령. {박 대통령.}
10338 # 박정이 시저레는 좀 올러서 그때버텀 따지믄 머슴사리 하는 사라미 즈거지구 그래쪼. {박정희 시절에는 좀 올라서 그때부터, 따지면 머슴살이하는 사람이 적어지고, 그랬죠.}
10338 @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0338 # 예.{예.}
10338 # 박정이 잠 저 저 누구 이승만 정권 때::루 마라믄 머슴사리아는 사람 마내써쥬 그땐. {박정희, 참, 저, 저 누구, 이승만 정권 때로 말하면 머슴살이하는 사람 많았었죠, 그때는.}
10338 @ 그다메. {그 다음에.}
10338 # 박정이는 박정이는 머슴사리앙거 머슴사리 항거 다 웁쌔다시피 해쓰 박정이가. {박정희는, 박정희는 머슴살이 한 거, 머슴살이라는 거 다 없애다시피 했어요, 박정희가.}
10338 @ 아 그때요? {아, 그때요?}
10338 # 그럼. {그럼.}
10338 @ 그때 우리 공장도 마니 생기고. {그때 우리 공장도 많이 생기고.}
10338 # 아:이구 박정이가 정치를 보통 그 이 어트게 박정이 정치 헝거는 그게 외냐아머는 그 때 농초느루 한 이년쯤 내따 농초느루만 미러주구 또 한 이녀는 냅따 농초니서두 도시루 미러주구 이러케 움지겨가지구서 자:래찌요 예. {아이고, 박정희가 정치를 보통 그, 이, 어떻게 박정희 정치한 거는, 그게 왜냐 하면은 그 때 농촌으로 한 이년쯤 냅다 농촌으로만 밀어주고, 또 한 이년은 냅다 농촌에서도 도시로 밀어주고,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잘했지요, 예.}
10338 @ 그다메 인제 옌나레 그 혹씨 인제 이런 인저 그 머슴사리알 때 저 저 대덕써 한 번 조사해 반는데 그 오꺼튼 걸 해주구 그래따고 하더라구요 주인들 지베서. {그 다음에, 인제 옛날에, 그 혹시 인제 이런, 이제 그 머슴살이 할 때 저, 저 대덕에서 한 번 조사해 봤는데 그 옷 같은 걸 해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주인들 집에서.}
10338 # 옫:뚜요 옫:뚜 그지비서 혜:주는 지비 이꾸 자기네 오슬 입능게 인는디 그게 그거 보고서 머슴사리 삼:문 난 머슴 머슴두 내가 하니년 사라바꾸먼 사라서두 몰르네. {옷도요, 옷도 그 집에서 해주는 집이 있고, 자기네 옷을 입는 게 있는데, 그게, 그거 보고 머슴살이 사뭇 난 머슴, 머슴도 내가 한 이년 살아봤구만, 살았어도 모르네.}
10338 # 상머스민가 머라구 자기네 지비서 오슬 헤이꾸서 댕인 머스미 이써슈.{상머슴인가 뭐라고, 자기네 집에서 옷을 해입고서 다니는 머슴이 있었어요.}
10338 # 고거는 그 새경을 좀 더 바다찌 따지먼.{고거는, 그 새경을 좀 더 받았지 따지면.}
10338 # 그러구 그 지비서 오슬 전부 다 대구 옫따 해 이피구 주는 머슴 이런 머슴두 이썬꾸. {그러고 그 집에서 옷을 전부 다 대고, 옷 다 해 입히고, 주는 머슴, 이런 머슴도 있었고.}
10338 @ 그러믄 그 집써는 머꾸 자구 다 핸나요? {그러면 그 집에서는 먹고, 자고 다 했나요?}

10338 # 그러츄 머꾸 자구. {그렇죠, 먹고, 자고.}
10338 @ 그러믄 일련 내내 이써써요, 아니먼 머 지베 머 휴가를 가? {그러면 일년 내내 있었어요, 아니면 뭐, 집에 뭐 휴가를?}
10338 # 그 아니 글쎄 휴가가틍거야 인제 날군는 날루 오구. {그 아니, 글쎄 휴가같은 거야 날 궂은 날에도 오고.}
10338 @ 아 쉬는 때 오구나. {아, 쉬는 때 오구나.}
10338 # 예 그런 때 오구. {예, 그런 때 오고.}
10338 # 예: 일 안는 날 머슴사리 하는 사라미 고생 마니 해찌 잠. {예, 일 안하는 날, 머슴살이하는 사람이 고생 많이 했지, 참.}
10339 @ 그러쵸 옌나레 옌나레 근 소작 이짜나요 나므 논 빌려서 하능거 그 소작 방시게. {그렇죠, 옛날에, 옛날에
그 소작 있잖아요, 남의 논 빌려서 하는 거, 그 소작 방식에.}
10338 # 소작. {소작.}
10339 # 에:: 소자기유 옌:날 소자기 외냐하믄 논 한 마지기머는 논 한 마지기 그 삼칠쩨라고. {예, 소작이요, 옛날 소작이, 왜냐하면 논 한 마지기면은, 논 한 마지기 그 삼칠제라고.}
10339 @ 삼칠쩨? {삼칠제?}
10339 # 삼칠쩨라구 치:른 지주가 머꾸 사:믄 따지믄 이거 사 저 진는 사라미 머거쓰. {삼칠제라고, 칠은 지주가 먹고, 삼은, 따지면 이거, 사, 저 짓는 사람이 먹었어요.}
10339 @ 그러케 바케써요? {그렇게 박했어요?}
10339 # 예 고러케 고거뚜 무드더서 야다내따구. 그런디 지끄믄 삼칠쩨가 꺼꾸루 되찌 지끄믄. {예, 그렇게, 고것도 못 얻어서 야단났다고. 그런데 지금은 삼칠제가 거꾸로 됐지, 지금은.}
10339 @ 그럼 인제 고 부자집 거튼 데 노니 마늘꺼 아녀요? {그럼 인제, 고 부자집 같은 데 논이 많을 것 아니에요?}
10339 # 만치. {많지.}
10339 @ 그럼 그걸 오트게 소자간테 분배를 줘써요 누가? {그럼 그걸 어떻게 소작한테 분배를 줬어요, 누가?}
10339 # 그러니께 고거시 에~:: 고게 노늘 그사람 주머는 타:자꾸니라구 타자글 보러 댕여쓰.{그러니까 그것이, 에, 그게 논을 그 사람 주면은 타작꾼이라고, 타작을 보러 다녔어요.}
10339 # 그러머는 그때는 그게 참 논 그 지주가 그 사람 논 주지 아내쓰?{그러면 그때는 그게 참, 논, 그 지주가 그 사람 논 주지 않았어요?}
10339 # 주어씨머는 베 빌쩌기 베 빌쩌기 타저꽈니라고 와서 그 사람 타저꽌 오믄 꼭 그 한섬지기만 한섬지기 빈 걸 사람 한 이심명이구 삽심명이구 다 벼따구여 그러먼 전:부 그거 세쓰 무슬. {주었으면은 벼 벨 적에, 벼 벨 적에 타적관이라고 와서, 그사람 타적관 오면 꼭 그 한 섬지기면 한 섬지기 벤 걸, 사람 한 이십 명이고, 삽십 명이고 다 벴다고 해, 그러면 전부 그거 셌어요, 뭇을.}
10339 @ 아: 무슬. {아, 뭇을.}
10339 # 에 무슬 싹 다 천무시구 이천무시구 다 세머는 타자꽈니라 벤니삭 짤라서 고게 인저 배기 하나로 해서 저 그 그걸 무꺼놔서 꼭 무꺼놔 그 저 그 지주가. { 예, 뭇을 싹 다,

천 뭇이고, 이천 뭇이고 다 세면은 타작관이 벼이삭 잘라서, 그게 인제 백을 하나로 해서, 저, 그, 그걸 묶어놔서, 꼭 묶어놔, 그, 저, 그 지주가.}
10339 @ 아를 쓸라고. {알을 세려고.}
10339 # 에 고걸 무꺼놔서 개쑤를 그 무꺼놔따가 그느믈 가지구서 바슴멀쩌기 이 바심 타작 헐쩌기 그느믈 오너서 또 세유 그때 타작꽌 보는디. {에, 그걸 묶어놔서, 갯수를 그 묶어놨다가 그놈을 가지고서 바심할 적에, 이 바심, 타작할 적에 그놈을 와서 또 세요, 그때 타작관 보는데.}
10339 # 그때 천문 나와씨먼 천문 만나 안만나 그러머는 인저 만나 안만나 봐서 인저 전부 일꾼드리라 허니께 한참 머더머는 오트게 노믄 이 그 타작관 일꾼드른 한통이고 허니께 쎄겨두 마니 머거찌 이 따지먼. {그때 천 뭇 나왔으면 천 뭇 맞나, 안 맞나, 그러면은 인제 맞나, 안 맞나 봐서 인제 전부 일꾼들이 하니까 한참 뭐하면은, 어떻게 놓으면 이, 그 타작관하고 일꾼들은 한통속이고 하니까 속여도 많이 먹었지, 이 따지면.}
10339 @ 그러쵸. {그렇죠.}
10339 # 근디 누가 제기 저 인저 마은아옵 배개따구 허더먼. 이러케 쎄겨두 머꾸 인저 바슴 허머는 갈키질 갈키지를 헌다구 인저 그 호롱기루 내따 허머는 갈키질 잘모더먼 바는 거기루 베가 드러가 잘 추:야지 그러게 글거서두 해머꾸 그러케 해쥬. {그런데 누가 얘기, 저 인제 마흔아홉, 백 했다고 하더구먼. 이렇게 속여도 먹고, 인제 바심하은 갈퀴질, 갈퀴질을 한다고, 인제 그 탈곡기로 냅다 하면은 갈퀴질 잘 못하면 반은 거기로 벼가 들어가, 잘 추스려야지, 그렇게 긁어서도 해먹고, 그렇게 했죠.}
10339 @ 그 마르미라고 하능게 이써요? {그 마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10339 # 마르미라능게 그 그게. {마름이라는 게 그, 그게.}
10339 @ 타자꽈네요? {타작관이에요?}
10339 # 타자꽈니여. {타작관이에요.}
10339 @ 근데 그 어떤 분내기드르니까 그 마르미 이제 노늘 분배 하는데 그 마름 누네 바께 나믄 그 어려워따구 그러데요? {그런데 그, 어떤 분 얘기 들으니까, 그 마름이 이제 논을 분배하는데, 그 마름 눈 밖에 나면 그 어려웠다고 그러데요?}
10339 # 아:이 그때는 그러게 논 떠러지쥬 삼칠쩨두 떠러질까 무서서 따지믄 명일 때믄 소 다리 하나씩 가따가 막 저 머 논 안떠러질라구 가따 빽 쓰고 그래따는교. {아이, 그 때는, 그러니까 논 떨어지죠, 삼칠제도 떨어질까 무서워서, 따지면 명절 때면 소 다리 하나씩 갖다가 막, 저, 뭐 논 안 떨어질라고 갖다 백 쓰고 그랬다는 거예요.}
10339 @ 음 그래서 그 마름들. {음, 그래서 그 마름들.}
10339 # 삼칠쩨두 그걸 안줄라구. {삼칠제도, 그걸 안 주려고.}
10339 @ 아눌덜 지베는 고기 안떠러진다고. {마름들 집에는 고기가 안 떨어진다고.}
10339 # 에 안떠러질라구. {예, 안 떨어질려고.}
10339 @ 그런 마리 마꾸먼. {그런 말이 맞구먼.}
10339 # 노난떠러질라구. {논 안 떨어지려고.}
10339 @ 그러면뇨 고러케 타자글 하며는 그 벼를 그 지주들 찌블 가따 주야될꺼 아네요? {그러면요, 그렇게 타작을 하면은 그 벼를, 그 지주들 집에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10339 # 고게 그게 베를 가따주는 게 그 짐 이리는 가들 아날라구 해써. 그게 여기서 한 덕썽리믄 덕썽리 지주가끼다 저녀기 바슴 허머는 저녀기 새:참 그 새참 아까 새:참 얘기허지 새차미 수러구 저 한잔 머꾸서는 한 사라미 베 한가마씩 지게다 지구서 저다주야여. {고

게, 그게 벼를 갖다주는 게, 그 집 일에는 가지를 않으려고 했어. 그게 여기서 한 덕성리면 덕성리 지주에게다 저녁에 바심하면은, 저녁에 새참, 그 새참, 아까 새참 얘기하지, 새참에 술하고 저 한잔 먹고서는, 한 사람이 벼 한 가마씩 지게에다 지고서 져다 줘야 해.}
10339 @ 그 집꺼지요?{그 집까지요?}
10339 # 그 집까장 다. {그 집까지 다.}
10339 @ 월 그럼 덕성리. {월, 그럼 덕성리.}
10339 # 머:러두 저다주야구 짐 머 지끄미 구루마 구루마두 웁씨 그대닌 구루마나 인나 지끄미야 그거 지금 그러컨다어믄 그 살두 모뎌. {멀어도 져다 줘야 하고, 지금 뭐, 지금이야 달구지, 달구지도 없이, 그때는 달구지나 있나, 지금이야, 그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살지도 못해.}
10339 @ 이쪽 이쪽 서산쪽도 그런 인제 지주노니 마난나요? {이쪽, 이쪽 서산쪽에도 그런, 이제 지주 논이 많았나요?}
10339 # 아: 여기 요:기만 해두 덕썽리 사람들 노니어써쥬. {아, 여기, 요기만 해도 덕성리 사람들 논이었었죠.}
10339 @ 덕썽리요? 거 어디쯤 되요? {덕성리요? 거기가 어디쯤 돼요?}
10339 # 덕썽리가 요기 저 올라믄 저기 월마 멀지 아녀 여기 머요 점 저 어디 덕성리 호리 팔봉미니께 덕썽리가 팔봉며니요. {덕성리가 요기, 저 오려면 저기, 얼마 멀지 않아, 여기 뭐요, 좀 저, 어디 덕성리, 호리, 팔봉면리니까, 덕성리가 팔봉면이요.}
10339 @2 하라버지 어떤 사라미 마르미 되써요? {할아버지, 어떤 사람이 마름이 됐어요?}
10339 # 예? {예?}
10339 @2 마르믄 어떤 사라미 마르믈 사마써요 지주가? {마름은 어떤 사람이 마름을 삼았어요, 지주가?}
10339 # 마:르미유? {마름이요?}
10339 @ 예 타자꾼 타자꾼 어떤 사라믈 시켜요? {에, 타작관, 타작관 어떤 사람을 시켜요?}
10339 # 그러니께 그 따지머는 그 논 임:자. {그러니까, 그 따지면 그 논 임자.}
10339 @ 예 임. {예, 임.}
10339 # 임자가 대신 또 보내는 수두 이꾸 지가 몯 자기가 모더먼 자기가 오는 수두 이꾸. {임자가 대신 또 보내는 수도 있고, 지가 못, 자기가 못하면, 자기가 오는 수도 있고.}
10339 @ 예를 들면 저: 고창가튼 데 가면 그양 옌나레 영. {예를 들면, 저 고창같은 데 가면 그냥 옛날에 그냥.}
10339 # 아:이구. {아이구.}
10339 @ 멘 만섬지기 이라는 사람드른. {몇, 만석지기 일하는 사람들은.}
10339 # 여기 여기는 그 타자꽈는 그때 차두 웁꾸 암꺼뚜 웁씨니께 그 저 농사 진는 사람 경작짜 경작짜가 새보기 가서 어버와쓰 어버와따구 어버서. {여기, 여기는 그 타작관은 그때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저 농사 짓는 사람, 경작자, 경작자가 새벽에 가서 업어 왔어요, 업어 왔다고, 업어서.}
10339 @ 아 거 그래 타자꽈니 나이 좀 드런나보죠? {아, 거, 그래, 타작관이 나이 좀 들었나보죠?}
10339 # 에 그러츄 어버와따니께. {예, 그렇죠, 업어 왔다니까.}
10339 @ 참: 오늘 말씀드르니. {참, 오늘 말씀 들으니.}

10339 # 거러대니기 실타보니까 무꺼는거 어버오고 그런 시저리 이써씨니 어때요. {걸어다니기 싫다 보니까, 못 가는 거 업어 오고, 그런 시절이 있었으니 어때요.}
10339 @ 그 사라미 오야지만 타작. {그사람이 와야지만 타작.}
10339 # 그러츄 그사라미 오야 베 빌 쩌기 베 비구 따지머는 베 빈늠 가따 또 세 그사람 오야 세지 그 저 집 지푸래기어구 마으야니께 야중이. {그렇죠, 그 사람이 와야 벼 벨 적에 벼 베고, 따지면은 벼 벤 놈 가져다 또 세, 그 사람 와야 세지, 그, 저 짚, 지푸라기하고 맞아야 하니까, 나중에.}
10339 @ 그러면요 요 금 그 그럼 삼칠쩨에서 또 반바날 때도 이써나. {그러면요, 요, 금, 그, 그럼 삼칠제에서 또 반반할 때도 있었나요?}
10339 # 에 그게 요 인제 오 저 오: 오아라구 오 그게 오 하리라구 고 야중이 그게 에:: 원 그 때:는 난 몰르거꾸먼 한 박정이 시절버터 마마 오십프로 저 오할타자개떤 모양여 반반. {예, 그게 요, 인제 오, 저 오, 오할이라고, 오, 그게 오할이라고, 그 나중에 그게, 에, 원 그 때는 나는 모르겠구만, 한 박정희 시절부터 아마 오십프로, 저 오할 타작했던 모양이야, 반반.}
10339 @ 게 요즈믄 인제 꺼꿀로 칠쌈. {그게 요즘은 인제, 거꾸로 칠삼[x제가x].}
10339 # 꺼꿀로 되찌 지금. {거꾸로 됐지, 지금.}
10339 @ 칠쌈제요 그러구 또 농사 뭉능 논두 만쵸? 무근 받 이렁거 묵빤. {칠삼제요, 그리고 또 농사 묵는 논도 많지요? 묵은 밭 이런 거, 묵밭.}
10339 # 우에 그저니유? {왜, 그전에요?}
10339 @ 지그묘. {지금이요.}
10339 # 지:끄믄 뭉능거 만치먼 그 때는 물:꾸녕 물 요러케 나온데만 열포기도 가따 소니로 꼬자써 지끄믄 간척찌가 지금 우리나라서 월마나 느러나쓰 간척찌. {지금은 묵는 거 많지만, 그 때는 물구멍, 물 요렇게 나온 데만 열 포기도 갖다 손으로 꽂았어, 지금은 간척지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늘어났어요, 간척지.}
10339 @ 간척찌요 그 개자리라고 하능게 그렁거에요? {간척지요, 그 게자리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10339 # 그러치 개자리가 개자리:는 논꾸텡이 소 소 쟁기 안단디 그거 보구서 개자리라구 허지. {그렇지, 개자리가, 개자리는 논 구석, 소, 소 쟁기 안 닿는 데 그거 보고서 개자리라고 하지.}
10339 @ 아 거이 다 다 시머꼬요 그라고 사네 보믄. {아, 거의 다, 다 심어고요, 그러고 산에 보면.}
10339 # 그건 소시랑으로 다 파. {그건 쇠스랑으로 다 파.}
10339 @ 사네두 머 개가나고 그래짜나요 다. {산에도 뭐 개간하고 그랬잖아요, 다.}
10339 # 그래서 그게 박정으 시절버텀 미국써 밀까루 줘가지구서 그 개간 하기 시자캐가꾸 그때버턴 갠차내찌유. {그래서 그게 박정희 시절부터 미국에서 밀가루를 줘가지고서, 그 개간하기 시작해갖고 그때부터 괜찮았지요.}
10340 @ 그럼 옌나레 인제 푸마씨::는 그 어떤 이를 하기 위해서 결썽되고 어떠게 이라는가 좀 여쩌볼라고 하거든요 우선 푸마씨에 대애서요. {그럼 옛날에, 인제 품앗이는 그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결성되고, 어떻게 일하는가 좀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우선 품앗이에 대해서요.}
10340 # 푸마시느뉴 아무꺼사 싹:다 일 서로 내가 혜주구 혜주먼 그사람 오너서 우리일 혜

주구 허는 게 푸마시유 예. {품앗이는 아무거나, 싹 다, 일 서로 내가 해주고, 해주면 그 사람 와서 우리일 해주고 하는 게 품앗이요, 예.}
10340 @ 그라고 이제 그럼 그 품마씨 할 때 주로 모내기:는 어트게 푸마씨를 해? {그러고, 인제 그럼 그 품앗이 할 때 주로 모내기는 어떻게 품앗이를 해?}
10340 # 모내:기두 모내기 푸마시쥬 모내기 푸마신디 그때는 푸마시가 이꾸 고지라 품파라 대니는 사람 고지가 이써슈. {모내기도 모내기 품앗이죠, 모내기 품앗이인데, 그 때는 품앗이가 있고, 고지품 팔아 다니는 사람, 고지가 있었어요.}
10340 # 고지라구 에:: 인제 그때 고지는 한: 마지기 한: 마지기 내가 하루에 우껴어능거에. {고지라고, 에, 인제 그때 고지는 한 마지기, 한 마지기 내가 하루에 고지하는 거, 에.}
10340 # 새버기 가서 모를 찌든지 소니로 쩌서 한: 마지기 시머내야야. {새벽에 가서 모를 찌든지, 손으로 쪄서 한 마지기 심어내야 해.}
10340 @ 아: 그. {아, 그.}
10340 # 그게 고지여 베 한 말. {그게 고지야, 벼 한 말이.}
10340 @ 아: 베 한말. {아, 벼 한 말.}
10340 # 에 베 한말 바꾸서 그거 허능겨. {예, 벼 한 말 받고서 그거 하는 거에요.}
10340 @ 아 품마씨는 기낭 서루. {아, 품앗이는 그냥 서로.}
10340 # 푸마시는 서루 내야 하구 내야 허머는 나서 그거 해주구 저사람 오서 나 해주먼 내가 가서 해주구 허능 게 푸마시구. {품앗이는 서로 내것 하고, 내것 하면 나도 그거 해주고, 저사람 와서 나 해주면, 내가 가서 해주고 하는 게 품앗이고.}
10340 @ 혹씨 그 모내기 할 때 그 두레두 핸나요? 여럳 동네에서 가치. {혹시 그 모내기 할 때 그 두레도 했나요? 여러 동네에서 같이.}
10340 # 모내::기 헐쩌기는 두레는 웁꾸 여기는 그거 여긴 두레가 읍써슈 그저니 바처바끼서는. {모내기 할 적에는 두레는 없고, 여기는 그거, 여기는 두레가 없었어요, 그전에 밭에 밖에서는.}
10340 # 모내기얼 쩌기 두레는 몰르는디 논 매:구 어:: 헐쩌기는 아마 두레 해떤게름 증 어려우니께 그게 어렵찌 앙케 맹기느라구 아마 한 모양이여. {모내기 할 적에 두레는 모르는데, 논 매고 어, 할 적에는 아마 두레 했던가 봐, 정말 어려우니까 그게 어렵지 않게 만드느라고 아마 한 모양이야.}
10340 @ 그럼 인제 모내:기를 하고 김매기 이짜나요? 아까 지심 맨다고 그러나요 김 맨다고 그러나요? {그럼 인제 모내기를 하고, 김매기 있잖아요? 아까 지심맨다고 그러나요, 김 맨다고 그러나요?}
10340 # 그러치 그 논: 여기선 논: 맨다고 그류 여기선. {그렇지, 그 논, 여기에서는 논 맨다고 그래요, 여기에서는.}
10340 @ 논 맬 때도 그케 푸마씨를 해써요? {논 맬 때도 그렇게 품앗이를 했어요?}
10340 # 그거뚜 푸마시주 예 품 팔러 간 사람두 만쿠. {그것도 품앗이죠, 예, 품 팔러 간 사람도 많고.}
10340 @ 그래 푸마시를 예를 들먼요 어떤 부니 다른 사람 예를 들먼 모내기를 해따 하면 꼭 모내기를 해줄찌 앙쿠 다른 거 해줘도 되나요? {그럼 품앗이를 예를 들면요, 어떤 분이 다른 사람, 예를 들면 모내기를 했다 하면 꼭 모내기를 해주지 않고 다른 거 해줘도 되나요?}
10340 # 그러추 모 그러추 그건 푸마시는 그러케 헐 수 이찌. 따지머는 모시머 주구서 전

싸라미 오서 보리 비드래두 그건 저 푸마시니께 아무 이리래두 상관 업찌유. {그렇죠, 모, 그렇죠, 그건 품앗이는 그렇게 할 수 있지. 따지면은 모심어 주고서, 전 사람이 와서 보리 베더라도 그건, 저 품앗이니까 아무 일이라도 상관 없지요.}
10340 @ 대는 옌나레 푸마시는 주로 아침 메시쯤 가서 일 시자개써요? {대개 옛날에 품앗이는 주로 아침 몇 시쯤 가서 일 시작했어요?}
10340 # 그러치유 고게 지끄므로 말하믄 한 여들시 쩡도 아침 여들시머는 여들시 또가치다. {그렇죠,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 한 여덟 시 정도, 아침 여덟 시면 여덟 시, 똑같이 다.}
10340 @ 너무 훠나케서 가껜네요, 여들시믄 요쯤 가트면. {너무 훤해서 갔겠네요, 여덟 시면 요즘 같으면.}
10340 # 그러니께 저 머 저녁기 태 시마이 헐 저기. {그러니까, 저, 뭐 저녁 때쯤 끝낼 적에.}
10340 @ 아침 시자근. {아침 시작은.}
10340 # 아침 시작? {아침 시작?}
10340 @ 에 모내기 거튼 건 좀 일찍 까야 될 거 아녀요?. {예, 모내기 같은 건 하면 좀 일찍 가야 될 거 아니에요?}
10340 # 이거 어 일찍 가지유 한 여 지끄므로 말하믄 한 일곱씨 되까 그거? 시가는 몰루지만. {이거 어, 일찍 가죠, 한 여, 지금으로 말하면 한 일곱 시 될까, 그거? 시간은 모르지만.}
10340 @ 저녀게는 한 여덜시꺼줌 어숨컴커말 때까지. {그 저녁에는 한 여덟 시까지, 어두컴컴할 때까지.}
10340 # 그러추 어둠침치만 여들시까장 이를 정도 되구 그러믄 올마여? 한 열써너시간 이라자뉴? {그렇죠, 어둠침침한 여덟 시까지 이를 정도 되고, 그러면 얼마야? 한 열 서너시간 일하잖아요?}
10340 @ 그래서 이라고 오면 보먼 너무 이를 마니애서 그 초뿔 써노코 밥 머꾸 불 써노쿠 밥 머근 거 내 기어기. {그래서 일하고 와서 보면 너무 일을 많이 해서, 그 촛불 켜놓고 밥 먹고, 불 켜놓고 밥 먹은 거 내가 기억이.}
10340 # 바스멀 쩌기는 타자걸 쩌기는뉴 그 타자글 여기서 바스미라고 허는디 바스멀 쩌기는 그 저 머 베 나뭉거 갈량애서 지끄므로 마라믄 아 아:옵시까장 핻뿔 들구서 아옵시까장 바스멀 쩌기두 이쓰. {타작할 적에는, 타작할 적에는요, 그 타작을 여기서 바슴이라고 하는데, 타작 할 적에는 그, 저, 뭐 벼 남은 거 모아서 지금으로 말하면 아, 아홉 시까지 횃불 들고서 아홉 시까지 타작할 적도 있어요.}
10340 @ 아: 그래요? 아:이구 고생아션네. {아, 그래요? 아이구, 고생하셨네.}
10340 # 고거 다 해야알 테니께. {그거 다 해야 할 테니까.}
10340 @ 그럼 인제 오 그 인제 타자가는 걷 쫌 애기 좀 해 주세요 타자글 어트게 핸는가 타자가는 과정. {그럼 인제, 오, 그 인제 타작하는 것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타작을 어떻게 했는가, 타작하는 과정.}
10340 # 타자가는 과정이 그링게 지끔 얘기하능게. {타작하는 과정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10340 @ 예를 들먼요 예 인제 모내기 해서 모내기 인제 짐두 매 맬 꺼 아네요? 그라먼 인제 그 모 베늘 때는 어트게 서로 푸마시를? {예를 들면요, 예, 인제 모내기 해서, 모내기 인제 김도 매, 맬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그 모 벨 때는 어떻게 서로 품앗이를?}

10340 # 모: 베는 거요? {모 베는 거요?}
10340 @ 아니 저 나락 벨 때 베 벨 때. {아니, 저 나락 벨 때, 벼 벨 때.}
10340 # 에: 그거는 그러기 사라미 인저 가서 품질 따지먼 여기선 품: 팔러 간다겨. {에, 그거는, 그러니까 사람이 인제 가서 품질 따지면, 여기에서는 품 팔러 간다고 해.}
10340 @ 아: 품 팔러 간다고 그래. {아, 품 팔러 간다고 그래.}
10340 # 품 팔러 간다구 그게 인저 삭 바꾸서 가는 사라미꾸 푸마시루 가는 사라미꾸 그 대중 읍지요. 그런디 푸마시는 베 베 벼따구 애서 꼭 베만 베주는 게 아니구 그 머 땅거 헐 쩌기 가서 해줘도 되구 그거 상관 업쓰 그건 그러지. {품 팔러 간다고, 그게 인제 삯 받고서 가는 사람 있고, 품앗이로 가는 사람 있고, 그 대중 없지요. 그런데 품앗이는 벼, 벼 벴다고 해서 꼭 벼만 베주는 게 아니고, 그, 뭐 딴 거 할 적에 가서 해줘도 되고, 그거 상관 없어요 그건, 그러지.}
10340 @ 게 타작::뚜 푸마시루 하는구먼요. {그거 타작도 품앗이로 하는구만요.}
10340 # 그러추 예 농사진는 사람찌리는 푸마시구 농사 움는 사라믄 품싹 바꾸서 강거구. {그렇죠, 농사짓는 사람끼리는 품앗이고, 농사 없는 사람은 품삯 받고서 간 거고.}
10340 @ 금 이 혹씨 여기는 서사는 마느를 마니 심떠라고요?{그럼 이, 혹시 여기는 서산은 마늘을 많이 심더라고요?}
10340 # 예.{예.}
10340 @ 마늘 시믈 때두 어트게 혼자 그 심나요, 아니면? {마늘 심을 때도 어떻게 혼자 그렇게 심나요, 아니면?}
10340 # 그게 인저 혼저 심는 사라미꾸 마:니 심는 사람 그거뚜 그거뚜 푸마시 해요. {그게 인제 혼자 심는 사람 있고, 많이 심는 사람 그것도, 그것도 품앗이 해요.}
10340 @ 그다메 인제 그 수 수스기라고 하죠 수숙 조여 조바뚜 혼자는 몬맬 꺼 아니에요?{그 다음에 인제 그, 수, 수슥(+조)라고 하죠, 수숙, 조요, 조밭도 혼자는 못 맬 거 아니에요?}
10340 @ 엔나른 조를 마니 시머쓰니까. {옛날에는 조를 많이 심었으니까.}
10340 # 에 스:슥 조: 그러죠. 고거또 인제 외냐아믄 푸마씨애서 매는 사람 이꾸 혼저 쬐끄머는 사람 혼저 매구 또 마니안 디 사람 사서 매는 수 이꾸 에 저 머뎌요 그게. {에, 스슥(+조), 조, 그렇죠. 그것도 인제, 왜냐하면 품앗이해서 매는 사람 있고, 혼자 조금하면은 사람 혼자 매고, 또 많이한 데 사람 사서 매는 수도 있고, 에, 저 뭣해요, 그게.}
10340 @ 그럼뇨 이 지붕 올리는 거 이짜나요? 집 집 지패이는 거요 에 고 과정 좀 한 번 해보세요 집 집. {그럼요, 이 지붕 올리는 거 있잖아요? 집, 집, 집 해이는 거요, 예, 고 과정 좀 한 번 해보세요, 집, 집.}
10340 # 지비유? 지:비 인제 농안기 농사지쿠서는 인저 집 해이는디요 우선 그거 지벙 한 버네 일자먼 오래 시도애야 할껴. 인제 샌내끼 꼬야 하거든요 새낄 꽈서 인저 수십타래 인제 맹리러 노쿠서는 또 인저 나:래 여끄야요. {집이요? 집이 인제 농한기, 농사짓고서는 인제 집 해이는데요, 우선 그거 지붕 한 번에 이자면 오래 시도해야 할거요. 인제 새끼 꽈야 하거든요, 새끼를 꽈서 인제 수십 타래 만들어 놓고서는, 또 인제 나래 엮어야 해요.}
10340 # 나래 지브루 댄디 나래 여꺼서 보:통 보먼 한 삼십통 사십통씩 여꺼 놔따가 인제 하루에 해뉘 해이는디 하자머는 그게 집 한 열:칸짜리 하나 아자먼 사람 한 다서 여서: 시 하루. 예. {나래 집으로 된 데, 나래 엮어서 보통 보면 한 삼십 통, 사십통 씩 엮어 놨다가, 인제 하루에 해놓, 해이는데, 하자면은 그게 집 한 열 칸짜리 하나 하자면 사람 한 다섯, 여

섯이 하루, 예.}
10340 @ 그러먼 고날 나래는 미리 여꺼노나요? {그러면 그날 나래는 미리 엮어 놓나요?}
10340 # 그러치 여꺼노으야 그날 하루에 다 해일 쑤 이쓰 해이능걸 가따 둘레둘레 가더 돌리먼 데니께 그러구 샌내끼루 무꺼야만 데니께. {그렇지, 엮어 놓아야 그날 하루에 다 해일 수 있어요, 해이는 걸 갖다 둘레둘레 갖다 돌리면 되니까, 그리고 샛내끼로 묶어야만 되니까.}
10340 @ 참 힘드러껜네요 그걸 무꺼내요 샌내끼를. {참 힘들었겠네요, 그걸 묶어내요, 새끼를.}
10340 # 아:이구 보:통. {아이구, 보통.}
10340 @ 그러믄 지배애일 때는 나래를. {그러면 집 해일 때는 나래를.}
10340 # 나:래 올리는디요. {나래 올리는데요.}
10340 @ 어트게 올려요? {어떻게 올려요?}
10340 # 나래 올리능게 그게 나래 한통이먼 지판 단뭍 따릉게거든 예 단뭍따른 지빈디 통으로 이거마난디 무거요 그거. {나래 올리는 게, 그게 나래 한 통이면 집 한 단, 뭇 다는 거거든, 예, 단 뭇 다는 집인데, 통이 이것만한데 무거워요, 그거.}
10340 # 그러머는 지봉이다 고:사시라구 먼저 샌내끼루 매여 응 고사시라구 샌내끼를 전부 느려서 이 망개비 내가 매서 튼튼너게 매서. {그러면 지붕에다 고삿이라고 먼저 새끼로 매요, 응, 고삿이라고 새끼를 전부 늘여서 이 벌이줄 동이기, 내가 매서 튼튼하게 매서.}
10340 @ 망개비요? {벌이줄 동이기요?}
10340 # 예 망재비라구 샌내끼 지봉 추녀에 거기다 샌내끼 매능거 보구 망 맹 망재비라구 여. {예, 벌이줄 동이기라고, 새끼, 지붕 추녀에 거기다 새끼 매는 거 보고 망, 맹, 망재비라고 해.}
10340 @ 망 아: 고걸 예. {망, 아, 그걸 예.}
10340 # 거기다 매서 꼭 고여 노쿠선 나래를 올리지 나래를 올려가지구서 이 둘룰쩌기 그냥 둘르먼 데거쑈? 그렁끼 그 샌내끼다가 일:리리 그 그 집 지푸새기구 올거매가머 도라가 여러시 그렁끼 여러시 삐잉삔 도라가. {거기다 매서 꼭 고정시켜 놓고서 나래를 올리지, 나래를 올려가지고서 이 두를 적에 그냥 두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새끼에다가 일일이 그, 그 짚, 짚새기로 옭아매가며 돌아가 여럿이, 그러니까 여럿이 빙빙 돌아가.}
10340 @ 그러면. {그러면.}
10340 # 그러구 나래를 팩팩 나래 올릴 쩌기는 새닥따리 노쿠서 한사나 그게 지비 너픈 지븐 두사람 새닥따리 타야여. 그러구 여기서 하나 올려주먼 한 사라미 바더서 또 우이 싸라미 바더가꾸 지붕이서 바드야거든. {그러고 나래를 팍팍, 나래 올릴 적에는 사다리를 놓고서 한 사람, 그게 집이 높은 집은 두 사람이 사다리 타야 해. 그러고 여기서 하나 올려주면 한 사람이 받아서 또 윗 사람이 받아갖고 지붕에서 받아야 하거든.}
10340 # 그래서 가운데 용마루에다가 그느믈 책::책 싸노쿠서 저기 용마루다 뺑:: 돌려 이러케 싸오는 싸논는 시끼 이쓰 그거뚜. {그래서 가운데 용마루에다가 그 놈을 차례차례 쌓아 놓고서, 저기 용마루에다 뺑 돌려 이렇게, 싸는, 쌓아 놓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도.}
10340 # 싸놔따가 그늠 다 올리구 난 다으메 삼십통이구 한 사십통 올려 노쿠서 고기서 하나씩 살살 빼서 돌리능게유 그게. {쌓아 놨다가 그놈 다 올리고 난 다음에 삼십 통이고, 한 사십 통 올려 놓고서 고기서 하나씩 살살 빼서 돌리는 거예요, 그게.}
10340 @ 그러며뇨 집 해일 때 위서부터 해이르나요? {그러면 집 해일 때, 위에서부터 해이나요?}

10340 # 아:니 미티서부텀 해 올라가야쥬 예 지봉 이게 지봉 추녀먼 요기서부텀 요게 돌려 올라가스먼 나래가 인저 자꾸 웁써질 꺼 아뉴? 용마루서 게 웁써진 눔 인저 메깨 안나믄 느므루 인저 용마루 이게 돌리지. {아니, 밑에서부터 해 올라가야죠, 예, 지붕, 이게 지붕 추녀면 여기서부터 요게 돌려 올라갔으면, 나래가 인제 자꾸 없어질 거 아니에요? 용마루에서 그게 없어진 놈, 인제 몇 개 안 남은 놈으로 인제 용마루 이렇게 돌리지.}
10340 @ 아: 그래스 그에 새끼 때무게 그 저 지붕에 매달려 이꾸먼요 그게 그 새끼 그래서 그럼 고걸 다 나래. {아, 그래서 그게 새끼 때문에 그, 저 지붕에 매달려 있구먼요 그게, 그 새끼, 그래서 그럼 고걸 다 나래.}
10340 # 그게 미티 미티 샌내끼 보구는 맹건 고:사시라구 허지. {그게 밑에, 밑에 새끼보고는 맨 건 고삿이라고 하지.}
10340 @ 고삳. {고삿.}
10340 # 고삳 고사슬 매노야 나래를 둘르믄 나래가 미끼러 내려가들 아냐. 예 거기다 인저 올 올 책책 올거매니께. {고삿, 고삿를 매어 놔야, 나래를 두르면 나래가 미끄러져서 내려가지를 않아. 예, 거기다 인제 올, 올, 차례차례 옭아 매니까.}
10340 @ 예 그러면 전체를 또. {예, 그러면 전체를 또.}
10340 # 그러구선 예 전체 돌리구서는 우이다 또 우이 샌내끼를 우이 또 새끼루 매쟈 매야지. {그러고서, 예, 전체 돌리고서는 위에다 또, 위, 새끼를 위, 또 새끼로 매지, 매야지.}
10340 @ 아이구 새끼 마:니 드러가건네요. {아이구, 새끼 많이 들어가겠네요.}
10340 # 책책 예.{차례차례, 예.}
10340 # 마니 드러가요 그렁께 한달 전버텀 샌내끼 꼬야여 꼬야 그저니는 이 기계 쌘내끼 두 웁써서 소니루 다 꽈슈 이러케 다.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 달 전부터 새끼 꽈야 해, 꽈야, 그 전에는 이 기계 새끼도 없어서 손으로 다 꽜어요, 이렇게 다.}
10340 @ 주로 산내끼를 어디서 꽈요? {주로 새끼를 어디에서 꽈요?}
10340 # 샌내끼 일터. {샛내끼 일터.}
10340 @ 지비서 꽈요? 사랑방에서 꽈요. {집에서 꽈요? 사랑방에서 꽈요?}
10340 # 지비서 사랑방이서 꼬고 지비서두 꼬고 인저 집토매가꾸 와서 사랑방이 가서 꽈가꾸두 오구. {집에서, 사랑방에서 꼬고, 집에서도 꼬고, 인제 짚단 갖고 와서, 사랑방에 가서 꽈 가지고도 오고.}
10340 @ 옌나레는 사라방에 자주 이 이용해떤 거 가태요. {옛날에는 사랑방을 자주 이용했던 것 같아요.}
10340 # 사랑방 그 사람 꾀는 지비 터가 이써 따루. 거 사랑방에 가먼 거기서 외 사랑방이서 사라믈 외 께거 혀 허능걸 거기루 사람 불러 등구어니. {사랑방, 그 사람 꾀는 집이, 터가 있어 따로. 거 사랑방에 가면 거기서, 왜 사랑방에서 사람으로 왜 꾀게 해, 하는 걸, 거기로 사람 불러 들이는고 하니.}
10340 # 그러믄 저녀기 인저 고구마 가튼 거 쩌서 내노쿠 인저 사라미 마니명은 거:르미 읍씽께 오:줌 반느라구. {그러면 저녁에 인제 고구마 같은 거 쪄서 내놓고, 인제 사람이 많으면은 거름이 없으니까 오줌 받느라고.}
10340 @ 하 그래요? {하, 그래요?}
10340 # 사람 오줌 반느라구 오주미 하루 쩌녀기믄 한통씩 나오거든 그럼 바티다 거르머 느라구 거름. {사람 오줌 받느라고, 오줌이 하루 저녁이면 한 통씩 나오거든, 그럼 밭에다

거름 하느라고, 거름.}
10340 @ 옌:날 오줌통은 멀루 해써요? 그럼 만드러써요? {옛날 오줌통은 무엇으로 했어요? 그럼 만들었어요?}
10340 # 오 오줌통 그저니는 야중이는 그 질그르스르 나완는디 그저니는 그 저 통 그 나무루 이러케 사서 대통으로 이러케 돌링거 허다가 그게 인저 웁써지니께는 질동이 질그른. {오, 오줌통 그 전에는, 나중에는 그 질그릇으로 나왔는데, 그 전에는 그, 저, 통, 그 나무로 이렇게 사서 대통으로 이렇게 돌린 거 하다가, 그게 인제 없어지니까는 질동이, 질그릇.}
10340 # 질:그르스루 나와서 인저 그 거기다가 얼맹이 막때기 이러케 해서 이러케 우리 짜가꾸서는 오줌통 맹길구 지끄믄 저 머 다얀 절뚜 절딴 난걸루 지끄믄 맹그러 나오니께 조트먼서두 메부처두 깨지두 안쿠. {질그릇으로 나와서, 인제 그 거기에다가 어레미, 막대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 짜가지고는 오줌통 만들고, 지금은 저, 뭐 타이어 절단, 절단낸 걸로, 지금은 만들어 나오니까 좋으면서도, 메어쳐도 깨지지도 않고.}
10340 # 게가 오줌 반느라구 그러구 또 인저 사랑방에서 샌내끼 꼬믄 검불 나오자뉴? 그 검불 바꾸 오줌 바꾸 그러느라구. {거기다가 오줌 받느라고, 그러고 또 인제 사랑방에서 새끼 꼬면 검불 나오잖아요? 그 검불 받고, 오줌 받고, 그러느라고.}
10340 @ 그러니라구요, 아:이구 참. {그러느라고요, 아이구, 참.}
10340 # 지끄믄 오줌 내:버리자뉴, 지금? {지금은 오줌 내버리잖아요, 지금?}
10340 @ 때버리지요. {내버리지요.}
10340 # 정화조로 애서 그:때는 인:분 한 무지개이 물 열 무재이 가꾸서 쐬겨서 바차 낻쓰. {정화조로 해서, 그때는 인분 한 물지게에, 물 열 물지게 가지고 속여서 밭에다 놨어요.}
10340 @ 응:: 그래요? 아 물. {그래요? 아, 물.}
10340 # 거름 웁써서 아 비료가 인나 머인나 아무거뚜 업꾸 그냥 순저니 테비 거르므루 허는디 이 보:리 갈머는 보리 바티다가 물 바가지루 언져 무지개다 지구 가서. {거름 없어서, 아, 비료가 있나,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고, 그냥 순전히 퇴비 거름으로 하는데, 이 보리 갈면은 보리밭에다가 물 바가지로 얹어, 물지게로 지고 가서.}
10340 @ 똥물요? {똥물이요?}
10340 # 그러믄 언진디어구 안 언진디어구 천지차이여. {그러면 얹은 데하고, 안 얹은 데하고 천지 차이야.}
10340 @ 달라요?{달라요?}
10340 # 달러 완저니 달러 오줌 언진디어구 안 언진디어구. {달라, 완전히 달라, 오줌 얹은 데하고, 안 얹은 데하고.}
10340 @ 그럼 저 그 옌나레 품싹 이쪼. 아까 인제 푸:마시는 인제 품싸글 안 반는거고 그게 품 판다고 그런 마를 아까 쓰셔짜나요? 고거 그라믄 옌날 지끄믄 인제 어르시니 한 절머쓸 때 한 데 청년 시저레요 그때 정도는 품싸기 어느 정도 되써요? {그럼 저, 그 옛날에 품삯 있죠. 아까 인제, 품앗이는 인제 품삯을 안 받는거고, 그게 품 판다고 그런 말을 아까 쓰셨잖아요? 고거 그러면 옛날, 지금은 인제 어르신이 한 젊었을 때, 한 때 청년 시절에요, 그때 정도는 품삯이 어느 정도 됐어요?}
10340 # 품:싸기 그매그로는 몰르지만유. {품삯이 금액으로는 모르지만요.}
10340 @ 에 쌀루 해써요 그때는요? {에, 쌀로 했어요, 그때는요?}
10340 # 쌀:루 핸는디 쌀 서:데깝. {쌀로 했는데, 쌀 세 되 값.}

10340 @ 하루에요? {하루에요?}
10340 # 예.{예.}
10340 # 죙이래야 스데깝. {종일해야 세 되 값.}
10340 @ 장정이요? {장정이요?}
10340 # 에 장정이. {예, 장정이.}
10340 @ 또 여들믄 아주머니들도 가서 반매고 할 꺼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품싸기 더 싸겐네요? {또 예를 들면, 아주머니들도 가서 밭 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품삯이 더 싸겠네요?}
10340 # 그:때 그때는 여자드른 머 품까브루 따질꺼뚜 읍꾸 쌀떼 바께라두 무더씰테지 멀. {그때, 그 때는 여자들은 뭐 품값으로 따질 것도 없고, 쌀 되밖에도 못했을 테지, 뭘.}
10340 @ 아주. {아주.}
10340 # 지끄므루 마라믄 거 얼마요? 스:데먼 지끔 멛키로여,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 그거 얼마에요? 서 되면 지금 몇 킬로에요, 그게?}
10340 @ 스:데머는. {서 되면은.}
10340 # 지끔 스:데머는 한 이키로 되까? {지금 서 되면은 한 이킬로 될까?}
10340 @ 한 마리. {한 말이.}
10340 # 이:키로. {이 킬로.}
10340 @ 한 마리 열 뙨가요 다서 뙨가요 여기서는? {한 말이 열 되인가요, 다섯 되인가요, 여기에서는?}
10340 # 그런디 여기서는 에:: 그때 이 요게 말루 데는디요 되루 요 까끄머는 열떼 꼭 드러가 말루. {그런데 여기에서는, 에, 요게 말로 되는데요, 되로 여기 깎으면은 열 되 꼭 들어가, 말로.}
10340 # 인제 고:봉 데머는 여들떼 정도머는 말루 인저 한 마리 데거든?{인제 고봉되면은 여덟 되 정도면 말로, 인제 한 말이 되거든?}
10340 # 그러니께 표주니 그게 그저니는 요기 곡씨글 델쩌기 깡는 방맹이 쪼꼬든 느므루 싹싹 까꺼서 이러케 맹그러찌. {그러니까 표준이 그게, 그전에는 여기 곡식을 될 적에 깎는 방망이 쪽 곧은 놈으로 싹싹 깎아서 이렇게 만들었지.}
10340 @ 그러니 여 사미를 해야지 한 마 싸란마리 지금 한 이마넌도 안데겐네요 차 그러니 한 그 이만 얼마 철처넌 육처넌 품싹 이:루 따지먼. {그러니 삼일을 해야지 한 말, 쌀 한 말이 지금 한 이만 원도 안 되겠네요, 참 그러니, 한 그 이만 얼마 칠천 원, 육천 원, 품삯으로 따지면.}
10340 # 품싸그로 지끄므루 마래두 지끔 쌀 스데까비머는 이:: 지끔 이십키로에 사마넌 따저두. {품삯으로, 지금으로 말해도, 지금 쌀 서 되 값이면은 이, 지금 이십킬로에 사만 원 따져도.}
10340 @ 얼마 안대요 에. {얼마 안돼요, 예.}
10340 # 그러니께 그 머머 마런 허지만 베 스믄 그걷 빠라구서 그거뚜 그거 품싹보덤두 배고퍼서 그 지비 가믄 잘 머그니께 딥따 품 안 바꾸서 그냥 가는 사람 이써쓰.{그러니까 그 뭐, 뭐 말은 하지만 벼 세 뭇 그것 바라고, 그것도 그거 품삯보다도 배고파서, 그 집에 가면 잘 먹으니까 냅다 품 안 받고서 그냥 가는 사람 있었어요.}
10340 # 모꾸녕사 머꾸냥 살라구. {목구멍 살, 목구멍 살려고(+먹고 살려고).}
10341 @ 그 옌날 여기서는 인제 일꾼 으능거요 이걸 노번는다고 그래 일꾸는는다고 그래

써요, 여기서는? {그 옛날 여기서는 인제 일꾼 얻는거요, 이걸 놉 얻는다고 그랬어요, 일꾼 얻는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10341 # 일:꾼 은는 은는다고 해쓰 여기. {일꾼 얻는, 얻는다고 했어요, 여기.}
10341 @ 그럼 일꾼 어더 이랄 때 이제 식싸와 간씩 꺼튼 걸 주야 델꺼 아네요? {그러면 일꾼 얻어서 일할 때, 이제 식사와 간식 같은 것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10341 # 그러치유. {그렇지요.}
10341 @ 그래서 쫌 그 요즘과 비교애서요 어떤 걸 차이가 인나 좀 해주세요. {그래서 좀, 그 요즘과 비교해서요, 어떤 것이 차이가 있나, 좀 해주세요.}
10341 # 에: 그때는 저 머 그게 저 따지먼 그 품: 사는 사람드른 인는 사라미 사씨니께 인는 사라미 사씨니께 실참 그 저 보리수리라두 술 마껄리. {에, 그때는 저, 뭐 그게, 저 따지면 그 품 사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이 샀으니까, 있는 사람이 샀으니까 새참, 그, 저 보리술이라도, 술, 막걸리.}
10341 # 마껄리에다가 저 머 요 그거. {막걸리에다가 저, 뭐, 요, 그거.}
10341 @ 예 마껄리. {예, 막걸리.}
10341 # 마껄리 머꾸 그저니는 그 저 머 참 머더니께 우리 처알쩌기만 해두 실차므로 저 그 막 점심 머꾸 나오먼 찬밥 쭈든지 또 아침 실차미:는 저 머 밀꾹까튼 거 해서 나오구 인저 그러케 해쓰요. {막걸리 먹고, 그전에는 그, 저, 뭐 참 뭣하니까, 우리 철 알 적에만 해도 새참으로 저, 그 막, 점심 먹고 나오면 찬밥 주든지, 또 아침 새참에는 저, 뭐 밀국수 같은 거 해서 나오고, 인제 그렇게 했어요.}
10341 @ 그러며뇨 품::을 팔러가면 아:침부터 머건나요, 가서? {그러면 품을 팔러가면 아침부터 먹었나요, 가서?}
10341 # 아치믄 지비서 머꾸 가고 아침 실:참부텀. {아침은 집에서 먹고 가고, 아침 새참부터.}
10341 @ 실참 그다으메 점심. {새참, 그 다음에 점심.}
10341 # 즘:심 저녁 실참. {점심, 저녁 새참.}
10341 @ 그다으메 저녀꺼지 주구요? {그 다음에 저녁까지 주고요?}
10341 # 예:.{예.}
10341 # 그러구 저녁 저녁 저녀근 머꾸. {그리고 나서 저녁, 저녁, 저녁은 먹고.}
10341 @ 예를 들먼 이제 그 아까 품마시 알 때 예를 들먼 이 모심:겨나든가 벼 벨 때는 사래미 마니 올 꺼 아녀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아까 품앗이 할 때, 예를 들면 이 모심기라든가, 벼 벨 때는 사람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10341 # 그러초. {그렇죠.}
10341 @ 그런 때는 좀 반차늘 주로 자래주나요? {그런 때는 좀 반찬을 주로 잘 해주나요?}
10341 # 그러니께 잘 해주구 아내주구 그 때야 머 모순 반차니 이꺼슈 머. {그러니까 잘 해주고, 안 해주고, 그때야 뭐 무슨 반찬이 있겠어요, 뭐.}
10341 # 저 머 김치 그런긴디 워쩌거나 에 워쩌거나 차려 논대루 차러서 주유 그러케. {저, 뭐 김치 그런 건데, 어쨌거나 차려 놓은 대로 차려서 줘요, 그렇게.}
10341 @ 아니 그게 또 어디 저 조사 해떠니 그 쪽 어르신 말쓰미 이제 그러케 푸믈 팔고 가며는 어떤 경우는 이제 부자찝 이랄 때는 그 집 시꾸들꺼지 다 가서 이를 해줘따 그나른. {아니, 그게 또 어디 저, 조사 했더니 그쪽 어르신 말씀이 이제 그렇게 품을 팔고 가면은

어떤 경우는 이제 부잣집 일할 때는 그 집 식구들까지 다 가서 일을 해줬다, 그날은.}
10341 @ 그래서 가면 그 바블 잘: 차려주고 마니 줘따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가면 그 밥을 잘 차려주고 많이 줬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0341 # 그러니께 밥: 머그러 드러가따니께 안찌브루.{그러니까 밥 먹으러 들어갔다니까, 안집으로.}
10341 # 바깐 냥반 그 집 일가믄 그 저 아니서 드러가서 으더머그러 가서 반천 디거지다 해주구 그 여러시니께 상 가튼 거 가치 놔주구 이러케 해서 참 움는 사라믄 그건 노:비차람 노예 생왈 하듣 해써. {바깥 양반이 그 집 일 가면 그, 저 안에서 들어가서 얻어먹으러 가서, 반찬 설거지 다 해주고, 그 여럿이니까 상 같은 거 같이 놔주고, 이렇게 해서 참 없는 사람은 그건 노비처럼 노예 생활하듯 했어.}
10341 @ 그담 인제 고 실차미라고 해셔쪼? 실차믄 아까 수라구 밀꾸글 준다고 하고. {그럼 인제 고 실참이라고 했었죠? 실참은 아까 술하고 밀국을 준다고 하고.}
10341 # 그러치 대 대:중 웁쓰 그거 국쑤가튱건 그때 구경두 무더구 지비서 맹긴 밀꾹 그저 자래야 하구 밥 먹따 나믄 늠 점심 머꼬 나머씨먼 그늠 찬밥 허구 술안 저 술 가져오구 그거 그래찌. {그렇지, 대, 대중 없어요, 그거 국수같은 건 그때 구경도 못하고, 집에서 만든 밀국수 그저 잘해야 하고, 밥 먹다 남은 놈, 점심 먹고 남았으면 그놈 찬밥하고, 술안, 저 술 가져오고 그거, 그랬지.}
10341 @ 그럼 농사질 때는 어떤 때를 제:일 저 어렵 어려운 때로 봐요, 농사지는 중에서? {그럼 농사지을 때는 어떤 때를 제일 저 어렵, 어려운 때로 봐요, 농사 짓는 중에서?}
10341 # 아유 어려울 농사질 쩌기가 어려울 쩌기가 모 시믈 쩌기 주로 최고 그 때가 최고지. {아유, 어려울, 농사 지을 적이, 어려울 적은 모 심을 적이 주로 최고, 그때가 최고지.}
10341 @ 모 시믈 때는. {모 심을 때는.}
10341 # 볼 보리바스머구. {보, 보리타작하고.}
10341 @ 히미 들:며는 좀 일꾼드란테 더 머 잘 잘 대 해준나요? {힘이 들면은 좀 일꾼들한테 더, 뭐, 잘, 잘 대해, 해줬나요?}
10341 # 뭘 잘 멀 잘해줘, 심. {뭘 잘, 뭘 잘해줘, 힘.}
10341 @ 수른 다 주구요? {술은 다 주고요?}
10341 # 예 수른 다 잘 주유 그럼. {예, 술은 다 잘 줘요, 그럼.}
10341 @ 요즈믄 이제 마껄리 대시네 쏘주를 마니 드시조? {요즘은 이제 막걸리 대신에 소주를 많이 드시죠?}
10341 # 지끔두 지끔 마껄리 나오능거 잘 나와 마시 조아요 에 그때 마껄리는 이 저끄락가따 세우먼 안 쓰러지오 틉트배서 그거뚜. {지금도, 지금 막걸리 나오는 거 잘 나와, 맛이 좋아요, 에, 그때 막걸리는 이 젓가락 갖다 세우면 안 쓰러져요, 텁텁해서 그것도.}
10341 @ 아까 좀 하나 빠징게 인는데요. 백 치뤌 백쭝나리라고 이짜나요? 그나른 좀 그 좀 모두 다 심꾸애서 논다고 그러데요 하루? {아까 좀 하나 빠진 것이 있는데요. 백, 칠월 백중날이라고 있잖아요? 그날은 좀, 그 좀 모도 다 심고해서 논다고 그러던데요, 하루.}
10341 # 백쭝사리요? 그때가 치:뤌 백쭝사리먼 고천 되느먼 치:뤌 백쭝사리머는 노능 게 아니라 그 때먼 한가알 때여 쪼끔. {백중사리요? 그 때가 칠월 백중사리면 고천되면, 칠월 백중사리면은 노는 게 아니라, 그 때면 한가할 때야, 조금.}
10341 @ 그래서. {그래서.}
10341 # 여름처리 농군들 한지 한쪼 한가알 때구 치:뤌 백쭝사리가 그 사린디 무리 일:년

중이서 최:고 물 마니 드롤 드러오는 사리요 그게. {여름철에 농군들조차 한 조[x금x], 한가할 때고, 칠월 백중사리가 그 사리인데, 물이 일년 중에서 최고 물 많이 들어, 들어오는 사리요, 그게.}
10341 @ 여가요? {여기가요?}
10341 # 에 그류 최:고 마니 드러요 무리. {예, 그래요, 최고 많이 들어와요, 물이.}
10341 @ 그런 때는 좀 자기 인제 아까 머스미라다 일꾼드란테 그 주이니 돈두 주고 가서 좀 하루 좀 놀구 오라구 그래따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때에는 좀 자기, 인제 아까 머슴이라든가, 일꾼들한테 그 주인이 돈도 주고, 가서 좀 하루 좀 놀고 오라고 그랬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10341 # 여기는 그런 건 웁써쓰 여기는. {여기는 그런 것은 없었어요, 여기는.}
10341 @ 기냥 쉬 쉬. {그냥 쉬, 쉬[X라고X].}
10341 # 머 치럴 백쭝사리라구 여기 무리 좀 마니 드러온다 그러는디 그때가 놀다 오라구 그렁게 아니라 이:월 초하룬날 머스미 생이리라구 이써지. {뭐 칠월 백중사리라고 여기 물이 좀 많이 들어온다 그러는데 그때가 놀다 오라고 그런 게 아니라, 이:월 초하룻날 머슴의 생일이라고 있었지.}
10341 @ 아:: 머슴. {아, 머슴.}
10341 # 머스미 생이리 이:월 초하루. {머슴의 생일이 이월 초하루.}
10341 @ 아 그나른 어트게 돼요. {아, 그날은 어떻게 돼요.}
10341 # 음력 이:월 초하루 그게 머슴들 놀러 오라구 이 저 용돈 좀 줘서 내보내고 그러길르믄. {음력 이월 초하루, 그게 머슴들 놀러 가라고 이, 저 용돈 좀 줘서 내보내고 그러 거더구먼.}
10341 @ 주이니요? 에 가서 그럼 하루 가서. {주인이요? 에, 가서, 그럼 하루 가서.}
10341 # 잉 그 이튼날 드로라 아고. {응, 그 이튿날 들어오라고 하고.}
10341 @ 그럼 여기는 인제 바다까 쪼근 바닥까에서 이래주는 사람 이써쓸 꺼 아네요? 선주가 이쓰면뇨 옌날 싸람들 중에. {그럼 여기는 인제 바닷가 쪽은, 바닷가에서 일 해주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선주가 있으면요, 옛날 사람들 중에.}
10341 # 그러치요 그걸 바다까신디 여기서 무슨 서눤들 배 불리는 사람 별로 웁써씽께. {그렇지요, 그걸 바닷가인데, 여기서 무슨 선원들 배 불리는 사람 별로 없었으니까.}
10341 @ 여기는요? {여기는요?}
10341 # 에 그런디 저 너머 변명주니라구 지그믄 안 물리느먼 그저니 그 사라미 저 머 낙씨일 빼 낙씨일 빼 구여서 낙씨일 빼도 한 여러척 대써씨요 그런디 지끄믄 그거 다 웁씅께. {예, 그런데 저 넘어 변명준이라고, 지금은 안 물리는구먼, 그전에 그 사람이 저, 뭐 낚시할 배, 낚시할 배 구해서, 낚시할 배도 한 여러 척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거 다 없어.}
10341 @ 그러믄 고기 이래주는 사람도 그 집써 밥 머꼬 다 그랜나요, 자? {그러면 고기 일 해주는 사람도 그 집에서 밥 먹고 다 그랬나요, 잠은?}
10341 # 그게 아니 지끔 자능게라능건 머슴 이상으로는 일: 가서 자구 그러케는 아내찌. {그게 아니라, 지금 자는 거라는 것은, 머슴 이상으로는 일 가서 자고 그렇게는 안했지.}
10341 @ 아니 그 고런 집 저 배 인는 집뚜 그러케 핸나 그럼 머슴. {아니, 그 고런 집, 저 배 있는 집도 그렇게 했느냐 그러면, 머슴.}
10341 # 배: 인는 지비 그거 둘 저 머가 이깐? {배 있는 집이, 그거 둘, 저 뭐가 있나?}
10341 @ 그래요? {그래요?}

10341 # 그럼 농사 마니 진는데 그때는 농사 우주에서 농사 마니 진는 사라미나 좀 머대씨까 웁씨유 그러지. {그럼, 농사 많이 짓는데, 그때는 농사 위주여서 농사 많이 짓는 사람이나 좀 뭐했을까, 없어요 그렇지.}
10341 @ 예 수고 하셔씀니다, 예.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1.4.3 옷 만들기

10418 @ 할머니 오슬 만들 쑤 인는 처는 뭐 뭐 어떵거뜨리 이써써요? {할머니, 옷을 만들 수 있는 천은 뭐, 뭐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10418 # 광 광목 저 거 호금 저기 이런 이 이렁 거 이 소총 가틍 거 그렁 걸루 맹::그러서 입꾸 저 치마는 저기 이런 소 저 치마깜 떠다가 오따 말려서 꼬매입꾸 그래쓔. {광목, 광목, 저 그, 홑겹 저기, 이런 이, 이런 거, 이 소창 같은 거, 그런 것으로 만들어서 입고, 저 치마는 저기, 이런 소, 저 치마감 떠다가 어디다 말려서 꼬매입고 그랬소.}
10418 @ 그러면 어:: 삼:: 내서 만드러지는 처는 이르미 머여쪼? {그러면 어, 삼 내서 만들어지는 천은 이름이 뭐였죠?}
10418 # 그건 저 삼: 삼: 사미라구 이러케 기::다랑거 이써 그건 인제 베껴서 저 쩌가꾸 베껴가꾸. {그건 저 삼, 삼, 삼이라고 이렇게 기다란 거 있어, 그건 인제 벗겨서, 저 쪄갖고, 벗겨갖고.}
10418 @ 거기서 나온 처는 이르미 뭬에요? {거기서 나온 천은 이름이 뭐예요?}
10418 # 그건 베지 베. {그건 베지, 베.}
10418 @ 그럼 모카에서 나오는 처느뇨? {그럼 목화에서 나오는 천은요?}
10418 # 그거는 그걷 그건 실: 실:. {그거는, 그것, 그건 실, 실.}
10418 @ 그 실 뽀바서 짠 처는 이르미 뭐조? 모카에서 실 뽀바가지고. {그 실 뽑아서 짠 천은 이름이 뭐죠? 목화에서 실 뽑아가지고.}
10418 # 그거는 광:모기지. {그것은 광목이지.}
10418 @ 그게 또 명인가요? {그게 또 명인가요?}
10418 # 예. {예.}
10418 @ 그게 명이에요? {그게 명이에요?}
10418 # 아니 명 아뇨 치 츠:닐껴 광모기. {아니, 명 아니오, 천, 천일 거야, 광목이.}
10418 @2 아니 그 어휘를 하지 말고. {아니, 그 어휘를 하지 말고.}
10418 @ 아니요. {아니요.}
10418 @2 응. {응.}
10418 # 그게 미 미 미 미게 이렁거요 이거 이거 이거. {그게 미, 미, 미, 이게, 이런 거예요, 이거, 이거, 이거.}
10418 @ 그러면 그 그거느뇨 할머니 그 그 누에고치에서 실 뽀븐 처는? {그러면, 그, 그거는요 할머니, 그, 그 누에고치에서 실 뽑은 천은?}
10418 # 그건 멩:지. {그건 명주.}
10419 @ 그러면 이런 삼베 삼베로는 어떤 오슬 만드러 이브셔써요? {그러면 이런 삼베, 삼베로는 어떤 옷을 만들어 입으셨어요?}
10419 # 사: 사:미로 허능거는 저 뭐 허믄 짜머는 인제 이케 삼 짜머는 베 거든뉴 벤디.

{삼, 삼으로 하는 것은 저, 뭐 하면, 짜면은 인제 이렇게 삼 짜면은 베이거든요, 베인데.}
10419 @ 베로는 어떤 오슬 만드러 임나요? {베로는 어떤 옷을 만들어 입나요?}
10419 # 치마두 해입꾸 접쌈 접쌈두 이게 해입꾸 저런 저 남자들 저::기 쓰봉 가튱거 지어 입꾸 와이사쓰 가튱거 지어 입꾸. {치마도 해입고, 적삼, 적삼도 이렇게 해입고, 저런 저 남자들, 저기 양복바지 같은 거 지어 입고, 와이셔츠 같은 거 지어 입고.}
10419 @ 베로여? {베로요?}
10419 # 예 그러크지. {예, 그렇게 하지.}
10419 @ 이런 명지로는뇨? {이런 명주로는요?}
10419 # 명지느은 치마저구리 바지저구리 치마저구고리 바지저구리 그거빼끼 [x웁써x]. {명주는 치마저고리, 바지저고리, 치마저고리, 바지저고리 그것밖에 [x없어x].}
10419 # 그저니 우리 친정 오머니가 질쌈 자래. {그전에 우리 친정 어머니가 길쌈 잘해.}
10419 @ 그럼 할머니 그 여자 위에 임는 오시? {그럼 할머니, 그 여자 위에 입는 옷이?}
10419 # 접쌈. {적삼.}
10419 @ 아니 위에 임는 옫 이르미 여자드른 미테는. {아니, 위에 입는 옷 이름이, 여자들은, 밑에는.}
10419 # 치마. {치마.}
10419 @ 위에는? {위에는?}
10419 # 접쌈. {적삼.}
10419 @ 아 그게 저구리가 그거에요? {아, 그게 저구리가 그거예요?}
10419 # 접싸미라구 네이 에가지러구 저구리는 안 안까장 찌어 두거불루. {적삼이라고, 네 외겹으로하고, 저구리는 안, 안까지 껴, 두겹으로.}
10419 @ 아 그면 저구리 하고? {아, 그러면 저고리하고?}
10419 # 접쌈어구 달비유. {적삼하고 달라요.}
10420 @ 아 달버요? 그러며는 이거 여기에서 이 치마저고리 여기 이름드리 이찌요? 요기요. {아, 달라요? 그러면은 이거, 여기에서 이 치마저고리, 여기 이름들이 있지요? 요기 요.}
10420 # 예 이건 저구리 이건 치마구. {예, 이건 저고리, 이건 치마이고.}
10420 @ 요 요 요기는 이르미 뭐에요? 요기 욛 요 요 동정 달리는 데. {요, 요, 요기는 이름이 뭐예요? 요기, 요, 요, 요 동정 달리는 데.}
10420 # 동장 동장. {동정, 동정.}
10420 @ 요기 요기. {요기, 요기.}
10420 # 이 하:야케 달링거. {이 하얗게 달린 거.}
10420 @ 예 요거 닫는 데 요기 이르미 뭐에요? {예, 요거 닿는 데, 요기 이름이 뭐예요?}
10420 # 모가지. {목.}
10420 @ 아 여기는 그냥 모가지 지시라곤 안해써요? {아, 여기는 그냥 목 깃이라고는 안 했어요?}
10420 # 지슨 요 미티가 또 이꾸 이 여기 이르 이르케 옴모게 파징 건 모기지. {깃은 요 밑에 또 있고, 이 여기 이렇, 이렇게 오목하게 파진 것은 목이지.}
10420 @ 그럼 다 마래주세요 할머니 요기는 모가지고. {그럼 다 말해주세요 할머니, 요기는 목이고.}
10420 # 이 이건 목 지 동잠 옥꾸름 끄똥. {이, 이건 목 깃, 동정, 옷고름, 끝동.}
10420 @ 또? {또?}

10420 # 그류. {그래요.}
10420 @ 또 이러케 팔 달린 부부는? {또 이렇게 팔 달린 부분은?}
10420 # 팔: 팔 이 팔. {팔, 팔, 이 팔.}
10420 @ 또 파리라고도 하고 오스로 마라면 이건 머에요? {또 팔이라고도 하고, 옷으로 말하면 이건 뭐예요?}
10420 # 팔:뚝. {팔뚝.}
10420 @ 소매 소매라고 해요? {소매, 소매라고 해요?}
10420 # 소매라두 허는 사라미꾸 팔뚜기라구 허는 사람두 이꾸. {소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팔뚝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10420 @ 금 이 치마는 요기 요기는 이르미 뭐에요? 요부부는뇨 요기. {그럼 이 치마는, 요기, 요기는 이름이 뭐예요? 요 부분은요, 요기.}
10420 # 이거는 허리렁거 허리구먼. {이것은 허리인 거, 허리구먼.}
10420 @ 아 그리고 이 이쪼근? {아, 그리고 이 이쪽은?}
10420 # 허리. {허리.}
10420 # 지레기. {자락.}
10420 @ 예 그러면 남자드레 남자들 오슨 남자들 오슨 이르미? {예, 그러면 남자들의, 남자들 옷은, 남자들 옷은 이름이?}
10420 # 이 이게 저 무금 바지. {이, 이게 저 묶음 바지.}
10420 @ 요기 요기 이르믄 어트게? {요기, 요기 이름은 어떻게?}
10420 # 이건 두루매개. {이건 두루마기.}
10420 @ 예 나머지는 요기 이르믄 다 또까꼬. {예, 나머지는, 요기 이름은 다 똑같고.}
10420 # 예 다 또가티유. {예, 다 똑같아요.}
10420 @ 그러면 어 여자들 치마저고리부터요 할머니 치 요기 요기 저고리가 요로케 이써요 그러면 요 동정은 멀로 만드러요? {그러면 어, 여자들 치마저고리부터요 할머니, 치, 요기, 요기 저고리가 요렇게 있어요, 그러면 요 동정은 뭘로 만들어요?}
10420 # 동정은 하::얀 지 저기 명: 가틍거루 종이 까꺼서 이러키 풀치 해서 빤빠더게 그러케 맹글던걸. {동정은 하얀 깃, 저기 무명같은 것으로, 종이 깎아서 이렇게 풀칠해서 빳빳하게, 그렇게 만들던걸.}
10420 @ 요로케 오리고 하능거는 어트게 해가지고 해요? {요렇게 오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가지고 해요?}
10420 # 이러케 오리능건 깍 가 가새루 오리드먼. {이렇게 오리는 건 가, 가, 가위로 오리더구먼.}
10420 @ 그다메 요 요기는 요 부부는 동정 달리는 부부는 어떠케 만드러요? {그 다음에 요, 요기는, 요 부분은, 동정 달리는 부분은 어떻게 만들어요?}
10420 # 그건 지 짇. {그건 깃, 깃.}
10420 @ 예 고기는 어떠케? {예, 고기는 어떻게?}
10420 # 지신디 이르케 저기 이로케 다 저기 요 이게 메찐디 이쓸겨 이써 근디 내가 그거 물러서 그치. {깃인데, 이렇게 저기, 이렇게, 다, 저기, 요, 이게 맺진 데, 있을 거야, 있어, 그런데 내가 그거 몰라서 그렇지.}
10420 # 이러커먼 인제 이 지슬 요러케 요러케 꺼끼유 요로케 요러케 꺼꺼서 이 저 저고리 통:이다 요로케 부처. {이렇게 하면, 인제 이 짓을 요렇게, 요렇게 꺾어요, 요렇게, 요렇

게 꺾어서 이, 저 저고리 통에다 요렇게 붙여.}
10420 @ 어디다 어디다가? {어디다, 어디다가?}
10420 # 밥풀. {밥풀.}
10420 # 이 통 이 저구리 소매 이 저 가:미다 그리고 요로케 밥풀 비베서 푸리나 머야 요로케 부처가꾸 인지 인두루 싹:: 다려가꾸 이러케 디지버가꾸 꼬매유 그러 그러커구서 해유. {이 통, 이 저고리 소매, 이, 저 감에다 그리고 요렇게 밥풀 비벼서 풀이나 뭐야, 요렇게 붙여갖고, 인제 인두로 싹 다려갖고, 이렇게 뒤집어갖고 꿰매요, 그러, 그렇게 하고서 해요.}
10420 @ 지슨 그러케 만드능 거구요 그다메 이 소매는 소매 부부는 어뜨케 만드러요? {깃은 그렇게 만드는 거구요, 그 다음에 이 소매는, 소매 부분은 어떻게 만들어요?}
10420 # 소매는 요로케 인제 뻔: 떠가꾸 뻔 떠가꾸 인제 이 저구리 아니 이써 이러케 두: 가지. {소매는 요렇게 인제 본 떠갖고 본 떠갖고 인제 이 저고리 안이 있어, 이렇게 두 가지.}
10420 # 이러케 이거는 저고리 아니구 이건 거시유 이~. 그러믄 요로케 포개가서 인제 마춰가꾸 마춰가꾸 인제 뺑:: 돌리 꼬매가꾸 여기 뒤 모기루 뒤지버. {이렇게 이것은 저고리 안이고, 이건 겉이요, 응. 그러면 요렇게 포개서, 인제 맞춰갖고, 맞춰갖고 인제 뺑 돌려 꿰매갖고, 여기 뒤 목으로 뒤집어.}
10420 # 모기루 뒤지버가꼬 이 모글 양중이 디지버서 다:: 손질 해가꾸 저기 양중이 다 손질 해가꾸 이 동장을 다류 끋 끈머리 동장이루 다러 그러케유. {목으로 뒤집어갖고, 이 목을 나중에 뒤집어서 다 손질해갖고, 저기 나중에 다 손질해갖고 이 동정을 달아요, 끝, 끝머리 동정으로 달아, 그렇게 해요.}
10420 @ 요기는 이르미 머에요? 요 요. {요기는 이름이 뭐예요? 요, 요.}
10420 # 그건 지래기. {그건 자락.}
10420 @ 요기 저고리 중에. {요기 저고리 중에.}
10420 # 압 압 압찌래기. {압, 압, 앞자락.}
10420 @ 섭 서픈 어디가 섭? {섶, 섶은 어디가 섶?}
10420 # 서븐 요기 요 요괴 요괴. {섶은 요기, 요, 요기, 요기.}
10420 @ 서픈 어떠케 만드러요? 머 따로 만들? {섶은 어떻게 만들어요? 뭐 따로 만들[x어요x]?}
10420 # 고군 따로 맹기류. {그건 따로 만들어요.}
10420 @ 어떠케 만드러요? {어떻게 만들어요?}
10420 # 그건 인제 서븐 이러케 네머지게 안써븐 이 오시 푸 풍이 널브머는 그냥 이러케 지버서 요로케 어슨나게 지버서 안써븐 맹길고 안써븐 이라능 건 이 아니루 드러가닝가 안써비여. {그건 인제, 섶은 이렇게 네모지게, 안섶은 이 옷이 푸, 품이 넓으면은 그냥 이렇게 집어서, 요렇게 어긋나게 집어서, 안섶은 만들고, 안섶은, [x안섶x]이라는 건 이 안으로 들어가니까 안섶이야.}
10420 # 이건 거써비구이~ 그리 거슨 요 요로케 어:성나게 이::쁘게 요로케 오려가꾸 부처가꾸 꼬매유. {이건 겉섶이고, 응? 그리고 겉은 요, 요렇게 어긋나게, 이쁘게, 요렇게 오려갖고, 붙여갖고 꿰매요.}
10420 @ 요 고르믄 어디에 달리는 거에요 할머니? {요 고름은 어디에 다는 거예요 할머니?}
10420 # 고르믄 예라 다 달주. {고름은 여기다가 달, 달지요.}

10420 @ 서페 달리는. {섶에 다는.}
10420 # 이 섭 섬 엽땡이다. {이 섶, 섶 옆에다.}
10420 @ 엽 엽땡이에다. {옆, 옆에다.}
10420 # 예 이게 섭 섭 엽땡이다. {예, 이게 섶, 섶 옆에다.}
10420 @ 이러케요? 고르믄 어떠케 만드러요? {이렇게요? 고름은 어떻게 만들어요?}
10420 # 고르믄 그냥 이 이런 쪼가기루 이런 쪼가기루 이러케 해가꾸서 이 여기는 꼬매여 먼저 여기 꼬매구 이러::커구서 여기는 인제 아 아갈 냉::겨 그러키서 이러케 디지부문 대. {고름은 그냥 이, 이런 조각으로, 이런 조각으로 이렇게 해갖고서, 이 여기는 꿰매요 먼저, 여기 꿰매고, 이렇게 하고서 여기는 인제, 아, 아가리(+구멍의 어귀)를 남겨, 그렇게 해서 이렇게 뒤집으면 돼.}
10420 @ 그리고 할머니 남자들 오슨 호랑이 이짜나요? 두루마기도 이러케 읻 두루마기에도 호랑이 인능 거 마쪼? {그리고 할머니, 남자들 옷은 호주머니가 있잖아요? 두루마기도 이렇게 있, 두루마기에도 호주머니가 있는 거 맞죠?}
10420 # 두루매긴 그냥 이르키. {두루마기는 그냥 이렇게.}
10420 @ 그냥 소기 통 트여써요? {그냥 속이 통 트였어요?}
10420 # 터처 터처놔찌. {터트려, 터트려 놨지.}
10420 @ 조끼에 인능 게 호랑이에요? {조끼에 있는 게 호주머니예요?}
10420 # 에 그여 호주머니라고 허고 호랑이라고. {응, 그게 호주머니라고 하고, 호주머니라고 [x하고x].}
10420 @ 조끼에 호주머니 어떠케 만드러요? 어떠게 다라요? 만드러 다라요? {조끼에 호주머니 어떻게 만들어요? 어떻게 달아요? 만들어 달아요?}
10420 # 조끼는 호주머니는 인제 저기 그렁건 안 맹기러 봔는디 맨든디 보문 그거뚜 안 걷 이꺼든 그러믄 인제 안 걷 마춰가꾸 이냥 째::서 이 가치 여기 저 모대서 이러커구. {조끼는, 호주머니는 인제, 저기 그런 건 안 만들어 봤는데, 만든 데 보면 그것도 안, 겉 있거든, 그러면 인제 안, 겉 맞춰갖고 그냥 재서, 이 같이 여기, 저 맞대서 이렇게 하고.}
10420 # 그러커고 또 저기 쩨껴 호러 호주머니는 딴:: 디 이러케 맹기러서 부치더믄. {그렇게 하고, 또 저기 조끼, 호주, 호주머니는 딴 데 이렇게 만들어서 붙이더구먼.}
10420 @ 딴 처느로? {딴 천으로?}
10420 # 예 딴 처늘 대 제 처니루 해가꾸 딴 쪼가근 대:더라구. {예,딴 천을 대, 제 천으로 해갖고, 딴 조각을 대더라고.}
10420 @ 그러믄 남자 여자 오세는 호랑은 엄는 오시고 아무데 아무데도. {그러면 남자, 여자 옷에는 호주머니는 없는 옷이고, 아무 데, 아무 데도.}
10420 # 그르치. {그렇지.}
10420 @ 여자 오세는 호랑이 인는 오시 인나요? 머 두루마기는 어때요? {여자 옷에는 호주머니가 있는 옷이 있나요? 뭐 두루마기는 어때요?}
10420 # 두루매기는 또가튜 남자나. {두루마기는 똑같아요, 남자나.}
10420 @ 트여꼬 주 주머니가 그럼 남자 오세만 호 호랑이 인는 거 거예요? {트였고, 주, 주머니가, 그럼 남자 옷에만 호, 호주머니가 있는 거, 거예요?}
10420 # 남자 오뚜 저기 쩨꾜가 호주머니 이꼬. {남자 옷도 저기 조끼가 호주머니 있고.}
10420 @ 마고자 가틍 건 어때요? {마고자 같은 건 어때요?}
10420 # 마고자는 호주머니 웁 웁 웁찌. {마고자는 호주머니 없, 없, 없지.}

10420 @ 쩨끼만 이꼬 그러면 그 허리에 차거나 소네 들고 다니는 주머니 이짜나요? 주머니 이쪼? 이러케 복쭈머니처럼 이러케 쫄 쪼라 쪼라서. {조끼만 있고, 그러면 그 허리에 차거나 손에 들고 다니는 주머니 있잖아요? 주머니 있죠? 이렇게 복주머니처럼 이렇게 졸, 졸라, 졸라서.}
10420 # 그게 저기 복쭈먼지라구 그 주먼지 그 여자덜 차고 댕이능거? {그게 저기 복주머니라고, 그 주머니, 그 여자들 차고 다니는 거?}
10420 @ 예 남자들도 차조? {예, 남자들도 차죠?}
10420 # 남자드른 몰르거써. {남자들은 모르겠어.}
10420 @ 남자들또 뭐 뭐 담배 뭐 이렁거또 너코 하지 안나요? 그건 어떠케 만드러요 할머니 여자가 차는 주머니는? {남자들도 뭐, 뭐 담배, 뭐 이런 것도 넣고 하지 않나요? 그건 어떻게 만들어요 할머니, 여자가 차는 주머니는?}
10420 # 여자가 맹기 이 차는 주먼지는뇨 이러 이러케 생겨쓰머는 이르케 생겨쓰믄 요러케 꼬매가꾸 이러 이러케 꼬매가꾸 이다그 쩌기 고무쭐 내믄 대여. {여자가 만들, 이 차는 주머니는요, 이러, 이렇게 생겼으면은, 이렇게 생겼으면 요렇게 꿰매갖고, 이러, 이렇게 꿰매갖고 이쪽에다 그 저기 고무줄 내면 돼요.}
10420 @ 고무주리 옵 옌나레도 이써써요? {고무줄이 없, 옛날에도 있었어요?}
10420 # 옌나레 고무쭐 이쭈. {옛날에 고무줄 있죠.}
10420 @ 고무줄 업써쓸 때는 어떠케 핸나요? {고무줄 없었을 때는 어떻게 했나요?}
10420 # 물러 그 때는 워트게 핸는진 나 이 나 클 땐 고무쭐 써씽께. {몰라, 그 때는 어떻게 했는지는, 나 있, 나 클 땐 고무줄 썼으니까.}
10420 # 요로케 해가꾸서 요로 요로케 이::쁘게 꼬매지. 그러구서 인제 요리 요 아가리 맹맹기러가꾸 고무쭐 이쓰믄 요로코 오무려주문 조은디. {요렇게 해갖구서 요렇, 요렇게 예쁘게 꿰매지. 그러고서 인제 요리, 요 아가리 만, 만들어갖고 고무줄 있으면 요렇게 오므려주면 좋은데.}
10420 @ 그래서 이러케 쪼라지나요? 아가리가 주둥이가? {그래서 이렇게 졸라지나요? 아가리가, 주둥이가?}
10420 #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10420 @ 그러면 허리띠 허리띠는 남자들 허리띠는 뭘로 만드러요? {그러면 허리띠, 허리띠는, 남자들 허리띠는 뭘로 만들어요?}
10420 # 남자들 허리띠 아 처니루두 맹길구 이렁 거뚜루 맹길구 꺼먼 거루두 맹길구 그러덩거료? {남자들 허리띠, 아, 천으로도 만들고, 이런 것들로 만들고, 꺼먼 것으로도 만들고 그러던걸요?}
10420 @ 그거는 그냥 쉽나요? {그것은 그냥 쉽나요?}
10420 # 그거뚜 그 그 오 오꼬름 가터. {그것도 그, 그, 오, 옷고름 같아.}
10420 @ 그러면 남자들 바지는 어떠케 만 만드러져요? {그러면 남자들 바지는 어떻게 만, 만들어져요?}
10420 # 남자들 바지는 그 오머니라 이러케 맹 맹기는디 보믄 뻔: 이르케 종이루 뻔: 떠가꾸서 그거뚜 저 큰 폭 즈근 폭 이쓰 요기 엽땡이가 으으응 즈근 폭 이 진 거이 큰 폭. {남자들 바지는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만, 만드는데 보면, 본 이렇게 종이로 본 떠갖고서, 그것도 저, 큰 폭, 작은 폭 있어요, 으응, 요기 옆이 작으면 작은 폭, 이 긴 것이 큰 폭.}
10420 # 그러믄제 즈근 큰 포다 인제 즈근 포 인제 부처서 이 다리가 이르케 이러::케 인

제 새낼 꺼 아뉴? 이러끼 그러믄 그거 마처서 꼬매가꾸 뒤집찌. {그러면 인제 작은, 큰 폭에다 인제 작은 폭 인제 붙여서 이 다리가 이렇게, 이렇게 인제 생길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그거 맞춰서 꿰매갖고 뒤집지.}
10420 @ 그럼 대님 대니미 대니미 이꼬 중대니미 이꼬 그래요? 중대니믄 뭐예요 할머니? {그럼 대님, 대님이, 대님이 있고 중대님이 있고 그래요? 중대님은 뭐예요, 할머니?}
10420 # 증:기땀 대래미 이꾸. {전기다림, 다리미 있고.}
10420 @ 아니 대님 남자들 바지 쪼라매는 끈. {아니 대님, 남자들 바지 졸라매는 끈.}
10420 # 잰 잰:님 재님. {대, 대님, 대님.}
10420 @ 아 대님. {아, 대님.}
10420 @ 재니미 여러가지가 이써요? {대님이 여러가지가 있어요?}
10420 # 여러가지지 물쌔기나 여러가직까 또가티 이르믄. {여러가지지, 물색이나 여러가질까 똑같아, 이름은.}
10420 @ 재니믄 그거또 허리 허리띠 만드는 거처럼. {대님은 그것도 허리, 허리띠 만드는 것처럼.}
10420 # 그새기유 또가터. {그 색이요, 똑같아.}
10421 @ 그러며는 처으메 이제 치마저고리 이르케 하나 만들려며는뇨 만들려며는 예들 들면 머 할머니 꺼든 머 시엄 시어머니 꺼든 애들 꺼든 오슬 하나 만들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대조? {그러면 처음에 이제 치마저고리 이렇게 하나 만들려면은요, 만들려면은, 예를 들면 뭐 할머니 것이든, 뭐 시어머, 시어머니 것이든, 애들 것이든 옷을 하나 만들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죠?}
10421 # 제일버터먼 이 저기 옥 저 이게 끄똥 끄똥버텀 달구. {제일부터는 이, 저기 옷, 저 이게 끝동, 끝동부터 달고.}
10421 @ 아니요 할머니 그 달기 저네 뽄 가지고 제일 먼저. {아니요, 할머니, 그 달기 전에 본 가지고 제일 먼저.}
10421 # 그건 이거 이거 뽄 저기 오리지 뽄 대:구서 이러케 예. {그건, 이거, 이거 본, 저기 오리지, 본 대고서 이렇게, 예.}10421
@ 처네다가 뽄 대고. {천에다가 본 대고.}
10421 # 예 오레서 그러구서 끄똥 달구 구다미는 인제 이걸 다 이 가::땡이를 다 꼬매요 꼬매가꾸 인제 또 아느루 또 맹기러가꾸 아너구 또::가치 해서 이 소매 가치 꼬매구 갇 둘루구 그르크서 디지버. {예, 오려서, 그러고서 끝동 달고, 그 다음에는 인제 이걸 다, 이 가를 다 꿰매요, 꿰매갖고 인제 또 안으로 또 만들어갖고 안하고 똑같이 해서 이 소매같이 꿰매고, 가장자이 두르고, 그렇게 하고서 뒤집어.}
10421 @ 처으메 아 바느질 할 때 할머니 아까 그 반지끄르또 이써꺼든뇨 바느질 할 때 어떤어떤 거뜨리 바느질 할 때 피료해요 할머니?
3초
10421 @ 할머니 요기 이렁거 피료 하조? {처음에, 아, 바느질할 때 할머니, 아까 그 반짇고리도 있었거든요, 바느질할 때 어떤어떤 것들이, 바느질할 때 필요해요, 할머니? 할머니 요기 이런 거 필요하죠?}
10421 # 이 이거 고 쩌그 고무라구 고 손꾸라기다 찌넝거. {이 이거, 고, 저기 고무라고, 고 손가락에다 끼는 거.}
10421 @ 이렁거 다 이케 이런 데 담쪼? 또 이렁거 하고 뭐 뭐가 피료해요 할머니? 반 바

느질할 때. {이런 거 다 이렇게 이런 데 담죠? 또 이런 거하고, 뭐 뭐가 필요해요, 할머니? 반, 바느질할 때.}
10421 # 가새 가새 바눌 저 반지끄르시는 이 따라 댕이능거고 그러커쭈 머. {가위, 가위, 바늘, 저 반짇고리는 이 따라 다니는 거고, 그렇겠죠, 뭐.}
10421 @ 또? {또?}
10421 # 실:. {실:.}
10421 @ 또 실 어디다. {또 실 어디다.}
10421 # 바누리다 꿰:가꾸. {바늘에다 꿰어갖고.}
10422 @ 바느른 어떤 어떤 바늘드리 이써써요? 이렁 거또 해야대고 오또 만드러야 대고 그러자나요? {바늘은 어떤, 어떤 바늘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옷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10422 # 이 이거 저구리 허능거는 쯔근 바눌하구 째::끄망 거 이쓰 그러구 이불 꼬매는 거는 큰 바눌 작띠기라구 지러. {이, 이거 저고리하는 것은, 작은 바늘하고, 조그만한 거 있어요, 그리고 이불 꿰매는 것은 큰 바늘, 작대기라고 길어.}
10422 @ 이르미 작때기? {이름이 작대기?}
10422 # 여 자때기 바누리여 애 이르미 그르구 저구리 빠누르는 잔바눌 그리 그러케 써쓰. {응, 작대기 바늘이야, 애 이름이, 그리고 저고리 바늘은 잔바늘, 그리, 그렇게 썼어요.}
10423 @ 그러면 바느질하는 방법또 여러가지 자나요? {그러면 바느질하는 방법도 여러가지잖아요?}
10423 # 그러추 여러가지. {그렇죠, 여러가지.}
10423 @ 처으메 뻔 대고 이러케 대충 오려가지고 처으메는 대충 대충 꼬매자나요 그르 그르케 해따가 나중에 인제. {처음에 본 대고, 이렇게 대충 오려가지고, 처음에는 대충, 대충 꿰매잖아요, 그러,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인제.}
10423 # 또 다시 꼬매는 사람두 이꾸 나는 그냥 그저니 오머니라 일러서 이러케 마춰가꾸 느르 이캐 판판::하게 까러노쿠서 그냥 이르케 소니루 지구서 이러커구서 저기 저 뭐대써 이러케 또 판파::나게 해가꾸 발루 이러케 발꾸서 이 소니루 이러 이러케 꼬매써. {또 다시 꿰매는 사람도 있고, 나는 그냥 그전에 어머니가 알려[x주셔서x] 이렇게 맞춰갖고 널어, 이렇게 판판하게 깔아놓고서 그냥 이렇게 손으로 쥐고서, 이렇게 하고서 저기, 저 뭐했어, 이렇게 또 판판하게 해갖고, 발로 이렇게 밟고서 이 손으로 이러, 이렇게 꿰맸어.}
10423 @ 그러케 하능건 뭐라고 해요? 혼 혼다고 해요 할머니 처음에? {그렇게 하는 건 뭐라고 해요? 호, 혼다고 해요 할머니 처음에?}
10423 # 에 손 혼::다고 허지 혼::다구. {예, 손, 혼다고 하지, 혼다고.}
10423 @ 이케 이러케 화서 이르케 부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화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10423 # 그래가꾸 그냥 뒤집꾸 뒤집꾸 해써. {그래갖고 그냥 뒤집고 뒤집고 했어.}
10423 @ 감치기는 뭐 어떠케 하능 게? {감치기는 뭐 어떻게 하는 게?}
10423 # 감:치는 거는. {감치는 거는.}
10423 @ 언제 하능 거에요? {언제 하는 거예요?}
10423 # 감:치능 건 이런 저기 쓰봉 가튱거 그르키 부치구 얼 때 그럴 때 이러케 이 이 이러 이러커렁 감:추능거. {감치는 건, 이런 저기 양복바지 같은 거 그렇게 붙이고 할 때, 그럴 때 이렇게 이, 이, 이렇, 이렇게 감치는 거.}
10423 @ 그다메 방는건 어떠케 하능거에요? {그 다음에 박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423 # 방능 거는 뒤빠느지러능게 방능거. {박는 것은 뒷바늘질하는 게 박는 거.}
10423 @ 이러케 가따가 다시 뒤로 이러케 오는? {이렇게 갔다가 다시 뒤로 이렇게 오는?}
10423 # 예 예 뒤루 이러케 허능게 뒤빠리. {예, 예, 뒤로 이렇게 하는 게 뒷바늘.}
10423 @ 그럼 그 또 누비능 건 어떠케 하능 게 누비능는 거에요? {그럼 그 또 누비는 건 어떻게 하는 게 누비는 거예요?}
10423 # 누비능거는 이러케 책책 뉘비능거 이러케 책책. {누비는 것은 이렇게 차례차례 누비는 거, 이렇게 차례차례.}
10423 @ 그니까 거테만 하는 게 아니라 아느로도 다 이러케요? {그러니까 겉에만 하는 게 아니라, 안으로도 다 이렇게요?}
10423 @ 예 예. {예, 예.}
10423 # 책책 뉘비능거 그거떠르 뉘비능거. {차례차례 누비는 거, 그것더러 누비는 거.}
14023 @ 그면 이 여러가지 바느질 하는 방법 쭝에 제일 튼트낭게 어떵거에요? {그러면 이 여러가지 바느질하는 방법 중에 제일 튼튼한 게 어떤 거예요?}
10423 # 방능게 제일 튼트너주. {박는 게 제일 튼튼하죠.}
10423 @ 그럼 주로 어떤 어떤 거에 박 바금지를 해요? {그럼 주로 어떤, 어떤 거에 박, 박음질을 해요?}
10423 # 바금지른 이런 이런 디 시:미 더 가는 디. {박음질은 이런, 이런 데 힘이 더 가는데.}
10423 @ 가랑이 가튼? {가랑이 같은?}
10423 # 예 이 저 이 신:덕하구 궁딩이 신거하구 허는 디가 튼트너게 박쭈. {예, 둥이, 저, 이 솔기하고 궁둥이 솔기하고 하는 데가 튼튼하게 박죠.}
10423 @ 그러면 감침지른 주로 어떤 데다? {그러면 감침질은 주로 어떤 데다?}
10423 # 감치면주근 저기 감추능거 이꾸 안 감추능 거 이써 가 이케 감치능거 그러먼 그 올 푸러지능거. {감침질은, 저기 감치는 거 있고, 안 감치는 거 있어, 가, 이렇게 감치는 거, 그러면 그 올 풀어지는 거.}
10423 @ 아 이러케 오리 솔솔솔. {아, 이렇게 올이 솔솔솔.}
10423 # 예 예 그렁 게 인제 이 양중이는 떠러지먼서 푸러지지 말라구 감처 두벌 감치능거. {예, 예, 그런 게 인제 이 나중에는 떨어지면서 풀어지지 말라고 감쳐, 두벌 감치는 거.}
10423 @ 그면 누비능 건 뭐 어떵 걸 누벼야 돼요? {그러면 누비는 건 뭐 어떤 걸 누벼야 돼요?}
10423 # 뉘비능거는 이런 이불 가튱거 이불솜 가튱거 뉘비주. {누비는 것은 이런 이불 같은 거, 이불솜 같은 거 누비죠.}
10424 @ 그럼 할머니 그 빨래하능거에 대해서 좀 여쩌보께요 천 따라서 빨래하는 방법또 조금씩 다르조? {그럼 할머니, 그 빨래하는 것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천 따라서 빨래하는 방법도 조금씩 다르죠?}
10424 # 몰러 달:따구 허드먼 나는 그냥. {몰라, 다르다고 하더구먼, 나는 그냥.}
10424 @ 할머니는 어터케 빨래 하셔써요? {할머니는 어떻게 빨래 하셨어요?}
10424 # 세타끼다 그냥 그저니는 세타끼 웁써. {세탁기에다 그냥, 그전에는 세탁기 없어.}
10424 @ 세타끼 업쓸 때. {세탁기 없을 때.}
10424 # 웁쓸 때는 그냥 솔루. {없을 때는 그냥 솔로.}
10424 @ 때를 어터게 지우셔써요? {때를 어떻게 지우셨어요?}

10424 # 손빨래 저기 가루비누다 당가따가 가루비누에다 당거따가 인제 막:: 방맹이루 때리지 이캐 막 뚜드러 뚜드리지. {손빨래, 저기 가루비누에다 담갔다가, 가루비누에다 담갔다가 인제 막 방망이로 때리지, 이렇게 막 두드려, 두드리지.}
10424 @ 엔나레는 할머니 그 빨래터가 따로 이써써요? {옛날에는 할머니, 그 빨래터가 따로 있었어요?}
10424 # 예 따로 이써 우리 친정이는. {예, 따로 있어, 우리 친정에는.}
10424 @ 빨래 할 꺼리를 다머가지고 대야 다라에 다머가지고 가지고 빨래터로 가요? {빨래할 거리를 담아가지고, 대야, 대야에 담아가지고, 가지고 빨래터로 가요?}
10424 # 예 낻:깔. {예, 냇가.}
10424 @ 에 그럼 거기서는 뭘로 비누가 이썬나요? {예, 그럼 거기서는 뭘로, 비누가 있었나요?}
10424 # 비누두 이쭈 예 비누 맹 이끄믄 맹기러 쓰지먼 그저니는 사써찌 그러커 인제 가루비누다 당거따가 인제 막:: 때려가꾸서 인제 매뻔 인제 헹겨가꾸 또 비누질 또 허지. {비누도 있죠, 예, 비누 만들, 지금은 만들어 쓰지만, 그전에는 사 썼지, 그렇게 인제 가루비누에다 담갔다가 인제 막 때려갖고서 인제 몇 번, 인제 헹궈갖고 또 비누질 또 하지.}
10424 # 또 해가꾸 인제 이러케 봐서 인제 마냐게 때가 안가따믄 비누질 치래서 쌀뮤 소티다. 가마소티다 쌀므먼 부글부글부글 막 끄르먼 막 뜨근뜨근할 때 가꽈서 막 빠르머는 뽀::애지지. {또 해갖고 인제 이렇게 봐서 인제 만약에 때가 안 갔다면 비누질 칠해서 삶아요 솥에다. 가마솥에다 삶으면 부글부글부글 막 끓으면, 막 뜨끈뜨끈할 때 갖고와서 막 빨면은 뽀얘지지.}
10424 @ 그면 안 쌈꼬 그냥 하능건. {그러면 안 삶고 그냥 하는 건.}
10424 # 누::러유. {누래요.}
10424 @ 쌈끼 저네 하는 빨래는 아시빨래라 하나요? {삶기 전에 하는 빨래는 애벌빨래라고 하나요?}
10424 # 쩌기 안 쌈꾸 저런 저기 일뽁 까틍거는 그냥 당가따가 비누루 이냥 비눈물 쪽 빼서 그냥 빠러입꾸 그래쓰. {저기 안 삶고 저런, 저기 일복 같은 것은 그냥 담갔다가 비누로 그냥 비눗물 쪽 빼서 그냥 빨아입고 그랬어요.}
10424 @ 그면 쌀마야 하는 빨래는 아시 아시빨래가 이꼬 또 애벌 두벌빨래가 이꼬 머 이런 마리 이썬나요 할머니? {그러면 삶아야 하는 빨래는 애벌, 애벌 빨래가 있고, 또 애벌, 두벌 빨래가 있고, 뭐 이런 말이 있었나요, 할머니?}
10424 # 그렁께 일:뽀근 막빨래 저런 쌈::능 거는 쌈빨래라고 해찌. {그러니까 일복은 막빨래, 저런 삶은 것은 삶빨래라고 했지.}
10424 @ 안 쌈능거 막빨래 그러며는 쌀물 때는 뭘 써가지고 쌀무셔써요? {안 삶는 거 막빨래, 그러면은 삶을 때는 뭘 써가지고 삶으셨어요?}
10424 # 비누두 치리구 또 저 그저니는 잼:무리라구 저::기 콩깍찌 뭐 허머는 그 재::루 이러케대 저런 구냥 이 미티다 이캐 구냥 뚜룬 함서기나 워따 느쿠서 물 퍼부먼 무시 무리빨::건 무리 나오유. {비누도 칠하고, 또, 저 그전에는 잿물이라고, 저기 콩깍지 뭐 하면은 그 재로 이렇게 하데, 저런 구멍 이 밑에다, 이렇게 구멍 뚫은 함석이나 어디에다 넣고서 물 퍼부으면 물이, 물이, 빨간 물이 나와요.}
10424 # 그러문 게다 느쿠 그 물 바더서 쌀머요 쌀머꾸 그래쓰. {그러면 거기에다 넣고 그 물 받아서 삶아요, 삶고 그랬어요.}

10424 @ 그믄 그 처네 그 무리 안 색깔 배진 아나요? {그러면 그 천에 그 물이 안, 색깔이 배지는 않아요?}
10424 # 배지 안치 배지 안치 이릉거 하양거만 그러케 헝께 그러케 혀 허구 사라써. {배지 않지, 배지 않지, 이런 거, 하얀 것만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 하고 살았어.}
10424 @ 그럼 잰무리 다 양잰무린 거에요? 잰무른 뭘로 잰무를 바다써요? 뭠뭐로 콩깍찌도. {그럼 잿물이 다 양잿물인 거예요? 잿물은 뭘로 잿물을 받았어요? 뭣뭐로, 콩깍지도.}
10424 # 콩깍찌 허 그냥 콩깍찌만 허구 잼::무른 그저니 잼:물 쓰는듀 도:니 몯 땡께 우리 친정오모니 잼물 안 쓰고 그러커시더라고. {콩깍지 하고, 그냥 콩깍지만 하고, 잿물은, 그전에 잿물 쓰는데 돈이 못 되니까, 우리 친정어머니 잿물 안 쓰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10424 @ 그면 때는 어트게 빼셔써요? 잼물 안 쓰시면. {그러면 때는 어떻게 빼셨어요? 잿물 안 쓰시면.}
10424 # 그러케믄 싹 빠찌유. {그렇게 하면 싹 빠졌지요.}
10424 @ 아 콩깍찌물만 물만 가지고도요? {아, 콩깍지물만, 물만 가지고도요?}
10424 # 예 그거만 그 물루 쌀머두 뽀야케 빠지더라구. {예, 그것만, 그 물로 삶아도 뽀얗게 빠지더라고.}
10424 @ 콩깍지 재를 가지고 무를 내려서요? 지픈 안 쓰셔써요? 지픈 재로. {콩깍지 재를 가지고 물을 내려서요? 짚은 안 쓰셨어요? 짚은 재로.}
10424 # 집 까틍 거는 안 때바씅께 우리 오모니가 그저니 옌::나레 소 마니 매겨서 지불땔: 수 인나? 나무애 때찌. {짚 같은 것은 안 때봤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전에 옛날에 소 많이 먹여서 짚을 땔 수 있나? 나무해서 땠지.}
10424 # 깍찌가치 예 예. {깍지같이, 예, 예.}
10424 @ 지픈 다 소를 줘야 되니까 아 콩깍찌 가지고요. {짚은 다 소를 줘야 되니까, 아, 콩깍지 가지고요.}
10424 # 그러케 사라써. {그렇게 살았어.}
10425 @ 그럼 빨래 옌날 요새는 이르케 주리 나이론 줄 가틍거에 이케 빨래 널기도 하고 머 이렁게 만차나요. {그럼 빨래, 옛날, 요새는 이렇게 줄이, 나일론 줄 같은 거에 이렇게 빨래 널기도 하고 뭐 이런 게 많잖아요.}
10425 @ 금 옌나레는 빨래 그르케 빨래터에서 다 해가꼬 와서 행궈가지고 그다메 어터케 해써요? {그럼 옛날에는 빨래, 그렇게 빨래터에서 다 해갖고 와서, 행궈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10425 # 그다미는 인제 이 헹거가꾸서 다 인제 행겨가꾸루서 빨래쭈리다 널머는 그저니 우리 아버지라가 산:내끼루 산내끼 꽈서 그느믈 한 세거불 태유 세거부를 보태가꾸 줄 매줘찌 그러믄 그 주리다 널구. {그 다음에는, 인제 이 행궈갖고서, 다 인제 행궈갖고서 빨래줄에다 널면은, 그전에 우리 아버지가 새끼로, 새끼 꽈서 그놈을 한 세 겹을 태워요, 세 겹을 보태갖고 줄 매줬지, 그러면 그 줄에다 널고.}
10425 @ 널 때는 어트게 너러써요? 요즘처럼 요즈믄 빨래찌께가 이찌만 옌나렌. {널 때는 어떻게 널었어요? 요즘처럼, 요즘은 빨래집게가 있지만, 옛날에는.}
10425 # 그냥 너러쭈 그냥 빨래찌께 웁씨. {그냥 널었죠, 그냥 빨래집게 없이.}
10425 @ 그냥 터러서 거러서요? {그냥 털어서 걸어서요?}
10425 # 이런 거는 널르믄제 소매 이르케 무꺼노코. {이런 것은 널으러면 인제 소매 이렇게 묶어놓고.}

10425 @ 그래서 그면 이 해삐채 말려가지고 그다메 손지른 그다메 손지른 어트케 해써요? {그래서 그러면 이 햇빛에 말려가지고, 그 다음에 손질은, 그 다음에 손질은 어떻게 했어요?}
10425 # 그릉께 한 한 이틀 말리지 베티다 한 이틀 말리머서 인자 오후 지나머는 인제 해 지기 저니 뜨근 빨래두 뜨겁디가 뜨겁지 아뉴 여르미는 고 때 바싹바싹 말르믄 고 때 손지래서 농이다 채채. {그러니까 한, 한 이틀 말리지, 볕에다 한 이틀 말리면서 인제 오후 지나면은 인제 해 지기 전에 뜨끈, 빨래도 뜨겁지가, 뜨겁지 않아요 여름에는, 그 때 바싹바싹 마르면, 그 때 손질해서 농에다 차곡차곡.}
10425 @ 손지른 어터케 하셔써요? 여기 그리메 보며는 할머니. {손질은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그림에 보면은 할머니.}
10425 # 판:파나게 재능거유. {판판하게 재는 거예요.}
10425 @ 뭐 이렁거또 이꼬요 이런 거또 쓰고 또 이캐 숟 다마서 이런 거또 쓰고요 손질할 때 천 손질 할 때 이렁 거또 쓰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도 쓰고, 또 이렇게 숯 담아서 이런 것도 쓰고요 손질할 때, 천 손질할 때 이런 것도 쓰고.}
10425 # 그냥 우 우류 우리는 그냥 이러케 오모니는 오모니두 그루쿠 나도 오모니 아피서 배울 때도 그냥 소니루 싹::싹 문태서 이러케 문태가꾸 냥 판파나게 개서 이냥 책책 농이다 느코. {그냥 우, 우리, 우리는 그냥 이렇게, 어머니는, 어머니도 그렇고 나도 어머니 앞에서 배울 때도 그냥 손으로 싹싹 문대서 이렇게 문대갖고 그냥 판판하게 개서 그냥 차곡차곡 농에다 넣고.}
10425 @ 그 요새는 전기다리미 이찌만 옌나레는 다려야 하는 오슨 어떠케 해써요? {그 요새는 전기다리미 있지만 옛날에는 다려야 하는 옷은 어떻게 했어요?}
10425 # 대:리는 오슨. {다리는 옷은.}
10425 @ 할머니두 요렁거 쓰셔써요? 뭐 이러케 뾰조카게 생깅거 이렁 거 달궈서. {할머니도 요런 거 쓰셨어요? 뭐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거, 이런 거 달궈서.}
10425 # 이게 이게 대리민가? {이게, 이게 다리미인가?}
10425 @ 이 대래미는 아니 옌날 업써쓸 때. {이 다라미는 아니[x에요x], 옛날 없었을 때.}
10425 # 웁쓸 때는 저 모대찌. {없을 때는 저 못 했지.}
10425 @ 여기다 수츨 다마가지고 쓰고 여기는 화로에 달궈 다믈고 달궈서 쓰고. {여기다 숯을 담아가지고 쓰고, 여기는 화로에 달궈, 달궈, 달궈서 쓰고.}
10425 # 예 이게 이게 이게 인두 이게 인두구먼. {예, 이게, 이게, 이게 인두, 이게 인두구먼.}
10425 @ 아 이게 인두에여? {아, 이게 인두예요?}
10425 # 예 인두지 저구리얼 때 쓰구. {예, 인두지, 저고리할 때 쓰고.}
10425 @ 어디를 어떨 때 써요 어떤 어터케 손질 해야 대요 이런 거는? {어디를 어떤 때 써요, 어떤, 어떻게 손질해야 돼요, 이런 것은?}
10425 # 그건 하루뿌리다가 뜨거께 해가꾸 문태지 뜨거께 해가꾸 인두 불 달려가꾸 그러구 대리미라구 이러케. {그건 화롯불에다가 뜨겁게 해갖고 문대지, 뜨겁게 해갖고 인두, 불 달궈갖고, 그리고 다리미라고 이렇게.}
10425 @ 할머니 이거 혼자 모태쓸 꺼 아니에요 이거? {할머니, 이거 혼자 못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10425 # 혼자 허요. {혼자 해요.}
10425 @ 자바 자바줘야 이러케 가능하조. {잡아, 잡아줘야 이렇게 가능하죠.}
10425 # 아뉴 혼자 이러케 판파니 펴노코 인두루 싹::싹 이르케 미류. 그러커구 대래미라구어지 이러케 저기 자라근 나무루 허고. {아니요, 혼자 이렇게 판판하게 펴놓고 인두로 싹싹 이렇게 밀어요. 그렇게 하고 다리미라고 하지, 이렇게 저기 자루는 나무로 하고.}
10425 @ 자루. {자루.}
10425 # 이~ 자루는 나무루 허구 대리미라구 이 이 이써써 세대미 다리미 이러코 옴모공거 그거 써서 게다근제. {응, 자루는 나무로 하고, 다리미라고 이, 이, 있었어, 쇠다리미, 다리미, 이렇게 오목한 거, 그거 써서, 거기에다가 인제.}
10425 @ 그거 어터게 달궈써요 그러면 그 쐬를? {그거 어떻게 달궜어요, 그러면 그 쇠를?}
10425 # 그장 불 다머가꾸. {그냥 불 담아갖고.}
10425 @ 아 그 아네 쒜 아네다가. {아, 그 안에, 쇠 안에다가.}
10425 # 이게 대리미라믄 예다가 불 다머가꾸 등그뿔 대려가꾸 이러케 슬::슬 뭉태머는 판파내. {이게 다리미라면 여기다가 불 담아갖고, 등걸불 달여갖고 이렇게 슬슬 문대면은 판판해.}
10425 @ 그런 쒜가 주전자처럼 생겨겐네요? {그런 쇠가 주전자처럼 생겼겠네요?}
10425 # 예. {예.}
10425 @ 약간. {약간.}
10425 # 예 따끄먼 뚜껑만 웁찌 두금 주전자처럼 이케 찌::다른 이끔 저 철 지르는 저 후라판처럼 그러케 생겨써. {예, 뚜껑만, 뚜껑만 없지, 주전, 주전자처럼 이렇게 기다란, 지금 저 철 지르는, 저 후라이팬처럼 그렇게 생겼어.}
10425 @ 이거 비스타겐네요 그러면 후라이판처럼 생겨쓰면. {이거 비슷하겠네요 그러면, 후라이팬처럼 생겼으면.}
10425 # 그러추 이~. {그렇죠, 응.}
10425 @ 여기 이게 나무로 대이꼬 여기에 다머 뜨거웅 걸 다머가지고 이게 후라이팬처럼 생견네요. {여기 이게 나무로 돼 있고, 여기에 담아, 뜨거운 걸 담아가지고, 이게 후라이팬처럼 생겼네요.}
10425 # 그러 그러 그렁거 이써슈. {그러, 그러, 그런 거 있었어요.}
10425 @ 그럼 요기 요러케 바다기 판파내써요? {그럼 요기 요렇게 바닥이 판판했어요?}
10425 # 예 이러케 판파나게 보이 요:정도 데써써 그러거구 이 요로코 옴목::해써찌 게다가 불 다머가꾸서. {예, 이렇게 판판하게 보이, 요 정도 됐었어, 그렇게 하고 이, 요렇게 오목했었지, 거기에다가 불 담아갖고서.}
10425 @ 그리고 그 이 명처럼 명주 무명처럼 두꺼운 천들 이르케 지금 이 천처럼 이르케 올려노코 두드려서 이러케 펴서 보들보들하게 만드러서. {그리고 그, 이 무명처럼, 명주, 무명처럼 두꺼운 천들 이렇게 지금 이 천처럼 이렇게 올려놓고 두드려서 이렇게 펴서 보들보들하게 만들어서.}
10425 # 명:지는 한 너덛씨간 다드미또기다가 방맹이루 뚜드라꼬. {명주는 한 너덧 시간 다듬잇돌에다가 방망이로 두드려 가지고.}
10425 @ 이러케 뜨서씨가늘료 위애서? {이렇게 여섯 시간을요, 위해서?}
10425 # 반득빤뜩빤뜩 허게냥 그 쭈글쭈글헝거 웁씨 다드미 해유. {반득반득반득하게 그

냥, 그 쭈글쭈글한 거 없이 다듬이질 해요.}
10425 @ 할머니도 하셔써요? {할머니도 하셨어요?}
10425 # 예 그저니 해 해 해서. {예, 그전에 해, 해, 해서.}
10425 @ 어 혼자 둘 두리씩 이르케 짝 마춰가지고 하셔쪼? {아, 혼자, 둘, 둘씩 이렇게 짝 맞춰가지고 하셨죠?}
10425 # 두리두 허구 혼저두 허구 오모니어구 마니 다드머서 우리 하라버지 도러가시는데 저 무여 그 오대드리능거 그거 해드리고. {둘이도 하고 혼자도 하고 어머니하고 많이 다듬어서,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시는데, 저 뭐야, 그 옷해드리는 거, 그거 해드리고.}
10425 @ 주그면 하실 때 그며는 이거 말려가지고 처늘 여기 지금 그냥 처늘 모 뚜드리자나요 머에 말 마나요? 가마야 데조 이거? {죽으면 하실 때, 그러면은 이거 말려가지고 천을, 여기 지금, 그냥 천을 못 두드리잖아요, 뭐에 말, 마나요? 감아야 되죠, 이거?}
10425 # 아니 그러 킁께 그 그거뚜 자루 이르케 자루 열: 짜먼 열 짜 스무 자먼 스무 자씩 딴따나게 짤라가꾸 이르 그르케 하꾸서 이르케 이게 이 이게 다드미라믄 인지 이 이러끼지::라케 개가꾸서 여저니 뚜드려가머 이러케 이러케 이러케 뚜드러. {아니, 그렇게 하니까 그, 그것도 자로 이렇게 자로 열 자면 열 자 스무 자면 스무 자씩 간단하게 잘라갖고 이렇, 그렇게 해갖고서 이렇게 이게 이, 이게 다듬이라면 인제 이, 이렇게 길게 개갖고서 여전히 두드려가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두드려.}
10425 @ 또 그 구기물 골고루 펴지라고. {또, 그 구김을 골고루 펴지라고.}
10425 # 그래가꾸 인제 한참 뚜드리먼 또 다시 또 손지래가꾸 또 보고 또 보고 그러주. {그래갖고, 인제 한참 두드리면 또 다시, 또 손질해갖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러죠.}
10425 @ 머 이렁거 이짜나요 할머니 이러케 생긴 거에다가 처늘 가마가지고 그 이게 올려노쿠 이캐 두드리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할머니, 이렇게 생긴 거에다가 천을 감아가지고, 그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두드리면.}
10425 # 그거뚜 그러케도 허는 사람 인는디 우리 오머닌 그러케 해쓰. {그것도 그렇게도 하는 사람 있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했어요.}
10425 @ 이러케 두드려 두드려서 이러케 보들보드라게 다 펴지나요? {이렇게 두드려, 두드려서 이렇게 보들보들하게 다 펴지나요?}
10425 # 에 뚜드리먼 판파::너구 막 반득반뜩빤뜩 허니 윤::나데 오래 걸류. {예, 두드리면 판판하고, 막 반득반득반득하니 윤 나데, 오래 걸려요.}
10425 @ 그러켄네요 아니 이 이걸 며씨간씩 이르케 해가지고. {그렇겠네요, 아니 이, 이걸 몇 시간씩 이렇게 해가지고.}
10425 # 한 서너시간씩 뚜드러 그럼 파라프먼 저녁 인제 다 무더문 인제 저런 보재기다 물: 채워가꾸 말르지 말라구 그 처늘 또 똘똘 마러노먼. {한 세네 시간씩 두드려, 그럼 팔 아프면 저녁, 인제 다 못하면, 인제 저런 보자기에다 물 채워갖고 마르지 말라고 그 천을 또 똘똘 말아 놓으면.}
10425 @ 싸둬요? {싸둬요?}
10425 # 예. {예.}
10425 # 싸머는 인제 파라프먼 드 어제 해따 오늘 또 뚜둘구 그류. {싸면은, 인제 팔 아프면 그 어제 했다 오늘 또 두드리고 그래요.}
10425 @ 한 버네 이리 안 끈나면 마르지 말라고 물 무든 보자기에 싸둔다고요? {한 번에 일이 안 끝나면 마르지 말라고 물 묻은 보자기에 싸 둔다고요?}

10425 # 무르 그러케 해야 허구 사라쓔. {우리 그렇게 해야, 하고 살았어요.}
10426 @ 할머니 그럼 이런 이런 처네 이르케 색 새깔 이피고 시프면 물드리고 시푸먼 어떠케 해써요 옌나레? {할머니, 그럼 이런 천에 이렇게 색, 색깔 입히고 싶으면, 물들이고 싶으면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
10426 # 그저니 우리 오모니는 그릉건 안 핸는디 시:리다 물드려가꾸 저 허는 사람두 이꾸. {그전에 우리 어머니는 그런 건 안 했는데, 실에다 물들여갖고, 저, 하는 사람도 있고.}
10426 @ 애초에 시레다가 무를 드려서 실로 처늘 짜요? {애초에 실에다가 물을 들여서 실로 천을 짜요?}
10426 # 예 그러커는 사람두 이꾸. {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10426 @ 또? {또?}
10426 # 짜가꾸서 또 물드려서 다듬는 사람두 이꾸. {짜갖고서, 또 물들여서 다듬는 사람도 있고.}
10426 @ 어떡 어떤 무를 드려써요? {어떻, 어떤 물을 들였어요?}
10426 # 쩌 노랑 노랑물 새파랑물 분홍물 그러케 치리덩 걸. {저 노랑, 노랑물, 새파란 물, 분홍물 그렇게 칠하던 걸.}
10426 @ 그걸 어디서 나요 그 무리 물 색? {그걸 어디서 나요, 그 물이, 물 색?}
10426 # 물까미라구 그저니 이써써. {물감이라고 그전에 있었어.}
10426 @ 장에 가면 그냥 사와요? 그면 거기다가 그 무를 푸러서. {장에 가면 그냥 사와요? 그러면 거기다가 그 물을 풀어서.}
10426 # 예 푸려서 그냥 막 점궈서. {예, 풀어서, 그냥 막 잠가서.}
10426 @ 이거를 정궈서? {이거를, 잠가서?} # 예.{예.}
10426 # 정궈서 너러따가 또 보술보수러문 또 손지러더먼 소니루 팍::팍. {잠가서 널었다가 또 보슬보슬하면 또 손질하더구먼, 손으로 팍팍.}
10426 @ 그면 그게 비 마자도 겐차나요? {그러면 그게 비 맞아도 괜찮아요?}
10426 # 비만 비 줌 비 마자도 갠찬데 거 명징게 얼룩꾸리지 물 쪼꼼만 떠러 떠러지두 얼루걸루겨. {비 맞, 비 좀, 비 맞아도 괜찮은데 그게 명주니까 얼룩지지, 물 조금만 떨어, 떨어져도 얼룩얼룩해.}
10426 @ 그면 그렁 거 시 시장에 가서 물 물깜 사오기 저네도 지베서 옌날 어른들 물드리셔짜나요? 쫑물 가틍 거또 드리시고 뭐. {그러면 그런 거, 시, 시장에 가서 물, 물감 사오기 전에도 집에서, 옛날 어른들 물들이셨잖아요? 쪽물 같은 것도 들이시고 뭐.}
10426 # 몰르건네 그릉 건 아 우리 오모니 안 허능 거 모 빠써. {모르겠네, 그런 건 안, 우리 어머니 안, 하는 거 못 봤어.}
10426 @ 지베서 물: 내서 풀로 물 내서 하능 건 모 뽀셔꼬요? {집에서 물 내서, 풀로 물 내서 하는 건 못 보셨고요?}
10426 # 푸른 해사는 허지. {풀은 해서는, 하지.}
10426 @ 어떤 풀로 무를? {어떤 풀로 물을?}
10426 # 쩌기 쌀풀두 허고 저기 밀가루루 풀쑤구. {저기 쌀풀도 하고, 저기 밀가루로 풀 쑤고.}
10426 @ 푸른 그 풀 쒀서 처늘 담구면 담궈서 오슬 손지라면 어떤 게 조아요? 웨 푸를 푸레 담궈요 목처늘? {풀은, 그 풀 쒀서 천을 담그면, 담가서 옷을 손질하면 어떤 게 좋아요? 왜 풀을, 풀에 담가요, 무명을?}

10426 # 그거 판:파너라고 저 빤빠더라고. {그거 판판하라고, 저 빳빳하라고.}
10426 @ 그럼 여르몬만 하겐네요? {그럼 여름옷만 하겠네요?}
10426 # 예 그 안 짐 쩌기 면 명지만 해여. {예, 그 안 짐, 저기 면, 명주만 해요.}
10426 @ 그러면 푸를 어트게 푸를 머긴다고 하나요? {그러면 풀을 어떻게, 풀을 먹인다고 하나요?}
10426 # 메긴다구 허주. {먹인다고 하죠.}
10426 @ 풀 메긴다고 그래서 푸를 메기고 난 뒤에? {풀 먹인다고, 그래서 풀을 먹이고 난 뒤에?}
10426 # 또 다듬찌. {또 다듬지.}
10427 @ 이러케 두드리나요? {이렇게 두드리나요?}
10427 # 예. {예.}
10427 @ 아 예 할머니 그럼 옌나레 그 잰물로 이제 때 뺀다고 하셔짜나요 그러며는 그 잼잼물로 때를 빼려면 제일 먼저 콩깍찌를 태어 태우나요 제일 먼저? {아, 예, 할머니 그럼 옛날에 그 잿물로 이제 때 뺀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잿, 잿물로 때를 빼려면 제일 먼저 콩깍지를 태워, 태우나요, 제일 먼저?}
10427 # 예. {예.}
10427 # 아궁이다 태워. {아궁이에다 태워.}
10427 @ 그래 어뜨 그래서 인제 어트게 하는데요? {그래, 어떻, 그래서 인제 어떻게 하는데요?}
10427 # 그러커섬 인제 재 대지. {그렇게 해서 인제 재 되지.}
10427 @ 완저니 재가 되도록? {완전히 재가 되도록?}
10427 # 예. {예.}
10427 # 그러커믄 저런 저기. {그렇게 하면 저런, 저기.}
10427 @ 재가 되면 아궁이에서 그다메 어떠케 해요? {재가 되면 아궁이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10427 # 그느믈 바닥 저기 깡:통 깡통이라구 허지 이르게 수왕가틍거 이짜뉴 그리 그른디 다 구냥 뚜러가꾸 게다가 재를 당::꾸서 여저니 물 퍼부유 콩나물 물 주듣. {그놈을 바닥, 저기, 깡통, 깡통이라고 하지, 이렇게 수반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 그런 데다 구멍 뚫어갖고 거기에다가 재를 담고서 여전히 물 퍼부어요, 콩나물 물 주듯이.}
10427 @ 아 미트로 빠지게 무를료. {아, 밑으로 빠지게 물을요.}
10427 # 그르믄 잼무리근 나오더라 빨::거케 무리 나와. {그러면 잿물이 나오더라, 빨갛게 물이 나와.}
10427 @ 그 아시로 빠진 그 무레다가 처늘 바로 담궈요? {그 아시로 빠진 그 물에다가 천을 바로 담가요?}
10427 # 그러추. {그렇죠.}
10427 @ 그다메는뇨 당궈서 머 어트게? {그 다음에는요, 담가서 뭐 어떻게?}
10427 # 쌈:찌 소티다. {삶지, 솥에다.}
10427 @ 쌀머요 뜨거운 무레? 그다메는뇨? {삶아요, 뜨거운 물에? 그 다음에는요?}
10427 # 그러가꾸 뚜 쌀머가꾸 또 빠러서 또 메::뻔 인제 헹겨서 인제 널 너러서 말리지. {그래갖고 또 삶아갖고 또 빨아서 또 몇 번 인제 행궈서, 인제 널, 널어서 말리지.}
10427 @ 그르면 인제 뽀야케 되요? 그 재 물도 안 배이고요? {그러면 인제 뽀얗게 돼요?

그 재 물도 안 배이고요?}
10501 @ 할머니 이버네느뇨 할머니 그 지베서 만드러 드시던 반찬 머 이런 채소 반찬 나물 반찬 이런 얘기 해보께요. {할머니 이번에는요, 할머니 그 집에서 만들어 드시던 반찬, 뭐 이런 채소 반찬, 나물 반찬 이런 이야기 해볼게요.}
10501 # 반찬 뭐 나 해멍능거는. {반찬, 뭐 나 해먹는 거는.}
10501 @ 예 할머니 해드시덕 셔떵거 얘기 해주시면 되요 이 동네에서 해드셔떤 반찬. {예, 할머니 해드시던, [x드x]셨던 거 이야기 해주시면 돼요, 이 동네에서 해드셨던 반찬.}
10501 # 저기 이 소멍넝거 까터 머 반차니라능건 소 멍는 소 멍능 거 까터 반차니라는 거는 시그니 가러서 무처머꾸. {저기 이 소 먹는 거 같아, 뭐 반찬이라는 건 소 먹는, 소 먹는 거 같아, 반찬이라는 것은 시금치 갈아서 무쳐 먹고.}
10501 @ 할머니 먼저 이짜나요 어 채소바테 이르캐 채소바테서 나는 채소 머 어떤 채소드리 바테서 나요? {할머니, 먼저 있잖아요, 어, 채소밭에, 이렇게 채소밭에서 나는 채소, 뭐 어떤 채소들이 밭에서 나요?}
10501 # 바티서 지가 나능거? {밭에서 제가 나는 거?}
10501 @ 아니요 씨 씨도 우리가 씨뿌려서. {아니요, 씨, 씨도 우리가 씨뿌려서.}
10501 # 우리가 젤 쓰능거? {우리가 제일 쓰는 거?}
10501 # 바티서 가러멍능건 다는 거는 배::차 무수 부루 시그니 마눌 그러치 머. {밭에서 갈아먹는 건, [x갈아먹는x]다는 것은 배추, 무, 상추, 시금치, 마늘 그렇지 뭐.}
10501 @ 또 또 뭐 땅건 다 옌나렌 다 사드시지 앙코 지베서 다 해드셔짜나요? {또, 또 뭐 딴 건, 다 옛날에는 다 사드시지 않고 집에서 다 해드셨잖아요?}
10501 # 그러케 그래쓰. {그렇게 그랬어요.}
10501 @ 또 다른 반찬꺼리 될 마난 거는 머가 이써써요 바테 기르능 건? {또 다른 반찬거리 될 만한 것은 뭐가 있었어요, 밭에 기르는 건?}
10501 # 도라 도라지 그러구 더덕 캐서 저기 양시개서 머 머꼬 우리 오모니네 그러 그러쿠. {도라, 도라지, 그리고 더덕 캐서 저기 양식해서 먹, 먹고 우리 어머니는, 그러, 그렇게.}
10501 @ 또 고추도 이짜나요? 중요한 고추. {또 고추도 있잖아요? 중요한 고추.}
10501 # 응 꼬추 풋꼬추 따머꾸 콩나물 질러머꾸 녹두나물 질러머꾸 농촌써 그러케 해머거쭈. {응, 고추, 풋고추 따먹고, 콩나물 길러먹고, 녹두나물 길러먹고, 농촌에서 그렇게 해먹었죠.}
10501 @ 또 꿰느 이러 꿰도 다 하셔쓸 꺼 아네요? {또 깨는 이렇, 깨도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10501 # 꽤 보꺼서. {깨 볶아서.}
10501 @ 꿰 콩 그쵸. {깨, 콩, 그렇죠.}
10501 # 꽤: 콩 지름 들꿰 지름 짜머꾸 해서 그래쓰. {깨, 콩, 기름, 들깨 기름 짜먹고 해서, 그랬어요.}
10501 @ 쑤까까틍 거또 시머 드셔써요 할머니? {쑥갓같은 것도 심어 드셨어요, 할머니?}
10501 # 예 쑤깓 거러머꼬. {예, 쑥갓 갈아먹고.}
10501 @ 생강으뇨? {생강은요?}
10501 # 생강두 가라머꼬 농촌써 그렁거 해서 머거. {생강도 갈아먹고 농촌에서 그런 거 해서 먹어.}

10501 @ 감자. {감자.}
10501 # 감자 고구마 감자. {감자, 고구마, 감자.}
10501 @ 고구마가 옌나레도 이 고구마여써요 할머니? {고구마가 옛날에도 이 고구마였어요, 할머니?}
10501 # 예. {예.}
10501 # 저긔 보리감자라능건 금 감자두 그거 앤날 쏘리구 고구마두 옌날 쏘리구. {저기 보리감자라는 건, 그 감자도 그거 옛날 소리고, 고구마도 옛날 소리고.}
10501 @ 토란도 드션나요 이쪼게서? {토란도 드셨나요, 이쪽에서?}
10501 # 토라두? {토란도?}
10501 @ 토란. {토란.}
10501 # 토라는 몰러. {토란은 몰라.}
10501 @ 토라니 이쪽 마리 아닝가? 그 이르케 머. {토란이 이쪽 말이 아닌가? 그 이렇게 뭐.}
10501 # 난 그거 빼끼 몰러 농촌서 해멍는다는. {나는 그것 밖에 몰라, 농촌에서 해먹는다는 [x것은x].}
10501 @ 아까 교수님 말쓰마시던 영근 이렁 거 드셔써요?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시던 연근 이런 거 드셨어요?}
10501 # 연:근두 저 연근가튱거 안 머거바쓰. {연근도 저, 연근같은 거 안 먹어봤어요.}
10501 @ 당그는 당근? {당근은, 당근?}
10501 # 당그는. {당근은.}
10501 @ 옌날 이르미 뭐여 옌날 이름도 당그니어써요? {옛날 이름이 뭐였, 옛날 이름도 당근이었어요?}
10501 # 당근 이써쭈 여 그거는 가끔 그저니 오모니라 사다머꾸 지비서는 안내머꾸. {당근 있었죠 여기, 그것은 가끔 그전에 어머니가 사다 먹고 집에서는 안 해먹고.}
10501 @ 아 웨요? 기르기 힘드나요? {아, 왜요? 기르기 힘드나요?}
10501 # 그러구 저 우리 친정에서는 순::저니 해따능게 농사 으레 해따능게 반농사 보리 갈구 밀 갈구 노이~다 쌀 베 갈고 그거 빼끼 아내쓰 그러고 마눌 생경 꽤: 꼬추 저. {그리고 저 우리 친정에서는 순전히 했다는 게, 농사 으레 했다는 게 밭농사, 보리 갈고, 밀 갈고, 논에다 쌀, 벼 갈고 그거 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마늘, 생강, 깨, 고추 저.}
10501 @ 뭐 호박까튱거. {뭐 호박같은 거.}
10501 # 호박 뭐 호박가티 가지 우:이 그렁거만 싱겨 머거찌. {호박, 뭐 호박같이, 가지, 오이 그런 것만 심어 먹었지.}
10501 @ 혹씨 할머니 버서까튱 거또. {혹시 할머니, 버섯 같은 것도.}
10501 # 버서또 아내머거꼬. {버섯도 안 해먹었고.}
10501 @ 머 사다 드셔써요 피료하면 그러면? {뭐 사다 드셨어요, 필요하면? 그러면?}
10501 # 우리 아버지가 농사일 빼끼 물러서. {우리 아버지가 농사일 밖에 몰라서.}
10501 @ 요 동네에서는 버서까튱거 만드는 사람 업써써요 동네싸람? {요 동네에서는 버섯 같은 거 만드는 사람 없었어요, 동네사람?}
10501 # 이쓰. {있어요.}
10501 @ 그때도요? {그때도요?}
10501 # 여기 시집 오너서는 하래배라 버서대서 대바티다 나서 일련 다 따머거찌. {여기로

시집 와서는 할아버지가 버섯해서 대밭에다 놔서 일 년 다 따먹었지.}
10501 @ 아 이 하라버지가요? {아, 이 할아버지가요?}
10501 # 예. {예.}
10501 # 참:나무다 이러케 구멍 뚜러가꾸 게다가 씨:사다 는는디 잘 데떠라구. {참나무에다 이렇게 구멍 뚫어갖고, 거기에다가 씨 사다 넣었는데 잘 됐더라고.}
10501 @ 할머니 그럼 과이른 요즘 우리가 흐니 멍는 머 차뫼나 수바기나 머 토마토나 머 이렁거뜨른 옌나레 어트게 드셔써요? 안 드셔써요? {할머니, 그럼 과일은 요즘 우리가 흔히 먹는 뭐 참외나 수박이나 뭐, 토마토나 뭐 이런 것들은 옛날에 어떻게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10501 # 웨유 머거쭈 머 옌나레 예 도마도가틍건 아버지라 싱겨서 따 따머거찌. {왜요, 먹었죠, 뭐 옛날에, 예, 토마토같은 건 아버지가 심어서서 따, 따먹었지.}
10501 @ 할머니는 뭐 뭐 또 지베서 뭐 수바기나 이렁거또 다 하셔써요? {할머니는 뭐, 뭐 또 집에서 뭐 수박이나 이런 것도 다 하셨어요?}
10501 # 여기 그러케 해가꾸서 여기 시집 오너서 시집 오너서는 수박 멘년 내라 싱겨서 오이가틍거지 가지가틍거 다 따머꾸 사라쓰. {여기, 그렇게 하고서 여기 시집 와서, 시집 와서는 수박 몇 년 내가 심어서, 오이같은 거 하지, 가지같은 거 다 따먹고 살았어요.}
10502 @ 그러며는 할머니 우선 음:: 그 뿌리 멍능거 이짜나요 무나 뭐 무슨 그 무 무우며는 무는 어터케 처으메 어터케 시머서 길러 길러 머거요? {그러면 할머니, 우선 음, 그 뿌리 먹는 거 있잖아요, 무나 뭐 무슨, 그 무, 무면은, 무는 어떻게, 처음에 어떻게 심어서 길러, 길러 먹어요?}
10502 # 그거는 씨: 사다가 씨 사다가 가러가꾸 봄:무수 이꾸 보미 가능거 여르미 가능거 이꾸 저긔 진잠 무수 이꾸 그러커드뉴 봄 빼차 이꾸. 그른디 봄 빼차 사다가 바티다 가러서 그늠 크머는 먹 먹쭈. {그것은 씨 사다가, 씨 사다가 갈아갖고 봄무 있고, 봄에 가는 거, 여름에 가는 거 있고, 저기 김장 무 있고 그렇거든요, 봄배추 있고. 그런데 봄배추 사다가 밭에다 갈아서 그놈 크면은 먹, 먹죠.}
10502 @ 다 씨를 다 뿌려서? {다 씨를, 다 뿌려서?}
10502 # 예. {예.}
10502 # 씨 다 사다 뿌려서. {씨 다 사다 뿌려서.}
10502 @ 그러면 감자나 고구마느뇨 할머니 언제 어떠케 뿌려 씨 뿌려서? {그러면 감자나 고구마는요 할머니, 언제, 어떻게 뿌려, 씨를 뿌려서?}
10502 # 그거뚜 고고마는 이끔 싱겨 순 짤러서 이 순 질 질러가꾸. {그것도 고구마는 지금 심어, 순 잘라서, 이 순 길, 길러갖고.}
10502 @ 수늘 꼬자노키만 하며는. {순을 꽂아놓기만 하면은.}
10502 # 예 그러구 꼬자노코 보리감자는 이끔 캘 때 데구. {예, 그렇게 꽂아놓고, 보리감자는 지금 캘 때 됐고.}
10502 # 보리감자는 캐게대고 고구만 이끔 논는다구 그 그 수니루 순 짤러서 그러 그러커먼 고구마는 가:리 캐구 보리감자는 이끔 니얼 모리 캘껴. {보리감자는 캘 때 됐고 고구마는 지금 놓는다고, 그, 그 순으로, 순 잘라서, 그러, 그렇게 하면 고구마는 가을에 캐고, 보리감자는 지금, 내일 모레 캘 거예요.}
10502 @ 파도 할머니 시머 드셔써요? {파도, 할머니 심어 드셨어요?}
10502 # 예 파두 싱:겨따가 이끔 다 캐찌 종자 시드러서. {예, 파도 심었다가 지금 다 캤

지, 종자 시들어서.}
10502 @ 파두 그 크기 맏 따라 이르미 다르자나요 할머니? {파도 그 크기, 맛 따라 이름이 다르잖아요, 할머니?}
10502 # 그러치 저기 진장파 이꾸 저기 디야지파 이꾸. {그렇지, 저기 김장파 있고, 저기 돼지파 있고.}
10502 @ 어떠케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10502 # 디야지파는 진장이다 워따 느먼 시어너구 이르케 주먹처럼 크고. {돼지파는 김장에다 어디에다 넣으면 시원하고 이렇게 주먹처럼 크고.}
10502 @ 크고. {크고.}
10502 # 이 진장파는 잘구 근디 그건 진 마시 그거만 쪼끔 시어너질 안치. {이 김장파는 잘고, 그런데 그건 김{x장x], 맛이 그것만큼 조금 시원하지를 않지.}
10502 @ 두개는 씨 뿌리고 하능건 가튼 게저레 가튼 처레 길러서. {두 개는 씨 뿌리고 하는 건 같은 계절에, 같은 철에 길러서.}
10502 # 예 근디. {예, 그런데.}
10502 @ 가꼬여? {같고요?}
10502 # 예. {예.}
10502 @ 그럼 상추도 이게 여러 모양 상추가 이찌 안나요? 꼬불꼬불 항거또 이꼬. {그럼 상추도 이게 여러가지 모양 상추가 있지 않아나요? 꼬불꼬불한 것도 있고.}
10502 # 물러 꼬불꼬부렁거는 몰르는디 내가 바더서 치마상추라구 널씨쎠 예. {몰라, 꼬불꼬불한 거는 모르는데, 내가 받아서 치마상추라고 넓은[x것x]있어. 예.}
10502 @ 치마상추? {치마상추?}
10502 # 예 널::따란 늠 그늠 바더가꾸 일려니 바다가꾸 여저니 해멍네 넘더른 사다가 헌다구 허드만 사다 안쿠. {예, 넓다란 놈, 그놈 받아갖고, 일 년에, 받아갖고 여전히 해먹네, 남들은 사다가 한다고 하더구먼, 사서 안하고.}
10502 @ 치마상추에요 이르미? {치마상추예요, 이름이?}
10502 # 예 예. {예 예.}
10502 # 치마상추. {치마상추.}
10502 @ 할머니 시금치도 길러 드셔요? {할머니, 시금치도 길러서 드셔요?}
10502 # 예 시금치도 가라 머거쓰. {예, 시금치도 갈아 먹었어요.}
10502 @ 마느른 언제 마느른 어터케 마늘도 씨를 뿌리나요 쪼글 심나요? {마늘은 언제, 마늘은 어떻게, 마늘도 씨를 뿌리나요, 쪽을 심나요?}
10502 # 쪼그로 심쭈. {쪽으로 심죠.}
10502 @ 예 언제 하는데요? {에, 언제 하는데요?}
10502 # 마눌 이끔 캐여. {마늘 지금 캐요.}
10502 @ 그럼 언제 시머요? {그럼 언제 심어요?}
10502 # 이제 가으리 싱겨따가 증내 나둬따 증 즐기 인제 날 쪼끔 푸러지믄 나오머는 이끔 캐유. {이제 가을에 심었다가 겨우내 나뒀다가 겨울, 겨울, 인제 날 조금 풀어지면, 나오면은 지금 캐요.}
10502 @ 여기 마느른 며쪽 뭰대요 할머니? {여기 마늘은 몇 쪽 된대요, 할머니?}
10502 # 게 여서쪼기라구 긍게. {그게 여섯 쪽이라고 그러니까.}
10502 @ 아 서산 육쫑마늘 그 유명한 할머니 호박까틍 경우 호바근 머 이캐 쉽게 쉽게 열

리고 하능게 호바깅거 가튼데 호박 가지. {아, 서산 육쪽마늘 그 유명한, 할머니 호박같은 경우, 호박은 뭐 이렇게 쉽게, 쉽게 열리고 하는 게 호박인 것 같은데, 호박, 가지.}
10502 # 그 호박뚜 여러가지 이쓰. {그 호박도 여러가지 있어요.}
10502 # 마디 호 마디::마디 여러는 호박 이꾸 그냥 지::다라케 커서 저기 드문::드문 여는 말뚝 호바기라고 이망::케 크능거 이꾸 또 야고바기라구 또 이르케 똥고란 호박 바가치처럼 그르케 씨가지여. {마디호[x박x], 마디마디 여는 호박 있고, 그냥 기다랗게 커서, 저기 드문 드문 여는 말뚝호박이라고 이만하게 크는 거 있고, 또 약호박이라고 또 이렇게 동그란 호박, 바가지처럼 그렇게 세 가지야.}
10502 # 근디 호박 마디 호바근 마디마디마디 여러가꾸 이냥 수::터게 열지 근디 그건 안 코 우리는 그냥 지저멍는 호박 질쭈겅 거 그거 심겨서 머꾸. {그런데 호박, 마디호박은 마디마디마디 열어갖고 그냥 숱하게 열지, 그런데 그건 안 하고, 우리는 그냥 지저먹는 호박, 길쭉한 거 그거 심어서 먹고.}
10502 @ 호바근 좀 파르스름 할 때도 따머꼬 누러케 될 때까지 나두기도 하고 그러조? {호박은 좀 파르스름할 때도 따먹고, 누렇게 될 때까지 놔두기도 하고 그러죠?}
10502 # 예 누:러케 허능거는 지저머꾸 새파랑거는 해서 저 보꼬 머꼬. {예, 누렇게 하는 것은 지져먹고, 새파란 것은 해서, 저 볶아먹고.}
10502 @ 새파랄 때 따는 호박 이르믄 모라고 하조? {새파랄 때 따는 호박 이름은 뭐라고 하죠?}
10502 # 애호박. {애호박.}
10502 @ 그럼 누러케까지 놔두는? {그럼 누렇게까지 놔두는?}
10502 # 그건 닐:근 호박. {그건 늙은 호박.}
10502 @ 그건 웨 그러케 나둬요 할머니? {그건 왜 그렇게 나둬요, 할머니?}
10502 # 그건 징 인지 즐기가튼 때 호박 웁쓸 때 머꼬 씨: 바들라고 씨: 영글먼 인제 씨 바들라고 그러커구 애호박까틍 거 따다가 보꼬 모꼬 철질 허는 디다 철지래서 머꼬 저 저러케 장 지진 디다 느서 보까 머꼬 그러케 지내지. {그건 겨울, 인제 겨울같은 때 호박 없을 때 먹고 씨 받으려고, 씨 영글면 인제 씨 받으려고 그렇게 하고, 애호박같은 거 따다가 볶아먹고, 철질하는 데다 철질해서 먹고, 저, 저렇게 장 지진 데다 넣어서 볶아먹고 그렇게 지내지.}
10502 @ 늘근 호바근 여자드란테 조타는데 뭐에? {늙은 호박은 여자들한테 좋다는데 뭐에?}
10502 # 그 애기난 사람들. {그 아기 낳은 사람들.}
10502 @ 어떠케 해멍는데요? {어떻게 해먹는데요?}
10502 # 그건 애기 나쿠서 저 뭐더머는 그 호박 쏘기다가 이러케 호박 똥그라케 오려가꾸 그 씨를 다 바더내구서 기다가 도라지. {그건 아기 낳고서 저 뭣하면은 그 호박 속에다가 이렇게 호박 동그랗게 오려갖고 그 씨를 다 받아내고서 거기에다가 도라지.}
10502 @ 소글 파낸다고요? {속을 파낸다고요?}
10502 # 예 그 씨가틍거 다 그러컨 저기 도라지 물려 딴 디는 몬데 장이 가머는 그 잔::도라지 쓴도라지 이짜뉴? {예, 그 씨같은 거 다 그렇게, 저기 도라지, 몰라, 딴 데는 모르겠는데 장에 가면은 그 잔도라지, 쓴도라지 않잖아요?}
10502 @ 네. {네.}
10502 # 그거 사다가가 꿀 느쿠 소티다가 쩌:서 그늠 그러케서 그거 아니가 물 괴머는 그

무릉 머그믄 애기난 사람들 조타고데 우리 메느리도 다 그러케 해줘써. {그거 사다가 꿀 넣고 솥에다가 좀 쪄서 그놈 그렇게 해서 그거 안에 물 괴면은 그 물은 먹으면 아기 난 사람들 좋다고 하데, 우리 며느리도 다 그렇게 해줬어.}
10502 @ 그면 씀도라지 잠도라지는 우린 어떠케 구벼를 해요 할머니? {그러면 씀도라지, 잠도라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별을 해요, 할머니?}
10502 # 그게 포나유. {그게 표 나요.}
10502 @ 어떠케 다른? {어떻게 다른[x데요x]?}
10502 # 이러케 잠::도라지는 이 거시 쭈글쭈글쭈그러고 씀도라지는 그냥 판파내 그러구써 냄새가. {이렇게 잠도라지는 이 겉이 쭈글쭈글쭈글하고, 씀도라지는 그냥 판판해, 그리고써 냄새가.}
10502 @ 아 냄새가 그러케 나요? {아, 냄새가 그렇게 나요?}
10502 # 예 예. {예 예.}
10502 # 냄새가 도라지 냄새가 쓰구 잠도라징게 마터보머는 구수르머구. {냄새가 도라지 냄새가 쓰고, 잠도라지니까 맡아보면 구수하고.}
10502 @ 껍찌리 쪼글. {껍질이 쪼글.}
10502 # 예 쪼글쪼글 쪼글쪼그러구. {예, 쪼글쪼글 쪼글쪼글하고.}
10502 @ 그다메 아까 그 버섣 얘기 하셔짜나요 할머니 하라버지가 기르셔쓰면 어 어 어디서 어떠케 하셔써요 버서슬? {그 다음에 아까 그 버섯 이야기 하셨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르셨으면 어, 어, 어디서 어떻게 하셨어요, 버섯을?}
10502 # 버서슨 인제 참:나무 벼:다가 이러케 저기 구냥 구멍 뚜러가가꾸 참나무이다 씨시다거 씨: 사다가 요로케 하나씩 하나씩 느터믄. {버섯은 인제 참나무 베다가 이렇게, 저기 구멍, 구멍 뚫어갖고 참나무에다, 씨 사다가, 씨 사다가 요렇게 하나씩, 하나씩 넣더구먼.}
10502 @ 구멍에. {구멍에.}
10502 # 예 구멍이 그그래가꾸 꺼뭉 망: 이캐 망이라구 이게 덤능거 이써 꺼믄 망가따 더퍼노문 한 한다리나 얼마되믄 이캐 삐끌삐쭐 나오덩거료. {예 구멍에, 그, 그래갖고 검은 망, 이렇게 망이라고 이렇게 덮는 거 있어, 검은 망 갖다 덮어놓으면 한, 한 달이나 얼마되면 이렇게 삐죽삐죽 나오던 걸요.}
10502 @ 구멍에서? {구멍에서?}
10502 # 예 구멍이서. {예, 구멍에서.}
10502 @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10502 # 그러 커러믄 따다 그냥 애들 주지. {그렇게 되면 따서 그냥 애들 주지.}
10502 @ 그믄 따서 머그면 그 자리에는 또 또 나요? {그러면 따서 먹으면 그 자리에는 또, 또 나요?}
10502 # 또 나오덩거류 그 저기 나오다가 안 나온 늠 또 나구 여저::니 나오더구먼. {또 나오던걸요, 그 저기 나오다가 안 나온 놈 또 나고, 여전히 나오던구먼.}
10502 @ 그면 그게 언제까지 가능애요 한 일련쯤 게속 따먹끼만 하면 되나요? {그러면 그게 언제까지 가능해요, 한 일 년쯤 계속 따먹기만 하면 되나요?}
10502 # 아뉴 일 일련 무까 한 메뻔 서너번만 따머그먼 움써. {아니요 일, 일 년 못 가, 한 몇 번, 서너 번만 따먹으면 없어.}
10502 @ 그 다멘 어떠케? {그 다음에는 어떻게?}
10502 # 그 또 사다 느야지. {그 또 사다 넣어야지.}

10502 @ 그 구멍에 여저니 다시 그냥 바가 넌나요? {그 구멍에 여전히 다시 그냥 박아 넣나요?}
10502 # 예 예. {예 예.}
10502 # 바거 는 그믕. {박아 넣어, 구멍.}
10502 @ 그런 버서슨 이르 이르미 머연 먼데요 할머니 그러케 드신 버서슨? {그럼 그런 버섯은 이름, 이름이 뭐였, 뭔데요 할머니, 그렇게 드신 버섯은?}
10502 # 그게 이르미 무슨 뭐라고 허더먼 이저번전네. {그게 이름이 무슨, 뭐라고 하던데, 잊어버렸네.}
10502 @ 어떤어떤 버서뜰 드셔써요 그러면 버서또 종류가 만치오? {어떤어떤 버섯들 드셨어요, 그러면, 버섯도 종류가 많죠?}
10502 # 그거 지비서 그거빼끼 암머거 바써 이거쩌거 안 사다 머거 바써. {그거, 집에서 그거밖에 안 먹어 봤어, 이것저것 안 사다 먹어 봤어.}
10502 @ 어터케 생겨낄래요 그 버섣? {어떻게 생겼길래요, 그 버섯?}
10502 # 이르케 이 요러케 보골보골::허고 이 그 유산 가떠믄. {이렇게 이, 요렇게 보글보글하고, 이, 그 우산 같더구먼.}
10502 @ 아 유사니 이 우산 말씀하시능거에요? {아, 유산이 이 우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10502 # 예 예. {예 예.}
10502 # 고러쿠 그리터라구. {그렇고, 그렇더라고.}
10502 @ 하야코. {하얗고.}
10502 # 하여코. {하얗고.}
10502 @ 할머니 예쁘고. {할머니, 예쁘고.}
10502 # 꼭때가 버껴 주먹자럼 봉울봉울 꼬쒱이차럼 그러케. {꼭지가 벗겨, 주먹처럼 방울방울 꽃송이처럼 그렇게.}
10502 @ 할머니 그 무:가 이 무 이케 써러 멍능 건 말고 이러케 이퍼니쪼. {할머니, 그 무가, 이 무 이렇게 썰어서 먹는 것 말고, 이렇게 이파리 있죠.}
10502 # 총각짐치? {총각김치?}
10502 @ 아니 그 이퍼리쪽 부분 무 거 혹씨 거기를 무청이라고 하셔요? {아니, 그 이파리쪽 부분, 무, 그거 혹시 거기를 무청이라고 하셔요?}
10502 @ 시래기 만드는 부분 이 몸통 짤라내고 시래기로 만드는 부분. {시래기 만드는 부분, 이 몸통 잘라내고 시래기로 만드는 부분.}
10502 # 여긴 충각짐치라구 허는디. {여기는 총각김치라고 하는데.}
10502 @ 그건 쪼그마난 거. {그건 조그만한 거.}
10502 # 그건 충 그 그거 그거뚜 충 저기 그게 머라고 핸는디 이저번전네 그거뚜. {그건 총, 그, 그거, 그것도 총, 저기 그게 뭐라고 했는데 잊어버렸네 그것도.}
10502 @ 깍뚜기 만드는 무 할머니 총각무는 무 이퍼리아고 무를 가치 멍능 거고 깍뚜기 만드러 멍는 무가 이찌 이찌요? {깍두기 만드는 무 할머니, 총각무는 무 이파리하고 무를 같이 먹는 거고, 깍두기 만들어 먹는 무가 있지, 있지요?}
10502 # 그 큰 무 무수 그건 진장 무수라구지. {그 큰 무, 무? 그건 김장무라고 하지.}
10502 @ 그 그 무수 그 무수가. {그, 그 무, 그 무가.}
10502 # 예 이건 진장무수. {예, 이건 김장무.}
10502 @ 아 이게요? 요기 요 부부늘 씨래기로 멍능거자나요 말려서. {아 이게요? 요기,

요 부분을 시래기로 먹는 거잖아요?}
10502 # 예 요건 씨래기 에. {예, 요건 시래기, 예.}
10502 @ 요기를 멀 무청이라고 혹씨 하나요 요게 머라고 해요? {요기를 뭘, 무청이라고 혹시 하나요, 요게 뭐라고 해요?}
10502 # 물러 우뜨른 시라기라고 핸네. {몰라, 우리들은 시래기라고 했네.}
10502 @ 이 달려 이쓸 때부터요? 이게 무에 달려 이쓸 때부터. {이게 달려 있을 때 부터요? 이게 무에 달려 있을 때 부터?}
10502 # 아니 인 이 이건 인제 무시 입쌔라구 해찌. {아니, 이, 이, 이건 인제 무 잎사귀라고 했지.}
10502 @ 무십쌔? {무 잎사귀?}
10502 # 예 무수 입쌔기어구 요거 짤라서는 시래기라구어구 그러구 이건 무수라구 해구 무수 입쌔기라구 허고 허고. {예, 무 잎사귀라고 하고, 요거 잘라서는 시래기라고 하고, 그리고 이건 무라고 하고, 무 잎사귀라고 하고, 하고.}
10502 @ 배추가요 할머니 요 안쪼게 노란색 요로케 고 고 부부늘 이르미 이쪼? {배추가요 할머니, 요 안쪽에 노란색, 요렇게 고, 고 부분을 이름이 있죠?}
10502 # 수:기라구지. {속이라고 하지.}
10502 @ 그냥 배추숙 이요? {그냥 배추속이요?}
10502 # 배차숙. {배추 속.}
10502 @ 할머니 그러면 어 걷 거쩌리라고 하셔써요 할머니도 배추를 그냥 짐장 아닝거. {할머니, 그러면 어 겉, 겉절이라고 하셨어요, 할머니도 배추를 그냥 김장 아닌 거.}
10502 # 예 거쩌리. {예, 겉절이.}
10502 @ 어떠케 하조? {어떻게 하죠?}
10502 # 얼 얼:저리. {얼, 얼절이.}
10502 @ 아 얼저리 그 어터케 하 하시 하시는데요 여기서는? {아, 얼절이, 그 어떻게 하, 하시, 하시는데요, 여기서는?}
10502 # 여기서는 얼저리는 난 물러 딴 사람 어치 멍는지 몰릉게 긍께 송 노::란디 이짜뉴. 그러믄 이러케 인제 쪽::쪽 인제 저까라기루 이러케 째여 이러케 쪽::쪽 째머는. {여기서는 얼절이는 난 몰라, 딴 사람 어찌 먹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속 노란 데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인제, 쪽쪽 인제 젓가락으로 이렇게 째요, 이렇게 쪽쪽 째면은.}
10502 @ 저까라그로만 째야되요? 칼로 째면 안되요? {젓가락으로만 째야돼요? 칼로 째면 안돼요?}
10502 # 칼루는 짤러지구 가새가 조은디 난 저깔루 쪼:옥. {칼로는 잘라지고, 가위가 좋은데, 난 젓가락으로 쪽.}
10502 @ 가위 아 예. {가위, 아, 예.}
10502 # 쪽::쪽 이케 째서 그냥 쌩::늠 쌩:늠 그냥 양녀매서 이르케 무치먼 차차루 차차루 죽 저러저. {쪽쪽 이렇게 째서 그냥 생것, 생것 그냥 양념해서 이렇게 무치면 차차로, 차차로 이렇게 죽 절여져.}
10502 @ 예 수미 죽 죽께쪼. {예, 숨이 죽, 죽겠죠.}
10502 # 예 수미 주거지믄 그러케서 그냥 머그면 마시떠라구. {예, 숨이 죽으면, 그렇게 해서 그냥 먹으면 맛있더라고.}
10503 @ 그 배추짐치는 어떠케 다마요 할머니 머 머 너요? {그 배추김치는 어떻게 담아

요, 할머니, 뭐, 뭐 넣어요?}
10502 # 배추짐치 다믈 땐 배차 숙:: 게 배차 수기라구지 그걸 헐 때는 새우젇 굴 그거빼끼 안 너유 이냥. {배추김치 담글 때는 배추 속, 그게 배추 속이라고 하지, 그걸 할 때는 새우젓, 굴, 그거밖에 안 넣어요 그냥.}
10503 @ 그걸 통으로 그냥 이르케 쑥쑹 너요? {그걸 통으로 그냥 이렇게 쑥쑥 넣어요?}
10503 # 예 구른 그냥 통:이루 느쿠 새우젇 쪼끔 느쿠. {예, 굴을 그냥 통으로 넣고 새우젓 조금 넣고.}
10503 #2 할무이는 할매는 나보다 더 모를르는디. {할머니는, 할머니는 나보다 더 모르는데.}
10503 @ 네 하라버님. {네, 할아버지.}
10503 # 숙 저 굴름 쌩굴 찌거다가 그냥 느쿠 새우젇 쪼끔 느쿠 그냥 여르미 멍넝거는 저런 간장이다가 소그미 양념 쪼끔 애가꾸 파 가튱거 마눌 까튱거 느쿠서 그냥 허고 즐기 멍넝거는 고로케 양녀매서 머꾸 고러케빼끼 아내요. {속, 저 굴 넣으면, 생굴 찍어다가 그냥 넣고 새우젓 조금 넣고 그냥 여름에 먹는 것은 저런 간장에다가 소금에, 양념 조금 해갖고, 파 같은 거, 마늘 같은 거 넣고서 그냥 하고, 겨울에 먹는 것은 그렇게 양념해서 먹고 그렇게밖에 안 해요.}
10503 @ 그면 보통 우리가 요 이맘 때 멍는 배추짐치는 어떠케 담궈요 할머니 처으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요, 이맘 때 먹는 배추김치는 어떻게 담가요, 할머니 처음에?}
10503 # 이:: 여르미 멍능거? {이 여름에 먹는 거?}
10503 @ 예예 짐장 말고. {예, 예, 김장 말고.}
10503 # 진장 말구 여르미 멍능거 여르미 멍능건 그 저런 저꾸까튱거 그렁거 느믄 물루구 마시 웁씨유. {김장 말고 여름에 먹는 거, 여름에 먹는 건 그 저런 젓국같은 거 그런 거 넣으면 모르고, 맛이 없어요.}
10503 # 그냥 간장이다가 마눌 파 저기 미원 쪼끄만 느쿠 그러쿠서 그냥 간 마처서 그냥 다므야 아사가사가니 마시써. {그냥 간장에다가 마늘, 파, 저기 미원 조금만 넣고 그렇게 하고서 그냥 간 맞춰서 그냥 담가야 아삭아삭하니 맛있어.}
10503 @ 금 긍까 머 머 너 양녀므로 머 머 넌능 거에요? {그럼, 그러니까 뭐, 뭐, 넣, 양념으로 뭐, 뭐 넣는 거예요?}
10503 # 글쎄 마눌 파 미원 쪼꼼 느쿠 예 그러커요. {글쎄 마늘, 파, 미원 조금 넣고, 예, 그렇게 해요.}
10503 @ 고추까룬 하나도 안 너. {고춧가루는 하나도 안 넣[x어요x]?}
10503 # 꼬춛카루 니야지. {고춧가루 넣어야지.}
10503 @ 긍까 중요한 고 고추까루. {그러니까 중요한 고, 고춧가루.}
10503 # 이~ 꼬춛까루 느쿠 예 그러케요. {응, 고춧가루 넣고, 예, 그렇게 해요.}
10503 @ 그래서 이르케 이르.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10503 # 예 주물러 가꾸. {예, 주물러갖고.}
10503 @ 금 배추도 어째뜬 저리 저리능건 해야 데지요? {그럼 배추도 어쨌든 절이, 절이는 건 해야 되지요?}
10503 # 배차 저려가꾸 해야지. {배추 절여갖고 해야지.}
10503 @ 금 어떠케 해요? 통포기로 어트게 하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통 포기로 어떻게 하나요?}

10503 # 통포기 즈긍거는 그냥 이 새에다가 이르케 소금 느쿠 킁거는 니::쪽짜리는 니쪽 내구 두쪽 낼 꺼는 두쪽 내구 그러케서 그냥 책::책 느서 소금 언저가믄서 무런지먼 폭::씬 절주 그래가꾸. {통포기, 작은 것은 그냥 이 새에다가 이렇게 소금 넣고, 큰 거는, 네 쪽짜리는 네 쪽 내고, 두 쪽 낼 것은 두 쪽 내고, 그렇게 해서 그냥 차곡차곡 넣어서 소금 얹어 가면서 물 얹으면 흠씬 절죠, 그래갖고.}
10503 @ 그다으메는 무승 저려가지고? {그 다음에는, 무는 절여가지고?}
10503 # 저려가꾸 찌처가꾸 물 바구리다 다머가꾸 쪽:: 빠진디 양념 해노 양녀믄 인제 미리 해노야 꼬추가 빨::거케 우려나거든 부러서. {절여갖고, 씻어갖고 물 바구니에다 담아갖고 쪽 빠진 데 양념 해놓, 양념은 인제 미리 해놔야 고추가 빨갛게 우러나거든, 불어서.}
10503 # 그러쿠 허구 난 디 물 쪽 빠진디 인제 수글 비비지 인제 배차 입쌔기 하나에다가 하나씩 그러커유. {그렇게 하고 난 뒤 물 쪽 빠진 데 인제 속을 비비지, 인제 배추 잎사귀 하나에다가 하나씩 그렇게 해요.}
10503 @ 그건 인제 진장처럼 이러케 비벼가면서 하능거조? {그건 인제 김장처럼 이렇게 비벼가면서 하는 거죠?}
10503 # 예 예. {예, 예.}
10503 @ 그럼 나박 나바낌치는 까 여기서두 나바낌치라고 하는지 모르겐네요 할머니 무를 나 나바게 좀 크게 이르캐 써러가지고. {그럼 나박, 나박김치는, [x나박김치x]가 여기서도 나박김치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할머니, 무를 나, 나박하게 좀 크게 이렇게 썰어가지고.}
10503 # 넙:쩡넙쩌거게? {넙적넙적하게?}
10503 @ 넙쩌카게 해가지고 여기에는 이르미 머조? 그러케 하능 거? {넙적하게 해가지고, 여기에는 이름이 뭐죠? 그렇게 하는 거?}
10503 # 그거 나박 짐치라구 해유 여기두. {그거 나박김치라고 해요, 여기도.}
10503 @ 어떠케 당궈요 할머니 그거는? {어떻게 담가요 할머니, 그거는?}
10503 # 그거뚜 그냥 저기 깍뚜치시 시기루 다머 나는. {그것도 그냥 저기 깍두기 식, 식으로 담가, 나는.}
10503 @ 어떠케요? {어떻게요?}
10503 # 저기 새우전 느쿠 꼬추까루 느쿠 마눌 파 느쿠. {저기 새우젓 넣고, 고춧가루 넣고, 마늘, 파 넣고.}
10503 @ 처으메 무는 어째야 가니 잘 배요? 맨 처메 무는 어트게 해야대요 손지를? {처음에 무는 어째야 간이 잘 배요? 맨 처음에 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손질을?}
10503 # 손질 려 허넝거는 무 처으미 저릴라믄 아주 그 납짱납짜게 까숴가꾸 소금 쪼끔 살짝 언저는 노야 절지. {손질 여기 하는 것은, 무 처음에 절이려면 아주 그 납작납작하게 까갖고, 소금 조금, 살짝 얹어는 놓아야 절지.}
10503 # 그러케아꾸서 그 소금무를 빼가꼬 그 소금물 빼서 인제 바구리다 물 쪽 빼가꾸 양느ㅡㅁ 헝거 인제 꼬추까루 파 약 저기 마눌 파 가틍거 인제 새우젇 까틍거 인제 굴 이쓰믄 굴 가틍 고 곡 저 뭐 넘더른 디야지 게지 저 술 게기 뭐 뭐뭐 는는다 암튼 그렁 건 안 너. {그렇게 해갖고서 그 소금물을 빼갖고, 그 소금물 빼서 인제 바구니에다 물 쪽 빼갖고, 양념한 거 인제 고춧가루 파, 약, 저기 마늘, 파 같은 거, 인제 새우젓 같은 거, 인제 굴 있으면 굴 같은 거, 고기, 저 뭐 남들은 돼지고기, 저 쇠고기 뭐, 뭐뭐 넣는다[x는데x] 아무튼 그런 것은 안 넣어.}
10503 @ 고기도요? {고기도요?}

10503 # 예 고기두 느는대유 머 조기가튱거 그릉거 는는다믄 그릉 건 안느봐서 나는 그저 항상 저 양녀미리라능건 구러고 새우젇 마눌 파 꼬춛까루 이러커만 간 마추. {예, 고기도 넣는대요, 뭐 조기같은 거, 그런 거 넣는다하더먼 그런 건 안 넣어봐서, 나는 그저 항상 저 양념이라는 건 굴하고 새우젓 마늘 파 고춧가루 이렇게만 간 맞춰요.}
10503 @ 금 저 나박김치는 물 마니 되게 만드능거조? {그럼 저 나박김치는 물 많이 되게 만드는 거죠?}
10503 # 아니 물 마니 쓰먼 게벼저서가꾸 허여. {아니, 물 많이 쓰면 괴어져갖고 하얘.}
10503 @ 아 그럼 얼, 물 얼마나? {아, 그럼 얼, 물 얼마나?}
10503 # 어지가니 인제 그냥 그 짐치 물 쪽 빠지믄 게다가 인제 양념 헝거 인제 꼬추까루 양념 헝거 막:: 비벼가꾸 그러믄 기서 물 쑤서 또 물 생기유. {어지간히 인제, 그냥 그 김치 물 쪽 빠지면, 거기에다가 인제 양념한 거, 인제 고춧가루 양념한 거 막 비벼갖고, 그러면 거기서 물 솟아 또 물 생겨요.}
10503 # 그러믄 꼭꼭 이냥 눌러노믄 꼬추가 저 무수가 빨::거케 물드니께 게다 무를 마니 느머는 꼬춘무리 허여가꾸 짐치가 허여. {그러면 꼭꼭 그냥 눌러놓으면 고추가, 저 무가 빨갛게 물드니까 거기에다가 물을 많이 넣으면은 고춧물이 하얘갖고 김치가 하얘.}
10503 @ 그믄 그러케 한 김치가 나 머라고요 이르미 할머니? {그러면 그렇게 한 김치가 나, 뭐라고요 이름이, 할머니?}
10503 # 나벌 나발찜친가 머라고 우리 때는 넙찌기라고 허는디. {나박, 나박김치인가 뭐라고, 우리 때는 넓적이(+나박김치)라고 하는데.}
10503 @ 그게 넙찌기고 어디 빨가케 이르케 무를 납딱납딱 하게. {그게 나박김치고 어디 빨갛게 이렇게 무를 납작납작하게.}
10503 # 그건 깍뚜지. {그건 깍두기.}
10503 @ 아 그며는 너브 넙찌기는 빨까치 아능거조? {아, 그러면은 너브, 나박김치는 빨갛지는 않은 거죠?}
10503 # 그거뚜 빨개유 또까티. {그것도 빨개요, 똑같이.}
10503 @ 근데 깍뚜기는 또까치 이러케 써러가지고. {그런데 깍두기는 똑같이 이렇게 썰어가지고.}
10503 # 이 똥골똥고러게. {응, 동글동글하게.}
10503 @ 예 똥그럴똥그라게 하능거고 넙찌기는 크기가 다릉거네요? {예, 동글동글하게 하는 거고, 나박김치는 크기가 다른 거네요?}
10503 # 그 그 또까튼 무순디 쪼꿈 쿠구 넙찌거다구 넙찌기라구 해지. {그, 그 똑같은 무인데 조금 크고 넓적하다고 넓적이라고 했지.}
10503 # 그러고 깍뚝찌는 똥골똥고러고 헝게 깍뚝찌라구 허구 또 상채 이러케 해서 까숭거를 상채라구 허구. {그리고 깍두기는 동글동글하고 하니까 깍두기라고 하고 또 생채 이렇게 해서 깐 것을 생채라고 하고.}
10503 @ 그럼 오늘 할머니 아까 거기 교수님 드시라고 내노셔떤 고구마랑 가치 주셨던. {그럼 오늘 할머니, 아까 거기 교수님 드시라고 내놓으셨던, 고구마랑 같이 주셨던.}
10503 # 그건. {그건.}
10503 @ 그 김친 이르미 뭐에요? {그 김치는 이름이 뭐예요?}
10503 # 멀구찌 짐치. {국물김치.}
10503 @ 멀구찌 김치? 그거는 인제 허영 거자나요? {국물 김치? 그것은 인제 허연 거잖아요?}

10503 # 예 아니 예 허::영 거유 이게 돈너물 찜치라구. {예, 아니, 예 허연 거예요, 이게 돌나물김치라고.}
10503 @ 아 무리 인제 잠기게 인능거 마쪼 그건 어떠케 담그는데요? {아, 물이 인제 잠기게 있는 거 맞죠, 그건 어떻게 담그는데요?}
10503 # 그건 소굼무리다 해서. {그건 소금물에다 해서.}
10503 @ 맨 처으메 뭐부터 해야 되조? {맨 처음에 뭐부터 해야되죠?}
10503 # 젤 츠미는뉴 소곰 이캐 말근 무리다 내개가꾸 이캐 쪼꼼 머거바서 간간::하머는 게다가 저기 당걷 쪼꼼 느쿠 마눌 파 느쿠 그러케 이냥 다뮤 그러커먼 이그믄 새콤새콤 허니. {제일 처음에는요, 소금 이렇게 맑은 물에다 녹여갖고, 이렇게 조금 먹어봐서 간간하면은 거기에다가 저기 단 것 조금 넣고 마늘, 파 넣고 그렇게 그냥 담가요, 그렇게 하면 익으면 새콤새콤하니.}
10503 @ 아 그러케 해가 그 재료를 다 당궈가지고 이제 익 쫌 이글 때까지 기다려따가 머그면 되능거에요? {아, 그렇게 해서, 그 재료를 다 담가가지고 이제 익, 좀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먹으면 되는 거예요?}
10503 # 이내 머그먼 무:내 나고 푼내 나고 돈너무려 돈너물 돈너무러구 미나리 이꾸여. {이내 먹으면 무 냄새 나고, 풋내 나고, 돌나물이야, 돌나물, 돌나물하고 미나리 있고요.}
10503 @ 에 돈너물 미나리. {예, 돌나물, 미나리.}
10503 # 무수. {무.}
10503 @ 무수 이러케 배차는 안 드러가능거고. {무, 이렇게, 배추는 안 들어가는 거고.}
10503 # 배차 움써서 안 느치. {배추 없어서 안 넣지.}
10503 @ 그러면 열무김치라능건 여기서 어떵 걸 열무김치라능? {그러면 열무김치라는 건 여기서 어떤 걸 열무김치라는?}
10503 # 열무짐치는 그 무수 삐죽삐적 나오서 요마::큼 클 때 그거 뽀버서 금방 담 담능게 열무짐치요. {열무김치는 그 무 삐죽삐죽 나와서 요만큼 클 때, 그거 뽑아서 금방 담, 담그는 게 열무김치요.}
10503 @ 그 때는 아까 할머니가 말쓰마셔떤 총가낌치가 그게 그겅 거에요? {그 때는, 아까 할머니가 말씀하셨던 총각김치가 그게 그건 거예요?}
10503 # 충각찜치는 무수 믿 그건 열무짐치는 무수 미시 웁써 입쌔기만 이써. {총각김치는 무 밑, 그건 열무김치는 무 밑이 없어, 잎사귀만 있어.}
10503 @ 아 예 예 이 믿 빼고 입쌔기만. {아, 예, 예, 이 밑 빼고 잎사귀만.}
10503 # 예 예. {예, 예.}
10503 # 무수 째::끄말 때 열무짐치다 짜 그거떠러 열무짐치라고 충각찜치는 미시 이르게 입쌔기차람 지::다라케 무수 생긴대루 그거떠러 충각찜치라구. {무 조그말 때 열무김치에다 짜, 그것더러 열무김치라고, 총각김치는 밑이 이렇게 잎사귀처럼 기다랗게 무 생긴대로, 그것더러 총각김치라고.}
10503 @ 총가낌치는 빨가케. {총각김치는 빨갛게.}
10503 # 예 그거뚜 빨가케 해유. {예, 그것도 빨갛게 해요.}
10503 @ 무치능 거고 열무김치는? {무치는 거고 열무김치는?}
10503 # 열무침지. {열무김치.}
10503 @ 무리 쫌 궁무리 좀. {물이 좀, 국물이 좀.}

10503 # 궁무리 쪼금 더 이꾸 다 그 그 시기여 물러 나는 그러커구 머꾸 사러. {국물이 조금 더 있고, 다 그, 그 식이야, 몰라, 나는 그렇게 하고 먹고 살아.}
10503 @ 할머니 머 토라니나 연그는 안 드셔따고 하시고 우엉도 안 드션나 우엉이라능거 또 아까. {할머니, 뭐 토란이나 연근은 안 드셨다고 하시고, 우엉도 안 드셨나, 우엉이라는 것도 아까.}
10503 # 우렁. {우렁.}
10503 # 우렁은 뭐에요 할머니? {우렁은 뭐예요, 할머니?}
10503 # 우렁이라구 저 포강까 뭐 저런 포강 가시가 고둥처럼 이케 생겨써 우렁이라구. {우렁이라고 저 늪 가, 뭐 저런 늪 가에 고둥처럼 이렇게 생겼어, 우렁이라고.}
10503 @ 아 그건 우렁 예 할머니 그럼 호박 호박 까지고는 머 애호바기면 애호박 까지고는 어떤 요리를 어떤어떤 반찬 해머글 쑤 이써요? {아, 그건 우렁, 예, 할머니 그럼 호박, 호박 가지고는, 뭐 애호박이면, 애호박 가지고는 어떤 요리를, 어떤어떤 반찬 해먹을 수 있어요?}
10503 # 나는 호박 따믄 애오박 따가꾸써 보꼬 머꼬. {나는 호박 따면, 애호박 따갖고서 볶아 먹고.}
10503 @ 봉능건 어트케 하능 게 봉능거에요? {볶는 건 어떻게 하는 게 볶는 거예요?}
10503 # 저기야 후라파니다 지름 쪼끔 둘루구서 말랑말랑 허게 봉넝거 그 그거만 보꺼. {저기 후라이팬에다 기름 조금 두르고서 말랑말랑하게 볶는 거, 그, 그것만 볶아.}
10503 @ 보끌 때는 머 소금 뿌려서 봉나요? {볶을 때는 뭐 소금 뿌려서 볶나요?}
10503 # 소곰 막쏘곰 마쏘곰 느쿠 이르케 보꼬 머꾸 저 장: 지저 머꼬. {소금, 맛소금, 맛소금 넣고 이렇게 볶아 먹고, 저 장 지져 먹고.}
10503 @ 아 뒌장에? {아, 된장에?}
10503 # 된장. {된장.}
10503 @ 써러 너가지고. {썰어 넣어가지고.}
10503 # 그러케 해머 그러케 해머꺼찌. {그렇게 해먹, 그렇게 해먹겠지.}
10503 @ 국뚜? {국도?}
10503 # 쩌기 부치개 즌 가튱거 부치는 디다가 쓰러서 부처머꾸 그러케 해쓰. {저기 부침개, 전 같은 거 부치는 데다가 썰어서 부쳐먹고 그렇게 했어요.}
10503 @ 또 호바꾹또 드세요? {또 호박국도 드세요?}
10503 # 호바꾹까튱건 안 끄려 머건네 지저는 머거도. {호박국같은 건 안 끓여 먹었네, 지져는 먹어도.}
10503 @ 그러믄 이렁거는 어때요 할머니? 그 호바긴데 호바글 애호박 때 요러케 인제 얄께 써러가지고 궁물 좀 이캐 콩나물꾹처럼 궁물 좀 자작자자카게 이케 해서 멍는 그런 요리는 안 드셔써요? {그러면 이런 거는 어때요, 할머니? 그 호박인데, 호박을 애호박 때 요렇게 인제 얇게 썰어가지고 국물 좀 이렇게 콩나물국처럼 국물 좀 자작자작하게 이렇게 해서 먹는 그런 요리는 안 드셨어요?}
10503 # 지저 멍능거. {지져 먹는 거.}
10503 @ 지저 멍능건 어떠케? {지져 먹는 건 어떻게?}
10503 # 그 지저 멍능건 호박통을 쪼꼼 크게 해야여 지지믄 다 노거. {그 지져 먹는 건 호박통을 조금 크게 해야 해, 지지면 다 녹아.}
10503 # 그르케서 지즉지즈겨::서 저런 저기 고기가튱 거 느쿠 보글보글보글 지지지 그러

케 해머거. {그렇게 해서 지적지적해서 저런 저기 고기같은 거 넣고 보글보글보글 지지지, 그렇게 해먹어.}
10503 @ 그럼 그거 국처럼 이르케 가치 그냥 막 떠멍능 거조? {그럼 그거 국처럼 이렇게 같이 그냥 막 떠먹는 거죠?}
10503 # 그러케 해머거써. {그렇게 해먹었어.}
10503 @ 가진 가지는 가지는 어떤 요리 해머거요 할머니? {가지는, 가지는, 가지는 어떤 요리 해먹어요, 할머니?}
10503 # 가지는 따서 여기 저기 쩌가꾸 말랑말랑 쩌가꾸 무처 머꼬 그냥 무처 먹찌 머 거난 무처머빼끼 몸 머거 안 해머거써. {가지는 따서 여기, 저기 쪄갖고 말랑말랑하게 쪄갖고 무쳐 먹고, 그냥 무쳐 먹지 뭐, 그거 난 무쳐서밖에 못 먹어, 안 해먹었어.}
10503 @ 가지에 뭐 뭐 밀까루가튱걸 머 이르케 해가지고 그러케 해멍능거또 이떤데? {가지에 뭐, 뭐 밀가루같은 걸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먹는 것도 있던데?}
10503 # 그건 아내머거바쓰 그냥 무처만 머꼬 그래찌. {그건 안 해먹어 봤어요, 그냥 무쳐만 먹고 그랬지.}
10503 @ 가지는 껍찔째로 다 무치나요 할머니? {가지는 껍질채로 다 무치나요, 할머니?}
10503 # 근디 으一널 때는 갠차는디 쪼꼼 세이~껭 껍떼기 찔겨서 망울꾸 껄끄러더라구 그서 속뚜 머꾸 으一널 때는 쪼꼬마서 으一널 때는 가지 껍떼차 머꾸 그류. {그런데 연할 때는 괜찮은데 조금 세니까 껍데기 질겨서 맛없고, 껄끄럽더라고, 그래서 속도 먹고, 연할 때는 조그매서 연할 때는 가지 껍데기째 먹고 그래요.}
10503 @ 그러며는 오이는 뭐뭐 해머거요 해머거요? {그러면 오이는 뭐뭐 해먹어요, 해먹어요?}
10503 # 오이는 따머는 무처두 머꾸 납짝납짜게 까숴서 무처두 머꾸 꼬치장어따가 그러구 오이짐치 다머서 이캐 쪽::쪽 째가꾸서 게다가 쭈우리라고 이찌 이찌 그거 인제 양념해서 수구다 숙빠기유. {오이는 따면은 무쳐도 먹고 납작납작하게 썰어서 무쳐도 먹고 고추장에다가, 그리고 오이김치 담가서 이렇게 쪽쪽 째갖고서 거기에다가 부추라고 있지, 있지, 그거 인제 양념해서 속에다 속박아요.}
10503 @ 아 그게 우리가 마라는 오이소배기가튱거에요? {아, 그게 우리가 말하는 오이소박이같은 거예요?}
10503 # 예 우이쑥 우이쑥 느서 우이짐치 다머 머꾸 또 우이 또 짠지라구 소그미다가 짜게 저류. {예, 오이 속, 오이 속 넣어서 오이김치 담가 먹고, 또 오이, 또 짠지라고 소금에다가 짜게 절여요.}
10503 # 짜게 저리머는 인지 이그머는 그건 물 팔팔 끄 막 소곰무를 막 팔::팔 끄려서 막 이내 후닥딱 뿌리야여 시그먼 안데여. {짜게 절이면은, 인제 익으면은, 그건 물 팔팔 끓, 막 소금물을 막 팔팔 끓여서 막 이내 후다닥 뿌려야 해, 식으면 안돼.}
10503 # 그르케서 짠지 허머는 인제 우이가 노 샏::파러 샏파러먼 이게 그늠 끄내서 인제 무처 머꾸 물 떠서 멀구찜치처럼 머꾸 그러커머서. {그렇게 해서 짠지 하면은 인제 오이가 노, 샛파래, 샛파라면 이게 그놈 끄내서 인제 무쳐 먹고, 물 떠서 국물 김치처럼 먹고 그렇게 하면서.}
10503 @ 또 이 한:여르메 그 냉챈가 그거또 만드러 머글 때도 너초 오이? {또 한여름에 그 냉채인가, 그것도 만들어 먹을 때도 넣죠, 오이?}
10503 # 에 게다두 느테. {예, 거기에다도 넣데.}

10503 @ 그게 이르미 머조 여기서는 한 여르메 냉꾸기라고 하나요? {그게 이름이 뭐죠, 여기서는, 한여름에 냉국이라고 하나요?}
10503 # 냉꾹 냉꾹. {냉국, 냉국.}
10503 @ 그거에도? {그거에도?}
10503 # 느쿠 짜장 허는 디다두 느느트라구 애덜 이케서 삼채 까숴서 무처 머꾸 그류 난 그러키빼끼 아내머거바서. {넣고, 자장하는 데다도 넣, 넣더라고 애들, 이렇게 생채 썰어서 무쳐 먹고 그래요, 나는 그렇게 밖에 안 해먹어 봐서.}
10503 @ 할머니 냉꾸근 옌나레는 어터케 차게 만드러써요? {할머니 냉국은 옛날에는 어떻게 차게 만들었어요?}
10503 # 엔::나렌 냉구건 콩:꾸기라구 콩: 쌀머서 그늠 가러가꾸 그 콩물로 시언::허게 인 찬무리다 느 느 느따가 그르케서 게다 밀꾸게서 냉꾸기처럼 그케 잡쑤떠먼. {옛날에는 냉국은 콩국이라고 콩 삶아서 그놈 갈아갖고 그 콩물 시원하게 응, 찬물에다 넣, 넣, 넣었다가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 밀국수해서 냉국처럼 그렇게 잡수셨더구먼.}

제2편 어휘

2.1 농경

2.1.1 경작

20101	벼	20101	벼
20102	이삭	20102	이사기라구
20103	볍씨	20103	볍씨라구두
20104	못자리	20104	모짜리
20105	모판	20105	모판
20106	쟁기	20106	쟁기
20107	보습	20107	보시비요
20108	볏	20108	볃
20108-0-1	-이	20108-0-1	벼시라구
20109	극젱이	20109	극쨍이라고
20110	써레	20110	쓰:레
20111	번지	20111	판때기라구
20112	모내기	20112	모내기라구, 모심는다구
20113	흙덩어리	20113	흑떵어리라구
20114	고무래	20114	고무래
20114-1	고무래(곡식용도)	20114-1	*(+곡식 용도는 없음)
20114-2	고무래(재 용도)	20114-2	부억꼬무래
20114-3	고무래(흙 용도)	20114-3	*(+흙 용도는 없음)
20114-4	고무래(미는 데 사용)	20114-4	*(+미는 고무래는 없음)
20114-5	고무래(당기는 데 사용)	20114-5	*(+고무래로 통칭)
20115	쇠스랑	20115	쇠소시랑, 소시랑
20116	곡괭이	20116	꼬쾡이
20117	괭이	20117	쾡이루
20118	삽	20118	삽
20119	호미	20119	호미
20120	농기구	20120	농:기구
20121	김	20121	푸리라고도(+다), 잡초라고도(+소)
20122	김매다	20122	풀맨다구
20123	애벌 매다	20123	아시맨다구

20123-1	두벌 매다	20123-1	두벌맨다
20123-2	마지막(세벌) 김매기	20123-2	만무리라구
20124	논두둑	20124	논뚝
20124-1	논두렁	20124-1	논뚜렁이주
20125	밭둑	20125	바뚝
20126	밭두둑	20126	바뚜두기라구
20127	밭고랑	20127	받꼬리라구
20128	밭이랑	20128	반니랑이라구
20128-1	(밭이랑을) 타다/갈다/째다/파다	20128-1	골탄다구
20128-2	이랑밟기	20128-2	이랑발른다구
20129	보리	20129	보:리
20129-1	가을보리	20129-1	갈:뽀리조
20129-2	봄보리	20129-2	봄뽀리
20130	보리쌀	20130	보:리쌀
20131	가을갈이	20131	추경
20132	깜부기	20132	까막뽀리라구
20133	두엄	20133	둬:미라고도(+다), 퇴비(+소)
20134	거름	20134	거름준다

2.1.2 타작

20201	추수하다	20201	추수헌다
20202	볏단	20202	벼따니라구두(+다), 볃토매라구두(+소), 볃도매라(+소)
20202-1	볏단(한 줌 정도)	20202-1	벼따니주
20202-2	볏단(타작할 정도)	20202-2	벼따니지
20202-3	볏단(한 아름 정도)	20202-3	벼따뉴
20203	가리(積)	20203	볃까리라고
20204	가리다(積)	20204	가린다구, 가리킨다구
20205	볏가리	20205	벼까리
20206	낟가리	20206	변누리라구
20207	타작	20207	타:자간다구
20208	벼훑이	20208	기내때라구
20208-1	그네	20208-1	천치라구
20209	개상	20209	개상
20209-1	자리개	20209-1	자리개

20209-2	자리개질	20209-2	자리개질(+다), 태지런다고(+소)
20210	도리깨	20210	도루깨
20210-1	도리깻장부	20210-1	도리깨장치
20210-2	도리깻열	20210-2	도리깨마구리
20210-3	도리깨꼭지	20210-3	도리깨아들
20211	볏짚	20211	벼찝(+다), 집까주라구두(+소)
20211-0-1	-을	20211-0-1	집까주라구
20211-0-2	-에	20211-0-2	짐누리다
20212	새꽤기	20212	집쐐기
20213	쭉정이	20213	쭉쩽이
20214	티	20214	탑쎄기
20215	까끄라기	20215	꾸이껴라구
20216	풍구	20216	풍구
20217	원두막	20217	막, 원:두마기라구두
20218	허수아비	20218	허수애비
20219	흉년	20219	흉년
20220	머슴	20220	머스미라구주, 머스매라구
20221	놉	20221	일:꾸는는다구
20221-0-1	-을	20221-0-1	일:꾼은는다구(+다), 일:꾼산다구두(+소)
20222	품앗이	20222	푸마시라구
20223	품삯	20223	품싹
20223-0-1	-으로	20223-0-1	품싸그로

2.1.3 방아 찧기

20301	방아	20301	방아찐는다구러주
20302	디딜방아	20302	디딜빵아
20303	방앗공이	20303	절구땡이여
20304	방아확	20304	절구
20305	물레방아	20305	물레방아
20306	연자방아	20306	연자방안게구나
20307	절구	20307	절구
20308	절구통	20308	절구통
20309	절굿공이	20309	절구땡이
20310	절구질	20310	방아찐는다

20311	겨	20311	저
20312	보릿겨	20312	보:리껴
20313	왕겨	20313	왕겨는
20314	등겨	20314	쌀껴
20315	검불	20315	검불
20316	껍질	20316	껍쭐(+다), 껍떼기(+소)

2.1.4 곡물

20401	곡식	20401	곡씨기라구
20402	찹쌀	20402	찹쌀
20403	멥쌀	20403	멥쌀
20404	쌀보리	20404	쌀보리는, 걷보리는(+참고)
20405	조	20405	스:스기라구
20406	차조	20406	찰스슥
20407	메조	20407	메스슥
20408	좁쌀	20408	스:슥쌀
20409	작다	20409	잘다구지
20410	조이삭	20410	스:승니사기지
20411	수수	20411	쑤수유
20411-1	붉은색 수수	20411-1	쑤수라구
20411-2	장목수수	20411-2	비짜루쑤수
20411-3	찰수수	20411-3	찰쑤수
20411-4	메수수	20411-4	메수수
20412	수수깡	20412	쑤수땡이라고
20413	옥수수	20413	옥쑤수
20413-1	찰옥수수	20413-1	차록쑤수
20413-2	메옥수수	20413-2	메옥쑤수
20414	귀리	20414	귀:리
20415	메밀	20415	메밀
20416	콩	20416	콩
20417	콩깍지	20417	콩깍찌
20418	메주	20418	메주
20419	매달다	20419	꿰다라매기
20420	띄우다	20420	띠운다구

20421	곰팡이	20421	곰:팽이
20422	강낭콩	20422	강낭콩
20423	콩기름	20423	콩지르미라구
20424	깨	20424	꽤:
20424-1	참깨	20424-1	창꽤는
20424-2	들깨	20424-2	들꽤는
20425	고소하다	20425	고소허이

2.1.5 채소

20501	채소	20501	채:소
20502	나물	20502	나무리라고
20502-1	나물(밭 재료)	20502-1	반너물
20502-2	나물(밭 반찬)	20502-2	시금치너물, 미나리너물, 비름두
20502-3	나물(들 재료)	20502-3	들너물
20502-4	나물(들 반찬)	20502-4	쑥, 미나리
20502-5	나물(산 재료)	20502-5	산나무리지, 산너물
20502-6	나물(산 반찬)	20502-6	치나물, 유산너물, 고사리, 개양너물, 치너물, 도라지, 더덕, 고사리
20503	푸성귀	20503	푸성기라구
20504	다듬다	20504	다듬는다구
20505	반찬	20505	반차니라구
20506	무	20506	무:
20507	썰다	20507	쓰:능거
20508	무청	20508	무:이파리조
20509	시래기	20509	시래기라구
20510	무말랭이	20510	무말랭이
20511	장다리무	20511	무공다리
20512	배추	20512	배추
20513	고갱이	20513	배추속:
20514	오이	20514	오이
20515	오이지	20515	오이장아치
20516	오이소박이	20516	오이김치
20517	가지(茄子)	20517	가지
20518	호박	20518	호박
20519	고구마	20519	고구마

20520	감자	20520	감자
20521	우엉	20521	*
20522	파	20522	파
20523	고추	20523	꼬추
20524	시금치	20524	시금치
20525	미나리	20525	미나리
20526	부추	20526	줄:
20527	상추	20527	부루
20528	마늘	20528	마눌
20529	생강	20529	생강
20530	냉이	20530	나싱개
20531	달래	20531	달리라구
20532	도라지	20532	도라지
20533	더덕	20533	더덕

2.2 음식

2.2.1 주식과 부식

20601	쌀밥	20601	쌀바비주
20602	찬밥	20602	찬밥
20602-1	더운밥	20602-1	뜨근바블, 더운밥
20603	조밥	20603	스:슥빱
20604	누룽지	20604	누룽갱이라구(+다), 눙갱이(+소)
20605	눌은밥	20605	눈바비라구
20606	숭늉	20606	숭님
20607	뜨물	20607	보:리뜨무리라구, 뜨물, 쌀뜨물
20608	김(蒸氣)	20608	짐:
20609	갱죽(羹粥)	20609	시래기주기라구
20610	싱겁다	20610	승겁다구주
20611	국수	20611	국쑤라구두
20612	칼국수	20612	칼국쑤
20612-1	기계국수/틀국수	20612-1	국쑤
20613	건더기	20613	건덕찌만
20613-1	국물	20613-1	멀국

20614	고명	20614	께미
20615	꾸미	20615	께미
20616	미역	20616	메역(+노), 미역(+유)
20617	김(海苔)	20617	김:
20618	수제비	20618	수제비
20619	끼니	20619	끼니, 끼니걸린다
20620	미음	20620	미움
20620-1	(미음을) 끓이다/쑤다/삶다	20620-1	미움끄린다구지
20621	엿기름	20621	여찌름
20622	식혜(食醯)	20622	감주(+다), 식혜라구두(+소)
20623	식해(食醢)	20623	*
20624	달다(甘)	20624	달지
20625	가루	20625	가루라구두
20625-0-1	-에	20625-0-1	밀까루이다
20625-0-2	-을	20625-0-2	*
20625-0-3	-도	20625-0-3	쌀두
20626	밀가루	20626	밀까루
20627	밀기울	20627	밀찌울
20628	미숫가루	20628	미쑤까루

2.2.2 반찬과 별식

20701	간장	20701	간장
20702	된장	20702	된장
20703	고춧가루	20703	꼬추까루
20704	고추장	20704	꼬치장(+다), 꼬추장이여(+소)
20705	소금	20705	소곰
20706	김치	20706	김치지, 짐치구(+속 넣은 것)
20707	김장	20707	진장
20708	깍두기	20708	깍뚝찌
20709	나박김치	20709	멀국짐치라구, 충각짐치라구
20710	담그다	20710	담:는다구지
20710-0-1	-고	20710-0-1	진장허구
20710-0-2	-어라	20710-0-2	다므라구
20711	양념	20711	양념

20712	버무리다	20712	무친다구(+다), 버무린다(+소)
20713	버섯	20713	버섣
20713-0-1	-이	20713-0-1	버서시
20714	콩나물(재료)	20714	콩너무리라구두(+다), 콩나물(+소)
20714-1	콩나물(반찬)	20714-1	나물
20714-2	숙주(나물)	20714-2	녹뚜너물
20715	두부	20715	두부
20716	비지	20716	비지
20716-1	비지떡	20716-1	비지떠기라구
20717	달걀	20717	게란(+다), 달갸리라구두(+소)
20718	가래떡	20718	떡까래
20719	시루떡	20719	케떡
20720	송편	20720	송편, 셈편
20721	빚다	20721	빈는다구
20722	흰떡	20722	가래떡
20723	고물	20723	고물
20724	팥죽	20724	파쭉
20725	새알심	20725	새:슴
20726	백설기	20726	뱅무리
20727	튀밥	20727	검밥
20728	술	20728	술
20729	막걸리	20729	막껄리요
20730	소주	20730	말근수리라구두(+노), 쏘:주(+유)
20731	부침개	20731	즌:

2.2.3 부엌과 그릇

20801	부뚜막	20801	부뚜막
20802	가마솥	20802	큰솓
20802-0-1	-을	20802-0-1	소슬
20802-0-2	-에	20802-0-2	소시다
20803	아궁이	20803	아궁이라구
20803-0-1	-이	20803-0-1	아궁이가
20804	그을음	20804	끄림
20805	불쏘시개	20805	불쏘씨개, 불쑤쑤개

20806	연기	20806	연기
20806-1	내(煙氣)	20806-1	내:
20807	그을리다	20807	끄실린다구
20808	부지깽이	20808	부지땡이라구두
20809	부삽	20809	불싸비라구지
20810	냅다	20810	눈매웁따
20811	냄비	20811	냄비
20812	그릇	20812	그르시
20812-0-1	-을	20812-0-1	*
20813	뚜껑	20813	뚜껑
20814	주발 뚜껑	20814	식끼뚜껑이라구
20815	사발 뚜껑	20815	사발뚜껑이라구
20816	솥뚜껑	20816	소뚜껑, 소당따깡
20817	밥주걱	20817	주걱
20818	숟가락	20818	수까락
20819	젓가락	20819	저범
20820	종지	20820	종재기
20821	보시기	20821	보새기라구두
20822	뚝배기	20822	툭빼기
20823	접시	20823	접씨
20824	조리	20824	조랭이, 조랭질
20825	이남박	20825	함바기라능거여
20826	바가지	20826	바가지
20827	행주	20827	행주
20828	헹구다	20828	헹긴다
20829	설거지	20829	설거지
20830	개숫물	20830	설거지물
20831	찌꺼기	20831	찌끄럭찌
20832	화로	20832	하:루
20833	화롯불	20833	하:루뿔
20834	부젓가락	20834	불저까락
20834-0-1	-이	20834-0-1	불저까라기
20834-1	불숟가락	20834-1	불쏘니라구
20835	다리쇠	20835	*
20836	석쇠	20836	적쎄라구

20837	도시락	20837	도시락
20838	바구니	20838	바구리
20839	뒤주	20839	뒤주
20840	찬합	20840	차납
20841	강판	20841	채칼, 채:칼
20842	개다리소반	20842	즈근상

2.3 가옥

2.3.1 방과 가구

20901	안방	20901	안빵이조
20902	벽	20902	벽
20903	다락	20903	유다라기라구
20904	벽장	20904	벽짱은
20905	감추다	20905	감춘다구래요
20906	흠	20906	흠:찌비라구
20907	돌쩌귀	20907	돌쪼기
20907-1	암짝	20907-1	암돌쪼기
20907-2	수짝	20907-2	숨돌쪼기
20908	미닫이	20908	밀창문
20909	여닫이	20909	여:다지라구
20910	덧문	20910	점문
20911	열다	20911	연:다
20912	문고리	20912	문꼬리
20913	자물쇠	20913	문통
20914	갇히다	20914	가처따
20915	열쇠	20915	으ㅡ르:쎄
20916	잠그다	20916	장기야지유
20917	구멍	20917	구넝
20917-1	쥐구멍	20917-1	지구넝이유
20918	찢다	20918	찌저따구요, 찌저버려따
20919	구들	20919	구둘짱
20920	흙받기	20920	흑판
20921	흙손	20921	흑쏜

20922	흙칼	20922	흑칼
20922-1	흙칼(나무로 만든 것)	20922-1	*(+따로 구분 없음)
20922-2	흙칼(쇠로 만든 것)	20922-2	흑카른
20923	바르다	20923	발른다구두, 재벽헌다구
20924	장판	20924	장판
20925	종이	20925	종이
20926	도배	20926	되배
20927	구석	20927	구석
20928	굽도리	20928	굽(+?제)
20929	깨끗하다	20929	깨끄더다
20930	문지방	20930	문쭈방
20930-0-1	-에	20930-0-1	문쭈방
20931	틈	20931	틈
20932	가장자리	20932	끄트머리, 끈머리
20933	가운데	20933	가운데
20934	시렁	20934	실렁
20935	살강	20935	살랑
20936	선반	20936	선반
20937	서랍	20937	서랍
20938	경대	20938	경:대
20939	거울	20939	거울, 체경(+긴 거울)
20940	걸다	20940	건:다, 거러따
20941	호롱	20941	호롱뿔(+다), 등잔(+소)

2.3.2 건물

21001	지붕	21001	지봉
21001-0-1	-에	21001-0-1	지봉이
21002	기와	21002	기와, 기와짱
21003	기와집	21003	기와집
21004	수키와	21004	숨기와
21005	암키와	21005	암기와
21006	대들보	21006	대들뽀여
21007	서까래	21007	연재
21008	추녀	21008	구연

21009	처마	21009	처마가
21010	오두막	21010	옴팡찝(+다), 때옴팡(+소)
21011	초가집	21011	초가집
21012	이엉	21012	나:래
21012-0-1	-에서	21012-0-1	나:래에서
21013	용마름	21013	용구새요
21014	기스락	21014	초마끝
21015	낙숫물	21015	낙순물
21015-1	기스락물	21015-1	전지랑무리라구
21016	사닥다리	21016	새닥따리(+다), 새다리요(+소)
21017	용마루	21017	용마루
21018	토방	21018	*
21019	댓돌	21019	토방
21019-1	섬돌	21019-1	신발또리라구
21020	마루	21020	대청말레(+노), 대청마루(+유)
21020-0-1	-에	21020-0-1	*
21021	툇마루	21021	쫑마루라구
21022	기둥	21022	지둥
21023	주춧돌	21023	주추똘
21023-0-1	-을	21023-0-1	*
21024	굴뚝	21024	굴뚝

2.3.3 마당

21101	뜰	21101	뜨란, 안뜨란
21102	마당	21102	마당
21103	넓다	21103	널따
21103-0-1	-어서	21103-0-1	널버서
21104	넓히다	21104	널펴라
21105	곳간	21105	고깐
21106	외양간	21106	오양까니유
21107	마구간	21107	마구깐(+다), 마방(소)
21108	광	21108	광:
21109	헛간	21109	허까니라구
21110	쓰레기	21110	쓰레기

21111	장독대	21111	장:똑때
21112	장독 뚜껑	21112	장똑뚜껑
21113	변소	21113	뒤깐(+다), 변소라구두(+소)
21113-1	똥장군	21113-1	똥짱구닝게구먼, 똥통
21114	울타리	21114	울타리
21115	담	21115	담, 담쭉
21115-0-1	-에	21115-0-1	담쭈기, 담쭈게
21115-0-2	-도	21115-0-2	담두
21116	사립문	21116	싸림문
21117	뒤꼍	21117	뒤:란
21117-0-1	-에	21117-0-1	뒤:라니서
21118	바깥	21118	바깐
21118-0-1	-에	21118-0-1	바까티서, 바까티가
21119	모퉁이	21119	담모텡이
21120	모서리	21120	모퉹이

2.3.4 마을과 가게

21201	마을	21201	아램말
21202	윗마을	21202	움말
21203	이웃	21203	이욷
21203-0-1	-이	21203-0-1	이우시, 이우지서
21203-0-2	-에	21203-0-2	*
21204	마을가다	21204	마실가따고도
21205	우물	21205	삼:
21206	두레박	21206	두레바기라구
21207	샘(泉)	21207	삼:
21208	가(邊)	21208	가시지, 가:땡이라
21208-0-1	-을	21208-0-1	받까슬
21208-0-2	-에	21208-0-2	가:땡이다
21209	물지게	21209	무지게
21210	가게	21210	상점, 가게, 전빵
21211	싸다	21211	싸다
21212	비싸다	21212	비싸다
21213	흥정	21213	흥정이라구

21214	중매인(거간꾼)	21214	중개인
21215	잔돈	21215	잔돈
21216	에누리	21216	까꺼달라
21217	거스름돈	21217	거스름똔
21218	거스르다	21218	거슬른다고
21219	꾸다(借)	21219	빌린다구두, 꾼다구두
21219-0-1	-어야	21219-0-1	꾸야
21220	구두쇠	21220	노랭이라구두(+다), 깍쟁이(+소), 구두쇠라구두(+소)
21221	맡기다	21221	매겨놔따
21222	나머지	21222	나머지
21223	덤	21223	우수리라구
21224	몫	21224	목
21224-0-1	-을	21224-0-1	목씨
21225	빚	21225	비찡거지
21225-0-1	-을	21225-0-1	비슬
21225-0-2	-에	21225-0-2	비시
21226	이자(利子)	21226	이자
21227	심부름	21227	심부름
21228	두름	21228	묻
21228-1	축	21228-1	*
21228-2	쾌	21228-2	쾌라구
21228-3	접	21228-3	저비라구
21228-4	쌈	21228-4	쌈
21228-5	두름	21228-5	*
21228-6	단/뭇(작은 묶음)	21228-6	다발
21228-7	단/뭇(서너 개 묶음)	21228-7	단
21228-8	톳	21228-8	톧
21228-9	모숨	21228-9	*
21229	켤레	21229	컬레
21230	마지기	21230	마지기
21230-1	한 마지기의 넓이	21230-1	*
21231	꾸러미	21231	꾸레미라구두
21232	그루	21232	그루
21233	포기	21233	포기

21234	저울
21235	자루(包袋)
21235-0-1	-을
21235-0-2	-에
21236	하나
21236-1	한-개
21236-2	한-되
21236-3	한-말
21237	둘
21237-1	두-개
21237-2	두-되
21237-3	두-말
21238	셋
21238-1	세-개
21238-2	세-되
21238-3	세-말
21239	넷
21239-1	네-개
21239-2	네-되
21239-3	네-말
21240	다섯
21240-1	다섯-개
21240-2	다섯-되
21240-3	다섯-말
21241	여섯
21241-1	여섯-개
21241-2	여섯-되
21241-3	여섯-말
21242	일곱
21242-1	일곱-개
21242-2	일곱-되
21242-3	일곱-말
21243	여덟
21243-1	여덟-개
21243-2	여덟-되

21234	저울
21235	자루두, 푸대
21235-0-1	*
21235-0-2	자루다
21236	하나
21236-1	한개
21236-2	한데
21236-3	한말
21237	둘
21237-1	두개
21237-2	두데
21237-3	두말
21238	섿
21238-1	세개
21238-2	스데
21238-3	스말
21239	넫
21239-1	네개
21239-2	느데
21239-3	느말
21240	다써
21240-1	다섣깨
21240-2	다서떼
21240-3	다선말
21241	여써
21241-1	여섣깨
21241-2	여서떼
21241-3	여선말
21242	일구
21242-1	일구깨
21242-2	일굽떼
21242-3	일굼말
21243	여들
21243-1	여들깨
21243-2	여들떼

21243-3	여덟-말	21243-3	여들말
21244	아홉	21244	아홉
21244-1	아홉-개	21244-1	아홉깨
21244-2	아홉-되	21244-2	아홉떼
21244-3	아홉-말	21244-3	아홈말
21245	열	21245	열
21245-1	열-개	21245-1	열깨
21245-2	열-되	21245-2	열떼
21245-3	열-말	21245-3	열말
21246	스물	21246	스물
21246-1	스무-개	21246-1	스무개
21246-2	스무-되	21246-2	스무데
21246-3	스무-말	21246-3	스무말
21247	서른	21247	서른
21247-1	서른-개	21247-1	서른개
21247-2	서른-되	21247-2	서른데
21247-3	서른-말	21247-3	서른말
21248	마흔	21248	마흔
21248-1	마흔-개	21248-1	마흔개
21248-2	마흔-되	21248-2	마흔데
21248-3	마흔-말	21248-3	마흔말
21249	쉰	21249	시훈
21249-1	쉰-개	21249-1	시훈개
21249-2	쉰-되	21249-2	시훈데
21249-3	쉰-말	21249-3	시훈말
21250	예순	21250	예순
21250-1	예순-개	21250-1	예순개
21250-2	예순-되	21250-2	예순데
21250-3	예순-말	21250-3	예순말
21251	일흔	21251	이른
21251-1	일흔-개	21251-1	이른개
21251-2	일흔-되	21251-2	이른데
21251-3	일흔-말	21251-3	이른말
21252	여든	21252	여든
21252-1	여든-개	21252-1	여든개

21252-2	여든-되	21252-2	여든데
21252-3	여든-말	21252-3	여든말
21253	아흔	21253	아흔
21253-1	아흔-개	21253-1	아흔개
21253-2	아흔-되	21253-2	아흔데
21253-3	아흔-말	21253-3	아흔말
21254	백	21254	백
21254-1	백-개	21254-1	백깨
21254-2	백-되	21254-2	백떼
21254-3	백-말	21254-3	뱅말
21255	이백	21255	이배기지
21256	한둘	21256	한둘
21256-1	한두-개	21256-1	한두개
21256-2	한두-되	21256-2	한두데
21256-3	한두-말	21256-3	한두말
21257	두셋	21257	두세명
21257-1	두세-개	21257-1	두서너개, 두세개
21257-2	두세-되	21257-2	두세데
21257-3	두세-말	21257-3	두세말
21258	두서넛	21258	두서넏
21258-1	두서너-개	21258-1	*
21258-2	두서너-되	21258-2	두서너데
21258-3	두서너-말	21258-3	두서너말
21259	서넛	21259	서넏
21259-1	서너-개	21259-1	서너너더깨
21259-2	서너-되	21259-2	서너너더떼
21259-3	서너-말	21259-3	서너너던말
21260	네댓	21260	너더댇
21260-1	네댓-개	21260-1	너더댇깨
21260-2	네댓-되	21260-2	너더대떼
21260-3	네댓-말	21260-3	너더댄말
21261	대여섯	21261	대여섣
21261-1	대여섯-개	21261-1	대여서깨
21261-2	대여섯-되	21261-2	대여서떼
21261-3	대여섯-말	21261-3	대여선말

21262	예닐곱	21262	여닐곱
21262-1	예닐곱-개	21262-1	여닐고깨
21262-2	예닐곱-되	21262-2	여닐곱떼
21262-3	예닐곱-말	21262-3	여닐곰말
21263	일여덟	21263	이려들
21263-1	일여덟-개	21263-1	이려들깨
21263-2	일여덟-되	21263-2	일여들떼
21263-3	일여덟-말	21263-3	이려들말
21264	여덟아홉	21264	여다홉
21264-1	여덟아홉-개	21264-1	여다오깨
21264-2	여덟아홉-되	21264-2	여다옵떼
21264-3	여덟아홉-말	21264-3	여다옴말
21265	여남은	21265	열나문
21265-1	여남은-개	21265-1	여나뭉개는
21265-2	여남은-되	21265-2	여나문데
21265-3	여남은-말	21265-3	여라움말

2.4 의복

2.4.1 복식과 장식

21301	치마	21301	치마
21302	길이	21302	기리
21303	저고리	21303	저고리
21304	색동저고리	21304	색똥저구리
21305	두렁이	21305	*
21306	무늬	21306	무니
21307	고쟁이	21307	고쟁이
21308	바지	21308	바지
21309	두루마기	21309	두루매기
21310	의복	21310	오슬(+다), 의복(+소)
21311	구겨지다	21311	구겨저찌유
21312	옷고름	21312	저고리고름, 오꼬름
21313	단추	21313	단추
21314	동정	21314	동전

21315	겉	21315	걷
21315-0-1	-에	21315-0-1	거시가
21315-0-2	-을	21315-0-2	거슬
21316	홑옷	21316	홑껍떼기오시여, 호도시라든지
21317	겹옷	21317	저본
21318	잠방이	21318	잠뱅이
21319	누더기	21319	누데기
21320	거지	21320	거러지라구
21321	구걸	21321	동:냥
21322	조끼	21322	조껴
21323	내의	21323	내복
21324	껴입다	21324	쩌:이버따구
21325	소매	21325	소매
21326	주머니	21326	주머니
21327	호주머니	21327	호랑
21328	허리띠	21328	허리띠(+천), 각띠(+가죽)
21329	댕기	21329	댕기
21330	도포	21330	도:포라구
21331	삿갓	21331	사깓
21331-0-1	-에	21331-0-1	사까시
21332	고깔	21332	꾀깔
21333	사모	21333	원삼족뚜리, 사모관대
21334	유건	21334	유건
21335	대님	21335	잰님
21336	감발	21336	감:바리라구
21337	짚신	21337	집쎄기라구두(+다), 집씬(+소)
21338	미투리	21338	미:투리
21338-1	(짚신을) 삼다/만들다/트다/겯다	21338-1	삼:는다구
21339	나막신	21339	목씬
21340	설피	21340	설피

2.4.2 바느질과 세탁

21401	명주	21401	명주
21401-1	명주실	21401-1	명주실

21402	목화	21402	모카
21402-1	목화다래	21402-1	모카따래
21403	무명	21403	무명이라구
21403-1	무명실	21403-1	무명실
21404	씨아	21404	씨아시
21405	자새	21405	자새
21406	물레	21406	물레
21407	베	21407	삼베는
21408	길쌈	21408	질쌈
21409	골무	21409	골무
21410	반짇고리	21410	반지끄르시구먼
21411	가위	21411	가위, 가새
21411-0-1	-을	21411-0-1	*
21411-0-2	-에	21411-0-2	가새에다
21412	마르다(裁)	21412	마르개지런다
21412-0-1	-고	21412-0-1	마르개질하구이따
21412-0-2	-어라	21412-0-2	마르개질해라
21413	헝겊	21413	쪼가기라구, 흥:겁(+낡은 헌 것)
21413-0-1	-을	21413-0-1	흥:거블
21413-0-2	-에	21413-0-2	흥:거베
21414	바늘	21414	바늘
21415	꿰다	21415	꿴:다
21415-0-1	-고	21415-0-1	꿰:구
21415-0-2	-어라	21415-0-2	꿰라
21416	바느질	21416	바누지를
21417	재봉틀	21417	자봉트리라구
21418	끈	21418	끈
21419	노끈	21419	노끄는(+명주실), 삼끈
21420	참바	21420	바쭐, 바
21421	매듭	21421	매드비라구
21421-1	(매듭을) 맺다/짓다/엮다/묶다	21421-0-1	맨든다, 만는다
21422	보자기	21422	보재기
21423	이불	21423	이불
21424	솜	21424	솜:
21425	포근하다	21425	포그너다

21426	홑이불	21426	혼니불
21427	겹이불	21427	점니부리지
21427-1	솜이불	21427-1	솜니부리여, 한니불
21428	누비이불	21428	니비이불
21429	베개	21429	벼개
21430	베갯잇	21430	벼개이불
21430-0-1	-에	21430-0-1	혼니부리가
21431	목침	21431	목치미라구두
21432	퇴침	21432	퇴침
21433	방석	21433	자부동이지
21434	담요	21434	담뇨
21435	빨래하다	21435	빨래헌다
21436	빨랫방망이	21436	빨래빵맹이
21437	빨래터	21437	빨래터
21438	빨랫줄	21438	빨래줄
21439	다리미	21439	대리미
21439-1	다림질	21439-1	대리미지런다
21440	인두	21440	인두
21441	다듬잇방망이	21441	다드미방맹이
21442	다듬잇돌	21442	다드미똘
21443	다듬이질	21443	다디미질

2.5 민속

2.5.1 세시 풍속

21501	설날	21501	슬:라리라구
21502	설	21502	슬:
21503	섣달 그믐날	21503	스:딸그믐날
21504	묵은세배	21504	무근세배
21505	올해	21505	오리라구
21505-0-1	-는	21505-0-1	오리는
21505-1	작년	21505-1	장녀니라구
21505-2	재작년	21505-2	재장년
21505-3	내년	21505-3	내년

21505-4	후년	21505-4	내후넌
21505-5	내후년	21505-5	내후녀닌디
21506	작은설	21506	까:치설
21507	윷	21507	윧
21507-0-1	-을	21507-0-1	유:슬
21507-0-2	-에	21507-0-2	*
21507-1	윷놀이	21507-1	윤:노리조
21508	윷가락	21508	윧까라기라구
21508-1	도	21508-1	도
21508-2	개	21508-2	개
21508-3	걸	21508-3	걸
21508-4	윷	21508-4	사:짜
21508-5	모	21508-5	모
21509	단동	21509	혼
21509-1	외동무니	21509-1	횡간다구(+다), 혼간다구(+소)
21509-2	두동무니	21509-2	두깐다구
21509-3	석동무니	21509-3	서깐다구
21509-4	넉동무니	21509-4	마깐다구
21509-5	막동	21509-5	니:동, 망나따구류
21509-6	단동무니	21509-6	부랄추리라구
21510	보름	21510	보름
21510-1	삭망	21510-1	초하루보름
21511	추석	21511	추석
21512	망월	21512	대:보름노리라구
21513	쥐불놀이	21513	지불로리요
21514	자치기	21514	퇴끼치기
21514-1	작은막대	21514-1	고둥
21514-2	긴막대	21514-2	막때기라구
21515	수수께끼	21515	말저름
21516	호미씻이	21516	*
21517	꽹과리	21517	깽가리
21518	장구	21518	장구구먼
21519	곁두리	21519	실참
21520	무당	21520	무당
21520-1	박수	21520-1	남자무당이주

21521	고수레	21521	고수레라구주
21521-1	고수레!	21521-1	고수레
21522	점쟁이	21522	점쟁이
21523	상여(喪輿)	21523	상여
21524	굴건	21524	굴건
21525	제사	21525	제사지내주
21526	제기	21526	제기
21527	귀신	21527	귀시니지
21528	도깨비	21528	도깨비

2.5.2 농경용품

21601	고삐	21601	괴삐
21602	굴레	21602	목싸리
21603	멍에	21603	멍에
21604	길마	21604	구라
21605	부리망	21605	소망, 망
21606	구유	21606	구수
21607	작두	21607	작뚜
21608	꼴	21608	깔
21609	여물	21609	여물
21610	쇠죽	21610	쇠죽
21611	쇠죽바가지	21611	쇠물빠가지
21612	수레	21612	구루마구
21613	끌다	21613	끌쿠댕이주, 끌:른다
21613-0-1	-고	21613-0-1	끌:꾸
21614	바퀴	21614	바퀴요
21615	새끼(繩)	21615	샌내끼
21615-1	새끼(짐승의)	21615-1	소새끼
21616	망태기	21616	망탱이
21617	멱둥구미	21617	메꾸리
21618	거적	21618	꺼저기구먼
21619	가마니	21619	가마니
21619-1	가마니틀	21619-1	가마니틀
21620	돗자리	21620	도짜링기유

21621	자리틀	21621	자리틀
21621-1	(자리를) 짜다/치다/만들다/겯다	21621-1	자리맨다
21622	왕골	21622	왕굴
21623	삼태기	21623	삼태미
21623-1	짚 삼태기	21623-1	삼태미
21623-2	싸리 삼태기	21623-2	싸:리삼태미요
21624	멍석	21624	멍서기유
21625	어레미	21625	얼밍이
21625-1	고운체	21625-1	곤:채
21625-2	굵은체	21625-2	굴:근채유
21626	대장장이	21626	승:냥쟁이
21627	대장간	21627	승:냥까니요
21628	풀무	21628	풍구
21629	모루	21629	머루똑
21630	모루채	21630	망치
21631	갈퀴	21631	갈키
21632	집게	21632	찝께주
21633	장도리	21633	장:두리라구주
21633-1	노루발	21633-1	*
21634	톱	21634	토비유
21634-0-1	-에	21634-0-1	토브루, 토베
21635	도끼	21635	도:끼
21636	자루(柄)	21636	자루
21636-0-1	-을	21636-0-1	자루를
21636-0-2	-에	21636-0-2	도끼자루에
21637	갈고리	21637	깔:꾸리
21638	쐐기	21638	쐐:기
21639	송곳	21639	송:구시유
21639-0-1	-에	21639-0-1	송:구세
21640	뾰족하다	21640	빼쭈거지유
21641	숫돌	21641	수뚜리유
21641-0-1	-에	21641-0-1	수뚜리다
21642	맷돌	21642	매유
21642-1	수쇠	21642-1	숩쐬라허구
21642-2	암쇠	21642-2	암쐬

21643	지게	21643	지게유
21644	발채	21644	바:지게
21645	지게 작대기	21645	지게바리요, 작때기유
21646	막대기	21646	막때기
21647	몽둥이	21647	몽:댕이

2.5.3 생활용품

21701	빗자루	21701	비짜락
21702	광주리	21702	광주리
21703	소쿠리	21703	바구리
21704	함지	21704	함지박
21705	풀비	21705	솔:
21705-1	귀얄	21705-1	풀삐
21706	독	21706	독
21706-0-1	-에	21706-0-1	도기다
21707	물독	21707	두멍
21708	항아리	21708	항아리
21709	단지	21709	단:지
21710	물동이	21710	물똥이
21711	똬리	21711	똥아리
21712	옹기	21712	옹:기
21713	표주박	21713	종:구락
21714	키(箕)	21714	치:
21715	떡살	21715	도장
21716	다식판	21716	다식판
21717	시루	21717	시루
21717-0-1	-을	21717-0-1	*
21717-0-2	-에	21717-0-2	시루다가, 시루이가
21718	시룻밑	21718	*
21718-0-1	-에	21718-0-1	*
21719	시룻번	21719	시루뻔
21720	부싯돌	21720	부시똘
21720-0-1	-을	21720-0-1	*
21721	부시	21721	부시

21722	부싯깃	21722	부시짇
21723	담배	21723	담:배
21724	담뱃대	21724	담:배때
21725	담배설대	21725	담:배때
21726	담배통	21726	담:배꼭찌
21727	물부리	21727	물뿌리
21728	담배쌈지	21728	쌈지, 담:배쌈지
21729	부채	21729	부채구
21730	토시	21730	토시
21731	벼루	21731	벼루
21732	가락지	21732	가락찌
21733	비녀	21733	비녀(+짧은 것), 죽쩌리라구(+긴 것)
21734	참빗	21734	참빋
21734-0-1	-을	21734-0-1	*
21734-0-2	-에	21734-0-2	참비시가이
21735	얼레빗	21735	어름빋
21736	세숫대야	21736	세수때
21737	비누	21737	비누
21738	도투마리	21738	도투머리
21739	활대	21739	활때
21740	잉앗대	21740	잉아때는
21741	부티	21741	베틀띠
21742	도롱이	21742	도랭이

2.6 인체

2.6.1 얼굴과 머리

21801	이마	21801	이마
21802	이마빼기	21802	마:빠기라구두
21803	눈자위	21803	누나리라구
21804	검은자위	21804	눈똥자라구
21805	흰자위	21805	흰창이라구러조
21806	눈꺼풀	21806	눈껍쭐

21807	거적눈	21807	꺼정눈
21808	눈썹	21808	눈써비유
21808-0-1	-이	21808-0-1	눈써비
21809	속눈썹	21809	송:눈써비라구
21809-0-1	-이	21809-0-1	송:눈써비
21810	눈두덩	21810	눈탱이
21811	안경	21811	안:경
21812	안경집	21812	안:경찌빈디유
21813	돋보기	21813	돋뽀기요
21814	주름살	21814	주룸싸리요
21814-0-1	-이	21814-0-1	주룸싸리
21815	앳되다	21815	애뙤뵌다
21816	수염	21816	쉬엄
21817	구레나룻	21817	구렌나루
21817-0-1	-을	21817-0-1	*
21818	코	21818	코뿌리요(+코끝), 코
21818-0-1	-이	21818-0-1	코가
21819	콧수염	21819	위쉬엄, 코털(+콧속의 털)
21820	코딱지	21820	코딱찌요
21821	콧구멍	21821	코꾸멍이주, 코꾸넝이서
21821-0-1	-을	21821-0-1	코꾸넝을
21821-0-2	-에	21821-0-2	콛꾸멍이서
21822	콧물	21822	코, 콤무리라구
21823	입술	21823	아랜닙쑬, 입쑤리요, 윈닙쑬
21823-0-1	-에	21823-0-1	입써리
21824	다물다	21824	오므려따, 다물라구
21825	어금니	21825	어금니
21826	덧니	21826	던니
21827	휘파람	21827	훼파람
21828	침	21828	침
21829	삼키다	21829	생키지
21830	가래(痰)	21830	가래
21831	뱉다	21831	바트야지유
21832	혀	21832	서삐다기라구, 혀
21833	혓바늘	21833	서빠늘

21834	귓불	21834	기부랄
21835	귀고리	21835	기거리
21835-1	귀걸이	21835-1	기마개, 기거리
21836	귀지	21836	기쏙
21837	귀이개	21837	기후개
21838	소리	21838	소리
21839	엿듣다	21839	으ㅡㄷ뜬는다구
21840	귀청	21840	기창
21841	귀밑	21841	귀믿
21841-0-1	-을	21841-0-1	귀미니
21842	관자놀이	21842	*
21843	기미	21843	지미
21844	주근깨	21844	주근깨
21845	턱	21845	턱, 턱빼기
21846	턱수염	21846	턱씨엄
21847	뺨	21847	뺨, 볼때기
21847-1	볼	21847-1	보리라구
21848	갸름하다	21848	자르머다
21849	보조개	21849	보조개
21850	머리카락	21850	머리카라기주
21851	비듬	21851	비늘
21852	기계총	21852	기게총, 도장버드미주
21853	정수리	21853	정수리
21854	대머리	21854	대머리
21855	고수머리	21855	꼽쓸머리유
21856	가르마	21856	가름마
21856-1	가르마 타다/가르다/하다	21856-1	탄다
21857	가마	21857	가마
21857-1	가마(鼎)	21857-1	가마솥
21857-2	가마(轎)	21857-2	가:마
21857-3	가마(질그릇)	21857-3	가마
21857-4	가마(가마니)	21857-4	가마
21858	뒤통수	21858	뒤통수
21859	뒷덜미	21859	덜미
21860	목	21860	목

21861	멱살	21861	멱쌀

2.6.2 상체

21901	어깨	21901	어깨
21902	밀치다	21902	밀처
21903	겨드랑	21903	저드랑이유
21904	등	21904	등
21905	가슴	21905	가슴
21906	결리다	21906	절린다
21907	갈비뼈	21907	갈비뼈
21908	허파	21908	허파
21909	쓸개	21909	쓸개조
21910	콩팥	21910	콩파시라구조
21910-0-1	-에	21910-0-1	콩파시
21910-0-2	-을	21910-0-2	콩파슬
21911	팔	21911	팔
21912	팔꿈치	21912	팔꿈치
21913	팔짱끼다	21913	팔짱찌구
21914	손톱	21914	손토비유
21915	오른손	21915	바른손
21916	왼손	21916	왼손
21917	다르다	21917	틀린다
21917-0-1	-아서	21917-0-1	틀려서
21917-1	틀리다	21917-1	틀려따
21918	왼손잡이	21918	왼손재비다
21919	엄지손가락	21919	엄지송꾸라기조
21920	집게손가락	21920	집께송꾸락
21921	가운뎃손가락	21921	장:송꾸라기유
21922	약손가락	21922	무명지
21923	새끼손가락	21923	새끼송꾸라기라구
21924	생인손	21924	생인손
21925	사마귀	21925	사막, 사:마기구유
21926	손아귀	21926	소나기
21927	손목	21927	팔모기라구두

21928	뼘	21928	뼈미유
21929	허리	21929	허리
21930	지팡이	21930	지팽이
21931	옆구리	21931	여꾸레
21932	간지럽다	21932	간지럽따
21933	간지럼	21933	간지름
21934	잔허리	21934	나나리허리
21935	근육	21935	알통
21936	배꼽	21936	배꼽
21937	목물	21937	등먹

2.6.3 하체

22001	복사뼈	22001	복쑹아뼈라구
22002	발가락	22002	발꾸라기요
22003	발바닥	22003	발빠닥
22004	발톱	22004	발톱
22005	냄새	22005	냄:새를
22006	고린내	22006	발꼬랑냄:새
22007	굳은살	22007	구든살
22008	정강이	22008	정갱이
22009	종아리	22009	장:딴지(+다), 종아리(+소)
22010	장딴지	22010	장:딴지라구
22011	회초리	22011	호차리
22012	무릎	22012	무루비주
22012-0-1	-을	22012-0-1	*
22012-0-2	-에	22012-0-2	무르비
22013	오금	22013	오금다리
22014	엉덩이	22014	응뎅이
22015	궁둥이	22015	궁뎅이라구주
22016	볼기	22016	볼기
22017	멍	22017	먹쩌따구
22018	멍울	22018	몽울
22019	가랑이	22019	가르쟁이
22020	사이	22020	이빨새가

22021	샅	22021	사시라구
22021-0-1	-이	22021-0-1	사시
22021-0-2	-을	22021-0-2	사슬
22022	사타구니	22022	사탱이라구
22023	가래톳	22023	가리때(+다), 가래때(+소)
22023-0-1	-을	22023-0-1	*
22024	허벅다리	22024	허벅따리요
22025	넓적다리	22025	허벅따리라구
22026	가부좌(跏趺坐)	22026	양반다리
22026-1	가부좌(跏趺坐) 치다/앉다/트다/꼬다/하다	22026-1	다리게고안저따

2.6.4 질병과 생리

22101	감기	22101	곧뿌리라구두(+노), 감:기(+유)
22102	기침	22102	지침
22103	재채기	22103	재채기
22104	사레	22104	사:레
22104-1	(사레) 들리다/만나다/걸리다	22104-0-1	사:레들려따고
22105	딸꾹질	22105	떨꾹질
22106	트림	22106	트:리미라구조
22107	곰보	22107	곰:보
22108	천연두	22108	소님
22109	여드름	22109	여드름
22110	학질	22110	학찔(+다), 고굼(+소)
22110-1	하루거리	22110-1	하루거리유
22110-2	이틀거리	22110-2	하루거리
22110-3	매일 앓는 학질	22110-3	며느리고금, 학찔
22111	홍역	22111	호녀기유
22112	볼거리	22112	항아리손니미라구
22113	땀띠	22113	땀때기
22114	두드러기	22114	두드레기
22115	버짐	22115	버드미유
22115-1	마른버짐	22115-1	마른버듬
22115-2	진버짐	22115-2	진버드미구
22115-3	도장 버짐	22115-3	도장버드미라구

22116	문둥이	22116	문:뎅이
22116-1	문둥병	22116-1	문:등뼝이라구주
22117	부스럼	22117	꼬마지
22117-1	종기	22117-1	종:기
22118	고름	22118	고름
22119	곰기다	22119	굉긴다
22120	난쟁이	22120	난:쟁이
22121	사팔뜨기	22121	흘개누니라구
22122	언청이	22122	어챙이
22123	소경	22123	봉:사라구주
22123-1	당달봉사	22123-1	천만갱이
22124	애꾸	22124	외통쟁이
22125	눈곱	22125	눈꼽
22126	다래끼	22126	눈다락찌
22126-1	다래끼(눈 위쪽)	22126-1	명다락찌
22126-2	다래끼(눈 아래쪽)	22126-2	명다락찌
22127	절름발이	22127	쩔룩빠리
22128	곱사등이	22128	꼽:쌔요
22129	귀머거리	22129	귀머거리
22130	말더듬이	22130	반벙어리
22131	벙어리	22131	벙어리
22132	잠꾸러기	22132	잠꾸러기
22133	졸리다	22133	졸리다고요
22134	하품	22134	하품
22135	졸음	22135	조름
22135-0-1	-을	22135-0-1	조르물
22135-0-2	-에	22135-0-2	조르미
22136	잠꼬대	22136	잠꼬대

2.7 육아

22201	입덧	22201	입:떧
22201-0-1	-을	22201-0-1	입떠슬
22202	갓난아이	22202	간난애기
22203	어린아이	22203	어린내

22204	경기(驚氣)하다	22204	정:끼이러따고
22205	눕히다	22205	뉜:다(+다), 누핀다(+소)
22206	계집아이	22206	기집애
22207	예쁘다	22207	이쁘다
22208	사내아이	22208	사내애, 머슴애라구두
22209	아우타다	22209	아우탄다구
22209-1	아우보다	22209-1	동생봐따구주
22210	야위다	22210	야위어따
22211	쌍둥이	22211	쌍동이
22212	오줌	22212	오줌
22213	똥	22213	똥싸고
22214	기저귀	22214	기저기
22215	뉘다(排便)	22215	뉘어줘라
22216	방귀	22216	방:구
22216-1	뀌다	22216-1	뀐다
22217	구린내	22217	구린내
22218	구리다	22218	구리다고요
22219	포대기	22219	포대기
22220	기지개	22220	지지개
22220-1	기지개를 켜다/하다/쓰다/펴다	22220-1	지지개친다
22221	거짓말	22221	그:짐말
22222	남부끄럽다	22222	남부끄럽따
22223	겁쟁이	22223	겁쨍이라구유
22224	불쌍하다	22224	불쌍허다고
22225	죄암죄암	22225	쥐암쥐암
22226	곤지곤지	22226	지귀지귀
22227	따로따로	22227	섬마섬마
22228	도리도리	22228	도리도리
22229	짝짜꿍	22229	짝짜꿍
22230	부라부라	22230	부라부라
22231	걸음마	22231	거름마
22232	아장아장	22232	아장아장
22233	넘어지다	22233	자빠징거지우(+다), 너머저따구러주(+소)
22234	곤두박질	22234	곤두박찔
22235	안기다	22235	앙기능게지

22236	바람개비	22236	바랑개비
22237	호드기	22237	회떼기
22238	숨바꼭질	22238	감추기장나니라구
22239	소꿉놀이	22239	소꿉짱난
22240	사금파리	22240	세금파리요
22241	연	22241	여:니유
22241-1	방패연	22241-1	방패여닝게
22241-2	가오리연	22241-2	가오리여니꾸
22242	걸리다	22242	걸링거지우
22243	고누	22243	고니
22244	땅뺏기	22244	땅:빼끼
22245	팽이	22245	뺑이
22246	딱지치기	22246	딱찌치능거
22247	구슬	22247	다마
22248	그네	22248	그늘
22248-1	그네를 뛰다/타다/구르다	22248-1	그늘뛴다구래요
22249	밑신개	22249	발판
22250	굴렁쇠	22250	굴렁쇠
22251	굴리다	22251	굴리능거유(+다), 둥구러가유(+소)
22251-0-1	-고	22251-0-1	굴리구이꾸만
22251-0-2	-어야	22251-0-2	굴리야지우
22252	자전거	22252	자전거아뇨
22253	목말	22253	꼰내비센다구
22254	말타기	22254	말타기
22255	달음박질	22255	담막찌라뇨
22256	썰매	22256	쓰께또
22256-1	얼음을(썰매를) 지치다/타다	22256-1	쓰께또탄다
22256-2	송곳	22256-2	촉
22257	엄살	22257	엉살
22257-1	(엄살) 부리다/피우다/떨다/하다	22257-1	엉사란다, 엉살부린다
22258	부아	22258	부에나따구두

2.8 친족

22301	아버지	22301	아버지
22301-1	아버지(호칭)	22301-1	아버지오셔따고
22302	어머니	22302	어머니
22302-1	어머니(호칭)	22302-1	어머니
22303	할아버지	22303	하라버지
22303-1	할아버지(호칭)	22303-1	하라버지
22304	할머니	22304	할머니요
22304-1	할머니(호칭)	22304-1	할머니
22305	남편	22305	냄편
22305-1	남편(호칭)	22305-1	여보
22306	아내	22306	아내라고
22306-1	아내(호칭)	22306-1	할머미라고도(+늙었을 때), 마:누라라고도(+젊었을 때), 아내라고래요(+젊었을 때)
22307	형	22307	형
22307-1	형(호칭)	22307-1	형님(+장가간 후), 형(+장가가기 전)
22308	아우	22308	동생
22308-1	아우(호칭)	22308-1	동생
22309	누나	22309	누님
22309-1	누나(호칭)	22309-1	누님, 뉘라구두, 누니미라구
22310	누이	22310	동생이라고
22310-1	누이(호칭)	22310-1	동생이라고
22311	자식	22311	자식
22312	맏아들	22312	장:자, 크나드리라고요
22313	맏딸	22313	큰따리라
22314	막내	22314	망:내
22315	오빠	22315	오빠
22315-1	오빠(호칭)	22315-1	오라버니라구두, 오빠라구두
22316	언니	22316	언니
22316-1	언니(호칭)	22316-1	언니
22317	아비	22317	애비(+아이가 있을 때), 냄편(+아이가 없을 때)
22317-1	아비(호칭)	22317-1	애비야(+아이가 있을 때, 아이가

			없으면 이름을 부름)
22318	어미	22318	네 처
22318-1	어미(호칭)	22318-1	새애기야(+아이가 없을 때), 에미야(+아이가 있을 때)
22319	손자	22319	손자
22320	손녀	22320	손녀
22321	사위	22321	사위라구
22321-1	사위(호칭)	22321-1	김서방불르지
22322	외손자	22322	외손자
22323	외손녀	22323	외손녀
22324	꾸짖다	22324	혼내따, 갈친다구
22324-0-1	-고	22324-0-1	혼내고이따
22324-1	나무라다	22324-1	나무랜다구두
22325	총각	22325	총각
22326	처녀	22326	처녀라구, 아가씨(+존칭, 호칭)
22327	혼인	22327	호닌, 겨론
22327-1	혼인식	22327-1	겨론식
22328	혼인 잔치	22328	호닌잔치, 겨론잔치라구두
22329	장가가다	22329	장:가든다구
22329-1	시집가다	22329-1	시집깐다구
22330	혼숫감	22330	혼수
22331	함	22331	하:미라구
22332	겹사돈	22332	접싸둔
22333	새색시	22333	새애기
22333-1	새색시(호칭)	22333-1	새댁
22334	시아버지	22334	시아버지
22334-1	시아버지(호칭)	22334-1	아번님
22335	시어머니	22335	시어머니라구
22335-1	시어머니(호칭)	22335-1	어먼니미라구
22336	비위	22336	비우마춘다구
22337	아주버니	22337	시아주버님
22337-1	아주버니(호칭)	22337-1	아주번니미라구
22338	서방님	22338	서방니미라구
22338-1	서방님(호칭)	22338-1	서방니미라구
22339	도련님	22339	되련님
22339-1	도련님(호칭)	22339-1	되련니미라구두

22340	형님	22340	형니미라구, 형님
22340-1	형님(호칭)	22340-1	형니미라구, 형님
22341	시누이	22341	시누이
22341-1	시누이(호칭)	22341-1	애기씨, 형니미라구
22341-2	아가씨	22341-2	시누이, 시누이라구
22341-3	아가씨(호칭)	22341-3	아가씨라구
22342	올케	22342	동생이댁
22342-1	올케(호칭)	22342-1	동생이댁
22343	매형	22343	매영
22343-1	매형(호칭)	22343-1	매양이라구
22344	매제	22344	매제
22344-1	매제(호칭)	22344-1	매제
22345	큰아버지	22345	크나버지
22345-1	큰아버지(호칭)	22345-1	크나버지라구
22345-2	(아버지의 둘째 형)	22345-2	두:째크나버지
22345-3	(아버지의 셋째 형)	22345-3	세:째크나버지유
22346	큰어머니	22346	크너머니유
22346-1	큰어머니(호칭)	22346-1	크너머니라구
22346-2	(아버지의 둘째 형의 아내)	22346-2	두:째크저뭐크너머니라구
22346-3	(아버지의 셋째 형의 아내)	22346-3	세:째큰크너머니
22347	큰집	22347	큰지비
22348	작은아버지	22348	자그나버지유
22348-1	작은아버지(호칭)	22348-1	자그나버지유
22349	작은어머니	22349	자그너머니
22349-1	작은어머니(호칭)	22349-1	자그노머니, 자그넘마
22350	삼촌	22350	삼춘
22350-1	삼촌(호칭)	22350-1	삼춘
22351	아저씨	22351	당숙
22351-1	아저씨(호칭)	22351-1	당수기라구
22352	아주머니	22352	당숭모
22352-1	아주머니(호칭)	22352-1	당숭모요, 아주머이라우
22353	조카	22353	조카
22354	조카딸	22354	조카따리라구
22355	고모	22355	고모

22355-1	고모(호칭)	22355-1	고모유
22356	고모부	22356	고모부
22356-1	고모부(호칭)	22356-1	고모부
22357	고종	22357	내:종사춘
22358	이모	22358	이모
22358-1	이모(호칭)	22358-1	이모라구지
22359	이모부	22359	이모부라구지
22359-1	이모부(호칭)	22359-1	이모부
22360	이종	22360	이종, 이:종사춘
22361	외삼촌	22361	오삼춘
22361-1	외삼촌(호칭)	22361-1	오삼춘
22362	외숙모	22362	에:숭모
22362-1	외숙모(호칭)	22362-1	에:숭모
22363	외종	22363	에중사춘
22364	외할아버지	22364	에:하라버지
22364-1	외할아버지(호칭)	22364-1	에:하라버지
22365	외할머니	22365	에:할머니
22365-1	외할머니(호칭)	22365-1	에:할머니라구
22366	장인	22366	쟁인니미라구
22366-1	장인(호칭)	22366-1	아부지라구
22367	장모	22367	장:무님
22367-1	장모(호칭)	22367-1	장:모님
22368	처남	22368	처남
22368-1	처남(호칭)	22368-1	큰처남, 즈:근처남
22369	처남댁	22369	처나미라구, 처남
22369-1	처남댁(호칭)	22369-1	처남
22370	홀아비	22370	호래비
22371	홀어미	22371	과부라구
22372	계모	22372	새움마라구
22372-1	계부	22372-1	새아부지라구, 으부다버지라고
22373	아저씨	22373	아저씨
22373-1	아저씨(호칭)	22373-1	아저씨
22374	아주머니	22374	아즘마
22374-1	아주머니(호칭)	22374-1	아줌마
22375	사나이	22375	장:정이라구

22376	영감	22376	여보, 으ㅡㅇ:가미라고
22376-1	할망구	22376-1	할매
22377	나이	22377	나이
22377-0-1	-를	22377-0-1	나이를
22378	환갑	22378	항:갑
22378-1	환갑 잔치	22378-1	항:갑잔체
22379	사투리	22379	사:트리

2.9 동물

2.9.1 물에 사는 동물

22401	물고기	22401	물꼬기조
22402	민물고기	22402	밈물꼬기라고
22403	피라미	22403	피래미구먼
22404	지느러미	22404	지느래미
22405	아가미	22405	아개미라고
22406	창자	22406	창새기
22407	송사리	22407	송:사리
22408	헤엄	22408	헤엄치능거조
22409	메기	22409	메:기라구
22410	자라	22410	자:라요
22411	거북	22411	거:부기요
22412	미꾸라지	22412	미끼리
22413	개구리	22413	개구리
22414	올챙이	22414	올챙이
22415	두꺼비	22415	두깨비
22416	거머리	22416	그:머리라구
22417	다슬기	22417	민:물고둥
22418	우렁이	22418	우렁
22419	고둥	22419	고둥
22420	달팽이	22420	달:팽이
22421	새우	22421	새우
22421-1	새우(민물 대)	22421-1	민물쌔우
22421-2	새우(민물 소)	22421-2	*

22421-3	새우(바다 대)	22421-3	대와라구
22421-4	새우(바다 소)	22421-4	새우
22422	새우젓	22422	새우젇
22422-0-1	-이	22422-0-1	새우저시
22423	가재	22423	가:재
22424	갈치	22424	갈치유
22425	고등어	22425	고등어요
22426	가오리	22426	가오리두
22427	가자미	22427	가재미
22428	멸치	22428	멸
22429	명태	22429	명태
22429-1	동태	22429-1	동:태
22429-2	황태	22429-2	황태
22429-3	노가리	22429-3	도:다리
22429-4	북어	22429-4	부거라구, 명태라구
22429-5	생태	22429-5	생태라구
22430	조기	22430	조기
22431	도미	22431	되:미
22432	뱀장어	22432	장아, 뱀:장아
22433	낚시	22433	낙씨, 송충이
22434	미끼	22434	이깍
22435	낚싯대	22435	낙씨때요
22436	얼레	22436	자:세여(+연줄 감는 "얼레"와 같음)
22437	조개	22437	조개
22438	소라	22438	소:라

2.9.2 곤충과 벌레

22501	벌레	22501	벌러지
22502	날벌레	22502	날벌러지
22503	파리	22503	파리
22503-1	쉬파리	22503-1	쇠:파리
22504	쉬슬다	22504	시:깔겨따구지, 시:시러따고
22505	가시	22505	구:데기

22506	진딧물	22506	뜨물
22506-1	(진딧물이) 끼다/앉다/생기다	22506-0-1	쩌따구
22507	잠자리	22507	잠:자리
22508	방아깨비	22508	땅:개비
22508-1	암컷	22508-1	땅:개비암눔
22508-2	수컷	22508-2	땅:개비숨눔
22509	메뚜기	22509	메뚜기
22510	여치	22510	여:치
22511	사마귀	22511	사:마귀
22512	벌	22512	왕:텡이(+왕벌), 버:리라구
22512-1	(벌을) 치다/기르다/키우다	22512-1	친다구래요, 키운다우
22513	땅벌	22513	옫빠시
22514	나비	22514	나:비
22515	하루살이	22515	하루사리요
22516	풍뎅이	22516	말똥구리
22517	모기	22517	모:기
22518	장구벌레	22518	장구벌레
22519	매미	22519	매:미
22520	개똥벌레	22520	개:똥벌레
22521	반딧불	22521	개:똥불
22522	거미	22522	거미
22523	굼벵이	22523	굼:벵이
22524	구더기	22524	구:데기여
22525	노래기	22525	노래기
22526	그리마	22526	소금쟁이
22527	지네	22527	지네
22528	개미	22528	개:미
22529	바구미	22529	바:그미
22530	진드기	22530	진디기
22531	벼룩	22531	벼룩
22532	이	22532	이:
22532-1	서캐	22532-1	서캐
22532-2	빈대	22532-2	빈대
22533	송충이	22533	송충이
22534	귀뚜라미	22534	귀뚜라미

22535	누에	22535	누에
22536	고치	22536	꼬치
22537	번데기	22537	누에뻔데기
22538	지렁이	22538	지렝이
22539	회충(蛔蟲)	22539	회
22540	소금쟁이	22540	물거미
22541	방개	22541	방:개

2.9.3 가축

22601	가축	22601	가추기유
22602	암소	22602	암소
22603	송아지	22603	송아치요, 송아지
22604	송아지 부르는 소리	22604	내:미내:미허지
22605	황소	22605	황소유
22606	길들이다	22606	소갈친다그려
22606-1	소 모는 소리(앞으로 가라)	22606-1	이러이러
22606-2	소 모는 소리(그 자리에 서라)	22606-2	워:
22606-3	소 모는 소리(오른쪽으로 돌라)	22606-3	저저저저
22606-4	소 모는 소리(왼쪽으로 돌라)	22606-4	부처부처
22606-5	소 모는 소리(뒤로 물러나라)	22606-5	무:러
22607	쇠고기	22607	소고기
22608	고기(肉)	22608	고기
22609	둘치	22609	둘소, 둘되야지, 둘껃
22610	꼬리	22610	꽁지
22611	망아지	22611	망아지요
22612	당나귀	22612	당나기요
22613	갈기	22613	목털
22614	돼지	22614	되야지
22614-1	멧돼지	22614-1	산뙤야지라구
22615	주둥이	22615	주뎅이
22616	돼지 머리	22616	되야지머리라고
22617	돼지우리	22617	되야지우리라구
22617-1	오래오래	22617-1	오래오래오래오래
22618	개(犬)	22618	개:

22618-1	수캐	22618-1	숨:캐라구
22618-2	암캐	22618-2	앙:캐
22619	강아지	22619	강아지
22620	염소	22620	염소유
22621	고양이	22621	고양이
22621-1	수고양이	22621-1	숨:코양이
22621-2	암고양이	22621-2	앙:코양이
22622	토끼	22622	토끼
22623	거위(鵝)	22623	게우
22624	암탉	22624	암:닥
22625	병아리	22625	병아리유
22626	모으다	22626	모이느라구
22627	수탉	22627	숨:탁
22627-0-1	-이	22627-0-1	숨:타기
22628	벼슬(鷄冠)	22628	벼슬
22629	부리	22629	주뎅이
22630	모이	22630	모:이
22630-0-1	-을	22630-0-1	모:이를
22630-1	모이다	22630-1	모이능거지우
22631	닭털	22631	닥털
22632	닭똥	22632	닥똥
22633	어리	22633	*
22634	닭장	22634	닥찌비유
22635	둥우리	22635	중어리
22636	날개	22636	날개
22637	깃	22637	지터리라고
22637-0-1	-을	22637-0-1	*

2.9.4 들짐승과 날짐승

22701	호랑이	22701	호:랭이가튜
22702	살쾡이	22702	살가지
22703	여우	22703	여우
22704	원숭이	22704	원숭이
22705	사슴	22705	사슴

22706	노루	22706	노루
22706-0-1	-이	22706-0-1	노루가
22706-0-2	-를	22706-0-2	*
22707	고슴도치	22707	고둔도시
22708	두더지	22708	두더지
22709	족제비	22709	쪽쩨비
22710	뱀	22710	비:단배아밍가, 독싸, 무사라미꾸, 배아민디, 율매기
22711	도마뱀	22711	동아배암
22712	구렁이	22712	구렝이
22713	살모사	22713	살무사라구요
22714	생쥐	22714	새옹쥐
22715	박쥐	22715	박:쮜가트요
22716	거꾸로	22716	꺼꿀루
22717	다람쥐	22717	다람쥥가
22718	새(鳥)	22718	새:
22719	꽁지	22719	꽁지
22720	솔개	22720	소리개라구
22721	독수리	22721	독쑤리
22722	제비(燕)	22722	제:비
22723	두루미	22723	드르미요
22724	소쩍새	22724	소쩍쌔
22725	꿩	22725	꿩:
22726	장끼	22726	숨꿩
22727	까투리	22727	암:꿩
22727-1	꺼병이	22727-1	꿩:새끼
22728	종달새	22728	종달생게
22729	뻐꾸기	22729	뻐꾹쌔라구
22730	기러기	22730	기러기
22731	뜸부기	22731	뜸북쌔
22732	올빼미	22732	옫빼미
22733	까치	22733	까:치
22734	딱따구리	22734	딱따구리
22735	덫	22735	도시여
22735-0-1	-을	22735-0-1	도슬

22736	올가미	22736	올가미

2.10 식물

2.10.1 꽃과 풀

22801	진달래꽃	22801	진달래꼬시구먼
22802	철쭉꽃	22802	*
22803	민들레	22803	민들렝가
22804	맨드라미	22804	맨드래미꼳
22805	봉선화	22805	봉:숭아
22806	꽈리	22806	땅:꼴라무라고
22807	해바라기	22807	해바라기구먼
22808	꽃봉오리	22808	꼳뽕오리
22809	시들다	22809	시든다
22810	질경이	22810	질:겡이요
22810-1	질경이(식물이름)	22810-1	*
22810-2	질경이(식용이름)	22810-2	질:겡이너무리라고
22811	삘기	22811	삐:비
22812	비름	22812	비름
22813	쇠비름	22813	쇠비름
22814	씀바귀	22814	씀바귀
22815	고들빼기	22815	고들빼기는
22815-1	고들빼기(식물이름)	22815-1	*(+고들빼기로 통일)
22815-2	고들빼기(식용이름)	22815-2	*(+고들빼기로 통일)
22816	고사리	22816	고사리
22817	고비	22817	고비
22818	도깨비바늘	22818	도깨비바늘
22819	도꼬마리	22819	꼭뚜마리라구
22820	억새	22820	왁:새
22821	갈대	22821	갈때요
22822	이끼	22822	이끼
22823	아주까리	22823	아주까리
22824	담쟁이	22824	담쟁잉게유
22825	수세미	22825	쑤세미

22826	덩굴	22826	넝쿠리라구
22827	덤불	22827	덤푸리
22827-1	가시덤불	22827-1	가시덤풀
22828	잔디	22828	잔디주

2.10.2 나무

22901	소나무	22901	소나무
22902	솔방울	22902	솔빵우리라고
22903	관솔	22903	광:솔
22904	솔가리	22904	솔껄
22905	그러모으다	22905	글거모인다
22906	뽕나무	22906	뽕:나무
22907	오디	22907	오:데
22908	도토리	22908	도투리
22909	떡갈나무	22909	싸도투리나무(+잎이 좁은 것), 떠깔라무(+잎이 넓은 것)
22910	상수리	22910	상:수리
22911	옻	22911	옫
22911-0-1	-으로	22911-0-1	*
22912	버드나무	22912	버드나무유
22913	느티나무	22913	느트나무라구
22914	그림자	22914	그름자요
22914-1	그늘	22914-1	그늘
22915	숲	22915	숩
22915-0-1	-을	22915-0-1	수풀, 수비
22915-0-2	-에	22915-0-2	수피
22916	시원하다	22916	시원허다구, 서늘허다
22917	찔레	22917	찔:레
22918	칡	22918	칙:
22918-0-1	-에	22918-0-1	치게
22919	가지(枝)	22919	젇까지
22920	끝	22920	꼭때기, 끄시라구두
22920-0-1	-이	22920-0-1	*
22920-0-2	-에	22920-0-2	끄슬

22920-0-3	-을	22920-0-3	꼭때기야
22921	삭정이	22921	삭쩽이라구
22921-1	삭정이를 따다/꺾다/하다	22921-1	딴다구유
22922	나무	22922	나무
22922-0-1	-을	22922-0-1	나무를
22922-0-2	-에	22922-0-2	나무에
22923	나무하다	22923	나무헌다구
22924	그루터기	22924	등걸
22924-1	그루터기(베어내고 남은 부분)	22924-1	수수끌, 베끌
22925	등걸	22925	등걸
22926	장작	22926	장적
22927	패다	22927	뽀개지
22928	부스러기	22928	부시레기
22929	숯	22929	숟
22929-0-1	-이	22929-0-1	수시
22929-0-2	-을	22929-0-2	수술
22929-0-3	-에	22929-0-3	수시다
22930	불잉걸	22930	불떵어리라고
22931	싹	22931	싸기
22932	잎	22932	이파리
22932-0-1	-을	22932-0-1	*
22932-1	잎사귀	22932-1	입싸귀라우
22933	가랑잎	22933	가랑닙
22934	뿌리	22934	뿌리구머

2.10.3 과일과 열매

23001	능금	23001	능그머고
23002	돌배	23002	독:빼라구
23003	복숭아	23003	복쑹아
23004	곶감	23004	고:깜, 꼬:깜
23005	홍시	23005	홍시요
23006	고욤	23006	게여미라구
23007	살구	23007	살구유
23008	앵두	23008	앵두

23009	자두	23009	자둥게
23010	오얏	23010	*
23010-0-1	-을	23010-0-1	*
23011	석류	23011	성뉴가트요
23012	모과	23012	모:과
23013	과일	23013	과:이리라
23014	꼭지	23014	꼭찌
23015	밤	23015	밤:
23015-1	밤송이	23015-1	밤:송이
23015-2	풋밤	23015-2	푿빠미라구
23015-3	알밤	23015-3	왈밤
23015-4	쌍동밤	23015-4	쪽빰
23016	보늬	23016	속:껍떼기라구
23017	호두	23017	호두
23018	가래(楸子)	23018	*
23019	개암	23019	개양
23020	머루	23020	머:루
23021	다래	23021	다래
23022	청미래덩굴	23022	멩가람나무
23023	으름	23023	으:름
23024	참외	23024	차미
23025	딸기	23025	딸:기
23025-1	딸기(밭 재배)	23025-1	딸기
23025-2	딸기(밭 야생)	23025-2	배암딸기라구
23025-3	딸기(들 재배)	23025-3	*
23025-4	딸기(들 야생)	23025-4	산딸기
23025-5	딸기(산 재배)	23025-5	*
23025-6	딸기(산 야생)	23025-6	산딸기
23026	뱀딸기	23026	배암딸기라능겨
23027	마름(菱)	23027	마름

2.11 자연

2.11.1 산과 들

23101	산꼭대기	23101	상:봉, 산꼭때기
23102	기슭	23102	비얄
23102-0-1	-에	23102-0-1	산삐야레다
23103	골짜기	23103	골:, 골:짜기
23104	메아리	23104	사눌림
23105	고함	23105	고암
23105-1	(고함) 치다/지르다/하다	23105-1	고암친다구, 고암질른다구
23106	묘	23106	묘
23107	묏자리	23107	묘짜리
23107-1	광중	23107-1	내:과니라구
23108	구덩이	23108	구더리(+죽은 동물을 묻는 곳), 구뎅이(+무나 배추)
23109	비탈	23109	비탈, 비야리라구
23110	가파르다	23110	가팔다, 갑찌다
23111	언덕	23111	언덕
23112	낭떠러지	23112	낭떠러지라고
23113	들(野)	23113	들:파니라구
23113-0-1	-에	23113-0-1	드:리
23114	벌	23114	벌파니라능(+농사철 아닐 때)
23115	갈림길	23115	상갈래낄
23116	헤어지다	23116	헤어저따
23117	바위	23117	바위
23117-0-1	-을	23117-0-1	바위를
23117-0-2	-에	23117-0-2	바위가
23118	돌(石)	23118	돌:
23118-0-1	-을	23118-0-1	*
23118-0-2	-에	23118-0-2	도:리
23119	자갈	23119	곱똘, 자가른
23120	모래	23120	모:래아구
23120-0-1	-를	23120-0-1	모:래를
23121	진흙	23121	지늑
23121-1	찰흙	23121-1	차륵

2.11.2 강과 바다

23201	물	23201	물마시지
23202	거품	23202	거큼
23203	개운하다	23203	개운허지우
23204	도랑	23204	또랑물, 똘강, 또랑
23204-1	봇도랑	23204-1	물꼬, 보또랑이라우
23205	둑	23205	뚝
23206	잠기다	23206	쟁겨따
23207	개울	23207	개울
23208	내(川)	23208	냄:물
23209	미역 감다	23209	미역깜는다
23210	발가숭이	23210	빨구숭이
23211	목욕하다	23211	모교건다
23212	수채	23212	수채꾸넝
23213	개골창	23213	개울창
23214	시궁창	23214	시궁창
23215	웅덩이	23215	웅뎅이나
23216	수렁	23216	수랑
23217	늪	23217	늡찌
23217-0-1	-에	23217-0-1	*
23218	배(船)	23218	배
23219	나루터	23219	선창
23220	돛	23220	돋
23220-0-1	-에	23220-0-1	도시가
23221	돛대	23221	돋때는, 대꼬자기라고
23222	돛배	23222	도딴배요
23223	돛 줄	23223	아지쭈리라고
23224	닻 줄	23224	다쭐
23225	거루	23225	걸:루
23226	상앗대	23226	사오때
23227	개(펄)	23227	개뻘땅, 뻘땅
23228	뭍	23228	육찌
23228-0-1	-으로	23228-0-1	육찌루
23229	밀물	23229	들물
23230	썰물	23230	썰물

23231	가라앉다	23231	가란능거지
23232	그물	23232	그물, 주왱이그물
23233	해녀	23233	해:녀

2.11.3 시후

23301	새벽	23301	새보기, 새벅
23302	새벽밥	23302	새복빱
23303	아침	23303	아침, 식쩐
23304	아침밥	23304	아침
23305	점심	23305	즘:신
23306	저녁	23306	저녁
23307	설핏하다	23307	저무러간다
23308	노을	23308	해다라진다고, 노을진다고
23308-0-1	-을	23308-0-1	노으를
23309	불그레하다	23309	뻘:거치
23310	해거름	23310	해다라질무려비라
23311	땅거미	23311	땅꺼미
23312	봄	23312	봄
23313	여름	23313	여름
23314	더위	23314	더위를
23315	추위	23315	추위를
23316	가을	23316	가으리요
23316-0-1	-에	23316-0-1	가으리
23317	겨울	23317	겨울
23317-0-1	-에	23317-0-1	겨우리
23318	얼음	23318	어르미
23319	오늘	23319	오늘
23320	내일	23320	내일
23321	모레	23321	모리
23322	글피	23322	글피
23323	그글피	23322	그글피
23324	어제	23324	어제
23325	그저께	23325	그저끼
23326	그그저께	23326	그끄저끼

23327	홋날	23327	훈:날
23328	하룻날	23328	초하루유, 하룬날
23329	이튿날	23329	이튼날
23330	사흗날	23330	사흔날
23331	나흗날	23331	나흔날
23332	닷샛날	23332	다쌘날
23333	엿샛날	23333	여쌘날
23334	이렛날	23334	이렌날
23335	여드렛날	23335	여드렌날
23336	아흐렛날	23336	아흐렌날
23337	열흘날	23337	여를랄
23338	하루	23338	하루
23339	이틀	23339	이틀
23340	사흘	23340	사흘
23341	나흘	23341	나흘
23342	닷새	23342	다쎄
23343	엿새	23343	여쎄
23344	이레	23344	이레
23345	여드레	23345	여드레
23346	아흐레	23346	아으레
23347	열흘	23347	여를
23348	한나절	23348	한나절
23348-1	반나절	23348-1	반:나절
23349	그믐	23349	그무미유
23349-1	그믐께	23349-1	그뭄끼
23350	지금	23350	이끔, 지끔
23351	아직	23351	아직
23352	이제	23352	인제오냐
23353	이미	23353	이미
23354	요즈음	23354	요새라두
23355	금방	23355	당금, 금방

2.11.4 날씨와 방향

23401	볕	23401	해뼏

23401-0-1	-이	23401-0-1	해뼈시
23401-0-2	-을	23401-0-2	해뼈슬
23402	따스하다	23402	따뜨터다, 따숩따
23403	아지랑이	23403	아지랭이
23404	응달	23404	응:산, 응지까티
23405	양달	23405	양산, 양지까티
23406	비(雨)	23406	비올꺼라
23407	가랑비	23407	가랑비가
23408	이슬비	23408	이슬비라구
23409	안개	23409	고:란개(+골짜기의 안개), 안개
23410	는개	23410	*
23411	무지개	23411	무지개
23412	소나기	23412	쏘내기, 쏘내기라구
23413	갑자기	23413	갑짝쓰러께
23414	홍수	23414	홍수나따고, 큰물간다
23415	번개	23415	번개
23416	천둥	23416	천둥
23417	벼락	23417	베락
23418	무섭다	23418	무섭쭈
23419	함박눈	23419	함방눈
23420	싸락눈	23420	싸랑누니라구
23421	발자국	23421	발짜국
23422	진눈깨비	23422	지느깨비
23423	우박	23423	우:박
23424	고드름	23424	고두르미
23425	햇무리	23425	해무리
23426	달무리	23426	달무리
23427	둥글다	23427	둥글주
23428	은하수	23428	이르내
23429	금성	23429	발글쌔바리
23430	가뭄	23430	가뭄
23431	마르다	23431	말르지
23431-0-1	-어서	23431-0-1	말러서
23432	위	23432	우이
23433	아래	23433	아래

23434	왼쪽
23435	오른쪽
23436	곁
23436-0-1	-에
23437	회오리바람
23438	북풍
23439	남풍
23440	동풍
23441	서풍

23434	왼:쪽
23435	바른쪽
23436	엽땡이, 겨테
23436-0-1	내겨티로
23437	회오리바람
23438	하니바람
23439	마파람
23440	놉쌔바람
23441	서풍
=2	바디
=2	친다(+가마니)
=2	굽찌(+굽도리에 바르는 종이)
=2	영는다고유(+거적)
=2	바눌때
=2	겡:게미라구(+간자미)

제3편 음운

3.1 음운 목록

3.1.1 단모음

31001-0-1 테(輪)-이/가	31001-0-1 테가
31001-0-2 테(輪)-보다	31001-0-2 테보다
31002-0-1 태(胎)-이/가	31002-0-1 태가
31002-0-2 태(胎)-보다	31002-0-2 태보덤
31003-0-1 떼(群)-이/가	31003-0-1 떼가
31003-0-2 떼(群)-보다	31003-0-2 떼보덤
31004-0-1 때(時)-이/가	31004-0-1 때가
31004-0-2 때(時)-보다	31004-0-2 때보덤
31005-0-1 틀(機)-이/가	31005-0-1 트리
31005-0-2 틀(機)-보다	31005-0-2 틀보덤
31006-0-1 털(毛)-이/가	31006-0-1 터리
31006-0-2 털(毛)-보다	31006-0-2 털보덤
31007-0-1 글(文)-이/가	31007-0-1 그리
31007-0-2 글(文)-보다	31007-0-2 글보덤
31008-0-1 걸(윷)-이/가	31008-0-1 거:리
31008-0-2 걸(윷)-보다	31008-0-2 걸:보덤
31009-0-1 기(旗)-이/가	31009-0-1 태그끼가
31009-0-2 기(旗)-보다	31009-0-2 태그끼보다
31010-0-1 귀(耳)-이/가	31010-0-1 귀가
31010-0-2 귀(耳)-보다	31010-0-2 기보덤
31011-0-1 시(生時)-이/가	31011-0-1 시가
31011-0-2 시(生時)-보다	31011-0-2 시보덤
31012-0-1 쉬(蠅卵)-이/가	31012-0-1 쉬:가
31012-0-2 쉬(蠅卵)-보다	31012-0-2 쉬:보덤
31013-0-1 쇠(鐵)-이/가	31013-0-1 쇠:가
31013-0-2 쇠(鐵)-보다	31013-0-2 쇠보덤
31014-0-1 외:국(外國)-이/가	31014-0-1 외:구기
31014-0-2 외:국(外國)-보다	31014-0-2 외:국보덤

31015-0-1 왜국(倭國)-이/가	31015-0-1 왜구기
31015-0-2 왜국(倭國)-보다	31015-0-2 왜국뽀덤

3.1.2 이중모음

31035-0-1 여럿(多)-이/가	31035-0-1 여:러시
31035-0-2 여럿(多)-보다	31035-0-2 여럳뽀담
31035-0-3 여럿(多)-을/를	31035-0-3 여러슬
31036-0-1 물결(波)-이/가	31036-0-1 물껴리
31036-0-2 물결(波)-보다	31036-0-2 물껼보덤
31036-0-3 물결(波)-을/를	31036-0-3 물껴를
31037-0-1 예:의(禮儀)-이/가	31037-0-1 예의가
31037-0-2 예:의(禮儀)-보다	31037-0-2 예의보덤
31037-0-3 예:의(禮儀)-을/를	31037-0-3 예의를
31038-0-1 계:획(計劃)-이/가	31038-0-1 게외기
31038-0-2 계:획(計劃)-보다	31038-0-2 게왹뽀덤
31038-0-3 계:획(計劃)-을/를	31038-0-3 게혀글
31039-0-1 규칙(規則)-이/가	31039-0-1 규치기
31039-0-2 규칙(規則)-보다	31039-0-2 규칙뽀덤
31039-0-3 규칙(規則)-을/를	31039-0-3 규치글
31040-0-1 휴일(休日)-이/가	31040-0-1 휴이리
31040-0-2 휴일(休日)-보다	31040-0-2 휴일보덤
31040-0-3 휴일(休日)-을/를	31040-0-3 휴이를
31041-0-1 교통(交通)-이/가	31041-0-1 교통이
31041-0-2 교통(交通)-보다	31041-0-2 교통보덤
31041-0-3 교통(交通)-을/를	31041-0-3 교통을
31042-0-1 효:자(孝子)-이/가	31042-0-1 효:자가
31042-0-2 효:자(孝子)-보다	31042-0-2 효:자보덤
31042-0-3 효:자(孝子)-을/를	31042-0-3 효:자를
31043-0-1 웬일(何事)-이/가	31043-0-1 웬니리
31043-0-2 웬일(何事)-보다	31043-0-2 웬닐보덤
31043-0-3 웬일(何事)-을/를	31043-0-3 웬:니를
31044-0-1 궤:(짝)(櫃)-이/가	31044-0-1 궤:가
31044-0-2 궤:(짝)(櫃)-보다	31044-0-2 궤:보덤
31044-0-3 궤:(짝)(櫃)-을/를	31044-0-3 궤:짜글

31045-0-1 왜란(倭亂)-이/가	31045-0-1 왜:라니
31045-0-2 왜란(倭亂)-보다	31045-0-2 왜:란보덤
31045-0-3 왜란(倭亂)-을/를	31045-0-3 왜:라늘
31046-0-1 횃대(鷄架)-이/가	31046-0-1 화때가
31046-0-2 횃대(鷄架)-보다	31046-0-2 화때보덤
31046-0-3 횃대(鷄架)-을/를	31046-0-3 홰때를
31047-0-1 원망(怨望)-이/가	31047-0-1 원망이
31047-0-2 원망(怨望)-보다	31047-0-2 원망보덤
31047-0-3 원망(怨望)-을/를	31047-0-3 원망을
31048-0-1 권:투(拳鬪)-이/가	31048-0-1 권토가
31048-0-2 권:투(拳鬪)-보다	31048-0-2 권투보다
31048-0-3 권:투(拳鬪)-을/를	31048-0-3 권토를
31049-0-1 의논(議論)-이/가	31049-0-1 으눠니
31049-0-2 의논(議論)-보다	31049-0-2 으논보덤
31049-0-3 의논(議論)-을/를	31049-0-3 의노늘
31050-0-1 무늬(紋)-이/가	31050-0-1 무니가
31050-0-2 무늬(紋)-보다	31050-0-2 무니보다
31050-0-3 무늬(紋)-을/를	31050-0-3 무니를
31051-0-1 왕(王)-이/가	31051-0-1 왕:이
31051-0-2 왕(王)-보다	31051-0-2 왕:보덤
31051-0-3 왕(王)-을/를	31051-0-3 왕:을
31052-0-1 과자(菓子)-이/가	31052-0-1 과자가
31052-0-2 과자(菓子)-보다	31052-0-2 과자보덤
31052-0-3 과자(菓子)-을/를	31052-0-3 과자를

3.1.3 장모음·성조

31053-0-1 일(一)-이/가	31053-0-1 이리
31053-0-2 일(一)-보다	31053-0-2 일보다
31054-0-1 일:(事)-이/가	31054-0-1 이리
31054-0-2 일:(事)-보다	31054-0-2 일보다
31055-0-1 매(鞭)-이/가	31055-0-1 매가
31055-0-2 매(鞭)-보다	31055-0-2 매보덤
31056-0-1 매:(鷹)-이/가	31056-0-1 매가
31056-0-2 매:(鷹)-보다	31056-0-2 매보다

31057-0-1 밤(夜)-이/가 31057-0-1 바미
31057-0-2 밤(夜)-보다 31057-0-2 밤보다
31058-0-1 밤:(栗)-이/가 31058-0-1 바:미
31058-0-2 밤:(栗)-보다 31058-0-2 밤:보다
31059-0-1 눈(眼)-이/가 31059-0-1 누니
31059-0-2 눈(眼)-보다 31059-0-2 눈보다
31060-0-1 눈:(雪)-이/가 31060-0-1 누:니
31060-0-2 눈:(雪)-보다 31060-0-2 눈:보다
31061-0-1 말(馬)-이/가 31061-0-1 마리
31061-0-2 말(馬)-보다 31061-0-2 말보다
31062-0-1 말(斗)-이/가 31062-0-1 마리
31062-0-2 말(斗)-보다 31062-0-2 말보다
31063-0-1 말:(言)-이/가 31063-0-1 마:리
31063-0-2 말:(言)-보다 31063-0-2 말:보다는
31064-0-1 손(客)-이/가 31064-0-1 소니
31064-0-2 손(客)-보다 31064-0-2 소님보담
31065-0-1 손(手)-이/가 31065-0-1 소니
31065-0-2 손(手)-보다 31065-0-2 손보다
31066-0-1 손:(孫)-이/가 31066-0-1 소니
31066-0-2 손:(孫)-보다 31066-0-2 손보다
31067-0-1 배(梨)-이/가 31067-0-1 배가
31067-0-2 배(梨)-보다 31067-0-2 배보다
31068-0-1 배:(倍)-이/가 31068-0-1 배:가
31068-0-2 배:(倍)-보다 31068-0-2 배보다
31069-0-1 벌(罰)-이/가 31069-0-1 버리
31069-0-2 벌(罰)-보다 31069-0-2 벌보다는
31070-0-1 벌:(蜂)-이/가 31070-0-1 버:리
31070-0-2 벌:(蜂)-보다 31070-0-2 벌:보다
31071-0-1 솔(松)-이/가 31071-0-1 소리
31071-0-2 솔(松)-보다 31071-0-2 솔보담
31072-0-1 솔:(刷)-이/가 31072-0-1 소:리
31072-0-2 솔:(刷)-보다 31072-0-2 솔:보다
31073-0-1 줄(鉉)-이/가 31073-0-1 주리
31073-0-2 줄(鉉)-보다 31073-0-2 줄보담
31074-0-1 줄:(연장)-이/가 31074-0-1 주:리

31074-0-2 줄:(연장)-보다	31074-0-2 줄보담
31075-0-1 돌:(石)-이/가	31075-0-1 도:리
31075-0-2 돌:(石)-보다	31075-0-2 돌:보다
31076-0-1 담(牆)-이/가	31076-0-1 다미
31076-0-2 담(牆)-보다	31076-0-2 담보다
31077-0-1 담:(膽)-이/가	31077-0-1 다:미
31077-0-2 담:(膽)-보다	31077-0-2 담:보덤
31078-0-1 들:(野)-이/가	31078-0-1 드:리
31078-0-2 들:(野)-보다	31078-0-2 들:보담
31079-0-1 달-(懸)-더라	31079-0-1 달고
31080-0-1 달-(甘)-더라	31080-0-1 달고
31081-0-1 달:-(熱)-더라	31081-0-1 달구
31082-0-1 갈-(換)-더라	31082-0-1 갈:고
31083-0-1 갈-(磨)-더라	31083-0-1 갈:고
31084-0-1 갈:-(耕)-더라	31084-0-1 갈:고
31085-0-1 걷-(收)-더라	31085-0-1 걷꼬
31086-0-1 걷:-(步)-더라	31086-0-1 걷:꼬
31087-0-1 적-(書)-더라	31087-0-1 적꼬
31088-0-1 적:-(小)-고	31088-0-1 작:꼬

3.2 음운 과정

3.2.1 활용

1) 기초 항목

32001-0-1 막-(防)[ㄱ]-지	32001-0-1 막찌
32001-0-2 막-(防)[ㄱ]-고	32001-0-2 막꼬
32001-0-3 막-(防)[ㄱ]-더라	32001-0-3 막떠라
32001-0-4 막-(防)[ㄱ]-으니까	32001-0-4 마그니께
32001-0-5 막-(防)[ㄱ]-아/어(았/었다)	32001-0-5 마가
32002-0-1 흐르-(流)[ㅡ]-지	32002-0-1 흘르지
32002-0-2 흐르-(流)[ㅡ]-고	32002-0-2 흘르고
32002-0-3 흐르-(流)[ㅡ]-더라	32002-0-3 흘르더라
32002-0-4 흐르-(流)[ㅡ]-으니까	32002-0-4 흘르니께
32002-0-5 흐르-(流)[ㅡ]-아/어(았/었다)	32002-0-5 흘러

32003-0-1 오-(來)[ㅗ]-지	32003-0-1 오지
32003-0-2 오-(來)[ㅗ]-고	32003-0-2 오고
32003-0-3 오-(來)[ㅗ]-더라	32003-0-3 오더라
32003-0-4 오-(來)[ㅗ]-으니까	32003-0-4 오니까
32003-0-5 오-(來)[ㅗ]-아/어(았/었다)	32003-0-5 와써
32004-0-1 듣-(聞)[ㄷ변]-지	32004-0-1 드찌
32004-0-2 듣-(聞)[ㄷ변]-고	32004-0-2 듣꼬
32004-0-3 듣-(聞)[ㄷ변]-더라	32004-0-3 드떠라
32004-0-4 듣-(聞)[ㄷ변]-으니까	32004-0-4 드르니까
32004-0-5 듣-(聞)[ㄷ변]-아/어(았/었다)	32004-0-5 드러
32005-0-1 많:-(多)[ㄶ]-지	32005-0-1 만:치
32005-0-2 많:-(多)[ㄶ]-고	32005-0-2 만:코
32005-0-3 많:-(多)[ㄶ]-더라	32005-0-3 만:터라
32005-0-4 많:-(多)[ㄶ]-으니까	32005-0-4 마:느니께
32005-0-5 많:-(多)[ㄶ]-아/어(았/었다)	32005-0-5 마:나
32006-0-1 맡-(任)[ㅌ]-지	32006-0-1 마찌
32006-0-2 맡-(任)[ㅌ]-고	32006-0-2 맏꼬
32006-0-3 맡-(任)[ㅌ]-더라	32006-0-3 마떠라
32006-0-4 맡-(任)[ㅌ]-으니까	32006-0-4 마트니께
32006-0-5 맡-(任)[ㅌ]-아/어(았/었다)	32006-0-5 마타
32007-0-1 알:-(知)[ㄹ]-지	32007-0-1 알:지
32007-0-2 알:-(知)[ㄹ]-고	32007-0-2 알:고
32007-0-3 알:-(知)[ㄹ]-더라	32007-0-3 알:더라
32007-0-4 알:-(知)[ㄹ]-으니까	32007-0-4 아르니까
32007-0-5 알:-(知)[ㄹ]-아/어(았/었다)	32007-0-5 아라
32008-0-1 감:-(閉眼)[ㅁ]-지	32008-0-1 감:찌
32008-0-2 감:-(閉眼)[ㅁ]-고	32008-0-2 감:꼬
32008-0-3 감:-(閉眼)[ㅁ]-더라	32008-0-3 감:떠라
32008-0-4 감:-(閉眼)[ㅁ]-으니까	32008-0-4 가므니까
32008-0-5 감:-(閉眼)[ㅁ]-아/어(았/었다)	32008-0-5 가마
32009-0-1 벗-(脫)[ㅅ]-지	32009-0-1 버찌
32009-0-2 벗-(脫)[ㅅ]-고	32009-0-2 벋꼬
32009-0-3 벗-(脫)[ㅅ]-더라	32009-0-3 버떠라
32009-0-4 벗-(脫)[ㅅ]-으니까	32009-0-4 버스니께
32009-0-5 벗-(脫)[ㅅ]-아/어(았/었다)	32009-0-5 버서

32010-0-1 옳-(可)[ㄹㅎ]-지
32010-0-2 옳-(可)[ㄹㅎ]-고
32010-0-3 옳-(可)[ㄹㅎ]-더라
32010-0-4 옳-(可)[ㄹㅎ]-으니까
32010-0-5 옳-(可)[ㄹㅎ]-아/어(았/었다)
32011-0-1 입-(着衣)[ㅂ]-지
32011-0-2 입-(着衣)[ㅂ]-고
32011-0-3 입-(着衣)[ㅂ]-더라
32011-0-4 입-(着衣)[ㅂ]-으니까
32011-0-5 입-(着衣)[ㅂ]-아/어(았/었다)
32012-0-1 바꾸-(換)[ㅜ]-지
32012-0-2 바꾸-(換)[ㅜ]-고
32012-0-3 바꾸-(換)[ㅜ]-더라
32012-0-4 바꾸-(換)[ㅜ]-으니까
32012-0-5 바꾸-(換)[ㅜ]-아/어(았/었다)
32013-0-1 덮-(覆)[ㅍ]-지
32013-0-2 덮-(覆)[ㅍ]-고
32013-0-3 덮-(覆)[ㅍ]-더라
32013-0-4 덮-(覆)[ㅍ]-으니까
32013-0-5 덮-(覆)[ㅍ]-아/어(았/었다)
32014-0-1 묻:-(問)[ㄷ변]-지
32014-0-2 묻:-(問)[ㄷ변]-고
32014-0-3 묻:-(問)[ㄷ변]-더라
32014-0-4 묻:-(問)[ㄷ변]-으니까
32014-0-5 묻:-(問)[ㄷ변]-아/어(았/었다)
32015-0-1 낫:-(癒)[ㅅ변]-지
32015-0-2 낫:-(癒)[ㅅ변]-고
32015-0-3 낫:-(癒)[ㅅ변]-더라
32015-0-4 낫:-(癒)[ㅅ변]-으니까
32015-0-5 낫:-(癒)[ㅅ변]-아/어(았/었다)
32016-0-1 닫-(閉)[ㄷ]-지
32016-0-2 닫-(閉)[ㄷ]-고
32016-0-3 닫-(閉)[ㄷ]-더라
32016-0-4 닫-(閉)[ㄷ]-으니까
32016-0-5 닫-(閉)[ㄷ]-아/어(았/었다)

32010-0-1 올치
32010-0-2 올코
32010-0-3 올터라
32010-0-4 오르니께
32010-0-5 오라
32011-0-1 입찌
32011-0-2 이꼬
32011-0-3 입떠라
32011-0-4 이브니까
32011-0-5 이버
32012-0-1 바꾸지
32012-0-2 바꾸고
32012-0-3 바꾸더라
32012-0-4 바꾸니까
32012-0-5 바꿔
32013-0-1 덥찌
32013-0-2 덥꼬
32013-0-3 덥떠라
32013-0-4 더프니께
32013-0-5 더퍼
32014-0-1 무:찌
32014-0-2 묻:꼬
32014-0-3 무:떠라
32014-0-4 무르니께
32014-0-5 무러
32015-0-1 나:찌
32015-0-2 낟:꼬
32015-0-3 나:떠라
32015-0-4 나스니께
32015-0-5 나서
32016-0-1 다찌
32016-0-2 닫꼬
32016-0-3 다떠라
32016-0-4 다드니까
32016-0-5 다다

32017-0-1 쫓-(追)[ㅊ]-지
32017-0-2 쫓-(追)[ㅊ]-고
32017-0-3 쫓-(追)[ㅊ]-더라
32017-0-4 쫓-(追)[ㅊ]-으니까
32017-0-5 쫓-(追)[ㅊ]-아/어(았/었다)
32018-0-1 베:-(枕)[ㅐ]-지
32018-0-2 베:-(枕)[ㅐ]-고
32018-0-3 베:-(枕)[ㅐ]-더라
32018-0-4 베:-(枕)[ㅐ]-으니까
32018-0-5 베:-(枕)[ㅐ]-아/어(았/었다)
32019-0-1 깨:-(破)[ㅐ]-지
32019-0-2 깨:-(破)[ㅐ]-고
32019-0-3 깨:-(破)[ㅐ]-더라
32019-0-4 깨:-(破)[ㅐ]-으니까
32019-0-5 깨:-(破)[ㅐ]-아/어(았/었다)
32020-0-1 펴-(伸)[ㅕ]-지
32020-0-2 펴-(伸)[ㅕ]-고
32020-0-3 펴-(伸)[ㅕ]-더라
32020-0-4 펴-(伸)[ㅕ]-으니까
32020-0-5 펴-(伸)[ㅕ]-아/어(았/었다)
32021-0-1 밝-(明)[ㄺ]-지
32021-0-2 밝-(明)[ㄺ]-고
32021-0-3 밝-(明)[ㄺ]-더라
32021-0-4 밝-(明)[ㄺ]-으니까
32021-0-5 밝-(明)[ㄺ]-아/어(았/었다)
32022-0-1 삶:-(烹)[ㄻ]-지
32022-0-2 삶:-(烹)[ㄻ]-고
32022-0-3 삶:-(烹)[ㄻ]-더라
32022-0-4 삶:-(烹)[ㄻ]-으니까
32022-0-5 삶:-(烹)[ㄻ]-아/어(았/었다)
32023-0-1 읊-(吟)[ㅍ]-지
32023-0-2 읊-(吟)[ㅍ]-고
32023-0-3 읊-(吟)[ㅍ]-더라
32023-0-4 읊-(吟)[ㅍ]-으니까
32023-0-5 읊-(吟)[ㅍ]-아/어(았/었다)

32017-0-1 쪼찌
32017-0-2 쫃꼬
32017-0-3 쪼떠라
32017-0-4 쪼츠니께
32017-0-5 쪼차
32018-0-1 베:지
32018-0-2 베:고
32018-0-3 베:더라
32018-0-4 베:니까
32018-0-5 베어
32019-0-1 깨:지
32019-0-2 깨:고
32019-0-3 깨:더라
32019-0-4 깨:쓰니께
32019-0-5 깨어
32020-0-1 페지
32020-0-2 페고
32020-0-3 페더라
32020-0-4 페니께
32020-0-5 페어
32021-0-1 박찌
32021-0-2 발꼬
32021-0-3 박떠라
32021-0-4 발그니께
32021-0-5 발가
32022-0-1 쌈:찌
32022-0-2 쌈:꼬
32022-0-3 쌈:떠라
32022-0-4 쌀므니께
32022-0-5 쌀마
32023-0-1 읍찌
32023-0-2 읍꼬
32023-0-3 읍떠라
32023-0-4 을프니께
32023-0-5 을퍼

32024-0-1 밟:-(踏)[ㄶ]-지 32024-0-1 발:찌
32024-0-2 밟:-(踏)[ㄶ]-고 32024-0-2 발:꼬
32024-0-3 밟:-(踏)[ㄶ]-더라 32024-0-3 발:떠라
32024-0-4 밟:-(踏)[ㄶ]-으니까 32024-0-4 발브니께
32024-0-5 밟:-(踏)[ㄶ]-아/어(았/었다) 32024-0-5 발바
32025-0-1 하-(爲)[ㅏ변]-지 32025-0-1 허지
32025-0-2 하-(爲)[ㅏ변]-고 32025-0-2 허고
32025-0-3 하-(爲)[ㅏ변]-더라 32025-0-3 허더라
32025-0-4 하-(爲)[ㅏ변]-으니까 32025-0-4 허니께
32025-0-5 하-(爲)[ㅏ변]-아/어(았/었다) 32025-0-5 해:따
32026-0-1 맺-(結)[ㅈ]-지 32026-0-1 매찌
32026-0-2 맺-(結)[ㅈ]-고 32026-0-2 맫꼬
32026-0-3 맺-(結)[ㅈ]-더라 32026-0-3 매떠라
32026-0-4 맺-(結)[ㅈ]-으니까 32026-0-4 매즈니께
32026-0-5 맺-(結)[ㅈ]-아/어(았/었다) 32026-0-5 매저
32027-0-1 없:-(無)[ㅄ]-지 32027-0-1 읍:찌
32027-0-2 없:-(無)[ㅄ]-고 32027-0-2 읍:꼬
32027-0-3 없:-(無)[ㅄ]-더라 32027-0-3 읍:떠라
32027-0-4 없:-(無)[ㅄ]-으니까 32027-0-4 읍쓰니께
32027-0-5 없:-(無)[ㅄ]-아/어(았/었다) 32027-0-5 읍써
32028-0-1 앉-(坐)[ㄵ]-지 32028-0-1 안찌
32028-0-2 앉-(坐)[ㄵ]-고 32028-0-2 안꾸
32028-0-3 앉-(坐)[ㄵ]-더라 32028-0-3 안떠라
32028-0-4 앉-(坐)[ㄵ]-으니까 32028-0-4 안지니께
32028-0-5 앉-(坐)[ㄵ]-아/어(았/었다) 32028-0-5 안저
32029-0-1 비비-(刮)[ㅣ]-지 32029-0-1 비비지
32029-0-2 비비-(刮)[ㅣ]-고 32029-0-2 비비구
32029-0-3 비비-(刮)[ㅣ]-더라 32029-0-3 비비더라
32029-0-4 비비-(刮)[ㅣ]-으니까 32029-0-4 비비니께
32029-0-5 비비-(刮)[ㅣ]-아/어(았/었다) 32029-0-5 비벼
32030-0-1 끄-(消)[ㅡ]-지 32030-0-1 끄지
32030-0-2 끄-(消)[ㅡ]-고 32030-0-2 끄고
32030-0-3 끄-(消)[ㅡ]-더라 32030-0-3 끄더라
32030-0-4 끄-(消)[ㅡ]-으니까 32030-0-4 끄니께
32030-0-5 끄-(消)[ㅡ]-아/어(았/었다) 32030-0-5 꺼써

32031-0-1 꺾-(折)[ㄲ]-지	32031-0-1 꺽찌
32031-0-2 꺾-(折)[ㄲ]-고	32031-0-2 꺽꾸
32031-0-3 꺾-(折)[ㄲ]-더라	32031-0-3 꺽떠라
32031-0-4 꺾-(折)[ㄲ]-으니까	32031-0-4 꺼끄니께
32031-0-5 꺾-(折)[ㄲ]-아/어(았/었다)	32031-0-5 꺼꺼
32032-0-1 신:-(履)[ㄴ]-지	32032-0-1 신:찌
32032-0-2 신:-(履)[ㄴ]-고	32032-0-2 신:꾸
32032-0-3 신:-(履)[ㄴ]-더라	32032-0-3 신:떠라
32032-0-4 신:-(履)[ㄴ]-으니까	32032-0-4 시느니께
32032-0-5 신:-(履)[ㄴ]-아/어(았/었다)	32032-0-5 시너
32033-0-1 보-(視)[ㅗ]-지	32033-0-1 보지
32033-0-2 보-(視)[ㅗ]-고	32033-0-2 보고
32033-0-3 보-(視)[ㅗ]-더라	32033-0-3 보더라
32033-0-4 보-(視)[ㅗ]-으니까	32033-0-4 보니께
32033-0-5 보-(視)[ㅗ]-아/어(았/었다)	32033-0-5 보아따
32034-0-1 추-(舞)[ㅜ]-지	32034-0-1 추지
32034-0-2 추-(舞)[ㅜ]-고	32034-0-2 추구
32034-0-3 추-(舞)[ㅜ]-더라	32034-0-3 추더라
32034-0-4 추-(舞)[ㅜ]-으니까	32034-0-4 추니께
32034-0-5 추-(舞)[ㅜ]-아/어(았/었다)	32034-0-5 추어따
32035-0-1 피우-(吸煙)[ㅜ]-지	32035-0-1 피우지
32035-0-2 피우-(吸煙)[ㅜ]-고	32035-0-2 피구, 피우고
32035-0-3 피우-(吸煙)[ㅜ]-더라	32035-0-3 피더라, 피우더라
32035-0-4 피우-(吸煙)[ㅜ]-으니까	32035-0-4 피우니께
32035-0-5 피우-(吸煙)[ㅜ]-아/어(았/었다)	32035-0-5 펴따, 피워따
32036-0-1 서-(立)[ㅓ]-지	32036-0-1 스지
32036-0-2 서-(立)[ㅓ]-고	32036-0-2 스구
32036-0-3 서-(立)[ㅓ]-더라	32036-0-3 스더라
32036-0-4 서-(立)[ㅓ]-으니까	32036-0-4 스니께
32036-0-5 서-(立)[ㅓ]-아/어(았/었다)	32036-0-5 서써
32037-0-1 기-(匍腹)[ㅣ]-지	32037-0-1 기지
32037-0-2 기-(匍腹)[ㅣ]-고	32037-0-2 기구
32037-0-3 기-(匍腹)[ㅣ]-더라	32037-0-3 기더라
32037-0-4 기-(匍腹)[ㅣ]-으니까	32037-0-4 기니께
32037-0-5 기-(匍腹)[ㅣ]-아/어(았/었다)	32037-0-5 기어

32038-0-1 이-(戴)[ㅣ]-지	32038-0-1 이지
32038-0-2 이-(戴)[ㅣ]-고	32038-0-2 이구
32038-0-3 이-(戴)[ㅣ]-더라	32038-0-3 이더라
32038-0-4 이-(戴)[ㅣ]-으니까	32038-0-4 이니께
32038-0-5 이-(戴)[ㅣ]-아/어(았/었다)	32038-0-5 여라
32039-0-1 아니-(否)[ㅣ]-지	32039-0-1 아니지
32039-0-2 아니-(否)[ㅣ]-고	32039-0-2 아니구
32039-0-3 아니-(否)[ㅣ]-더라	32039-0-3 아니더라
32039-0-4 아니-(否)[ㅣ]-으니까	32039-0-4 아니니께
32039-0-5 아니-(否)[ㅣ]-아/어(았/었다)	32039-0-5 아니여
32040-0-1 되-(升)[ㅚ]-지	32040-0-1 되지
32040-0-2 되-(升)[ㅚ]-고	32040-0-2 되구
32040-0-3 되-(升)[ㅚ]-더라	32040-0-3 되더라
32040-0-4 되-(升)[ㅚ]-으니까	32040-0-4 되니께
32040-0-5 되-(升)[ㅚ]-아/어(았/었다)	32040-0-5 되따
32041-0-1 있-(有)[ㅆ]-지	32041-0-1 이찌
32041-0-2 있-(有)[ㅆ]-고	32041-0-2 이꾸
32041-0-3 있-(有)[ㅆ]-더라	32041-0-3 이떠라
32041-0-4 있-(有)[ㅆ]-으니까	32041-0-4 이쓰니께
32041-0-5 있-(有)[ㅆ]-아/어(았/었다)	32041-0-5 이써
32042-0-1 놓-(放)[ㅎ]-지	32042-0-1 노치
32042-0-2 놓-(放)[ㅎ]-고	32042-0-2 노쿠
32042-0-3 놓-(放)[ㅎ]-더라	32042-0-3 노터라
32042-0-4 놓-(放)[ㅎ]-으니까	32042-0-4 노:니께
32042-0-5 놓-(放)[ㅎ]-아/어(았/었다)	32042-0-5 놔:따
32043-0-1 훑-(扱)[ㄹ]-지	32043-0-1 훌찌
32043-0-2 훑-(扱)[ㄹ]-고	32043-0-2 훌꼬
32043-0-3 훑-(扱)[ㄹ]-더라	32043-0-3 훌터라
32043-0-4 훑-(扱)[ㄹ]-으니까	32043-0-4 훌트니께
32043-0-5 훑-(扱)[ㄹ]-아/어(았/었다)	32043-0-5 훌터
32044-0-1 곱:-(麗)[ㅂ변]-지	32044-0-1 곱:찌
32044-0-2 곱:-(麗)[ㅂ변]-고	32044-0-2 고:꾸
32044-0-3 곱:-(麗)[ㅂ변]-더라	32044-0-3 곱떠라
32044-0-4 곱:-(麗)[ㅂ변]-으니까	32044-0-4 고우니께
32044-0-5 곱:-(麗)[ㅂ변]-아/어(았/었다)	32044-0-5 고와

32045-0-1	쥐:-(握)[ㄱ]-지	32045-0-1 쥐:지
32045-0-2	쥐:-(握)[ㄱ]-고	32045-0-2 쥐:구
32045-0-3	쥐:-(握)[ㄱ]-더라	32045-0-3 쥐:더라
32045-0-4	쥐:-(握)[ㄱ]-으니까	32045-0-4 쥐:니께
32045-0-5	쥐:-(握)[ㄱ]-아/어(았/었다)	32045-0-5 쥐어
32046-0-1	가-(去)[ㅏ]-지	32046-0-1 가지
32046-0-2	가-(去)[ㅏ]-고	32046-0-2 가구
32046-0-3	가-(去)[ㅏ]-더라	32046-0-3 가더라
32046-0-4	가-(去)[ㅏ]-으니까	32046-0-4 가니께
32046-0-5	가-(去)[ㅏ]-아/어(았/었다)	32046-0-5 가

2) 일반 항목

32047-0-1	먹-(食)-지 -고 -더라	32047-0-1 먹찌
32047-0-2	먹-(食)-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47-0-2 머거
32048-0-1	뜯-(摘)-지 -고 -더라	32048-0-1 뜨찌
32048-0-2	뜯-(摘)-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48-0-2 뜨더
32049-0-1	같-(如)-지 -고 -더라	32049-0-1 가찌
32049-0-2	같-(如)-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49-0-2 가터
32050-0-1	얕-(淺)-지 -고 -더라	32050-0-1 야찌
32050-0-2	얕-(淺)-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50-0-2 야터
32051-0-1	흩-(散)-지 -고 -더라	32051-0-1 흐터지지
32051-0-2	흩-(散)-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51-0-2 흐터
32052-0-1	날:-(飛)-지 -고 -더라	32052-0-1 날르지
32052-0-2	날:-(飛)-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52-0-2 날러, 널러
32053-0-1	울:-(泣)-지 -고 -더라	32053-0-1 울:지
32053-0-2	울:-(泣)-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53-0-2 우러
32054-0-1	일:-(淘)-지 -고 -더라	32054-0-1 일:지
32054-0-2	일:-(淘)-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54-0-2 이러
32055-0-1	얼:-(凍)-지 -고 -더라	32055-0-1 얼:지
32055-0-2	얼:-(凍)-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55-0-2 어러
32056-0-1	넘:-(越)-지 -고 -더라	32056-0-1 넘:찌
32056-0-2	넘:-(越)-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56-0-2 너머
32057-0-1	숨:-(隱)-지 -고 -더라	32057-0-1 숨:찌
32057-0-2	숨:-(隱)-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57-0-2 수머
32058-0-1	쉽:-(易)-지 -고 -더라	32058-0-1 쉽:찌

32058-0-2 쉽:-(易)-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58-0-2 쉬워
32059-0-1 눕:-(臥)-지 -고 -더라 32059-0-1 눕:찌
32059-0-2 눕:-(臥)-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59-0-2 누워
32060-0-1 깁:-(縫)-지 -고 -더라 32060-0-1 지치
32060-0-2 깁:-(縫)-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60-0-2 지어
32061-0-1 밉:-(憎)-지 -고 -더라 32061-0-1 밉찌
32061-0-2 밉:-(憎)-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61-0-2 미워
32062-0-1 높-(高)-지 -고 -더라 32062-0-1 넙:찌
32062-0-2 높-(高)-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62-0-2 너퍼
32063-0-1 짓:-(作)-지 -고 -더라 32063-0-1 지치
32063-0-2 짓:-(作)-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63-0-2 지어
32064-0-1 붓:-(腫)-지 -고 -더라 32064-0-1 부찌
32064-0-2 붓:-(腫)-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64-0-2 부서
32065-0-1 웃:-(笑)-지 -고 -더라 32065-0-1 우:찌
32065-0-2 웃:-(笑)-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65-0-2 우서
32066-0-1 짖-(吠)-지 -고 -더라 32066-0-1 지찌
32066-0-2 짖-(吠)-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66-0-2 지서
32067-0-1 꽂-(揷)-지 -고 -더라 32067-0-1 꼬찌
32067-0-2 꽂-(揷)-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67-0-2 꼬저
32068-0-1 낳-(産)-지 -고 -더라 32068-0-1 나치
32068-0-2 낳-(産)-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68-0-2 나써
32069-0-1 땋:-(辮)-지 -고 -더라 32069-0-1 따:찌
32069-0-2 땋:-(辮)-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69-0-2 따써
32070-0-1 끊-(切)-지 -고 -더라 32070-0-1 끈치
32070-0-2 끊-(切)-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70-0-2 끄너
32071-0-1 괜찮-(無妨)-지 -고 -더라 32071-0-1 갠찬치
32071-0-2 괜찮-(無妨)-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71-0-2 갠차너
32072-0-1 읽-(讀)-지 -고 -더라 32072-0-1 익찌
32072-0-2 읽-(讀)-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72-0-2 일거
32073-0-1 떫:-(澁)-지 -고 -더라 32073-0-1 뜰:찌
32073-0-2 떫:-(澁)-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73-0-2 뜰:버
32074-0-1 옮:-(遷)-지 -고 -더라 32074-0-1 옴:찌
32074-0-2 옮:-(遷)-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74-0-2 올머
32075-0-1 뚫:-(貫)-지 -고 -더라 32075-0-1 뚤:치
32075-0-2 뚫:-(貫)-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75-0-2 뚜러

32076-0-1 꿇-(跪)-지 -고 -더라 32076-0-1 꿀:치
32076-0-2 꿇-(跪)-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76-0-2 꾸러
32077-0-1 닳-(抏 연필 심이)-지 -고 -더라 32077-0-1 달치
32077-0-2 닳-(抏 연필 심이)-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77-0-2 다러
32078-0-1 닳:-(煎 솥에서 장이)-지 -고 -더라 32078-0-1 대리지
32078-0-2 닳:-(煎 솥에서 장이)-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78-0-2 대려
32079-0-1 짜-(鹽)-지 -고 -더라 32079-0-1 짜지
32079-0-2 짜-(鹽)-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79-0-2 짜
32080-0-1 말-(捲)-지 -고 -더라 32080-0-1 말지
32080-0-2 말-(捲)-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80-0-2 마러
32081-0-1 쓰-(書)-지 -고 -더라 32081-0-1 쓰지
32081-0-2 쓰-(書)-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81-0-2 써
32082-0-1 오르-(登)-지 -고 -더라 32082-0-1 올르지
32082-0-2 오르-(登)-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82-0-2 올라, 올러
32083-0-1 바쁘-(忙)-지 -고 -더라 32083-0-1 바쁘지
32083-0-2 바쁘-(忙)-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83-0-2 바빠
32084-0-1 고프-(餓)-지 -고 -더라 32084-0-1 고프지
32084-0-2 고프-(餓)-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84-0-2 고파
32085-0-1 쏘-(射)-지 -고 -더라 32085-0-1 쏘지
32085-0-2 쏘-(射)-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85-0-2 쏘아
32086-0-1 꾸-(夢)-지 -고 -더라 32086-0-1 꾸지
32086-0-2 꾸-(夢)-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86-0-2 꿔:따
32087-0-1 머무르-(留)-지 -고 -더라 32087-0-1 머무르지
32087-0-2 머무르-(留)-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87-0-2 머무러써
32088-0-1 다듬-(整)-지 -고 -더라 32088-0-1 다듬찌
32088-0-2 다듬-(整)-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88-0-2 다드머
32089-0-1 견디-(忍)-지 -고 -더라 32089-0-1 견디지, 전디지
32089-0-2 견디-(忍)-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89-0-2 견뎌, 전뎌
32090-0-1 말리-(裁)-지 -고 -더라 32090-0-1 말르지
32090-0-2 말리-(裁)-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90-0-2 말러
32091-0-1 끼-(烟鎖 안개가)-지 -고 -더라 32091-0-1 찌지
32091-0-2 끼-(烟鎖 안개가)-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91-0-2 쩌
32092-0-1 마시-(飮)-지 -고 -더라 32092-0-1 마시지
32092-0-2 마시-(飮)-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92-0-2 마셔
32093-0-1 세:-(强)-지 -고 -더라 32093-0-1 세:지

32093-0-2 세:-(强)-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93-0-2 세:따
32094-0-1 포개-(重疊)-지 -고 -더라 32094-0-1 포개지
32094-0-2 포개-(重疊)-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94-0-2 포개따
32095-0-1 두드리-(敲)-지 -고 -더라 32095-0-1 뚜디리지
32095-0-2 두드리-(敲)-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95-0-2 뚜디려
32096-0-1 켜-(點燈)-지 -고 -더라 32096-0-1 키지
32096-0-2 켜-(點燈)-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96-0-2 켜써
32097-0-1 쐬:-(바람을)-지 -고 -더라 32097-0-1 쐬:지
32097-0-2 쐬:-(바람을)-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97-0-2 쐬:따
32098-0-1 쇠-(老)-지 -고 -더라 32098-0-1 쇠:지
32098-0-2 쇠-(老)-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98-0-2 쇠:따
32099-0-1 쉬:-(饐)-지 -고 -더라 32099-0-1 쉬:지
32099-0-2 쉬:-(饐)-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99-0-2 쉬어따
32100-0-1 희-(白)-지 -고 -더라 32100-0-1 세찌
32100-0-2 희-(白)-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00-0-2 세어따
32101-0-1 볶-(炒)-지 -고 -더라 32101-0-1 복찌
32101-0-2 볶-(炒)-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01-0-2 보꺼
32102-0-1 안:-(抱)-지 -고 -더라 32102-0-1 안:찌
32102-0-2 안:-(抱)-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02-0-2 아나따
32103-0-1 묻-(埋)-지 -고 -더라 32103-0-1 묻찌
32103-0-2 묻-(埋)-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03-0-2 무더써
32104-0-1 불:-(吹)-지 -고 -더라 32104-0-1 불:지
32104-0-2 불:-(吹)-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04-0-2 부러써
32105-0-1 빨-(洗濯)-지 -고 -더라 32105-0-1 빨지
32105-0-2 빨-(洗濯)-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05-0-2 빠라써
32106-0-1 죽-(死)-지 -고 -더라 32106-0-1 죽찌
32106-0-2 죽-(死)-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06-0-2 주거써
32107-0-1 걷:-(步)-지 -고 -더라 32107-0-1 거:찌
32107-0-2 걷:-(步)-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07-0-2 거러써
32108-0-1 가물-(旱)-지 -고 -더라 32108-0-1 가물지
32108-0-2 가물-(旱)-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08-0-2 가무러써
32109-0-1 졸:-(睡)-지 -고 -더라 32109-0-1 졸:지
32109-0-2 졸:-(睡)-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09-0-2 조러써
32110-0-1 쓸-(掃)-지 -고 -더라 32110-0-1 쓸지
32110-0-2 쓸-(掃)-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10-0-2 쓰러써

32111-0-1 감:-(捲)-지 -고 -더라 32111-0-1 감:찌
32111-0-2 감:-(捲)-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11-0-2 가머써
32112-0-1 더듬-(摸)-지 -고 -더라 32112-0-1 더듬찌
32112-0-2 더듬-(摸)-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12-0-2 더드머써
32113-0-1 굽:-(炙)-지 -고 -더라 32113-0-1 굽:찌
32113-0-2 굽:-(炙)-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13-0-2 구어써
32114-0-1 무겁-(重)-지 -고 -더라 32114-0-1 무겁찌
32114-0-2 무겁-(重)-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14-0-2 무거워써
32115-0-1 잇:-(連)-지 -고 -더라 32115-0-1 이:찌
32115-0-2 잇:-(連)-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15-0-2 이서써
32116-0-1 빗-(梳)-지 -고 -더라 32116-0-1 비찌
32116-0-2 빗-(梳)-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16-0-2 비서써
32117-0-1 까맣-(黑)-지 -고 -더라 32117-0-1 꺼머찌
32117-0-2 까맣-(黑)-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17-0-2 쌔커머타
32118-0-1 넣-(入)-지 -고 -더라 32118-0-1 느치
32118-0-2 넣-(入)-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18-0-2 너써
32119-0-1 고:-(煮)-지 -고 -더라 32119-0-1 고지
32119-0-2 고:-(煮)-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19-0-2 고아따, 과따
32120-0-1 얹-(載)-지 -고 -더라 32120-0-1 언찌
32120-0-2 얹-(載)-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20-0-2 언저따
32121-0-1 귀찮-(嘓)-지 -고 -더라 32121-0-1 구찬치
32121-0-2 귀찮-(嘓)-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21-0-2 구차너
32122-0-1 바르-(剔 생선 뼈를)-지 -고 -더라 32122-0-1 발르지
32122-0-2 바르-(剔 생선 뼈를)-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22-0-2 발러써
32123-0-1 맑-(淸)-지 -고 -더라 32123-0-1 막찌
32123-0-2 맑-(淸)-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23-0-2 말거써
32124-0-1 곪:-(膿)-지 -고 -더라 32124-0-1 골머찌, 공기지
32124-0-2 곪:-(膿)-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24-0-2 공겨써, 골머써
32125-0-1 굵:-(太)-지 -고 -더라 32125-0-1 국:찌
32125-0-2 굵:-(太)-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25-0-2 굴:거따
32126-0-1 엷:-(薄)-지 -고 -더라 32126-0-1 열:찌
32126-0-2 엷:-(薄)-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26-0-2 열버따
32127-0-1 쓿-(舂)-지 -고 -더라 32127-0-1 쓸지
32127-0-2 쓿-(舂)-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27-0-2 쓰러
32128-0-1 잃-(失)-지 -고 -더라 32128-0-1 일치

32128-0-2 잃-(失)-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28-0-2 이러따
32129-0-1 핥-(舐)-지 -고 -더라 32129-0-1 할찌
32129-0-2 핥-(舐)-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29-0-2 할터써
32130-0-1 짧-(短)-지 -고 -더라 32130-0-1 짤찌
32130-0-2 짧-(短)-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30-0-2 짤버써
32131-0-1 놀라-(驚)-지 -고 -더라 32131-0-1 놀라찌
32131-0-2 놀라-(驚)-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31-0-2 놀라써
32132-0-1 자-(宿)-지 -고 -더라 32132-0-1 자지
32132-0-2 자-(宿)-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32-0-2 자써
32133-0-1 못:하-(不爲)-지 -고 -더라 32133-0-1 모:다지
32133-0-2 못:하-(不爲)-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33-0-2 모:대써
32134-0-1 모르-(不知)-지 -고 -더라 32134-0-1 몰:르지
32134-0-2 모르-(不知)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34-0-2 몰:라써
32135-0-1 아프-(痛)-지 -고 -더라 32135-0-1 아프지
32135-0-2 아프-(痛)-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35-0-2 아퍼써
32136-0-1 크-(大)-지 -고 -더라 32136-0-1 크지
32136-0-2 크-(大)-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36-0-2 커써
32137-0-1 꼬-(索 새끼를)-지 -고 -더라 32137-0-1 꼬:찌
32137-0-2 꼬-(索 새끼를)-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37-0-2 꽈서
32138-0-1 쑤-(造粥)-지 -고 -더라 32138-0-1 쑤지
32138-0-2 쑤-(造粥)-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38-0-2 쑤어써
32139-0-1 맞추-(組合)-지 -고 -더라 32139-0-1 마추지
32139-0-2 맞추-(組合)-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39-0-2 마춰써
32140-0-1 데우-(焐)-지 -고 -더라 32140-0-1 데우지
32140-0-2 데우-(焐)-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40-0-2 데워써
32141-0-1 이:-(盖 지붕을)-지 -고 -더라 32141-0-1 일:지
32141-0-2 이:-(盖 지붕을)-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41-0-2 이러써
32142-0-1 갈기-(打)-지 -고 -더라 32142-0-1 갈기지
32142-0-2 갈기-(打)-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42-0-2 갈겨써
32143-0-1 기다리-(待)-지 -고 -더라 32143-0-1 기다리지
32143-0-2 기다리-(待)-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43-0-2 기다려써
32144-0-1 세:-(算)-지 -고 -더라 32144-0-1 세:지
32144-0-2 세:-(算)-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44-0-2 세어봐써
32145-0-1 빼-(拔)-지 -고 -더라 32145-0-1 빼:지
32145-0-2 빼-(拔)-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45-0-2 빼:서

32146-0-1 켜-(톱을)-지 -고 -더라 32146-0-1 쓸:지
32146-0-2 켜-(톱을)-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46-0-2 쓰:러써
32147-0-1 되:-(硬)-지 -고 -더라 32147-0-1 되:지
32147-0-2 되:-(硬)-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47-0-2 되:써
32148-0-1 쉬:-(休)-지 -고 -더라 32148-0-1 쉬:지
32148-0-2 쉬:-(休)-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48-0-2 쉬어써
32149-0-1 할퀴-(搔)-지 -고 -더라 32149-0-1 항켜찌
32149-0-2 할퀴-(搔)-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49-0-2 항켜
32150-0-1 눋:-(燋)-지 -고 -더라 32150-0-1 눌:지안케
32150-0-2 눋:-(燋)-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50-0-2 누러써
32151-0-1 깨닫-(覺)-지 -고 -더라 32151-0-1 깨다찌
32151-0-2 깨닫-(覺)-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51-0-2 깨다라써
32152-0-1 마렵-(오줌이)-지 -고 -더라 32152-0-1 매렵찌
32152-0-2 마렵-(오줌이)-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52-0-2 매려
32153-0-1 부끄럽-(恥)-지 -고 -더라 32153-0-1 부끄럽찌
32153-0-2 부끄럽-(恥)-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53-0-2 남부끄러
32154-0-1 가깝-(近)-지 -고 -더라 32154-0-1 가깝찌
32154-0-2 가깝-(近)-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54-0-2 가까워
32155-0-1 깊-(深)-지 -고 -더라 32155-0-1 집찌
32155-0-2 깊-(深)-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55-0-2 지퍼써
32156-0-1 긋:-(劃)-지 -고 -더라 32156-0-1 그:찌
32156-0-2 긋:-(劃)-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56-0-2 그셔따구
32157-0-1 씻-(洗)-지 -고 -더라 32157-0-1 씨찌
32157-0-2 씻-(洗)-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57-0-2 씨처써
32158-0-1 찧-(搗)-지 -고 -더라 32158-0-1 찌치
32158-0-2 찧-(搗)-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58-0-2 찌어써
32159-0-1 갉-(搔)-지 -고 -더라 32159-0-1 갈:지
32159-0-2 갉-(搔)-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59-0-2 갈가써
32160-0-1 굶:-(飢)-지 -고 -더라 32160-0-1 굼:찌
32160-0-2 굶:-(飢)-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60-0-2 굴:머써
32161-0-1 닮:-(似)-지 -고 -더라 32161-0-1 담:찌
32161-0-2 닮:-(似)-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61-0-2 달마따
32162-0-1 싫-(厭)-지 -고 -더라 32162-0-1 실치
32162-0-2 싫-(厭)-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62-0-2 *
32163-0-1 곯-(腐)-지 -고 -더라 32163-0-1 골치

32163-0-2 곯-(瘢)-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63-0-2 고러써
32164-0-1 붓:-(注)-지 -고 -더라 32164-0-1 붇찌
32164-0-2 붓:-(注)-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64-0-2 부어써
32165-0-1 타-(乘)-지 -고 -더라 32165-0-1 타지
32165-0-2 타-(乘)-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65-0-2 타써
32166-0-1 마르-(乾)-지 -고 -더라 32166-0-1 말르지
32166-0-2 마르-(乾)-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66-0-2 말러써
32167-0-1 쓰-(苦)-지 -고 -더라 32167-0-1 쓰지
32167-0-2 쓰-(苦)-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67-0-2 써써
32168-0-1 슬프-(哀)-지 -고 -더라 32168-0-1 슬프지
32168-0-2 슬프-(哀)-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68-0-2 슬퍼서
32169-0-1 기쁘-(喜)-지 -고 -더라 32169-0-1 기쁘지
32169-0-2 기쁘-(喜)-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69-0-2 기뻐써
32170-0-1 쏘-(蜇 벌이)-지 -고 -더라 32170-0-1 쏘지
32170-0-2 쏘-(蜇 벌이)-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70-0-2 쏘아써
32171-0-1 주-(與)-지 -고 -더라 32171-0-1 주지
32171-0-2 주-(與)-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71-0-2 주어써
32172-0-1 키우-(飼育)-지 -고 -더라 32172-0-1 키우지
32172-0-2 키우-(飼育)-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72-0-2 키워써
32173-0-1 가두-(囚)-지 -고 -더라 32173-0-1 가두지
32173-0-2 가두-(囚)-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73-0-2 가둬써
32174-0-1 부수-(碎)-지 -고 -더라 32174-0-1 부시지
32174-0-2 부수-(碎)-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74-0-2 부셔써
32175-0-1 나누-(分)-지 -고 -더라 32175-0-1 논:찌, 노누지
32175-0-2 나누-(分)-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75-0-2 노너써
32176-0-1 속이-(欺)-지 -고 -더라 32176-0-1 쏙기지
32176-0-2 속이-(欺)-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76-0-2 쏙겨써
32177-0-1 끼-(揷)-지 -고 -더라 32177-0-1 끼지
32177-0-2 끼-(揷)-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77-0-2 껴:서
32178-0-1 튀-(跳)-지 -고 -더라 32178-0-1 튀지유
32178-0-2 튀-(跳)-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78-0-2 텨:써
32179-0-1 괴:-(渟)-지 -고 -더라 32179-0-1 괴:지
32179-0-2 괴:-(渟)-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79-0-2 괴여써
32180-0-1 여위-(癯)-지 -고 -더라 32180-0-1 야위지
32180-0-2 여위-(癯)-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80-0-2 야위어서

32181-0-1 맵-(辛)-지 -고 -더라
32181-0-2 맵-(辛)-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82-0-1 뀌:-(屁)-지 -고 -더라
32182-0-2 뀌:-(屁)-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83-0-1 고치-(改)-지 -고 -더라
32183-0-2 고치-(改)-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84-0-1 싣:-(載)-지 -고 -더라
32184-0-2 싣:-(載)-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85-0-1 얻:-(得)-지 -고 -더라
32185-0-2 얻:-(得)-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86-0-1 빻-(粉碎)-지 -고 -더라
32186-0-2 빻-(粉碎)-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87-0-1 파랗-(碧)-지 -고 -더라
32187-0-2 파랗-(碧)-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88-0-1 다르-(異)-지 -고 -더라
32188-0-2 다르-(異)-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89-0-1 푸-(汲)-지 -고 -더라
32189-0-2 푸-(汲)-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90-0-1 누-(尿)-지 -고 -더라
32190-0-2 누-(尿)-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91-0-1 더:럽-(汚)-지 -고 -더라
32191-0-2 더:럽-(汚)-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92-0-1 거두-(收)-지 -고 -더라
32192-0-2 거두-(收)-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93-0-1 끓-(沸)-지 -고 -더라
32193-0-2 끓-(沸)-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94-0-1 이기-(勝)-지 -고 -더라
32194-0-2 이기-(勝)-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95-0-1 부시-(照)-지 -고 -더라
32195-0-2 부시-(照)-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96-0-1 자빠지-(後倒)-지 -고 -더라
32196-0-2 자빠지-(後倒)-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97-0-1 일으키-(使起)-지 -고 -더라
32197-0-2 일으키-(使起)-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98-0-1 당기-(引)-지 -고 -더라

32181-0-1 매웁찌
32181-0-2 매워써
32182-0-1 끼지
32182-0-2 끼어써
32183-0-1 고치지
32183-0-2 고처써
32184-0-1 실:치
32184-0-2 시러써
32185-0-1 으:찌
32185-0-2 으더써
32186-0-1 빠수지
32186-0-2 빠숴써
32187-0-1 파:라치
32187-0-2 파라타
32188-0-1 달찌, 달부지
32188-0-2 달버
32189-0-1 푸지
32189-0-2 퍼써
32190-0-1 누지
32190-0-2 눠써
32191-0-1 드:럽찌
32191-0-2 드:러워써
32192-0-1 거두지
32192-0-2 거둬써
32193-0-1 끌치
32193-0-2 끄러써
32194-0-1 이기지
32194-0-2 이겨써
32195-0-1 시지
32195-0-2 셔:써
32196-0-1 자빠지지 안케
32196-0-2 자빠저써
32197-0-1 일써주지
32197-0-2 일써 줘:써
32198-0-1 땅기지

32198-0-2 당기-(引)-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98-0-2 땅겨써
32199-0-1 버리-(捨)-지 -고 -더라 32199-0-1 버리지
32199-0-2 버리-(捨)-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99-0-2 버려써
32200-0-1 훔치-(盜)-지 -고 -더라 32200-0-1 훔치지
32200-0-2 훔치-(盜)-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00-0-2 훔처써
32201-0-1 지-(負)-지 -고 -더라 32201-0-1 지지
32201-0-2 지-(負)-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01-0-2 저써
32202-0-1 외:-(暗誦)-지 -고 -더라 32202-0-1 외:지
32202-0-2 외:-(暗誦)-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02-0-2 외워써, 외:써
32203-0-1 사귀-(交際)-지 -고 -더라 32203-0-1 사기지
32203-0-2 사귀-(交際)-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03-0-2 사겨써
32204-0-1 썩-(腐)-지 -고 -더라 32204-0-1 썩찌
32204-0-2 썩-(腐)-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04-0-2 써거써
32205-0-1 질-(泥)-지 -고 -더라 32205-0-1 질지
32205-0-2 질-(泥)-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05-0-2 지러써
32206-0-1 까불-(箕)-지 -고 -더라 32206-0-1 까:부르지
32206-0-2 까불-(箕)-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06-0-2 까:불러써
32207-0-1 드물-(稀)-지 -고 -더라 32207-0-1 드물지
32207-0-2 드물-(稀)-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07-0-2 드무러써
32208-0-1 줄:-(縮)-지 -고 -더라 32208-0-1 줄:지
32208-0-2 줄:-(縮)-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08-0-2 주러써
32209-0-1 심:-(植)-지 -고 -더라 32209-0-1 심:찌
32209-0-2 심:-(植)-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09-0-2 시머써
32210-0-1 쓰다듬-(撫)-지 -고 -더라 32210-0-1 씨다듬찌
32210-0-2 쓰다듬-(撫)-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10-0-2 씨다드머써
32211-0-1 사:납-(猛)-지 -고 -더라" 32211-0-1 싸:납찌
32211-0-2 사:납-(猛)-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11-0-2 싸:나워써
32212-0-1 가볍-(輕)-지 -고 -더라 32212-0-1 개볍찌
32212-0-2 가볍-(輕)-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12-0-2 개벼워써
32213-0-1 젓:-(撈)-지 -고 -더라 32213-0-1 저:찌
32213-0-2 젓:-(撈)-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13-0-2 저서써
32214-0-1 두껍-(厚)-지 -고 -더라 32214-0-1 두껍찌
32214-0-2 두껍-(厚)-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14-0-2 두꺼워써
32215-0-1 무르-(軟)-지 -고 -더라 32215-0-1 물르지
32215-0-2 무르-(軟)-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15-0-2 물러써

32216-0-1 분지르-(折)-지 -고 -더라 32216-0-1 분질르지
32216-0-2 분지르-(折)-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16-0-2 분질러써
32217-0-1 배우-(學)-지 -고 -더라 32217-0-1 배우지
32217-0-2 배우-(學)-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17-0-2 배워써
32218-0-1 다리-(熨)-지 -고 -더라 32218-0-1 대리지
32218-0-2 다리-(熨)-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18-0-2 대려써
32219-0-1 후비-(空 귀를)-지 -고 -더라 32219-0-1 수비지
32219-0-2 후비-(空 귀를)-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19-0-2 수벼써
32220-0-1 아리-(痛)-지 -고 -더라 32220-0-1 아리지
32220-0-2 아리-(痛)-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20-0-2 아려써
32221-0-1 그리-(畵)-지 -고 -더라 32221-0-1 그:리지
32221-0-2 그리-(畵)-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21-0-2 그:려써
32222-0-1 저리-(痲)-지 -고 -더라 32222-0-1 저리지
32222-0-2 저리-(痲)-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22-0-2 저려써
32223-0-1 불리-(增)-지 -고 -더라 32223-0-1 불리지
32223-0-2 불리-(增)-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23-0-2 불려서
32224-0-1 뜨시-(溫)-지 -고 -더라 32224-0-1 뜨시지
32224-0-2 뜨시-(溫)-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24-0-2 뜨셔서
32225-0-1 끓이-(使沸)-지 -고 -더라 32225-0-1 끄리지
32225-0-2 끓이-(使沸)-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25-0-2 끄려서
32226-0-1 누비-(縫)-지 -고 -더라 32226-0-1 누비지
32226-0-2 누비-(縫)-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26-0-2 누벼서
32227-0-1 구기-(皺)-지 -고 -더라 32227-0-1 구기지
32227-0-2 구기-(皺)-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27-0-2 구겨서
32228-0-1 비:-(空)-지 -고 -더라 32228-0-1 벼찌, 비어찌
32228-0-2 비:-(空)-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28-0-2 비어서, 벼서
32229-0-1 식히-(使冷)-지 -고 -더라 32229-0-1 시키지
32229-0-2 식히-(使冷)-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29-0-2 시켜서
32230-0-1 매-(除草)-지 -고 -더라 32230-0-1 매지
32230-0-2 매-(除草)-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30-0-2 매:서
32231-0-1 매:-(結)-지 -고 -더라 32231-0-1 매:지
32231-0-2 매:-(結)-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31-0-2 매:서
32232-0-1 뛰-(走)-지 -고 -더라 32232-0-1 뛰지
32232-0-2 뛰-(走)-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32-0-2 뛰여서
32233-0-1 담:-(盛)-지 -고 -더라 32233-0-1 담:찌

32233-0-2 담:-(盛)-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33-0-2 다머서
32234-0-1 가렵-(癢)-지 -고 -더라 32234-0-1 가렵찌
32234-0-2 가렵-(癢)-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34-0-2 가려워서, 가려서
32235-0-1 때리-(打)-지 -고 -더라 32235-0-1 때리지
32235-0-2 때리-(打)-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35-0-2 때려서
32236-0-1 어둡-(暗)-지 -고 -더라 32236-0-1 어둡찌
32236-0-2 어둡-(暗)-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36-0-2 어둬서
32237-0-1 잡-(執)-지 -고 -더라 32237-0-1 잡찌
32237-0-2 잡-(執)-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37-0-2 자버서
32238-0-1 차-(蹴)-지 -고 -더라 32238-0-1 차지마라
32238-0-2 차-(蹴)-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38-0-2 차서
32239-0-1 모자라-(不足)-지 -고 -더라 32239-0-1 모자라지
32239-0-2 모자라-(不足)-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39-0-2 모자라서
32240-0-1 부르-(呼)-지 -고 -더라 32240-0-1 부르지
32240-0-2 부르-(呼)-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40-0-2 불러서
32241-0-1 따르-(注)-지 -고 -더라 32241-0-1 따르지
32241-0-2 따르-(注)-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41-0-2 따러서
32242-0-1 쪼:-(啄)-지 -고 -더라 32242-0-1 찍찌
32242-0-2 쪼:-(啄)-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42-0-2 찌거서
32243-0-1 두-(置)-지 -고 -더라 32243-0-1 두지
32243-0-2 두-(置)-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43-0-2 두워서
32244-0-1 시키-(使)-지 -고 -더라 32244-0-1 시키지
32244-0-2 시키-(使)-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44-0-2 시켜서
32245-0-1 지리-(漏 오줌을)-지 -고 -더라 32245-0-1 지리지
32245-0-2 지리-(漏 오줌을)-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45-0-2 지려서
32246-0-1 던지-(投)-지 -고 -더라 32246-0-1 던지지
32246-0-2 던지-(投)-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46-0-2 던저서
32247-0-1 모이-(集)-지 -고 -더라 32247-0-1 모이지
32247-0-2 모이-(集)-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47-0-2 모여서
32248-0-1 만지-(摙)-지 -고 -더라 32248-0-1 만지지
32248-0-2 만지-(摙)-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48-0-2 만저서
32249-0-1 쬐:-(曬)-지 -고 -더라 32249-0-1 쪼이지
32249-0-2 쬐:-(曬)-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49-0-2 쪼여서
32250-0-1 비틀-(捻)-지 -고 -더라 32250-0-1 비:툴지
32250-0-2 비틀-(捻)-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50-0-2 비:투러서

32251-0-1 돕:-(助)-지 -고 -더라 32251-0-1 돕:찌
32251-0-2 돕:-(助)-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51-0-2 도와서
32252-0-1 씹-(咀)-지 -고 -더라 32252-0-1 씹찌
32252-0-2 씹-(咀)-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52-0-2 씨버서
32253-0-1 미끄럽-(滑)-지 -고 -더라 32253-0-1 미끌지
32253-0-2 미끄럽-(滑)-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53-0-2 미끼러서
32254-0-1 닿-(接)-지 -고 -더라 32254-0-1 다치
32254-0-2 닿-(接)-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54-0-2 다:서
32255-0-1 누르-(壓)-지 -고 -더라 32255-0-1 눌:루지
32255-0-2 누르-(壓)-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55-0-2 눌러서
32256-0-1 주무르-(揉)-지 -고 -더라 32256-0-1 주물루지
32256-0-2 주무르-(揉)-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56-0-2 주물러서
32257-0-1 메우-(塡)-지 -고 -더라 32257-0-1 메우지
32257-0-2 메우-(塡)-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57-0-2 메워서
32258-0-1 꼬시-(香味)-지 -고 -더라 32258-0-1 고수하지
32258-0-2 꼬시-(香味)-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58-0-2 고수워서
32259-0-1 내리-(降)-지 -고 -더라 32259-0-1 내리지
32259-0-2 내리-(降)-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59-0-2 내려서
32260-0-1 구르-(轉)-지 -고 -더라 32260-0-1 굴루지
32260-0-2 구르-(轉)-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60-0-2 굴러서
32261-0-1 만들-(作)-지 -고 -더라 32261-0-1 만들지
32261-0-2 만들-(作)-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61-0-2 만드러서
32262-0-1 늙-(老)-지 -고 -더라 32262-0-1 늑찌유
32262-0-2 늙-(老)-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62-0-2 늘거서
32263-0-1 앓-(痛)-지 -고 -더라 32263-0-1 알:지
32263-0-2 앓-(痛)-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63-0-2 아라서
32264-0-1 따르-(隨)-지 -고 -더라 32264-0-1 따르지
32264-0-2 따르-(隨)-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64-0-2 따러서
32265-0-1 사-(買)-지 -고 -더라 32265-0-1 사지
32265-0-2 사-(買)-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65-0-2 사서
32266-0-1 치우-(除)-지 -고 -더라 32266-0-1 치지
32266-0-2 치우-(除)-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66-0-2 처서
32267-0-1 부러지-(被折)-지 -고 -더라 32267-0-1 부러지지
32267-0-2 부러지-(被折)-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67-0-2 부러저서
32268-0-1 다치-(傷)-지 -고 -더라 32268-0-1 다치지

32268-0-2 다치-(傷)-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68-0-2 다처서
32269-0-1 느리-(緩)-지 -고 -더라 32269-0-1 느리지
32269-0-2 느리-(緩)-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69-0-2 느려서
32270-0-1 무치-(和 나물을)-지 -고 -더라 32270-0-1 무치지
32270-0-2 무치-(和 나물을)-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70-0-2 무처서
32271-0-1 죄:-(締)-지 -고 -더라 32271-0-1 쥐:지
32271-0-2 죄:-(締)-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71-0-2 쥐어서
32272-0-1 팔-(賣)-지 -고 -더라 32272-0-1 팔지
32272-0-2 팔-(賣)-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72-0-2 파러서
32273-0-1 뽑-(選)-지 -고 -더라 32273-0-1 뽑찌
32273-0-2 뽑-(選)-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73-0-2 뽀버서
32274-0-1 뒤지-(索)-지 -고 -더라 32274-0-1 뒤지지
32274-0-2 뒤지-(索)-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74-0-2 뒤저서
32275-0-1 마치-(終)-지 -고 -더라 32275-0-1 마치지
32275-0-2 마치-(終)-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75-0-2 마처서
32276-0-1 절이-(鹽)-지 -고 -더라 32276-0-1 저리지
32276-0-2 절이-(鹽)-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76-0-2 저려서
32277-0-1 휘-(曲)-지 -고 -더라 32277-0-1 휘:지
32277-0-2 휘-(曲)-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77-0-2 휘어서
32278-0-1 줍:-(拾)-지 -고 -더라 32278-0-1 주:찌
32278-0-2 줍:-(拾)-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78-0-2 주워서
32279-0-1 빼앗-(奪)-지 -고 -더라 32279-0-1 빼서찌
32279-0-2 빼앗-(奪)-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79-0-2 빼서서
32280-0-1 기울-(傾)-지 -고 -더라 32280-0-1 기울지
32280-0-2 기울-(傾)-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80-0-2 기우러서
32281-0-1 아깝-(惜)-지 -고 -더라 32281-0-1 아깝찌
32281-0-2 아깝-(惜)-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81-0-2 아까워서
32282-0-1 반갑-(歡)-지 -고 -더라 32282-0-1 반갑찌
32282-0-2 반갑-(歡)-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82-0-2 반가워서
32283-0-1 찌-(蒸)-지 -고 -더라 32283-0-1 찌지
32283-0-2 찌-(蒸)-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83-0-2 쪄서
32284-0-1 노랗-(黃)-지 -고 -더라 32284-0-1 노라치
32284-0-2 노랗-(黃)-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84-0-2 노래서
32285-0-1 푸르-(靑)-지 -고 -더라 32285-0-1 푸르지
32285-0-2 푸르-(靑)-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85-0-2 푸러서

32286-0-1	서두르-(忙)-지 -고 -더라	32286-0-1 서둘루지
32286-0-2	서두르-(忙)-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86-0-2 서둘러서
32287-0-1	서투르-(不熟)-지 -고 -더라	32287-0-1 스:툴루지
32287-0-2	서투르-(不熟)-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87-0-2 스:툴러서
32288-0-1	게으르-(怠)-지 -고 -더라	32288-0-1 게울루지
32288-0-2	게으르-(怠)-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88-0-2 게울러서
32289-0-1	따뜻하-(溫)-지 -고 -더라	32289-0-1 따뜨더지
32289-0-2	따뜻하-(溫)-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89-0-2 따뜨대서
32290-0-1	춥-(寒)-지 -고 -더라	32290-0-1 춥찌
32290-0-2	춥-(寒)-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90-0-2 추워서
32291-0-1	뜨겁-(極熱)-지 -고 -더라	32291-0-1 뜨겁찌
32291-0-2	뜨겁-(極熱)-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91-0-2 뜨거서
32292-0-1	미지근하-(微溫)-지 -고 -더라	32292-0-1 미지근허지
32292-0-2	미지근하-(微溫)-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92-0-2 미지근해서
32293-0-1	차갑-(寒)-지 -고 -더라	32293-0-1 차겁찌, 차지
32293-0-2	차갑-(寒)-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93-0-2 차가워서, 차서
32294-0-1	부럽-(羨)-지 -고 -더라	32294-0-1 부럽찌
32294-0-2	부럽-(羨)-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94-0-2 부러워서
32295-0-1	얄밉-(憎)-지 -고 -더라	32295-0-1 얄:밉찌
32295-0-2	얄밉-(憎)-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95-0-2 얄:미워서
32296-0-1	비슷하-(類似)-지 -고 -더라	32296-0-1 비스타지
32296-0-2	비슷하-(類似)-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96-0-2 비스태서
32297-0-1	새롭-(新)-지 -고 -더라	32297-0-1 새롭찌
32297-0-2	새롭-(新)-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97-0-2 새로워서
32298-0-1	서:럽-(悲痛)-지 -고 -더라"	32298-0-1 서:럽찌
32298-0-2	서:럽-(悲痛)-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98-0-2 서:러워서
32299-0-1	까다롭-(難)-지 -고 -더라	32299-0-1 까:다랍찌, 까:다로워서, 깨까드럽찌
32299-0-2	까다롭-(難)-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99-0-2 깨까드러서
32300-0-1	외롭-(孤)-지 -고 -더라	32300-0-1 외롭찌
32300-0-2	외롭-(孤)-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300-0-2 외로워서
32301-0-1	아쉽-(不滿)-지 -고 -더라	32301-0-1 아쉽찌
32301-0-2	아쉽-(不滿)-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301-0-2 아쉬워서
32302-0-1	단단하-(固)-지 -고 -더라	32302-0-1 단단허지
32302-0-2	단단하-(固)-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302-0-2 단단해서

32303-0-1 늦-(晩)-지 -고 -더라 32303-0-1 늗찌
32303-0-2 늦-(晩)-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303-0-2 느저서
32304-0-1 남:-(餘)-지 -고 -더라 32304-0-1 남:찌
32304-0-2 남:-(餘)-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304-0-2 나머서
32305-0-1 남기-(使餘)-지 -고 -더라 32305-0-1 냉기지
32305-0-2 남기-(使餘)-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305-0-2 냉겨서
32306-0-1 넘어뜨리-(使倒)-지 -고 -더라 32306-0-1 너머트리지
32306-0-2 넘어뜨리-(使倒)-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306-0-2 너머트려서
32307-0-1 쭈그러뜨리-(使凹)-지 -고 -더라 32307-0-1 쭈그려트리지
32307-0-2 쭈그러뜨리-(使凹)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307-0-2 쭈그려트려서
32308-0-1 견주-(比)-지 -고 -더라 32308-0-1 겨누지
32308-0-2 견주-(比)-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308-0-2 겨눠서
32309-0-1 외우-(誦)-지 -고 -더라 32309-0-1 에우지
32309-0-2 외우-(誦)-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309-0-2 에워서
32310-0-1 문지르-(摩)-지 -고 -더라 32310-0-1 문질르지
32310-0-2 문지르-(摩)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310-0-2 문질러서
32311-0-1 가리키-(指)-지 -고 -더라 32311-0-1 가르키지
32311-0-2 가리키-(指)-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311-0-2 가리켜서
32312-0-1 가르치-(敎)-지 -고 -더라 32312-0-1 가리치지, 가리키지
32312-0-2 가르치-(敎)-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312-0-2 가리켜서
32313-0-1 겨누-(照準)-지 -고 -더라 32313-0-1 꼬누지
32313-0-2 겨누-(照準)-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313-0-2 꼬너서
32314-0-1 겨루-(競)-지 -고 -더라 32314-0-1 겨누지
32314-0-2 겨루-(競)-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314-0-2 겨눠서
32315-0-1 달래-(慰撫)-지 -고 -더라 32315-0-1 달래지
32315-0-2 달래-(慰撫)-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315-0-2 달래서
32316-0-1 본받-(效)-지 -고 -더라 32316-0-1 본바찌
32316-0-2 본받-(效)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316-0-2 본바더서
32317-0-1 어지르-(散)-지 -고 -더라 32317-0-1 어질지
32317-0-2 어지르-(散)-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317-0-2 어지러서
32318-0-1 달리-(走)-지 -고 -더라 32318-0-1 달리지
32318-0-2 달리-(走)-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318-0-2 달려서
32319-0-1 우기-(拗)-지 -고 -더라 32319-0-1 우기지
32319-0-2 우기-(拗)-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319-0-2 우겨서
32320-0-1 중얼거리-(獨言)-지 -고 -더라 32320-0-1 중얼거리지

32320-0-2	중얼거리-(獨言)-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320-0-2 중얼거려서
32321-0-1	지껄이-(騷)-지 -고 -더라	32321-0-1 찌꺼리지
32321-0-2	지껄이-(騷)-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321-0-2 찌꺼려서
32322-0-1	다니-(行)-지 -고 -더라	32322-0-1 다니지
32322-0-2	다니-(行)-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322-0-2 다녀서
32323-0-1	떨어뜨리-(使落)-지 -고 -더라	32323-0-1 떠러티리지
32323-0-2	떨어뜨리-(使落)-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323-0-2 떠러트려서
32324-0-1	깨-(覺)-지 -고 -더라	32324-0-1 깨:찌
32324-0-2	깨-(覺)-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324-0-2 깨:서
32325-0-1	시-(酸)-지 -고 -더라	32325-0-1 시지
32325-0-2	시-(酸)-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325-0-2 셔서
32326-0-1	솟-(湧)-지 -고 -더라	32326-0-1 소찌
32326-0-2	솟-(湧)-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326-0-2 소서서
32327-0-1	좋:-(好)-지 -고 -더라	32327-0-1 조:치
32327-0-2	좋:-(好)-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327-0-2 조:아서
32328-0-1	빨갛-(赤)-지 -고 -더라	32328-0-1 빨거치
32328-0-2	빨갛-(赤)-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328-0-2 빨개서
32329-0-1	끌:-(曳)-지 -고 -더라	32329-0-1 끌치
32329-0-2	끌:-(曳)-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329-0-2 끄러서
32330-0-1	넓:-(廣)-지 -고 -더라	32330-0-1 널찌
32330-0-2	넓:-(廣)-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330-0-2 널버서
32331-0-1	하얗-(白)-지 -고 -더라	32331-0-1 하:야치
32331-0-2	하얗-(白)-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331-0-2 하:애서

3.2.2 곡용

32332-0-1	국(羹)-이/가	32332-0-1 구기
32332-0-2	국(羹)-을/를	32332-0-2 구글
32332-0-3	국(羹)-에(서)	32332-0-3 구기서
32332-0-4	국(羹)-으로	32332-0-4 구그로
32332-0-5	국(羹)-도	32332-0-5 국뚜
32333-0-1	논(沓)-이/가	32333-0-1 노니
32333-0-2	논(沓)-을/를	32333-0-2 노늘
32333-0-3	논(沓)-에(서)	32333-0-3 노니서
32333-0-4	논(沓)-으로	32333-0-4 노느로

32333-0-5 논(沓)-도	32333-0-5 논두
32334-0-1 쌀(米)-이/가	32334-0-1 싸리
32334-0-2 쌀(米)-을/를	32334-0-2 싸를
32334-0-3 쌀(米)-에(서)	32334-0-3 싸리서
32334-0-4 쌀(米)-으로	32334-0-4 쌀루
32334-0-5 쌀(米)-도	32334-0-5 쌀두
32335-0-1 봄(春)-이/가	32335-0-1 보미
32335-0-2 봄(春)-을/를	32335-0-2 보물
32335-0-3 봄(春)-에(서)	32335-0-3 보메서
32335-0-4 봄(春)-으로	32335-0-4 보므로
32335-0-5 봄(春)-도	32335-0-5 봄두
32336-0-1 집(家)-이/가	32336-0-1 지비
32336-0-2 집(家)-을/를	32336-0-2 지불
32336-0-3 집(家)-에(서)	32336-0-3 지비서
32336-0-4 집(家)-으로	32336-0-4 지브로
32336-0-5 집(家)-도	32336-0-5 집뚜
32337-0-1 옷(衣)-이/가	32337-0-1 오시
32337-0-2 옷(衣)-을/를	32337-0-2 오슬
32337-0-3 옷(衣)-에(서)	32337-0-3 오시서
32337-0-4 옷(衣)-으로	32337-0-4 오수루
32337-0-5 옷(衣)-도	32337-0-5 오뚜
32338-0-1 방(房)-이/가	32338-0-1 방이
32338-0-2 방(房)-을/를	32338-0-2 방을
32338-0-3 방(房)-에(서)	32338-0-3 방이서
32338-0-4 방(房)-으로	32338-0-4 방이루
32338-0-5 방(房)-도	32338-0-5 방두
32339-0-1 낮(晝)-이/가	32339-0-1 나시
32339-0-2 낮(晝)-을/를	32339-0-2 나슬
32339-0-3 낮(晝)-에(서)	32339-0-3 나제
32339-0-4 낮(晝)-으로	32339-0-4 나스루
32339-0-5 낮(晝)-도	32339-0-5 나뚜
32340-0-1 낯(顔)-이/가	32340-0-1 나시
32340-0-2 낯(顔)-을/를	32340-0-2 나슬
32340-0-3 낯(顔)-에(서)	32340-0-3 나세서
32340-0-4 낯(顔)-으로	32340-0-4 나스루

32340-0-5 낯(顔)-도	32340-0-5 나뚜
32341-0-1 부엌(廚)-이/가	32341-0-1 부어기
32341-0-2 부엌(廚)-을/를	32341-0-2 부어글
32341-0-3 부엌(廚)-에(서)	32341-0-3 부어키서
32341-0-4 부엌(廚)-으로	32341-0-4 부어그루
32341-0-5 부엌(廚)-도	32341-0-5 부억뚜
32342-0-1 밭(田)-이/가	32342-0-1 바시
32342-0-2 밭(田)-을/를	32342-0-2 바슬
32342-0-3 밭(田)-에(서)	32342-0-3 바시서
32342-0-4 밭(田)-으로	32342-0-4 바스루
32342-0-5 밭(田)-도	32342-0-5 바뚜
32343-0-1 앞(前)-이/가	32343-0-1 아피
32343-0-2 앞(前)-을/를	32343-0-2 아불
32343-0-3 앞(前)-에(서)	32343-0-3 아피서
32343-0-4 앞(前)-으로	32343-0-4 아피루
32343-0-5 앞(前)-도	32343-0-5 압뚜
32344-0-1 넋(魂)-이/가	32344-0-1 너기
32344-0-2 넋(魂)-을/를	32344-0-2 너글
32344-0-3 넋(魂)-에(서)	32344-0-3 너기서
32344-0-4 넋(魂)-으로	32344-0-4 너그로
32344-0-5 넋(魂)-도	32344-0-5 넉뚜
32345-0-1 흙(土)-이/가	32345-0-1 흐기
32345-0-2 흙(土)-을/를	32345-0-2 흐글
32345-0-3 흙(土)-에(서)	32345-0-3 흐게서
32345-0-4 흙(土)-으로	32345-0-4 흐그로
32345-0-5 흙(土)-도	32345-0-5 흑뚜
32346-0-1 여덟(八)-이/가	32346-0-1 여드리
32346-0-2 여덟(八)-을/를	32346-0-2 여드를
32346-0-3 여덟(八)-에(서)	32346-0-3 여드리서
32346-0-4 여덟(八)-으로	32346-0-4 여들로
32346-0-5 여덟(八)-도	32346-0-5 여들뚜
32347-0-1 돌(週歲)-이/가	32347-0-1 도리
32347-0-2 돌(週歲)-을/를	32347-0-2 도를
32347-0-3 돌(週歲)-에(서)	32347-0-3 도레
32347-0-4 돌(週歲)-으로	32347-0-4 돌로

32347-0-5 돌(週歲)-도 32347-0-5 돌두
32348-0-1 값(價)-이/가 32348-0-1 가비
32348-0-2 값(價)-을/를 32348-0-2 가블
32348-0-3 값(價)-에(서) 32348-0-3 품가비써
32348-0-4 값(價)-으로 32348-0-4 가브로
32348-0-5 값(價)-도 32348-0-5 갑뚜
32349-0-1 속:(內)-이/가 32349-0-1 소:기
32349-0-2 속:(內)-을/를 32349-0-2 소:글
32349-0-3 속:(內)-에(서) 32349-0-3 소:기서
32349-0-4 속:(內)-으로 32349-0-4 소:그로
32349-0-5 속:(內)-도 32349-0-5 속:뚜
32350-0-1 돈:(錢)-이/가 32350-0-1 도:니
32350-0-2 돈:(錢)-을/를 32350-0-2 도:늘
32350-0-3 돈:(錢)-에(서) 32350-0-3 도:니서
32350-0-4 돈:(錢)-으로 32350-0-4 도:느로
32350-0-5 돈:(錢)-도 32350-0-5 돈:두
32351-0-1 발(足)-이/가 32351-0-1 바리
32351-0-2 발(足)-을/를 32351-0-2 바를
32351-0-3 발(足)-에(서) 32351-0-3 바리서
32351-0-4 발(足)-으로 32351-0-4 발루
32351-0-5 발(足)-도 32351-0-5 발두
32352-0-1 짐(荷物)-이/가 32352-0-1 지미
32352-0-2 짐(荷物)-을/를 32352-0-2 지믈
32352-0-3 짐(荷物)-에(서) 32352-0-3 지미서
32352-0-4 짐(荷物)-으로 32352-0-4 지므로
32352-0-5 짐(荷物)-도 32352-0-5 짐두
32353-0-1 입(口)-이/가 32353-0-1 이비
32353-0-2 입(口)-을/를 32353-0-2 이불
32353-0-3 입(口)-에(서) 32353-0-3 이비서
32353-0-4 입(口)-으로 32353-0-4 이브로
32353-0-5 입(口)-도 32353-0-5 입뚜
32354-0-1 낫(鎌)-이/가 32354-0-1 나시
32354-0-2 낫(鎌)-을/를 32354-0-2 나슬
32354-0-3 낫(鎌)-에(서) 32354-0-3 나시서
32354-0-4 낫(鎌)-으로 32354-0-4 나스로

32354-0-5 낫(鎌)-도	32354-0-5 나뚜
32355-0-1 강(江)-이/가	32355-0-1 강이
32355-0-2 강(江)-을/를	32355-0-2 강을
32355-0-3 강(江)-에(서)	32355-0-3 강이서
32355-0-4 강(江)-으로	32355-0-4 강으로
32355-0-5 강(江)-도	32355-0-5 강두
32356-0-1 젖(乳)-이/가	32356-0-1 저시
32356-0-2 젖(乳)-을/를	32356-0-2 저슬
32356-0-3 젖(乳)-에(서)	32356-0-3 저시서
32356-0-4 젖(乳)-으로	32356-0-4 저스로
32356-0-5 젖(乳)-도	32356-0-5 저뚜
32357-0-1 꽃(花)-이/가	32357-0-1 꼬시
32357-0-2 꽃(花)-을/를	32357-0-2 꼬슬
32357-0-3 꽃(花)-에(서)	32357-0-3 꼬시서
32357-0-4 꽃(花)-으로	32357-0-4 꼬스로
32357-0-5 꽃(花)-도	32357-0-5 꼬뚜
32358-0-1 팥(赤豆)-이/가	32358-0-1 파시
32358-0-2 팥(赤豆)-을/를	32358-0-2 파슬
32358-0-3 팥(赤豆)-에(서)	32358-0-3 파시서
32358-0-4 팥(赤豆)-으로	32358-0-4 파스로
32358-0-5 팥(赤豆)-도	32358-0-5 파뚜
32359-0-1 옆(側)-이/가	32359-0-1 여피
32359-0-2 옆(側)-을/를	32359-0-2 여플
32359-0-3 옆(側)-에(서)	32359-0-3 여피서
32359-0-4 옆(側)-으로	32359-0-4 여프로
32359-0-5 옆(側)-도	32359-0-5 엽뚜
32360-0-1 삯(賃金)-이/가	32360-0-1 싸기
32360-0-2 삯(賃金)-을/를	32360-0-2 싸글
32360-0-3 삯(賃金)-에(서)	32360-0-3 싸기서
32360-0-4 삯(賃金)-으로	32360-0-4 싸그로
32360-0-5 삯(賃金)-도	32360-0-5 싹뚜
32361-0-1 닭(鷄)-이/가	32361-0-1 다기
32361-0-2 닭(鷄)-을/를	32361-0-2 다글
32361-0-3 닭(鷄)-에(서)	32361-0-3 다기서
32361-0-4 닭(鷄)-으로	32361-0-4 다그로

32361-0-5 닭(鷄)-도	32361-0-5 닥뚜
32362-0-1 밖(外)-이/가	32362-0-1 바끼
32362-0-2 밖(外)-을/를	32362-0-2 바끌
32362-0-3 밖(外)-에(서)	32362-0-3 바끼서
32362-0-4 밖(外)-으로	32362-0-4 바끄로
32362-0-5 밖(外)-도	32362-0-5 박뚜

제4편 문법

4.1 대명사

4.1.1 인칭대명사

40101	나
40101-0-1	내-가
40101-0-2	내
40101-0-3	나-를
40101-0-4	나-에게
40101-0-5	나-와
40101-0-6	나-는
40101-0-7	나-도
40102	저/제-가
40102-0-1	저-가
40102-0-2	저-의
40102-0-3	저-을/를
40102-0-4	저-에게
40102-0-5	저-와/과
40102-0-6	저-는
40102-0-7	저-도
40103	우리
40104	저희
40105	너
40105-0-1	-가
40105-0-2	-의
40105-0-3	-을/를
40105-0-4	-에게
40105-0-5	-와/과
40105-0-6	-는
40105-0-7	-도
40106	자네
40107	당신

40101	나
40101-0-1	내라를
40101-0-2	내
40101-0-3	나
40101-0-4	나한테
40101-0-5	나하구
40101-0-6	나는
40101-0-7	나두
40102	지:가
40102-0-1	내라
40102-0-2	내
40102-0-3	나
40102-0-4	나한티
40102-0-5	나허구
40102-0-6	나는
40102-0-7	나두
40103	우리
40104	저의
40105	너
40105-0-1	니가
40105-0-2	네
40105-0-3	너
40105-0-4	너한티
40105-0-5	너허구
40105-0-6	너는
40105-0-7	너두
40106	자네
40107	여보당신

40108	너희	40108	너의
40109	걔	40109	자네
40109-1	얘	40109-1	걔
40109-2	쟤	40109-2	얘라구
40110	자기	40110	쟤
40111	당신	40111	자기

4.1.2 의문대명사

40112	누구-요/누구십니까	40112	누구요
40112-0-1	누-가	40112-0-1	누구라
40112-0-2	누구-의	40112-0-2	누구
40112-0-3	누구-를	40112-0-3	누구
40112-0-4	누구-에게	40112-0-4	누구한티
40112-0-5	누구-와	40112-0-5	누구랑, 누구허고
40113	무엇-이냐/입니까	40113	무어냐, 뭐유
40113-0-1	무엇-이	40113-0-1	먿
40113-0-2	무슨	40113-0-2	뭐
40113-0-3	무엇-을	40113-0-3	뭐
40113-0-4	무엇-과	40113-0-4	뭐더구

4.1.3 그 밖의 의문사

40114	어디	40114	워디
40115	언제	40115	원제
40116	어느	40116	어떤
40117	왜	40117	어느
40118	얼마나	40118	왜
40119	어떻게	40119	월마나

4.1.4 지시대명사, 지시부사

40120	이것	40120	이게
40121	그것	40121	그게
40122	저것	40122	저게

40123	여기	40123	여기, 요기
40124	거기	40124	거기
40125	저기	40125	저기
40126	이리	40126	이루
40127	그리	40127	그루
40128	저리	40128	저루

4.2 조사

4.2.1 격조사

40201	-이/가	40201	목수라, 가비
40202	-이/가	40202	코가
40203	-을/를	40203	귀를
40204	-을/를	40204	*
40205	-에게/게	40205	사람한테
40206	-보고/더러	40206	말뚝뽀구, 누구한테, 누구더러
40207	-보고/더러	40207	누구한테(+다), 누구보구
40208	-에	40208	지비
40209	-에	40209	야:중이, 다으미
40210	-에서	40210	큰지비서
40211	-에서	40211	서울써
40212	-에서	40212	여기서
40213	-으로	40213	쌀루
40214	-으로	40214	지부루
40215	-으로	40215	산내끼루
40216	-으로	40216	워디루
40217	-와/과	40217	차뫼허구 수:박하구
40218	-와/과	40218	나하구
40219	-보다	40219	나보다
40220	-처럼	40220	뒈야지처럼
40221	-만큼	40221	너망큼
40222	-만큼	40222	망큼
40223	-아/야	40223	봉나마
40224	-아/야	40224	봉나미

40225	-아/야	40225	영수야
40226	-아/야	40226	누님
40226-1	-예	40226-1	*
40227	-아/야	40227	하라버지
40227-1	-요	40227-1	*
40228	-이랑	40228	수라구 고기허구, 수리랑 고기랑
40229	-커녕	40229	마:눠니랑사리

4.2.2 보조사

40230	-은/는	40230	수른 먹찌만 담:배는 안핀다
40231	-만	40231	딸만
40232	-도	40232	키두
40233	-마다	40233	날마두
40234	-부터	40234	오늘뿌터, 오널뻐텀
40235	-까지	40235	내일가장, 내일까장
40236	-조차	40236	물두, 물까장
40236-1	-할라	40236-1	*
40237	-이야/야	40237	사:라미야
40238	-을랑	40238	마릴랑
40239	-이라도	40239	부:자라두, 부:자래두
40240	-밖에	40240	너빼끼
40241	-가지고	40241	가지구

4.2.3 문장 뒤 조사

40242	오라-고 한다	40242	오라구
40243	알았어-요	40243	아라씨오
40244	했지-요?	40244	해:씨오

4.3 종결어미

4.3.1 명령법

40301	-아라	40301	안저라

40302	-게	40302	안께
40303	-으오	40303	안지쇼
40304	-으십시오	40304	안지쇼
40305	-세요	40305	안지쇼

4.3.2 청유법

40306	-자	40306	가자
40307	-세	40307	가세
40308	-으오	40308	가요
40309	-십시다	40309	가십시요
40310	-세요	40310	가요

4.3.3 의문법

40311	-니	40311	비오니
40312	-나	40312	비오니
40313	-오	40313	비오요
40314	-습니까	40314	비오요
40315	-나요	40315	비오요
40316	-니	40316	가니
40317	-나	40317	가나
40318	-시오	40318	가쇼
40319	-십니까	40319	가쇼
40320	-세요	40320	가쇼

4.3.4 서술법

40321	-는다	40321	멍는다
40322	-네	40322	멍네
40323	-오	40323	멍네요
40324	-습니다	40324	멍네요
40325	-네요	40325	멍네요
40326	-다	40326	작:따
40327	-네	40327	장:네

40328	-소	40328	자:거요
40329	-으십니다	40329	자:거요
40330	-으세요	40330	자:거요

4.3.5 반말

40331	-아	40331	아풍가
40332	-지	40332	머글꺼지

4.3.6 이다

40333	-이다	40333	지비다
40334	-이니	40334	생이리냐
40335	-이네	40335	생이릴쎄
40336	-인가	40336	생이리네
40337	-이오	40337	생이리여
40338	-이오	40338	생이링가
40339	-입니다	40339	생이리요
40340	-입니까	40340	생이링가요
40341	-이시지요	40341	생이리요
40342	-이시지요	40342	생시니요
40343	-이냐?	40343	생시니요, 생시닝가요
40344	-인가?	40344	생시니요
40345	-이오?	40345	생시닝가요
40346	-입니까?	40346	무어냐
40347	-인가요?	40347	무엉가
40348	-이야?	40348	무어요
40349	-이어요?	40349	무어요

4.3.7 그 밖의 종결어미

40350	-습니다	40350	마내요
40351	-습디다	40351	만테요
40352	-는구나/구나	40352	멍능구나
40353	-는구먼/구먼	40353	멍능구먼

40354	-일세	40354	오램마닐쎄
40355	-으마	40355	가프마
40356	-음세	40356	가껜네
40357	-을라	40357	다칠라

4.4 연결어미

40401	-고/-고서	40401	먹꾸서
40402	-으면서	40402	보먼서
40403	-어/-어서	40403	더워서
40404	-으니 /-으니까	40404	따뜨더니께
40405	-관데	40405	이리길래
40406	-다가	40406	오다가
40407	-거든	40407	만나걸랑
40408	-더라도	40408	쓰더래두
40409	-으려고	40409	머그랴구
40410	-도록	40410	새드락
40411	-을수록	40411	노풀쑤록
40412	-듯이	40412	쓰듣
40413	-지	40413	보지

4.5 주체 존대

40501	-셔	40501	오게, 오쇼, 와요도
40502	-셨소	40502	해씨요

4.6 시제

40601	웃는다	40601	운는다구
40602	기어간다	40602	기어간다, 긴다, 겨간다구두
40603	크다	40603	크다
40604	생일이다	40604	생이리다
40605	오고 있다	40605	오구이따
40606	먹었니?/잡수셨습니까?	40606	잡써쇼, 머건냐, 머건니
40607	왔었다	40607	와써따

40608	먹더라	40608	먹떠라
40609	먹더냐	40609	먹띠
40610	만나는 친구	40610	만나는
40611	만난 친구	40611	만난
40612	만났던 친구	40612	만나떤
40613	만날 친구	40613	만날
40614	큰 아이	40614	크내
40615	크던 아이	41615	크던
40616	컸던 아이	40616	커떤
40617	마시지 않겠다	40617	안케따
40618	비가 오겠다	40618	오거따, 그밀러라

4.7 부정

40701	안 먹었어/먹지 않았어	40701	안머거써, 먹짜내써
40702	안 좋다/좋지 않다	40702	안조타구
40703	안 깨끗하다/깨끗하지 않다/ 깨끗 안 하다	40703	안 깨끄더다, 깨까치 무:더다
40704	장가 안 갔다/장가가지 않았다	40704	장가가지 아내따, 안 가따
40705	만나 보지 않았다/안 만나 보았다/ 만나 안 보았다	40705	안 만나보아따, 만나보지 모:대따
40706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40706	먹뚜 안쿠
40706-1	먹도 않고	40706-1	먹뚜 안쿠
40707	못 마신다/마시지 못한다	40707	몸 마신다, 마시지 무:던다
40708	맞잖소?/안 맞소?	40708	마짜내쏘, 안 마자쏘, 마찌

4.8 사동과 피동

4.8.1 사동

40801	살리다	40801	살려따, 살린다
40802	늘리다	40802	늘린다
40803	말리다1	40803	말린다
40804	말리다2	40804	말린다
40805	얼리다	40805	얼린다

40806	녹이다	40806	노긴다
40807	신기다	40807	싱켜
40808	보이다	40808	뵌다
40809	알리다	40809	알린다
40810	입히다	40810	이핀다
40811	앉히다	40811	안친다
40812	벗기다	40812	베낀다
40813	웃기다	40813	우:낀다
40814	썩히다	40814	쎄킨다
40815	숨기다	40815	감춘다, 숭긴다
40816	굶기다	40816	궁긴다
40817	깨우다	40817	깨운다
40818	돋우다	40818	도둔다, 올린다

4.8.2 피동

40819	잡히다	40819	재핀다, 재펴따
40820	깎이다	40820	깨껴따
40821	끼이다	40821	끼어따
40822	떼이다	40822	띠여따
40823	채이다	40823	채:따
40824	닫히다	40824	닥처따
40825	들리다	40825	들린다
40826	업히다	40826	에펴따
40827	바뀌다	40827	바뀌어따
40828	씹히다	40828	씨핀다
40829	얹히다	40829	언:처따
40830	찍히다	40830	찌켜따
40831	눌리다	40831	눌:려서
40832	실리다	40832	실려
40833	끊기다	40833	끈켜따
40834	긁히다	40834	걸켜따, 글켜따, 걸커매따

4.9 보조용언

40901	싶다	40901	시풍게
40902	싶다	40902	시푸더니
40903	보다	40903	보쇼
40904	버리다	40904	버런네, 번전네
40905	대다	40905	싼네
40906	-나/는가 보다	40906	올라능게다, 오능게다
40907	-나/는가 보다	40907	자낭가보다, 자나보다, 자능가보다
40908	-나/는가 보다	40908	추웅게다, 충:가보다

4.10 부사

41001	실컷	41001	시큰
41002	많이	41002	마니
41003	너무	41003	너머
41004	조금	41004	조금만
41005	자주	41005	자주
41006	빨리	41006	빨리
41007	얼른	41007	얼릉
41008	기어코	41008	기여코
41009	가끔	41009	가:끔
41010	먼저	41010	먼저
41011	나중에	41011	야:중이
41012	가득	41012	꼭, 가뜩
41013	몽땅	41013	죄:, 죄:다, 몽땅
41014	모조리	41014	죄:다, 몽땅
41015	혼자	41015	혼자
41016	항상	41016	항상
41017	똑똑히	41017	똑뙤기
41018	겨우	41018	갱시니
41019	늘	41019	늘
41020	저절로	41020	저절루
41021	자꾸	41021	자꾸
41022	설마	41022	설마

41023	하마터면	41023	꾀따거먼
41024	함께	41024	항께
41025	걸핏하면	41025	얼피더믄
41026	공연히	41026	궤여니, 궤:니
41027	그냥	41027	그냥
41028	매우	41028	되:게
41029	곧장	41029	고창
41030	벌써	41030	벌써
41031	가장	41031	가장
41032	가만히	41032	가마니
41033	미리	41033	미리
41034	이따금	41034	드무딱

4.11 관용적 표현

4.11.1 관용구

41101	여보	41101	여보, 여봐요
41102	여보세요	41102	여보세요
41103	들어가세요	41103	드러가시오, 안냥이 기쇼
41104	수고하세요	41104	애:써쏘, 수고해쏘
41105	오랜만에 만난 친구 사이의 인사말	41105	반갑쏘
41106	아침 출근길에 마주친 동네 어른에게 하는 인사말	41106	안냥하서씨요
41107	오랜만에 찾아 뵌 어른에게 큰절을 올리면서 하는 말	41107	안냥하서씨요
41108	여기 있습니다	41108	여기씨오
41109	예	41109	예
41110	아니	41110	아니요, 아니
41111	아무렇지도 않다	41111	아무러치두 안타구
41112	내버려 둬	41112	내비러 두라구
41113	개나 소나 개나 소나 차를 몰고 다닌다	41113	개:나 소나

4.11.2 속담

41114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41114	미 빠진 도기다 물 붇끼
41115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41115	바늘 도두기 소 도둑 뙨다
41116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41116	부 란 땐 굴뚜게 연기 나랴

<Abstract>

A 2009 Investigation Report on Chung-Nam Dialect Vocabulary

This report of investigation contains the transcription of Seok-Min Jang and Jong-Hun Park's oral speech and the transcription data about Seok-Min Jang's vocablary, phoneme, and grammar. They are an elderly couple who live in Palbong-myeon Seosan-si Chungnam.

The amount of about four hours of their oral speech was selected and transcribed. The following is the summary of the contents investigated.

The primary informant dictated 'looking on a village', 'birth and growth', 'rice farming'(transplanting of young rice plants, the weeding of a rice paddy, an irrigation gate, etc.) and 'dry-field farming'(barley, wheat, potato, sweet potato, bean, garlic, vegetables, etc.), 'threshing', 'making living goods', 'cows'-kinds, choosing, raising, training-, 'serving as a farm servant', 'tenant farming', and 'community life' which includes 'working in turn for one another' and so on.

The secondary informant dictated 'marriage', 'married life in the home of the husband's parents', 'a banquet on one's 60th birthday', clothing - sewing, cutting out, laundering, dyeing, ironing, and food life-cooking side dishes, dish of cooked green vegetables, making Kimchi, etc.

The transcription of their oral speech was basically segmented into a sentence unit and was translated into standard Korean. When there was no appropriate standard Korean for the dialect vocabulary or it was natural to use the dialect vocabulary, the dialect vocabulary was used in the translation just as it was.

The dialect vocabulary corresponding to an investigation item was transcribed as a unit of Eojeol -sequence of one or more syllables, separated by spaces- when it was followed by a declensional or conjugational ending. When a head word had more than one dialectal form, they all were transcribed.

For phonological items, the phonetic form combining a stem with a ending was transcribed as a unit of Eojeol. For the case of an investigation item which was made to choose an ending, the endings, such as '-ko' and '-a/ese', which are easy to pronounce were selected and the investigation item was transcribed as a unit of Eojeol.

For the case of grammatical items, the part which includes the dialect vocabulary corresponding to an investigation item was transcribed as a unit of Eojeol.

The transcription represents the informants' actual pronunciation. However, the informants' pronunciation for orthographic form 'oe' was transcribed as [e] or [ɛ] and [e] was used for the case that the distinction of the two sounds was not clear. A long vowel and a impressive long sound were represented by ":" and "::", respectively, but the long sound which usually occurs in the final ending of the dialect vocabulary was not represented. The nasalized vowel was represented by "~" after the syllable. When [h] occurred in a word, its environment was shown by spacing words.

Keywords: Chungnam dialect Vocabulary, Standard Korean, Oral speech, Vocabulary, Phoneme, Grammar, Transcription, Phonetic notatio

국립 국어원 지역어 조사 추진 위원회

◈ 위원장　　이기갑 (목포대학교)

◈ 위　원　　강영봉 (제주대학교)

◈ 위　원　　김무식 (경성대학교)

◈ 위　원　　김봉국 (부산교육대학교)

◈ 위　원　　김정대 (경남대학교)

◈ 위　원　　박경래 (세명대학교)

◈ 위　원　　소강춘 (전주대학교)

◈ 위　원　　최명옥 (서울대학교)

◈ 위　원　　한영목 (충남대학교)

◈ 위　원　　홍윤표 (전 연세대학교)